매교동

개발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기억을 모으다

사랑이 번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비매품/무료

ISBN 979-11-90343-98-5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16

매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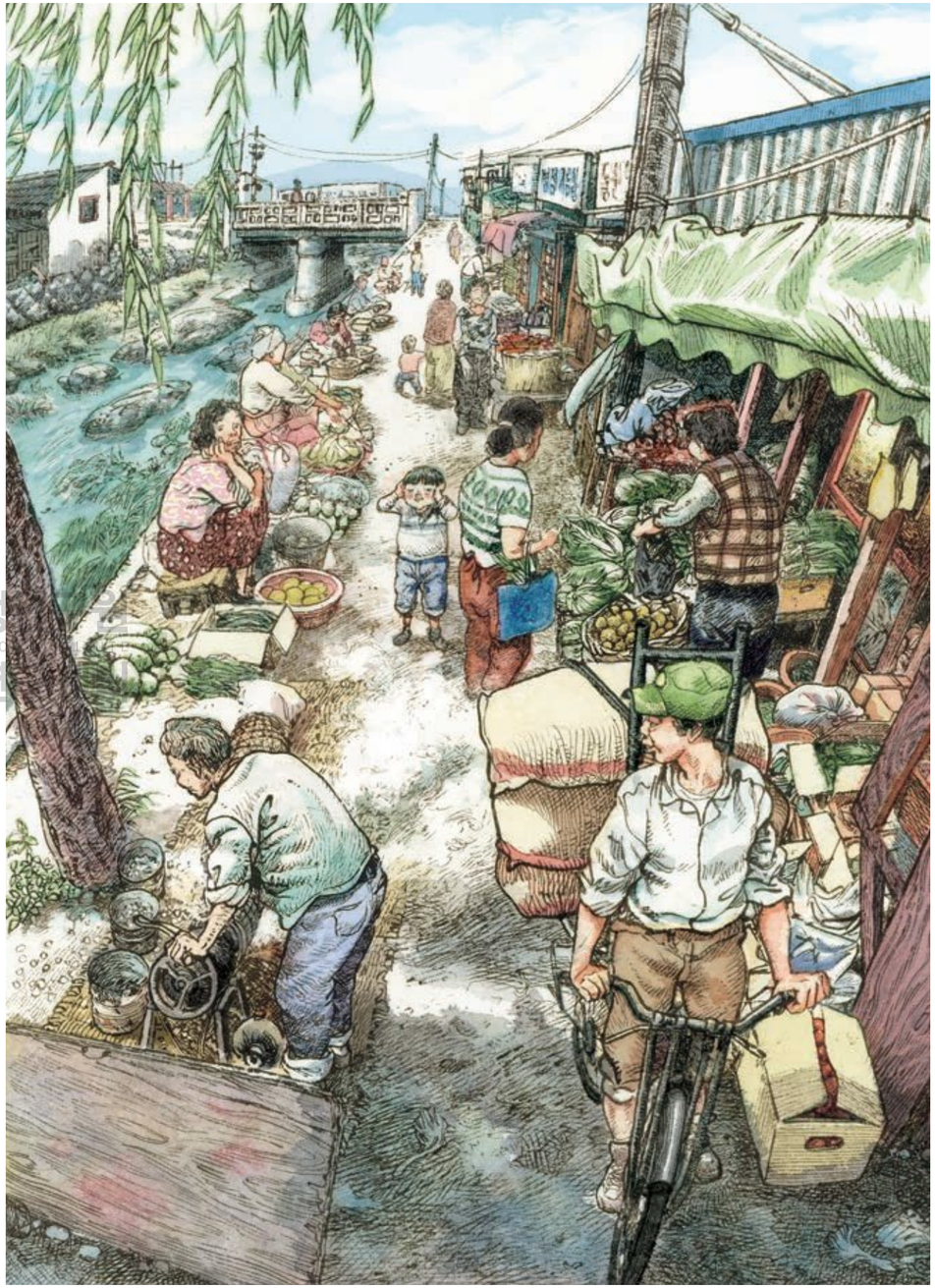
개발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기억을 모으다

수원시 매교동

사랑이 번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교동

개발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기억을 모으다

매교동

개발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기억을 모으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차례

1 梅校洞의 지리와 역사

제1장 | 매교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 007
제2장 | 매교동의 역사경관 변천 • 065
제3장 | 매교동의 도시화와 사회 변화 • 089
제4장 | 도시 지표를 이용한 매교동 쇠퇴 진단 • 143

2 校洞의 골목과 거리

제1장 | 수원 행정 1번지 교동 • 199
제2장 | 팔달산 기슭에 자리한 교동 주택가 • 243
제3장 | 교동 미술거리의 나날 • 269

3 梅橋洞의 마을 풍경

제1장 | 전쟁이 지나간 매교동 1번국도변 마을 • 291
제2장 | 매교동 기찻길 옆 마을 • 353
제3장 |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 • 393
제4장 | 매교동 랜드마크 문화맨션 • 421
제5장 | 111년간 수원 교육을 선도한 수원중고등학교 • 447

4 梅橋洞의 시장과 상가

제1장 | 매교시장의 형성과 변화 • 477
제2장 | 엔지니어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 매교동 공구상가 • 503
제3장 | 매교상가의 설립과 변천 • 525

5 梅校洞 사람들

제1장 | 매교동 가족의 삶 : 김수환과 이학분의 생애담 • 559
제2장 | 소설가 홍성원의 문학적 고향, 매교동 • 577
제3장 | '매교다리 쥔네' 오수복의 무계와 삶 • 595
제4장 | 대구 처녀 최영순의 교동 정착기 • 613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 1 부

梅校洞의 지리와 역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 매교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제2장 | 매교동의 역사경관 변천
제3장 | 매교동의 도시화와 사회 변화
제4장 | 도시 지표를 이용한 매교동 쇠퇴 진단

매교동은 수원화성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며,
마을의 중앙부에는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수원화성을 통과해 남서쪽으로 흐르는
수원천이 관통한다.
수원화성이 현대도시 수원의 진원지임을 고려하면
매교동 역시 수원화성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시가지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장 매교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1. 마을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

1) 수원의 중앙에 자리한 마을

매교동은 조선시대에 수원화성이 건립된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마을로, 역사는 수원시 중심 시가지보다 짧지만 외곽의 시가지에 비해 오래되었다. 시가지의 형성 역사가 오래된 마을은 대체로 한 도시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의 외곽으로 향할수록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늦어지게 마련이다. 매교동은 수원화성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며, 마을의 중앙부에는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수원화성을 통과해 남서쪽으로 흐르는 수원천이 관통한다. 수원화성이 현대도시 수원의 진원지임을 고려하면 매교동 역시 수원화성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시가지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청은 매교동의 동쪽인 인계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청은 매교동의 서북쪽 매산로3가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두 관청에서 매교동까지의 직선거리는 500m 내외에 불과하다. 수원시와 경기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청사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매교동이라는 마을이 들어선 곳의 지리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도 다소의 도움이 된다.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이 많은 관공서는 도시 내에서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모든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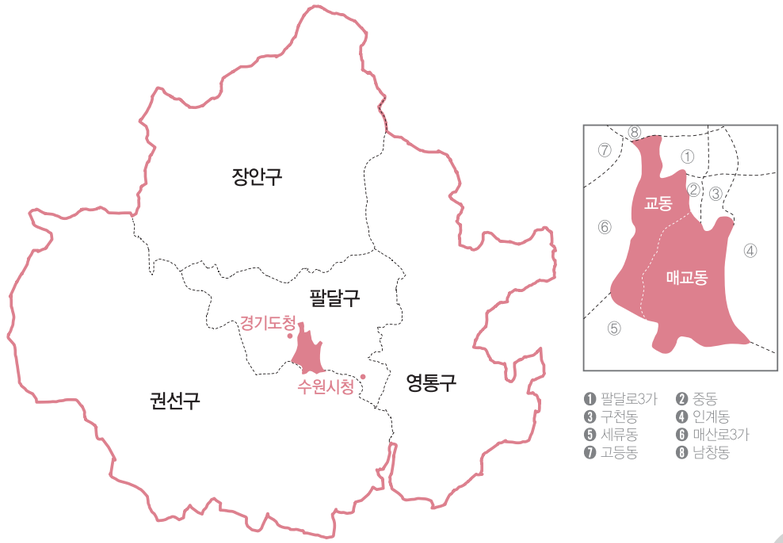


그림 1 수원의 중앙에 자리한 매교동과 주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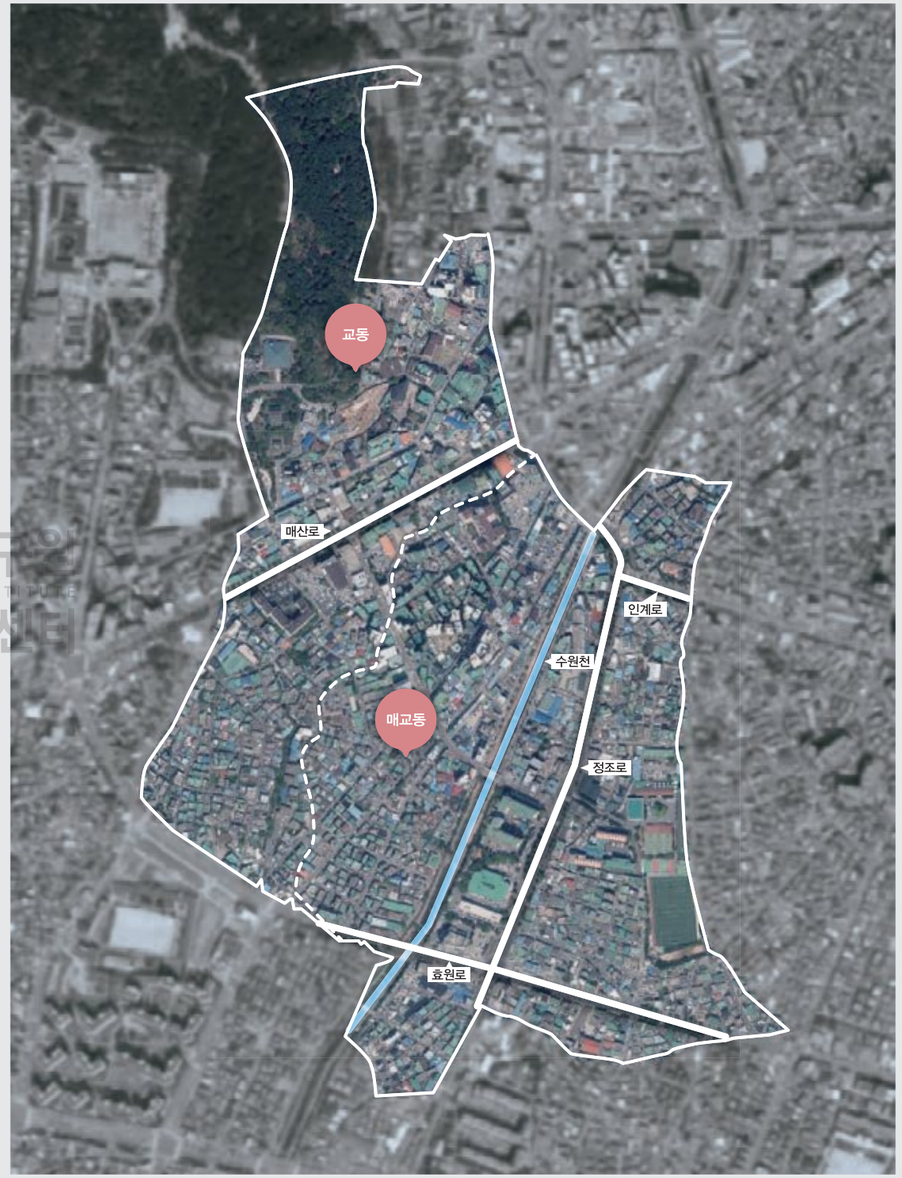


그림 2 매교동의 행정 경계와 주요 도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 매교동 역시 교통 편의성이 유리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매교동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으며, 매교동의 남쪽은 권선구 세류동과 경계를 형성한다〈그림 1〉. 동쪽으로는 수원시청이 자리한 인계동과 경계를 맞대고, 서쪽으로는 고등동과 닿아 있다. 북쪽에서는 수원화성의 팔달문에 접한 중동 및 구천동이 정조로를 경계로 닿아 있고 팔달로3가 및 남창동 역시 매교동의 북쪽에 접해 있다. 매교동 북쪽의 교동사거리에서 매교삼거리를 지나 수원천의 동쪽을 통과하는 정조로는 매교동을 다른 마을과 경계 짓는 길이기도 하고 매교동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도로이기도 하다. 정조로는 교동삼거리에서 매교삼거리까지의 구간에서 매교동을 중동 및 구천동과 나누지만, 매교삼거리에서 수원천을 건너 팽나무고개삼거리의 남쪽으로 뻗어 매교역을 지나는 구간에서는 매교동을 동서로 나누어 놓는다〈그림 2〉.

매교동의 동쪽에서 인계동과 경계를 이루는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대로나 중로가 아니다. 인계로에서 북쪽으로 분기한 인계로19번길에서 분기한 인계로9번길이 남

그림 3 수원화성 남쪽에 위치한 교동과 매교동(김승일 제공)

쪽으로 뻗어 효원로를 가로지르는 구간, 그리고 수원중학교 및 수원고등학교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솔밭사거리까지 이어지는 효원로165번길이 매교동을 동쪽의 인계동과 경계 지어 주는 도로이다. 매교동의 남쪽 경계 역시 폭이 넓은 도로가 아니다. 매교동의 남쪽으로는 효원로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지만, 이로부터 분기한 소로 및 정조로에서 분기한 정조로632번길이 정조로의 동쪽 구역에서 세류동과 경계를 이룬다. 정조로의 서쪽 구역에서는 정조로에서 분기한 도로 및 수원천로에서 분기한 도로가 각각 세류동과 경계를 이루고, 효원로가 수원천을 통과하는 교량인 세천교의 서쪽에서는 일부 구간만 효원로가 세류동과의 경계를 이룬다. 매교동의 서쪽에서 고등동과 이루어지는 경계 역시 소로 구간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매산로와 효원로를 연결하는 세류로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시가지 형성의 역사가 오래된 마을은 대체로 자연적으로 불규칙하게 형성된 도로망을 토대로 주택이 들어서고 건물이 세워짐에 따라 도로망이 반듯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러나 시가지 개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곳의 도로망은 폭이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직교형 또는 방사형의 도로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수원시에서도 시가지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앙부에서는 폭이 좁은 도로가 구불구불 시가지 사이를 통과하는 미로형 도로망이 많은 편이지만, 도시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같이 계획적으로 시가지가 조성된 곳은 매교동의 동쪽에 자리한 인계동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망이 직교형으로 형성된 곳이 많다.

도시의 중앙부에 자리한 마을은 그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 유지되는 곳이 많다. 특히 매교동은 수원천에 의해 마을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수원천은 하천 양안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생활권이나 문화권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천을 매개로 하천 양안의 사람들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는 수원천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장소를 하나의 마을 이름인 '매교(梅橋)'라 부른 것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수원의 중앙부에는 많은 마을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소규모의 공간 단위로 마을의 이름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매교동은 폭이 넓은 간선도로를 경계로 다른 마을과 구분되는 행정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고, 동을 가로지르는 수원천도 마을을 갈라놓는 경계로 이용되지 않았다. 실제 매교동에서 인접 마을과의 경계가 되는 도로를 바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만큼, 불규칙적인 마을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2) 수원화성 남쪽의 문밖마을(산루리)과 함께 성장한 마을

1905년 경부선 철도가 수원을 통과하면서 수원시가 본격적인 근대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던 1900년대 초반 매교동은 한적한 농촌마을이었으며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았다. 1960년대 들어 수원의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시가지가 수평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수원화성의 남문에 해당하는 팔달문의 동남쪽 방향에서도 점진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기존 농경지가 시가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경부선 철도의 수원역이 수원화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들어섬에 따라 팔달문과 수원역을 잇는 매산로가 매교동의 북쪽에서 동서 방향으로 개설되었다. 도로 개설 후 시가지는 수원역 주변과 매산로의 도로변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팔달문과 매산로의 남쪽에 자리한 지금의 매교동으로도 도시화의 물결이 서서히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므로 매교동의 도시화 시기는 수원화성보다 짧지만 수원시의 다른 시가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다. 매교동을 동서로 나누면서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정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국도1호선의 옛 구간이다. 일제강점기에 '신작로(新作路)'로 개설된 국도1호선은 본래 목포에서 경성까지의 국도3호선으로 개통되었지만,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정조가 수원화성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융건릉으로 능행을 갈 때 이용하던 길이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많았던 도로이다. 인적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매교동 일대의 도로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가옥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정조로 주변에 가옥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서쪽으로는 매산로 주변으로 시가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매교동은 정조로와 매산로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정조로 주변의 시가지와 매산로 주변의 시가지가 확장하는 접촉부인 셈이다. 따라서 매교동의 시가지 발달이 주변부에 비해 약간 지체되었을 수도 있지만, 북쪽에는 팔달문 주변에서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만큼 매교동의 도시화 시기는 팔달문 남쪽 마을의 도시화 시기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팔달문에 접한 남쪽의 교동·중동·구천동·영동·팔달로3가는 '문밖마을'로 불리는 곳으로 산루리에 해당한다. 문밖마을은 수원화성이 만들어지고 팔달문을 중심으로 남문외장(南門外場)이 들어섰을 때부터 수원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매교동의 도시화는 문밖마을의 도시화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화의 역사가 오래된 매교동은 도시공간의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마을이며, 도시재개발 사업 계획의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4 매교동 도로망(수원시청 토지관리과 제공)



그림 5 정조로



그림 6 매산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마을 이름과 행정구역의 변천

1) 정조가 거닌 매교가 있던 매교동(梅橋洞)

매교동(梅橋洞)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수원 지방에 화성을 건립하도록 지시한 정조와 관련이 있다. 매교는 글자 그대로 다리의 이름이다.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는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융건릉에 참배하러 매년 수원을 통과했으며,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성행궁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화성행궁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융릉으로 이동할 때에는 팔달문을 지나 수원천을 건너서 가야 했는데, 이때 수원천을 건너던 다리가 매산교(梅山橋)였다. 이후 매산교의 이름은 1795년(정조 19)에 매교로 변경되었다. 본래의 매교는 지금의 매교교(매교다리) 자리보다 하류 쪽에 있었다고 한다. 매교는 수원천 복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폭이 넓어졌으며, 매화다리로 불리기도 한다.

정조는 한양에서 과천을 지나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화성에 도착하였다. 화성의 행궁에서 나설 때에는 신풍루를 거쳐 팔달문을 통과하며 수원천의 매교(梅橋)를 거쳐 매교동 남쪽의 하류천(下柳川)을 지나 대황교를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여 융건릉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이동하였다. 팔달문을 나와서 이어지는 구체적인 여정은 매교삼거리–상류천–만화현–건장동–하류천으로 이동하는 경로이다. 1872년에 제작된 수원부지도에서도 수원화성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수원천과 그 수원천을 건너는 다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매교는 수원화성의 장안문에서 팔달문을 지나 남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통과하는 구간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매교의 동쪽에서는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와 동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함께 묘사되어 있다.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지금의 정조로이고 동쪽으로 뻗은 도로는 지금의 인계로에 해당하는 도로이다. 정조는 이동 경로에 표석을 세웠는데 매교와 상류천에 각각 표석을 세웠다고 한다. 매교에 세웠던 표석은 사라졌지만, 상류천에 세웠던 표석은 세류동 현장에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수원은 물의 도시라 불리기도 할 만큼 일찍부터 물이 많았으며, 이는 곧 지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수원에는 물과 관련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매산(梅山), 매교(梅橋)처럼 '매'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대부분 물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매'는 한자의 뜻을 풀어 해석할 필요가 없는 지명소이며, 단순히 물을 가리키는 고어(古語)에 해당한다.[1]



그림 7 『1872년 지방지도』 중 수원부지도에 묘사된 향교와 매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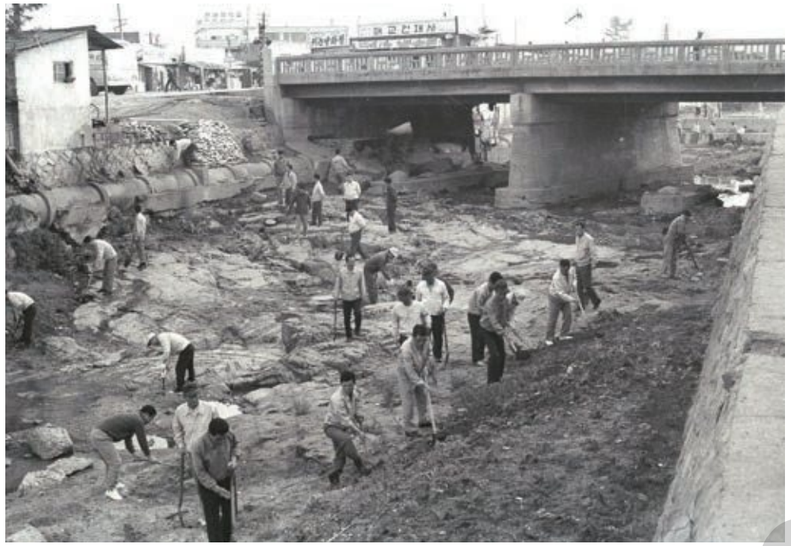


그림 8 매교다리(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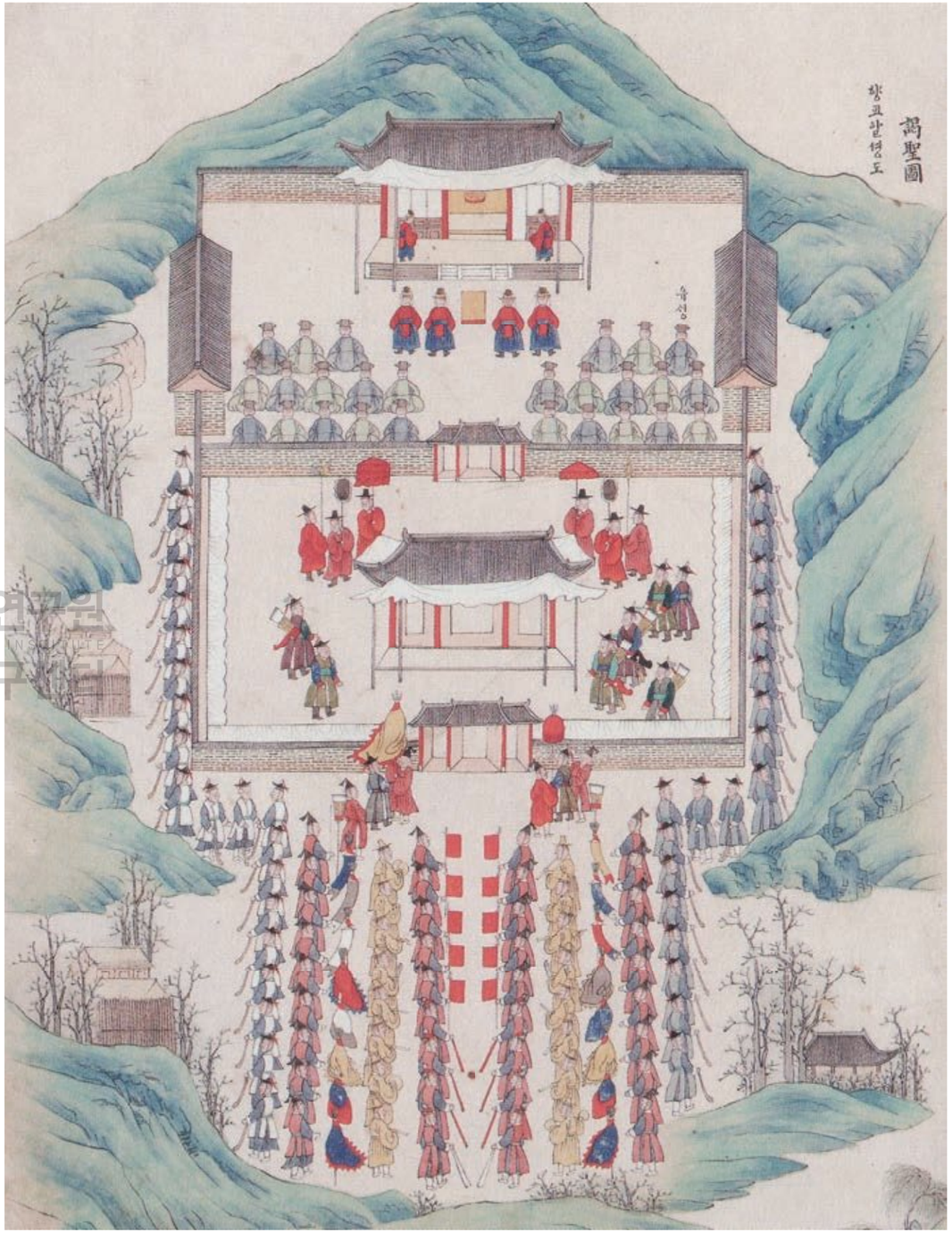


그림 9 조선시대 수원향교(「알성도」, 『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수원향교가 있는 교동

행정동 매교동의 법정동 가운데 하나인 교동(校洞)은 이 마을에 수원향교가 있다는 데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수원향교는 수원 한복판인 팔달산 남쪽 기슭인 교동 44번지에 있다. 본래 수원향교는 지금의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었지만, 수원화성이 축조된 이후 1795년경 현재의 자리로 옮겨 새롭게 건립되었다. 교동은 수원향교가 있어서 예로부터 향교골 또는 교촌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이로부터 향교재(수원향교의 서쪽에 있는 매산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고개)라는 명칭도 생겨났다.

수원향교에 들어서는 입구의 왼쪽에는 말에서 내려야 하는 장소임을 알려 주는 하마비가 있다. 향교는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이 자리하고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을 두었다. 수원향교는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향교의 앞쪽을 통과하는 도로의 명칭은 향교로이다. 향교로는 도로명 주소에 따라 부여된 명칭이고, 본래는 향교길이었다. 향교로는 1795년 정조가 배향을 위해 향교를 오갈 때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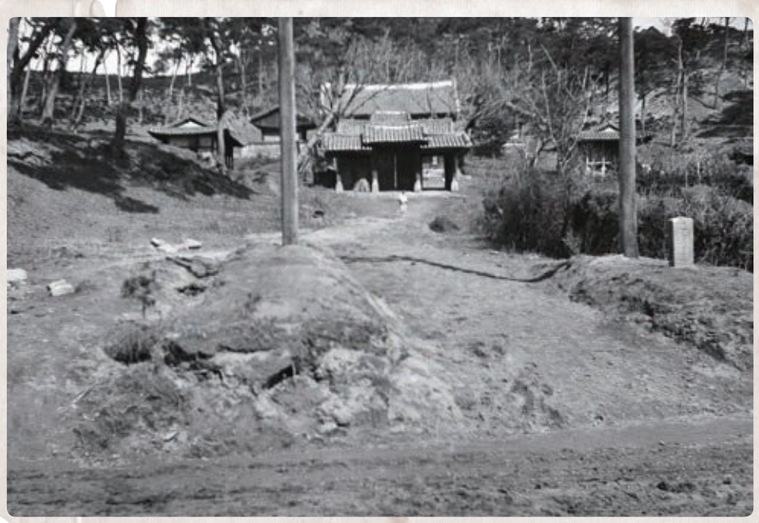


그림 10 일제시기 수원향교(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던 유서 깊은 도로로, 1904년에 확장 개통되었으며 중동사거리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3) 매교동의 두 고개 : 태장면고개와 팽나무고개

고도가 높은 산줄기가 매교동을 통과하지는 않지만, 매교동에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물자가 많이 이동하던 고갯길이 두 개 있었다. 고갯길의 이름은 매교동의 동남쪽에 있는 태장면고개와 동북쪽에 있는 팽나무고개이다.

태장면고개는 매교역에서 수원시청 방향의 동쪽으로 이동하면 만나게 되는 고개이다. 태장면은 과거 매교동을 관할했던 안룡면의 동쪽에 있던 수원군의 행정구역 명칭이다. 1914년 태장면이라는 행정구역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태장면과 안룡면의 경계는 지금의 인계동과 매교동 사이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태장면고개는 과거 안룡면에서 태장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길목이었던 셈이다. 일제강점기 태장면고개는 매교



그림 11 1972년 태장면고개(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12 1995년 태장면고개 도로공사(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13 팽나무고개삼거리

동에서 수원중학교를 지나 태장면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유일하게 우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태장면에 편제되었던 지역은 지금의 지동·구천동 일부·인계동·우만동 등지이고, 안룡면에 편제되었던 지역은 지금의 매교동과 세류동 등지이다. 과거 태장면고개〈그림 11〉 일대는 산록을 따라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고개 남쪽의 세류동에는 수원화장터가 있었다. 태장면고개 근처에 있던 화장터는 인계동으로 옮겨져 수원시립화장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세류동 화장터는 현재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팽나무고개〈그림 13〉는 수원천 동쪽의 고갯길을 가리킨다. 그곳에는 팽나무와 정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매교동과 인계동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기도 하다. 원래는 지금 팽나무가 있는 곳보다 더 안쪽에 커다란 팽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지만, 팽나무는 누군가에 의해 베어졌다. 매교동 주민은 물론 수원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팽나무는 마을을 인식하는 주요 지표였다. 비록 과거의 팽나무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수원시민은 팽나무가 있던 곳을 팽나무고개삼거리라 부를 만큼, 팽나무는 매교동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넓은 길가에 새로 팽나무를 심었으며 지금은 높이 15m 정도의 작은 팽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다. 팽나무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매교동의 팽나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기록이 아닌 팽나무의 일반적인 성격에 관한 글이다.

팽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정자가 설치된 곳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동서 방향으로 뻗은 인계로가 바로 보인다. 팽나무고개가 있는 곳의 서쪽 삼거리는 팽나무고개삼거리로 불리며, 이 삼거리는 수원천을 가로지르는 매교에서 동남쪽으로 7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도로가 구부러지는 지점에 있다.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뻗은 도로는 인계로이다.

4) 행정구역 변천

매교동(梅橋洞)은 1789년 수원부 읍치(邑治)가 수원화성으로 옮겨 오기 전에는 수원부에 속하는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다. 1789년(정조 13) 9월 지금의 화성시에 있었던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기고 1796년 화성 신도시를 건설한 후 팔달산 주변을 수원군 남부(南部)와 북부(北部)로 나누었을 때 매교동은 수원군 남부면에 속하였다. 1831년에 발간된 『화성지(華城誌)』에 따르면, 당시 남부에는 20개 동이 있었지만 매교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구역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산루동(山樓洞)이 있었는데, 지금의 매교동은 산루동에 포함되었다. 한편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조사하여 1789년에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광교면 매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매교의 원래 이름이 매산교였음을 고려하면 매산리가 지금의 매교동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

1914년 4월 1일 일제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때에 수원군 남부면은 수원면·일형면·태장면·안룡면으로 재편되었고, 현재 교동과 매교동(梅橋洞)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원면 산루리, 태장면 인계리, 안룡면 세리에 편제되어 있었다.

한편 1931년 4월 1일 수원군 수원면은 읍으로 승격했으며, 1936년 10월 1일에 수원읍의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당시 수원읍에 인접해 있던 일왕면, 안룡면, 태장면의 일부를 수원읍에 편입하였고 리(里)를 정(町)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1914년 수원면 산루리에 속하였던 교동(校洞)은 1936년 수원면 산루리 일부와 안룡면 세리 일부가 합쳐져 궁정(宮町)으로 편제되었고 1949년에 다시 교동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교동을 궁정이라 불렸던 이유는 1915년 12월에 일본인들이 건립한 수원신사(水原神社)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신사가 수원향교를 굽어보는 팔달산 중턱에 자리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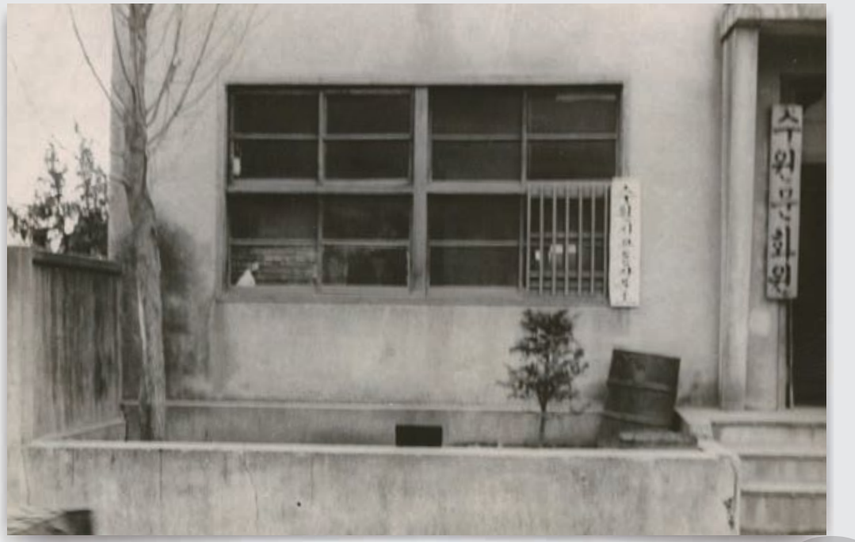


그림 14 1949년 교동사무소(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15 1949년 매교동사무소(수원박물관 제공)
매교동 142번지로 현 연향예스빌아파트 자리이다.

원신사가 수원향교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가 도시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3] 이때 수원읍 산루리 일부, 안룡면 세리 일부, 태장면 인계리 일부를 합하여 남부정(南部町)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지금의 매교동(梅橋洞)을 구성하는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지명 가운데 '정'자를 붙인 것은 기존 지명에 붙인 것이므로, 대부분의 수원 지명은 일본인이 많이 거주했던 개항장인 인천에서와 달리 일본 본토의 지명을 이식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면서 궁정은 교동으로, 남부정은 매교동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1963년 1월 1일 화성군 일왕면·안룡면·태장면 등의 일부 마을을 수원시로 편입하면서 수원시는 47개 법정동을 17개 행정동으로 편제하였는데, 법정동 매교동(梅橋洞)과 법정동 교동(校洞)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두 동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행정동 매교동(梅校洞)이 탄생하였다.

이어 1988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하여 수원시에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신설되었다. 이때 매교동은 권선구에 편제되었다. 1992년에는 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매교동의 일부 지역이 세류동으로 편입되었다. 1993년 2월 1일 팔달구가 신설되면서 매교동은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소속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5) 매교동(梅校洞)과 매교동(梅橋洞)

수원시에서 매교동은 한글로만 보면 행정동(行政洞) 명칭으로도 존재하고 법정동(法定洞) 명칭으로도 존재한다.[4] 그러나 행정동명 매교동과 법정동명 매교동은 한자가 다르게 표기된다. 앞에서 수원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된 장소를 하나의 마을 이름인 매교라 불렀다고 언급하면서 한자 지명을 함께 표기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행정동 명칭이 梅校洞으로 표기되는 이유는 법정동인 매교동(梅橋洞)과 교동(校洞)을 관할하는 행정동이므로, 각 법정동 명칭에서 한 글자씩 채택했기 때문이다.[5]

매교동행정복지센터의 안내문에 따르면, 행정동 매교동은 이미 1963년에 최초로 신설되었을 때부터 梅橋洞으로 표기되었으며 이후 한자 표기를 변경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동 매교동의 한자 표기도 법정동 매교동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6] 이는 2001년에 수원시에서 발행한 『수원의 길이름』이란 책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수원시에서 1986년에 간행한 『수원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16 1984년 매교동사무소(수원박물관 제공)
현 유천파출소(매교동 77-63) 자리이다.



그림 17 1996년 매교동사무소 준공(수원박물관 제공)

사』 및 현재 발행되고 있는 『수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정동 매교동과 교동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행정동의 명칭은 매교동(梅校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교동은 수원향교가 있는 곳이라는 데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에는 법정동의 경계와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수원시에는 56개의 법정동과 44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같은 지명을 기준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하는 곳은 9개뿐이다.[7]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문서에 사용되는 법정동은 도시화에 따른 시가지의 확대, 인구 증가,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 도모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법정동의 경계가 넓지 않아 인구 규모가 작거나 시가지 형성 시기가 오래되어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마을의 이름이 그대로 법정동 명칭으로 굳어진 곳에서는 다수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되어 관리된다. 수원시에서 도시화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앙의 팔달구에는 22개의 법정동이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행정동은 10개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수원시의 동쪽에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었던 영통구에는 7개의 법정동에 12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다.

매교동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매교동행정복지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89번길 60(매교동 88-1번지)에 있다. 효원로는 매교동의 서쪽 도청오거리에서 매산로와 교차한 후, 동쪽으로 뻗어 매교역사거리를 지나 수원시청을 통과하고 영통구청이 자리한 영통구청사거리까지 이어지는 4.3㎞ 구간의 도로이다. 매교동의 면적은 71만 4,785㎡(매교동 : 42만 3,510㎡, 교동 : 29만 1,275㎡)에 불과하며, 수원시의 43개 행정동 가운데 가장 작



그림 18 2019년 매교동행정복지센터(매교동 88-1번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수원시의 56개 법정동을 기준으로 면적 순위를 따지면, 매교동은 40위이고, 교동은 42위에 해당한다. 2019년 수원시 전체 면적은 121.04㎢에 달했지만, 매교동 면적은 0.71㎢에 불과하여, 매교동이 수원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은 0.59%이다.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행정동 매교동에는 3,313세대에 6,881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3,696세대에 7,689명이 거주하였다. 수원시 인구 규모가 2019년 들어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매교동의 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3. 팔달산을 등지고 수원천을 마주하는 매교동

1) 수원천변에 자리한 마을

매교동은 수원시 북쪽의 시 경계부에서 현대도시 수원의 진산 역할을 하는 광교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원화성의 서쪽에 자리한 팔달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한다. 팔달산의 기슭에 있지만, 매교동의 시가지가 들어선 곳은 산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경사가 완만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매교동은 수원시에 있는 주요 산지나 산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는 마을이며,[9] 마을 주변을 통과하는 두드러진 산줄기도 발달해 있지 않다. 매교동의 북쪽에 있는 팔달산 역시 특정의 산줄기로 이어지는 산이 아니라 평평한 곳에 홀로 솟아 있는 잔구성 산지의 특징을 보인다. 지금의 팔달산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침식을 덜 받은 산지로 남아 있지만, 그 주변부는 침식을 많이 받아 대부분 평평하거나 경사가 극히 완만한 지형으로 남아 있다.

수원시를 흐르는 하천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매교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하천은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수원화성을 지나 매교동으로 흘러오는 수원천이다. 수원천은 주변의 기반암인 화강암의 풍화층을 차별적으로 침식시킴으로써 비교적 단단하지 않은 화강암 주변에 해발고도가 아주 낮은 구릉지를 만들어 놓았다. 매교동을 관통하는 수원천은 하천 변에 충적지의 성격을 지니는 소규모의 범람원을 형성시켰으며, 하천 배후에 형성된 범람원은 일찍부터 주변에 거주하던 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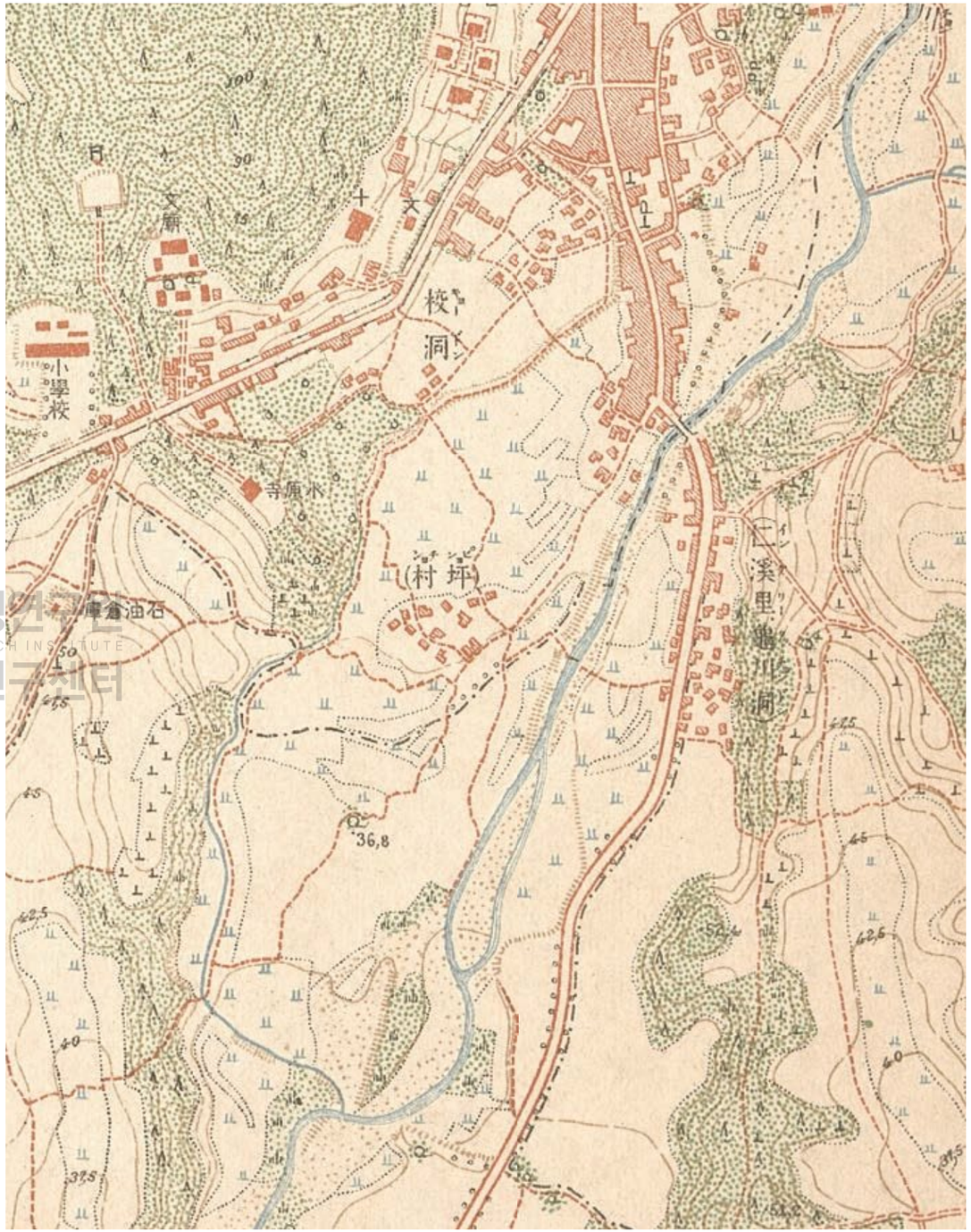


그림 19 1917년 농촌적 성격이 강했던 매교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20 1966년 교동과 매교동(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그림 21 1977년 하천정비사업(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교동의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1917년에 제작된 지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매교동은 시가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매교동의 서북쪽에 뻗은 직선도로는 팔달문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매산로이다. 매산로 주변과 매교동 북쪽의 문밖마을에는 도로변을 따라 시가지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매교동은 문밖마을에 접한 신작로 주변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토지이용이 주로 논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원향교 남쪽의 교동 일대는 과수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수원화성의 남쪽에서, 수원천은 팔달산의 산자락에서 뻗어 내린 산록과 수원천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던 산줄기의 사이를 통과하는 하천이다. 매교동의 동쪽에 붙어 있는 인계동은 현재 대규모의 시가지 개발사업으로 대부분 평평한 지형에 시가지가 들어서 있지만,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북쪽에서부터 뻗어 내린 고도가 낮은 산줄기의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수원천의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뻗은 산줄기는 해발고도가 최고 52m에 달했을 만큼 주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야산을 이루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 이 산줄기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22 2000년대 매교동과 수원천

매교동 북쪽의 매교동성당이 있는 곳은 여전히 고갯길처럼 남아 있어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팽나무고개 역시 주변 지역보다 고도가 조금 높은 곳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지금은 수원천이 직강공사를 통해 유로가 반듯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자연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에 하천의 유로가 구불구불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현대와 과거의 차이점이다.

1910년대 매교동에는 평촌(坪村)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었다〈그림 19〉. 농경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들판을 의미하는 '평'자를 이용한 마을 이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주변의 농경지를 경작하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을 것이며, 마을 앞으로는 농경지와 하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태를 취하였다. 수원천변의 농경지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문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생계의 터전인 문전옥답(門前沃畓)이었을 것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23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수원천(201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이다. 한편 지금의 매교삼거리 일대에는 수원화성의 팔달문에서부터 문밖마을을 통해 이어진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오솔길을 사이에 두고는 개별 가옥이 들어서 있던 모습도 볼 수 있다. 수원천 동쪽으로 뻗은 도로는 지금의 정조로이고, 과거에는 목포에서 경성까지 이어지던 신작로였다. 신작로 주변에는 가옥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으며, 북쪽에서는 가옥이 도로변을 따라 연속적으로 들어선 가촌(街村)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천은 현대에 들어 시가지를 이동하는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하천의 상부를 시멘트로 덮어 버렸다. 1994년 수원시에서는 옛 도심의 한복판에서 교통체증이 심해짐에 따라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수원천을 복개하고 그 상부에 4차로의 도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복개 구간이 짧아 오히려 자동차 교통의 병목현상이 심화되었고, 생활하수의 유입에 따른 수원천 수질 오염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동교에서부터 매교동의 매교교에 이르는 구간의 복개도로가 철거되었고 수원천은 2012년 4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다.

수원천 복원은 환경적 측면에서 하천이 숨을 쉬게 됨으로써 수질이 개선되고, 도심에서도 바람 길이 확보되면서 도심의 열섬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진다. 또한 친수공간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매교동 일대의 활기도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복개되었던 수원천이 복원됨에 따라 매교동 구간에서도 수원천의 생태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주민들은 수원천을 보다 가까운 장소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수원천의 양 옆으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수원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수원천은 최초의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거듭났으며, 하천을 걷다 보면 곳곳에 있는 문화재도 만나 볼 수 있다. 매교동의 세천교–새마을교 구간은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를 비롯하여 국화·해바라기·메리골드·코레우스 등의 아름다운 꽃을 식재해 꽃길로 조성되기도 한다.[10] 한편 수원천에는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라미·돌고기·각시붕어·얼룩동사리·버들치·밀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수원천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보가 물길을 막아 물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원천에는 잉어도 많이 서식한다. 외래어종은 수원천에 서식하지 않는다.[11]

2) 완만한 구릉지에 형성된 마을

수원시의 지세는 시의 북쪽에 자리한 광교산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할수록 해발고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옛 중심지는 해발고도가 40m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수원화성보다 수원천의 하류에 있는 매교동은 북쪽의 매교삼거리 일대에서 해발고도가 약 38m이고, 남쪽의 세류동과 경계를 이루는 효원로 일대의 해발고도는 30m 내외에 불과하다. 수원천의 하류부로 향할수록 해발고도는 점차 낮아진다. 수원천의 양안은 수원천보다 해발고도가 약 2~3m 높으며, 수원천에서 멀어질수록 해발고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수원천의 범람으로부터 마을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으로 수원천변은 오래전부터 농경지로 활용되었다. 매교동이 자리하고 있는 곳도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소규모의 마을과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원천에서 서북쪽으로는 팔달산에서 뻗어 내린 산사면이 자리하고 있다. 매교동은 수원을 상징하는 하천인 수원천과 팔달산 남쪽의 완사면에서 오래전에 형성된 마을로, 마을의 뒤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농경지와 하천이 자리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징을 갖춘 곳에 입지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민족이 일찍부터 주거지를 선정하고 집터를 고르기 위해 이용했던 풍수지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동에는 수원향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길지(吉地)라 간주되는 곳에 향교가 입지한 것이다.

수원천 동쪽에 있는 매교동 동남단의 솔밭사거리 근처에는 태장면고개라는 이름의 버스정류장이 있다. 태장면고개는 과거 매교동의 동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넘어가던 고갯길이었으며, 과거 이곳이 수원군 태장면으로 향하는 고개라는 데에서 명칭이 생겨났다. 1917년 모습을 보여 주는 지도에서 매교동의 남쪽 경계에 도로가 있었으며, 이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효원로 구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매교역사거리와 솔밭사거리의 중간 지점이다. 과거에는 태장면고개 일대의 산록이 대부분 과수원이었다.[12] 사람이 많이 거주하던 도회지 주변 지역은 오래전부터 도회지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채소나 과일이 재배되었다.[13] 매교동의 동쪽에 있던 산록은 일제강점기 수원의 중심부에 살았던 사람들이 소비하던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던 근교농업지역의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제강점기 매산로 주변에 과수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1917년 지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도시 수원의 모습을 통해 매교동과 그 일대의 지형적 특징을 알아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 수원천과 그 주변의 농경지로 이루어졌던 자연지형이 오랜 기간에 걸친 수원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인공지형으로 변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24 2003년 완만한 구릉지에 형성된 매교동(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원천변에 자연제방만 존재했지만,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제방이 설치됨으로써 수원천변의 제방은 과거에 비해 고도가 높아졌다. 높아진 제방 덕분에 수원천의 범람에 따른 피해가 줄어듦에 따라 하천 양안의 구릉지에는 주택을 비롯한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팔달산의 산사면을 흘러 내려온 소규모 하천이 지금의 매교동을 지나 수원천에 합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팔달산 기슭에서 흐르던 하천은 주변의 고래실논처럼 형성된 농경지 사이를 흘러 내려오면서 논에 농업용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4. 수려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통과했던 매교동

1930년 12월에는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경기 동부의 여주와 이천 지방에서 생산된 미곡을 빼앗아 가기 위해 수원에서 여주에 이르는 구간에 수려선(水麗線) 철도를 개설하였다. 수려선은 기점인 수원역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노선이 출발하였다. 따라서 수려선 철도는 매교동 남서쪽의 세류동에서 매교동을 통과하여 팔달문 남쪽에 있던 화성(본수원)역을 경유하였다.[14] 수려선이 수원천을 따라 동북 방향의 화성역으로 통과하는 구간에 매교동이 포함되었다.

수려선이 통과하던 매교동은 1940년대에 지금의 매교삼거리에서 수원천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도시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으며, 철도의 부설로 매교동 일대 농경지의 상당 부분이 철도 부지로 편입되었다. 수려선 철도는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도로교통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수원과 여주 사이의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72년 4월 1일 모든 구간이 폐지되었다. 1950년 4월 신문기사에 따르면, 수원역에서 수려선을 타고 여주까지 이동하는 데 약 5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15] 수려선 철길은 1973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수려선 철도가 운행을 중단한 이후에는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

매교동은 수원시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도시 내를 통과하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마을이다. 매교동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에는 정조로가 있으며, 효원로·인계로·매산로 등은 매교동을 다른 마을과 이어 주는 간선도로이다. 이들 간선도로에서 분기한 도로들이 매교동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지만, 대체로 도로의 폭이 좁은 소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매교동을 관통하는 정조로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도 1호선이 통과하던 구간이었다.



그림 25 1972년 매교다리와 수려선 철교(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국도 1호선은 본래 수원천의 동쪽을 따라 매교동을 관통하여 매교삼거리와 교동사거리를 지나 수원화성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서울 방향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국도 1호선은 서울과 수원의 남부 지방을 운행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도심에서의 교통 혼잡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기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도 1호선이 통과하던 수원 중심부의 옛 구간을 동쪽으로 우회시켜 인계동을 통과하는 지금과 같은 노선으로 재편되었다. 기존 국도 1호선의 구간이었던 정조로가 왕복 4차로로 구성되는 반면 인계동을 통과하는 국도 1호선 구간은 왕복 8~10차로로 구성된다. 정조로는 화성시 병점동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일왕삼거리에 이르는 광역도로로서, 수원화성을 건설하도록 지시한 조선 제22대 왕이었던 정조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이 부여되었다.

매교동의 남쪽으로는 효원로가 통과한다. 효원로는 팔달산 기슭의 경기도청 앞에서부터 매교동과 인계동을 거쳐 영통구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정조의 효 사상을 이어받고 효의 도시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여된 도로명이다. 도로의 폭은 왕복 4~6차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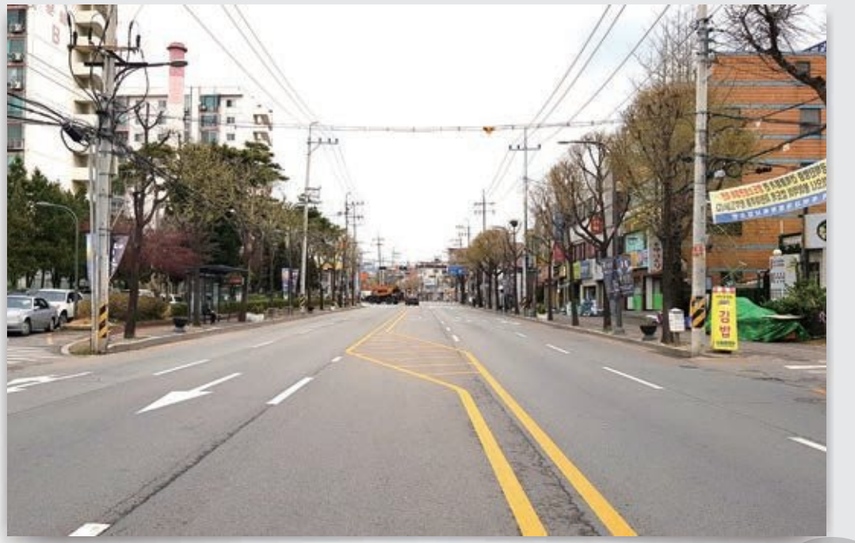


그림 26 정조로(옛 국도 1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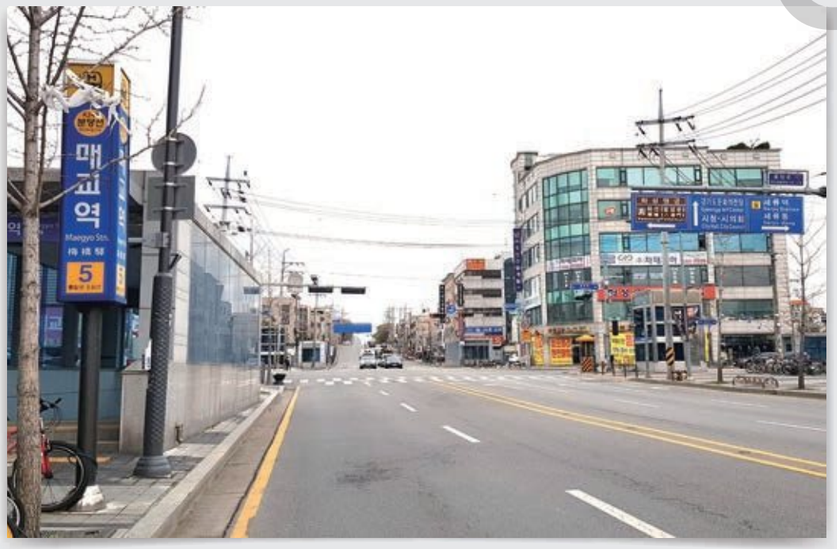


그림 27 매교역과 효원로

매산로는 수원역전에서 시작하여 수원화성의 팔달문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도로의 역사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산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도로명이지만, 매산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해 온 자연마을의 명칭이므로 역사성을 내포하는 도로명에 해당한다. 매산로는 현재 국도 43호선이 통과하는 구간이다. 매산로의 북쪽에는 향교로가 있다.

효원로와 정조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지하철 분당선의 매교역(梅橋驛)이 있다. 역의 이름은 법정동 명칭인 매교동에서 유래하였다. 분당선은 수원역에서 서울의 청량리 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초기에는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연결할 목적으로 부설되었다가 단계적으로 구간을 연장하여 수원역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매교역은 망포역-수원역 구간이 2013년 11월 30일 개통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일일 평균 이용객의 수는 승차와 하차를 모두 합해 5,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16] 매교역에는 모두 8개의 출입구가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매교역은 분당선 전철의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사이에 있다.

분당선의 일일 평균 이용객수는 2019년 10월까지 수원역이 3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청역 2만 5,000명, 매탄권선역 9,000명, 망포역 2만 6,000명, 영통역 2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 역과 비교하면 매교역 일일 평균 이용객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매교역 이용객수가 크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매교역의 부설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현재 매교동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매교역이 부설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매교역이 매교동과 세류동의 도시재개발사업 이후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설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매교역의 명칭은 분당선 개통 이전인 2013년 6~7월에 진행된 공모에서 매교역과 버드내역이 후보로 선정되었다. 버드내라는 명칭은 과거 수원천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아 유천(柳川)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었지만, 실제 버드내와 관련된 지명은 매교동이 아니라 매교동의 남쪽에 자리한 세류동(細柳洞)이다. 이에 따라 버드내역이라는 이름 대신 매교역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매교동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가운데 버스는 매산로·효원로·정조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운행하며, 이곳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는 수원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매교동을 통과하는 도로가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지나므로, 매교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 또한 분당선 전철과 시내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스가 상호 보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교동과 다른 지역 간의 통행은 불편하지 않다.

광교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수원천은 지형상으로 매교동을 둘로 갈라놓았다. 그렇지만, 수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통해 매교동은 하나의 장소로 인식된다. 매교동에서 수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가운데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은 모두 5개이며, 상류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매교교, 새마을교, 매세교, 세천교, 유천교이다. 매교교와 세천교는 각각 정조로와 효원로가 통과하는 교량이고, 매세교는 수원고삼거리에서 서쪽으로 뻗어 여성회관사거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통과하는 교량이다. 새마을교와 유천교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폭은 넓지 않다. 매교교와 새마을교 사이에는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 부설되어 있다.

매교동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가로망을 구성하는 도로 역시 많지 않다. 매교동을 통과하는 도로의 도로명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정조로·효원로·매산로·향교로를 비롯하여 팔달산로, 수원천로, 인계로, 세류로가 있다.[17] 매산로에서 파생된 매산로96번길, 매산로104번길, 매산로116번길, 매산로126번길, 매산로 130번길, 정조로에서 파생된 정조로623번길, 정조로631번길, 정조로632번길, 정조로709번길, 정조로715번길, 향교로에서 파생된 향교로137번길, 효원로에서 파생된 효원로89번길, 효원로93번길, 효원로103번길, 효원로148번길, 효원로165번길, 수원천로에서 파생된 수원천로137번길, 수원천로147번길, 수원천로202번길 등이 있다. 이 외에 인계로에서 파생된 도로는 인계로4번길, 매교동과 중동의 경계를 형성하는 행궁로에서 파생된 행궁로84번길이 있다. 이 가운데 효원로를 비롯하여 인계로·매산로·정조로 등은 도시 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간선도로로 기능한다.

5. 도시화의 진행과 생활터전의 변화

1) 1940년대 시가지 형성의 초기 단계

수원시의 시가지는 팔달문 주변의 문밖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후 수원역이 자리한 매산동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에는 수원역과 문밖마을을 연결하던 도로인 매산로 주변에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법정동 교동에 해당하는 매교동의 북쪽은 당시 매산로에 직접적으로 접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매교동의 남쪽에 자리한 법정동 매교동은 교동의 배후에 자리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시가지의 발달도 미약하였다.



그림 28 1940년대 후반 매교동 지도
파란색의 선으로 표시된 곳이 지금의 매교동이다.



그림 29 1940년대 후반 매교동 항공사진

시가지가 넓게 형성되지 않았던 매교동의 동남부에는 일찍이 수원의 중등 교육기관이 들어섰다. 수원중학교의 전신인 수원상업강습소가 팔달구의 남수동에 위치해 있다가 매교동으로 이전하였으며, 1951년 8월에는 수원중학교와 수원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수원중학교와 수원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매교동에서 교육활동을 이어 오는 유서 깊은 사학이다. 1909년 수원상업강습소로 출발하여 수원상업학교를 거쳐 1946년에 수원중학교로 개편된 학교의 부지를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29〉.

그렇다고 해서, 매교동에서 시가지의 발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수원시의 도시화 초기 단계에서 매교동에 본격적인 시가지가 형성된 것은 수려선 철도가 개통한 이후의 일이다. 수원역에서 세류동을 지나 수원천의 서쪽으로 수려선 철도가 통과하면서 문밖마을에 접한 매교다리 근처에서 철도변을 따라 쐐기모양의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이 시가지는 팔달문에서부터 확장되던 시가지가 도로를 건너 매교동의 철로변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로 침입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수원천 동쪽에서는 시가지의 발달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신작로 주변과 구릉지 일대에 가옥이 들어서면서 취락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수원의 옛 도심과 수원역에 이르는 도로 주변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을 뿐 매교동을 비롯해서 매교동에 접한 세류동, 인계동 등지도 대부분 농촌적 경관이 지배적이었다.

2) 1950~1970년대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에는 수려선 철도변을 따라 주택과 도시 시설물의 입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부터 정조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시가지의 확장 현상도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수원천변을 따라 시가지가 하류 쪽으로 확장되었으며, 수려선 철도변으로도 시가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섰다. 즉 1950년대와 1960년대 매교동의 시가지 확장은 수려선 철도, 수원천, 국도 1호선(정조로), 국도 43호선(매산로)이 주요 축으로 작동하면서, 이들 축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매산로를 따라 시가지가 남북 방향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불



그림 30 1950년대 매교동(수원화성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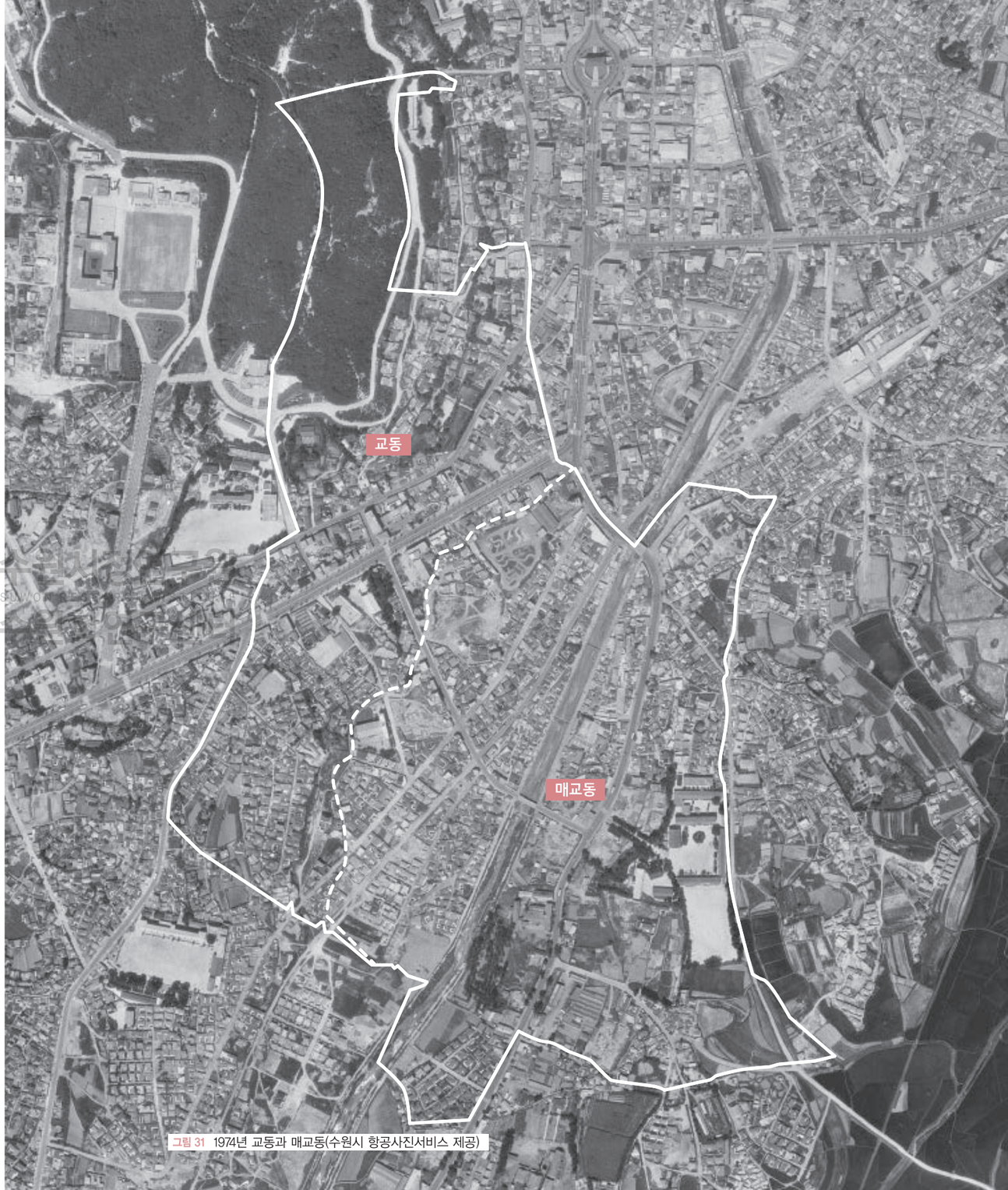


그림 31 1974년 교동과 매교동(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그림 32 1978년 수원시청(수원박물관 제공)

구하고, 교동과 경계를 형성하는 법정동 매교동의 일부는 도시화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반에는 수원천 서쪽에서 도시화가 거의 진행되어 대부분 지역은 시가지로 구성되었다. 즉 매교동의 도시화는 매산로에서 시작하여 남쪽 방향으로 시가지가 채워지는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수원천 동쪽은 팽나무고개 삼거리에서 수원중·고등학교 부지에 이르는 구간에서만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지금의 효원로 일대와 태장면고개의 북쪽에서는 시가지의 개발이 뚜렷하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림 31〉.

1972년 3월 31일 수려선 열차가 마지막으로 운행하고 수려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수려선 열차의 운행 중단으로 수려선 철로는 폐선이 되었으며, 철로는 1973년에 도로 부지로 활용되면서 철거되었다. 이와 함께 수원천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1973년에는 수원천에 제방을 축조하여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1974년에는 수원천이 치수사업지구에 선정되었다. 수원천은 1976년 하천개수의 대상 하천이 되었고, 유로 정비 및 직선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수려선 철로의 철거 및 수원천의 개수 작업은 수원천 연안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수원천 주변이 보다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76년 3월에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기 위하여 매교동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의 일부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시가지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이 계획에 따라 매교다리에서부터 매산로116번길에 이르는 구역은 상업지역을 존치되었고 그 이남 구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3) 1980~1990년대 동수원 개발과 매교동의 정체된 도시화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1967년 6월 수원으로 이전해 오면서 수원의 도시기능은 더욱 비대해졌으며, 이후 수원시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1970년대 들어 수원의 도시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수원에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 성장을 주변 지역으로 파급시키고 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교동 동쪽에 자리한 인계동을 비롯한 동수원 개발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이 사업에 따라 지금의 수원시청이 자리한 인계동 일대는 대부분 직교형의 가로망을 갖춘 시가지로 조성되었다.

동수원 개발지구에 포함된 곳은 계획적인 신시가지로 조성되면서 가로망이 반듯하게 개발되었지만, 그 서쪽 경계에 자리한 매교동은 일제 초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가지가 발달하면서 불규칙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가로망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동수원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 매교동의 대부분 지역은 건물이 들어선 도시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수원시에서 도시공간의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는 1990년대이다.[18] 1980년대까지 진행된 수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 규모가 6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수원시가 1984년에 수립한 2001년 계획인구 57만 명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급속한 도시여건의 변화로 수원에서는 1991년부터 제2차 수원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도시기능의 재입지 및 분산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는 수원시의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되었던 지역을 대단위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수원의 외곽지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새로운 도시공간이 창출되었지만 매교동을 비롯한 수원의 옛 중심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원화성과 수원역 사이에서 수원천을 끼고 자리한 매교동은 수원시에서 도시화의 역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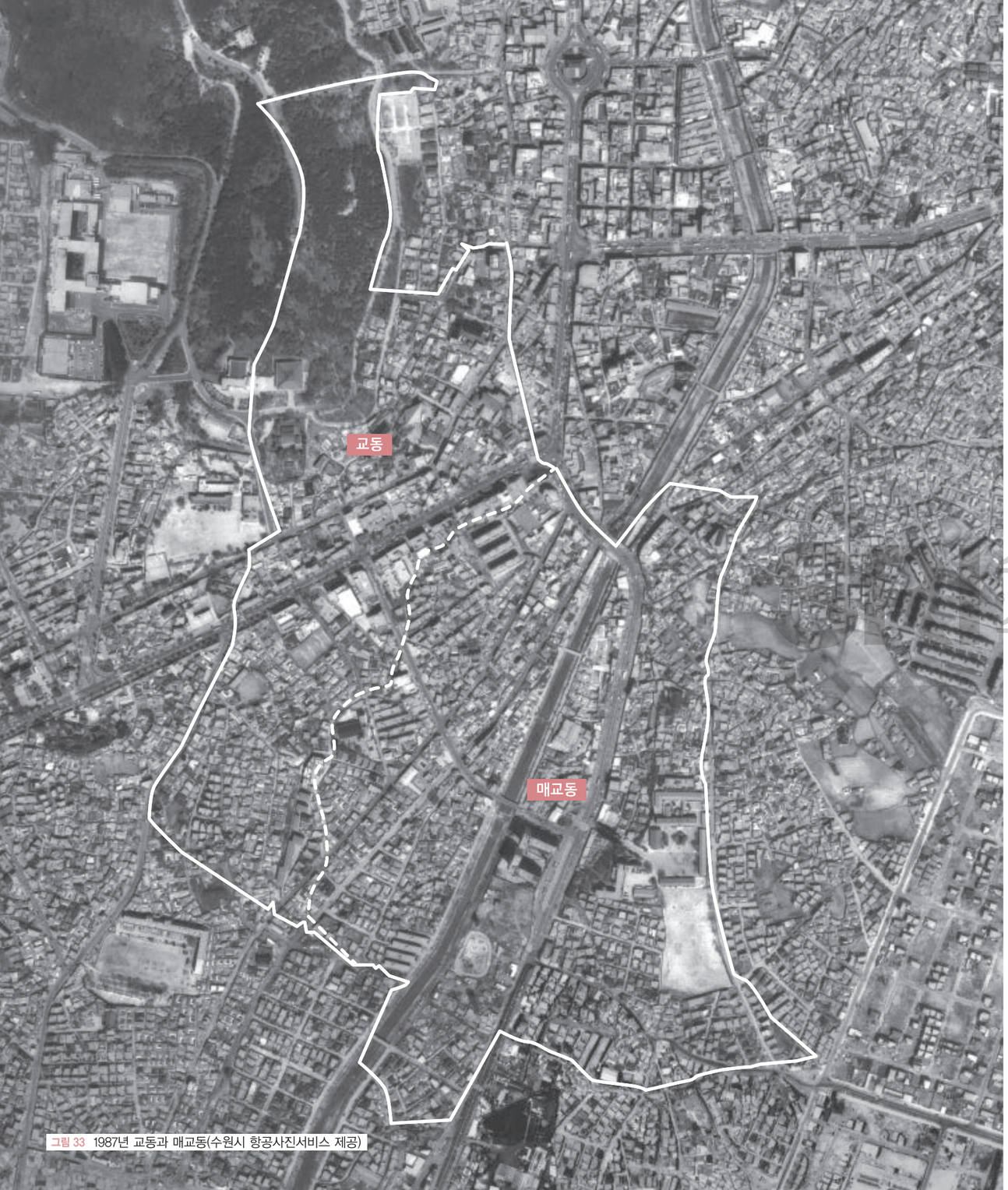


그림 33 1987년 교동과 매교동(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그림 34 1981년 매산로(수원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사도 상대적으로 오래된 마을이며, 한때는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그러나 수원시 전체의 도시화가 진전되고 시가지가 수평적·외연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동시에 수원시의 상업업무기능의 입지가 시청이 자리한 인계동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매교동을 포함하는 수원시 원도심은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매교동은 점진적으로 활력을 상실해 가면서 도시 성장이 정체되거나 침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매교동의 시가지는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면서 노후화하고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도시 내에서 한 장소의 침체는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도시 전체를 시들게 하므로, 침체된 시가지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즉 근래에 도시개발에서 자주 언급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 도시재생이 요구되는 매교동

1)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마을

매교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교동이라는 행정 단위에 살았던 사람의 수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기는 1957년이다. 1958년에 간행된 『시세일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1957년 기준 597가구에 3,110명이 거주했으며 외국인은 4가구에 7명이 있었다. 당시에는 남자가 1,504명이고 여자가 1,606명으로 여자가 더 많은 마을이었다.

표 1 **1970~2019년 매교동 인구 변화**

(단위 : 호, 명)

연도	세대	남자	여자	총인구	세대당 인구
1970년	2,167	5,235	5,337	10,572	4.88
1975년	2,828	6,241	6,424	12,665	4.47
1980년	3,564	7,339	7,640	14,979	4.20
1985년	4,136	7,999	8,081	16,080	3.89
1990년	3,952	7,402	7,314	14,716	3.72
1995년	4,210	6,546	6,468	13,014	3.09
2000년	3,822	5,464	5,376	10,480	2.74
2005년	4,010	5,139	5,212	10,351	2.58
2010년	4,240	5,311	5,254	10,565	2.49
2015년	5,253	5,989	5,519	11,508	2.19
2019년	3,313	3,672	3,209	6,881	2.08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9년 자료는 수원통계(http://stat.suwon.go.kr).
비고 : 2019년은 11월 30일 기준.

매교동에 거주하는 인구는 1985년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인구총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발행한 『수원 통계연보』에서도 1985년 말 인구 규모가 가장 컸다. 즉 매교동은 수원시의 도시 발달 과정에서 원도심이 성장을 주도할 때에 많은 거주인구가 모여들던 마을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인계동을 중심으로 한 동수원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인구 흡인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곳이다. 대체로 1980년대 중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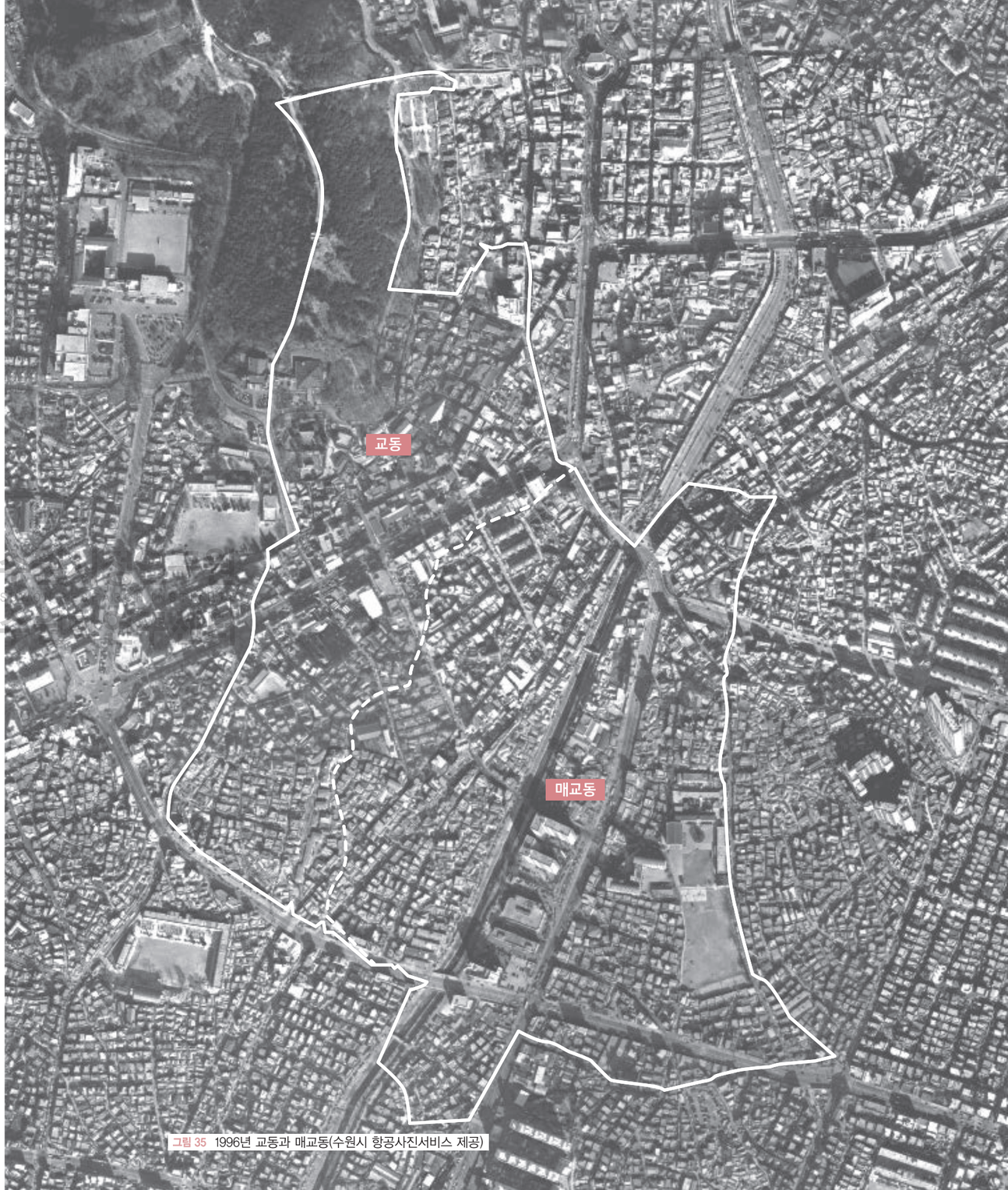


그림 35 1996년 교동과 매교동(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그림 36 2007년 매교동 경로잔치(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가 수원의 원도심이 침체기에 들어선 시기임을 고려하면, 매교동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 마을의 활력이 감소한 것이다. 매교동의 인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줄어들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 감소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2015년에는 매교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9년에는 6,881명이 매교동에 거주하고 있다〈표 1〉.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인구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매교동 팔달8구역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이다.

도시 중심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세대당 인구 감소 현상을 매교동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매교동의 세대당 인구는 1980년대 초반까지 4.0명을 넘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3명 이하가 되었고, 2019년에는 2.08명을 기록하였다. 2019년 11월 말 기준 수원시의 세대당 인구가 2.48명임을 고려하면, 매교동의 세대당 인구가 얼마나 작은 규모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시의 중심부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곳이며, 젊은 연령층보다는 고령인구가 더 많이 거주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장소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매교동의 고령화는 가장 먼저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 변화에서 알 수 있다. 평균연령은 2000년에 35.0세이었던 것이 2005년에 37.6세로 증가했으며, 2010년 40.7세를 지나 2015년에는 44.8세로 높아졌다. 또한 연령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통해 보면, 15세 미만의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표 2〉. 유소년층의 비중은 2000년 15.4%에서 2015년에는 7.2%로 줄어든 반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의 7.0%에서 2015년에는 15.6%로 증가하였다. 유소년층과 노인인구 비중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서로 자리바꿈을 한 모양이며,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 연령층 구성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매교동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수원시의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다. 2015년 기준 수원시 노인인구 비율은 8.4%에 불과했으며, 매교동이 속한 팔달구 노인인구 비율은 11.7%를 기록하였다.

표 2 2000~2015년 연령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

(단위 : %)

연령층 / 연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2000년	15.4	77.6	7.0
2005년	12.9	77.3	9.8
2010년	11.0	76.0	13.1
2015년	7.2	77.2	15.6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침체된 마을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개발

도시의 시가지 역사가 오래된 중심시가지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동력을 시나브로 상실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원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부터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이 수원의 도심으로서 기능을 수행했지만, 동수원 개발과 더불어 팔달문 주변의 중심성이 약해지면서 구도심으로 전락하였다. 팔달문의 문밖마을에 연담해 있는 매교동에서도 도시 활력이 감퇴하면서 시가지의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

시가지의 침체는 인구의 감소로도 설명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도시환경이 점차 열악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37 2015년 향교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림 38 2016년 교동과 매교동(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림 39 2020년 교동과 매교동(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그림 40 철거 전 교통맨숀 일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지는 도시쇠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교동의 시가지는 형성 시기가 오래된 만큼 도시 내 건물의 건축 연대도 오래되어 매우 노후한 건물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의 고층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관계로 5층 이하의 저층 건물들이 시가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노후한 건물은 시가지의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수원시 원도심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수원천 서쪽의 매교동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을 계획하였다. 도시재개발은 낡고 노후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존의 시가지를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규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가 대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시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매교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은 팔달구115-8(팔달8구역)에서 진행되는데, 이는 인계동과 매교동에 걸쳐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정조로 동쪽의 매교동 209-14번지 일원 22만 2,489㎡에 달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2010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6년 6월에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으며, 사업이 종료되면 3,60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20층 건물 52개동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다.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이용은 지역분화의 과정을 거쳐 유사한 것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즉 주택은 주택끼리 집중함으로써 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상가는 상가끼리 모입으로써 상업지역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매교동은 토지이용의 지역분화가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주거지로서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매교동의 토지이용은 대체로 한 건물 내에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해 있는 양상이다. 주거기능만을 가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도 있지만, 가로변을 따라 입지해 있는 건물은 저층부가 상가이고 상층부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 주를 이룬다. 특히 구천동과의 경계부에서 정조로709번길을 따라 남쪽으로 뻗은 도로는 다양한 공업용 기계 설비를 판매하는 공구단지이며, 매교동의 공구상가만을 매교동 공구상가골목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기도 한다. 수원천을 끼고 50여 년 전에 형성되어 성업하던 구천동 공구상가가 영역을 남쪽의 매교동 방면으로 확장하면서 매교동에도 공구상가골목이 형성된 것이다.



그림 41 주민들이 이주한 재개발지역


그림 42 재개발지역에서 제척된 매교동성당


그림 43 재개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매교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교동의 전체 면적은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매교동이 일찍부터 수원의 중심부에서 주거지로서 역할을 담당했고 도로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매교동의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목은 전체 면적의 61%를 넘는 대지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도시 수원에서 매교동은 농촌적 성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도시화 수준이 매우 높은 시가화구역이다. 그러나 매교동의 시가지는 개발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는 곧 도시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가로망의 불규칙성을 내포한다.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집중된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며 살고 싶은 매력을 지녀야 한다. 지금의 매교동은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지표만으로는 도시지역의 성격이 강해 거주인구를 유인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오래된 시가지의 역사, 낡고 노후한 건축물, 접근성이 불량한 도로망 등의 요인으로 살고 싶은 매력을 강하게 발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교동을 보다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은 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공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낡고 노후한 시가지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구조화함으로써 도시 중심부가 가지는 장점과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수원천의 친환경적 조건을 결부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침체되어 가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도시환경을 개조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기이다.

매교동은 수원의 중앙부에서 오래전부터 시가지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생활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므로, 이 마을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매교동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가지 정비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물 및 도로가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기 마련이다. 자동차의 통행은 물론이고 사람의 통행에도 불편한 좁은 도로망과 노후화된 주택은 매교동이 보유하고 있는 수원천이 형성시킨 수변공간이라는 주거환경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좁고 미로처럼 생긴 도로는 주민생활에 위험요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지 매교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수원시의 도시 중앙부에 자리한 여러 마을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에서는 도시 중앙부에 형성된 낡고 노후한 도시환경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출하고자 도시재개발 사업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수원역 북쪽의 고등동이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마을이다. 도시재개발 사업이 도시공간을 신규의 공간으로 재창출한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의 활력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많이 채택되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은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기 마련이다.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개발은 대체로 철거재개발의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건립된 건축물의 전면적인 철거가 불가피하다. 건전하고 건강한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해 기존 시설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건축물을 들여 놓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도시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침체된 도시 중앙부를 재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의 지명 유래-중부편』, 2008, 216쪽.
2 국토지리정보원, 『한국 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008, 213쪽.
3 한동민, 「일제강점기 수원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수원학연구』, 3, 2006, 202~203쪽.
4 행정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로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을 의미하고, 법정동은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 오던 마을의 이름이다.
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 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008, 213쪽.
6 https://paldal.suwon.go.kr/submain_view.asp?TopID=sub11&menuid=sub110202
7 인계동, 지동, 고등동, 영화동, 송죽동, 호매실동, 금곡동, 구운동, 원천동 등 9개 동의 법정동 경계와 행정동 경계가 일치한다.
8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stats/statsView.do?categorySeqNo=16).
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2014, 42~43쪽.
10 「수원시 팔달구, 싱그러운 가을꽃으로 수원천 새단장」, 『중부뉴스』, 2019년 10월 30일.
1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2014, 168~169쪽.
12 수원시, 『수원의 길 이름』, 신문사, 2001, 367쪽.
13 건설부·국립지리원, 『한국지지: 지방편 1(서울, 인천, 경기)』, 1984, 356쪽.
14 수려선의 화성역이 있던 곳은 현재 팔달구 중부대로 34번길(인계동 754-1번지) 일대이다.
15 「사찰 탐승도 좋으려니」, 『경향신문』 1950년 4월 1일.
16 코레일, 「2019년 월별 역별 승하차 인원」(http://info.korail.com).
17 인계로는 매교동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뻗어 원천리천의 삼성교사거리에 이르는 3.0㎞ 구간의 도로이다. 그러나 매교동 구간은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인계동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까지 약 110m에 불과하다.
18 수원시,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Ⅳ 현대적 도시계획기법 적용의 시대』, 2000, 96쪽.

매교는 원래 매산교(梅山橋)였는데, 1795년 정조 임금은
매산교를 매교로 이름을 바꾸게 했다.
수원을 오가는 숱한 사람들이 수원장을 보러 왔던 곳이고
수원을 거쳐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지났던 곳이다.
또한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현륭원으로 길목이어서
정조 임금을 비롯한 조선 후기 모든 국왕이 지나갔던
거둥길이었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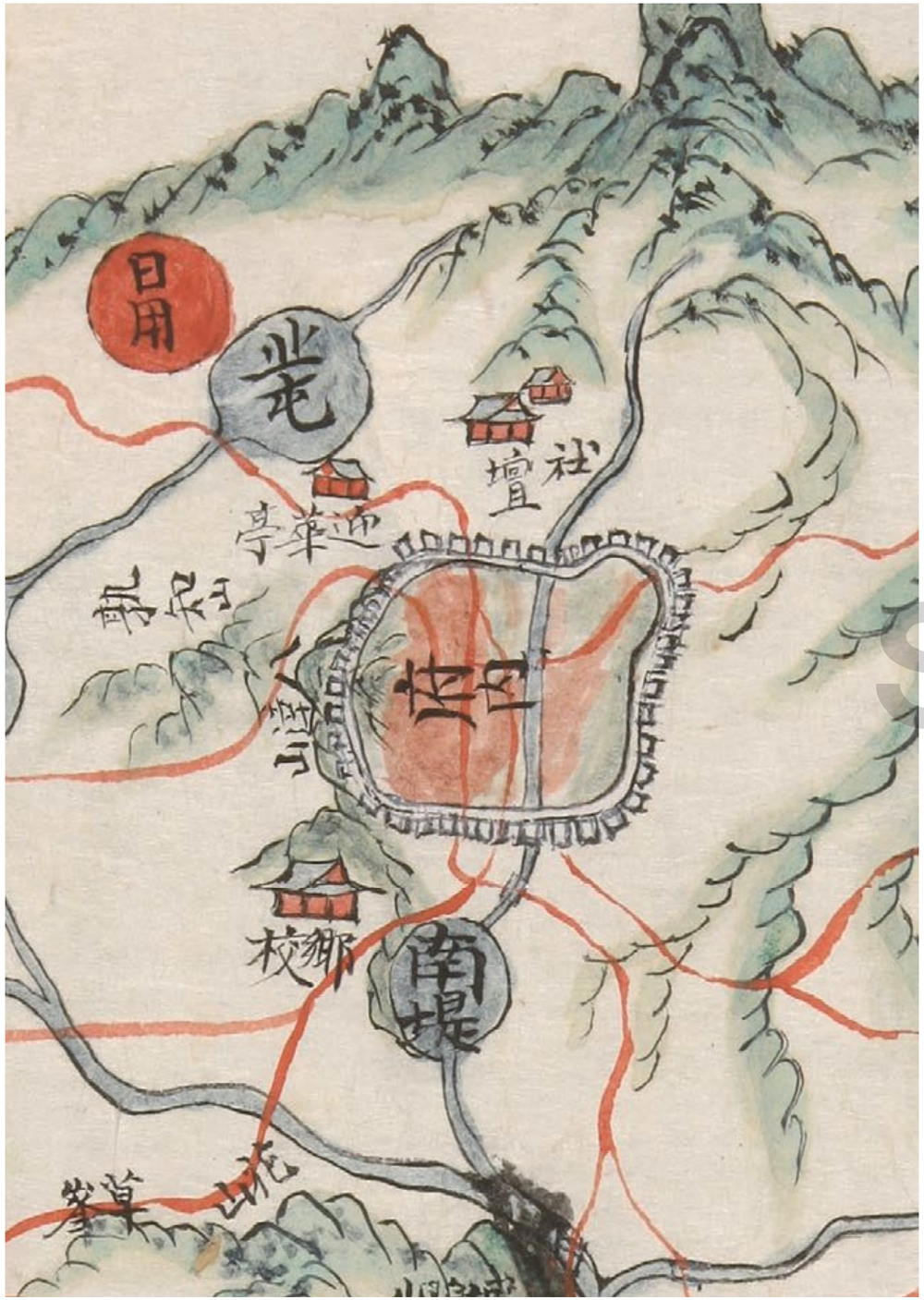
2장 매교동의 역사경관 변천

1. 전통시대 '매교' 풍경

매교동이라는 이름은 매교(梅橋)에서 유래한다. 수원고등학교에서 수원 시내로 들어오며 수원천을 건너는 다리가 매교였다. 수원 남쪽에서 수원 읍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매교는 이제 수원에 왔다는 안도감과 즐거움을 주곤 하였다. 반대로 성 밖으로 나가며 매교를 지나면서 수원 시내를 벗어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1980년대 동수원이 개발되기까지 그렇게 매교는 수원의 읍내와 그 밖이라는 경계를 심성적으로 가르는 상징물이기도 했다. 그렇게 매교는 수원을 남쪽으로 이어 주는 중요한 다리였던 만큼 매교는 마을의 대표적 랜드마크였다.

> 팔달문에서 3리쯤 되는 길 서편 표석에 매교(梅橋)라 새겨져 있다. 처음 이름은 매산교(梅山橋)인데 1795년(정조 19, 을묘년)에 이름을 고쳤다.

매교는 원래 매산교(梅山橋)였는데, 1795년 정조 임금은 매산교를 매교로 이름을 바꾸게 했다. 수원을 오가는 숱한 사람들이 수원장을 보러 왔던 곳이고 수원을 거쳐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지났던 곳이다. 또한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현륭원으로 길목이어서 정조 임금을 비롯한 조선 후기 모든 국왕이 지나갔던 거둥길이었다. 따라서 많은 시인 묵



『화성지』(1831년) 고지도에 표시된 매교와 향교

「화성전도」에 그려진 매교동과 교동(국립중앙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객들도 이곳을 지났고, 그들 가운데 수원과 인연이 있었던 자하 신위와 운양 김윤식이 '매교'를 언급한 시가 있다.

한때 화성 안에 살았던 적이 있는 신위(申緯, 1769~1847)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화가로 시서화에 능하였다. 호는 자하(紫霞)·경수당(警修堂) 등을 썼다. 정조 때 서예가 송하 조윤형(曺允亨)의 사위로 표암 강세황에게 배우고,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등과 교류하였다. 자하 신위는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에 앞서서 시서화에 능하고 감식과 평론에 뛰어나 문예의 종장으로 추앙받던 인물이다. 시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시문학적 영향력은 추금 강위(姜瑋), 매천 황현(黃玹), 영재 이건창(李建昌), 창강 김택영(金澤榮)에게 두루 미쳤다. 그림으로는 대나무 그림이 품격 높은 것으로 유명하였다. 아버지 신대승(申大升, 1731~ ?)은 승지 및 사헌부 대사헌과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정조의 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에 1789년 사도세자의 현륭원이 조성되면서 수원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나서 정조는 신하들에게 수원에 집을 짓고 살도록 하였다. 이에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따르면 이에 수원 신읍치에 집을 지은 인물로 신대승·서유린(徐有隣)·채제공(蔡濟恭)을 들고 있다.

신위의 문집인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 따르면 1832년(순조 32) 화성을 지나며 쓴 시를 설명하면서 "우리 집은 왕명에 따라 옛터에 집을 지었는데, 즉 지금의 화령전이다.(吾家承命築室舊址, 卽今華寧殿也)"라고 분명히 적고 있다. 화령전 자리는 원래 아버지 신대승이 건립한 것으로 자하 신위가 한때 살았던 집이다. 신대승-신위 부자의 집은 정조 영전인 화령전이 건립될 자리로 지목되면서 수용된 셈이다.

신위는 수원에 살았던 만큼 수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 그의 문집 『경수당전고』에는 수원 관련 시가 몇 편 전한다. 그 중 1822년 6월부터 1923년 1월 사이 화성을 지나는 도중에 버드내의 버드나무와 매교의 매화를 빗대 여름과 겨울의 풍경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羣山赴海翠成堆	뭇 뫼는 바다로 나가는데 푸르름으로 쌓여 있고
籠袖吟鞭信馬迴	소매 속 채찍으로도 말은 알아듣고 돌아서네.
雨店初柔柳川柳	비에 젖은 주점의 처음 뿌리는 비는 버드내 버들 같고
雪郊乍點梅橋梅	성 밖 점점이 뿌리는 눈은 매교의 매화 같다네.[1]

신위는 버드내 주막의 비가 오는 모습에서 버드내 버들을 보았고, 성 밖에 송이송이 눈 내리는 풍경에서 매교의 매화를 떠올리고 있다. 이렇듯 버드내와 매교에 대한 이미지는 수원을 드나드는 시인묵객들에게 강렬한 것으로 각인되었다.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관료였던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1865년(고종 3) 12월에 31세 나이로 건릉 참봉이 되었다. 1868년(고종 5) 늦봄에 교체되기까지 4년을 근무하였다. 그의 문집 『운양집(雲養集)』에는 무진년(1868, 고종 5) 늦봄 임금의 행차 후에 관직이 교체되어 건릉을 떠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이 시에 '매교'가 언급되어 있다.



윤한흠 그림(1977년)에 나타난 윗버드내 송덕비 거리(수원화성박물관 제공)
매교역이 들어선 매교동 167번지 일대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瞻掃喬陵已四霜　　높은 능(건릉)을 우러르며 돌본 지 이미 4년
來時種柏盡成行　　올 때 심은 잣나무 모두 줄 지어 자랐네.
……
梅橋歸路重回首　　매교의 돌아가는 길에 거듭 뒤돌아보니
一抹烟岑鎖夕陽　　한 줄기 안개 낀 봉우리가 석양에 잠겨 있네.[2]

김윤식은 건릉 참봉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오면서 심은 잣나무가 크게 자라고, 부엌에서 일하는 아전들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알게 되고, 마을 아이들도 늘 봐서 낯가림 없이 잘 따르는 정도가 되었다고 읊고 있다. 그러면서 매교를 지나면서 건릉을 뒤돌아보며 감회에 잠기고 있다.

지금 매교역이 들어선 매교동 167번지 일대에는 송덕비들이 서 있었다. 이곳은 '윗버드내 송덕비 거리'라 불렸다. 윤한흠 선생이 그린 윗버드내 송덕비 거리 그림이 있다. 이는 매교동 167번지 일대의 옛 모습으로 길가에 송덕비가 줄지어 서 있다. 수원천 너머 세류동의 소나무 산들이 보인다.

2. 신작로가 가로지르는 교동

1905년 경부철도가 부설되고 수원역이 들어서면서 수원의 도시공간과 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원역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수원화성과 수원역



1907년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향교로(국립중앙박물관 제공)



1914년 향교로(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을 잇는 신작로가 개설된 것이다. 이 도로는 원래 정조 때 수원읍치와 수원향교를 연결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향교로로 불리고 있다.

향교로 건설 당시 모습은 일본 주재 독일대사관 장교였던 헤르만 산더가 1907년 수원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사진은 수원역 방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로 개설은 수원향교 방향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수원역 부근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수원역 부근에는 몇 채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나무로 된 급수탑이 있다. 도로보다 먼저 세워진 탓에 전봇대는 도로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전봇대는 1914년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찍은 사진에서는 향교로 옆으로 이동되어 설치되어 있다.

수원역이 개통되는 1905년에는 수원역과 연계되는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수원역을 통한 철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물류와 사람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도로망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다. 이에 팔달문에서 수원향교로 이어지던 기존 도로를 수원역까지 연장하여 신작로가 개설되었던 것이다. 또한



수원역과 팔달문을 연결하는 신작로


1920년대 교동 향교로 일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역과 연결되어 이천-여주로 이어지는 현재의 42번 국도는 1908년에 도로를 넓히는 공사가 추진되어 1909년에 개통식을 가졌다.[3]

1907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향교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논과 밭 등 농경지로 이루어진 평지였기 때문에 직선으로 곧게 뻗은 신작로를 개설하는 데 지형적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주변 농경지보다 1m 정도 높게 보토(補土)를 한 후 평평하게 하여 직선도로를 만들었는데, 수원역-부국원-중동사거리로 이어지는 직선도로는 수원화성 안의 도로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신작로가 개설되자 그 주변으로는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수원화성 안에는 각종 관공서와 한국인 거주지가 조성되어 있던 데 비해 수원역과 수원향교 부근까지의 신작로 일대에는 일본인 사업체와 상점, 주거지가 들어섰고, 수원향교에서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신작로 주변에는 외국 종교시설과 한국인 사업체 등이 세워졌다.

전근대시대 앞선 문물과 유행은 서울에서 북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오기 마련이었지만 수원역이 개설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수원의 동선이 남북 축에서 동서 축으로 확장되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것들이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부려졌고 새로운 사람들이



1907년 헤르만 산더가 방문한 성공회 수원교회(국립민속박물관 제공)



1907년 헤르만 산더가 방문한 매산초등학교(국립민속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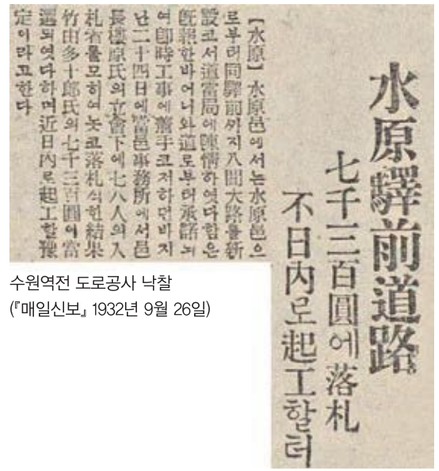
수원역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즉 영국 성공회 브라이들(Bridle) 신부와 알릭스(J. Alix) 천주교 신부 그리고 종로교회 매일학교 교사인 베크(Berk. S. A) 목사가 들어왔던 길이다. 1907년 독일인 헤르만 산더가 수원역에서 내려 사진을 찍으며 성 안으로 들어왔던, 그렇게 새로운 세력이 밀려오는 그 길이 향교로였다. 그 길은 경부선 개통 후 수원역에서 전통 상권인 성 안으로 연결하는 새로 뚫린 신작로였다. 그 흐름은 거침없이 수원 읍내를 관통하였다. 새로운 것들은 놀라움과 신기함 그리고 약간의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 길을 따라 일본인 상점과 은행이 들어섰고, 조선의 위엄과 성리학적 전통을 상징하는 수원향교 좌우로 일본인 학교와 영국 성공회 교회가 들어섰다. 그 길은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통학생들이 오가는 길이었다.



水原驛邑間에
大路增設計劃

【水原】水原邑과水原驛間의있는現在道路는不過四間에交通上不便한點이만흠으로市街擴張上또는一般公衆하야水原邑에서는二萬六千四圓의豫算으로長이千五百四十間통幅十六間들의大路를現在道路로부터南으로約二三十間을相距하야邑과直通식히여京城行一等道路와接續한다는바道路基地는全部寄附를받엇다하며不遠間着手한다고한다

수원역–팔달문 간 도로 증설계획(『매일신보』 1932년 8월 17일)



水原驛前道路
七千三百圓에落札
不日內로起工할터

【水原】水原邑에서는水原邑으로부터同驛前에지入間大路를新設코서道當局에陳情하엿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道路新設에即時工事에着手코저하던바昨二十四日에當邑事務所에서邑長權原氏의立會下에七八人의入札者를모히여놋코落札식힌結果竹田多十郎氏의七千三百圓에當選되엿다하며近日內로起工할터이라고한다

수원역전 도로공사 낙찰
(『매일신보』 1932년 9월 26일)

1930년대에 이르러 다시 한 번 개편되었다. 즉 경동철도주식회사에서 수려선(1931년)과 수인선(1937년)을 부설하였으며, 수원읍당국은 향교로에 이어 매산로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1930년대에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에서 인천–수원–여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확충되었고, 이 교통망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더욱 확장되어 나갔다.

1931년 읍으로 승격한 수원은 시구(市區) 확장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현안사업으로 여겼다. 이에 수원읍장 우메하라 시즈오(梅原精雄)는 1932년 11월 12일 수원읍 도로 및 하수구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시가지 도로와 하수구 개수는 수원읍에서 제일 긴요한 사업이지만 읍 재정이 빈약하여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재정을 보조받아 1933년(소화 8)부터 4년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931년 수원읍 시가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표 1 **1933년 수원읍 시가지 도로 개수계획**

구분	구간	연장 및 폭
도로 제1호선 (수원역 新線)	수원사 아래 1등도로 경성–목포선에 접속	연장 340m 폭원 16m
도로 제2호선 (경성–목포선)	팔달문 밖 십자로에서 매교까지의 구간	연장 550m 폭원 16m
도로 제3호선 (수원–마산선)	수원역전에서 팔달문 밖 십자로까지의 구간	연장 1,250m 폭원 7m
도로 제4호선 (읍내 裏通線)	산루리 지역 내 수원역 신선에서 분기하여, 관사 아래 3등도로에서 수원병원앞–경찰서 동측을 경유하고 서문–화홍문선 도로에 접속	연장 1,500m 폭원 10m

표 2 **1933년 수원읍 하수구 개수계획**

구분	구간	연장 및 폭
교동 하수구	3등도록 수원–마산선에서 하방 제방까지	연장 150m 폭원 1.5m
팔달문 밖 하수구	팔달공원 동쪽 입구 부근 하수구에서 팔달문 밖을 경유하여 수원천까지	연장 350m 폭원 1.5m
서문–수원천 간 하수구	서문에서 등외도로 서문–화홍문선 연변을 따라 수원천까지	연장 270m 폭원 2m
남창리 남수리 지역 내 하수구	등외 도로 서문 화홍문선에서 보통학교 앞 남창교를 경유하여 수원천까지	연장 690m 폭원 2m

표 3 **1933년 수원읍 시가지 도로 및 하수구 공사비 개산서**

(단위 : 円)

공사명	등급	공종	공사비	읍 지출액	지방보조	국고보조
도로 제1호선 (수원역 新線)	등외	도로 신설	16,000	14,000	5,000	8,000
도로 제2호선 (경성–목포선)	1등	도로 개수	22,000			11,000
도로 제3호선 (수원–마산선)	3등	도로 개수	6,000	24,000	10,000	3,000
도로 제4호선 (읍내 裏通線)	등외	도로 개수	6,200			21,000
하수구		하수구 신설	34,000	12,000	5,000	17,000

출처 : 「시가 도로 급 하수도 관계서류」, 1932(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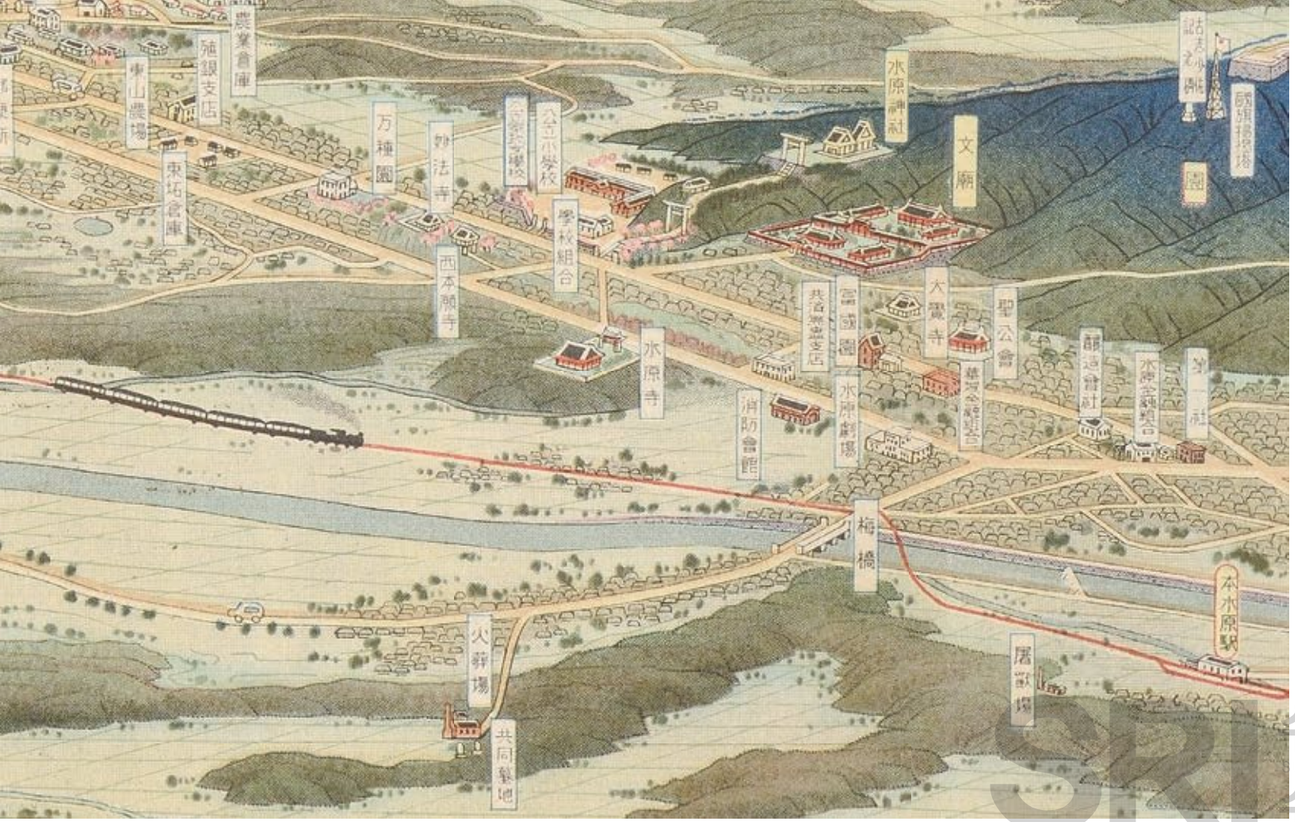
이 계획에는 도로 네 노선과 하수구 네 구간을 개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표 1~3〉. 이 신청서에 따르면 1932년(소화 7) 3월 향교로의 교통량을 조사하였더니, 1일간 도보자 6,695인, 자동차 192대, 우거(우마차) 373대, 자전거 1,432대, 인력거 82대, 수인(手引) 기타 제차(諸車) 124대, 하우(荷牛, 화물을 실은 소) 242마리, 말 215필인 것으로 계산되었고, 장날에는 그 수가 배에 달한다. 이처럼 일제시기에 3등도로인 향교로(수원–마산선)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도보자뿐만 아니라 화물이나 자동차가 급증하였으나 도로 폭원이 7m에 불과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으므로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제기되었다.[4] 이렇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수단의 변화로 기존의 도로보다 더 넓은 도로를 필요로 하였으나 1930년대 향교로 주변은 민가가 조밀하게 펴져 있고 건축물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개수할 경우 15만 엔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향교로를 넓히기보다 신노선을 축조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도로 개수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향교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1932~1936년에 개설된 도로 제1호선 수원역 신선(新線)은 현재의 매산로에 해당한다. 도로 개설 경비는 1932년에 지방비를 보조받아 추진하였고, 1933~1936년에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5] 도로 제2호선(1등도로) 팔달문 밖 십자로–매교 구간(경성–목포선)은 개수되지 않은 도로로, 폭원이 좁고 노면 요철이 심하였다. 이에 개수공사와 함께 수원역 신선(매산로)과 연결되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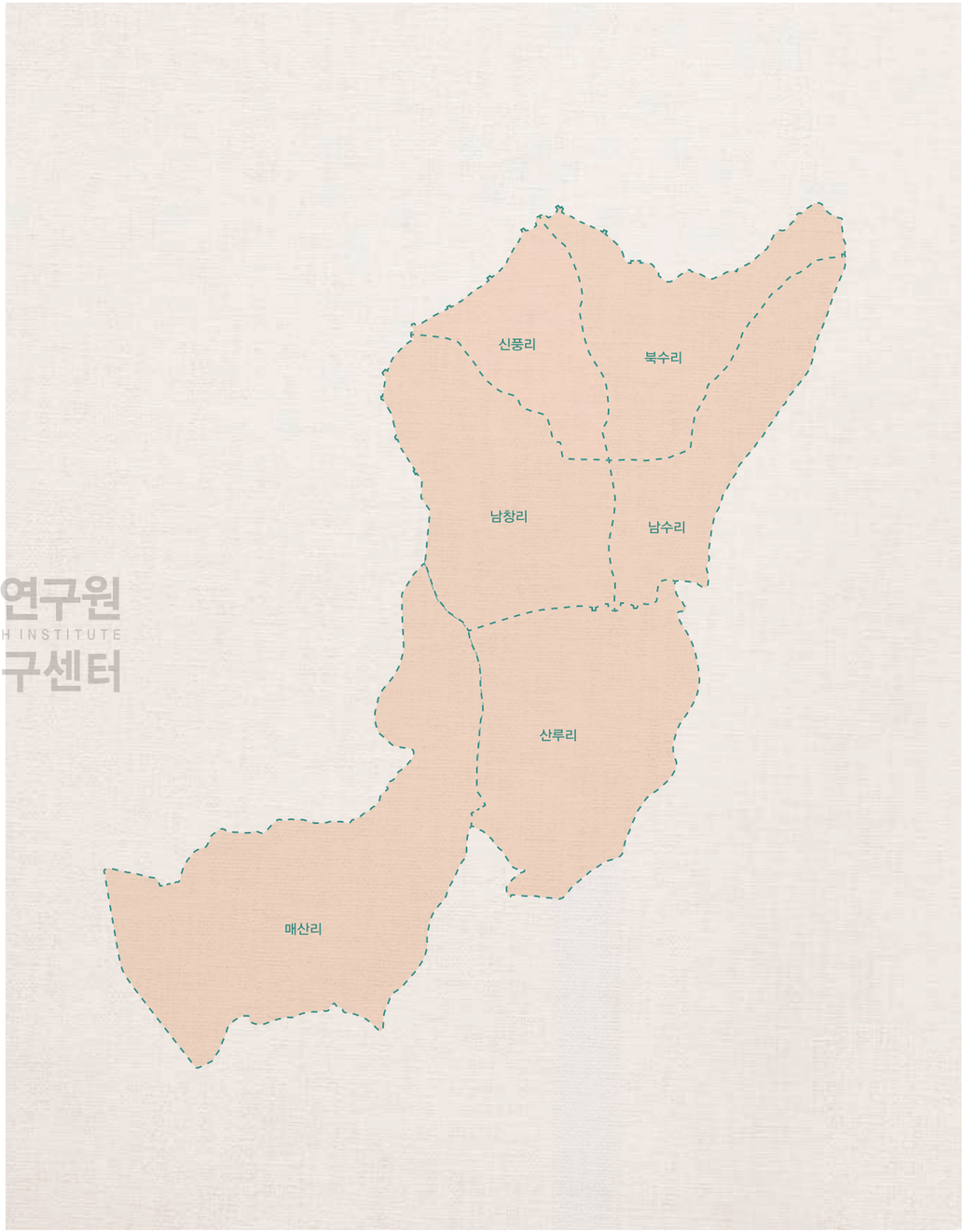
> 팔달문–수원역 간의 도로는 상업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점차 많아지면서 교통상 불편한 점이 많았고, 이를 연유로 수원읍에서는 2만 6천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팔달문–수원역 간의 도로보다 더 넓은 폭인 16미터의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6]

다음으로 지금의 향교로인 3등도로 수원–마산선은 절취(切取)를 요하는 장소와 측구(測溝, 도랑)에 석축(石垣)이 없는 곳이 많으며, 노면이 균일하지 못하고 암거(暗渠, 땅속이나 구조물 밑으로 낸 도랑)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어 개수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 제4호선(읍내 裏通線)은 산루리 내 수원역 신선에서 분기하여, 도립의원 관사 부근에서 수원병원 앞–경찰서 동쪽으로 경유하여 서문–화홍문선 도로에 연결되었다. 이 도로는 시가지 계획에 일부 속하는 길로, 뒷골목이 번화해지면서 개수가 요구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36년 수원읍 남부정과 궁정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1914년 수원면 6개 리

3. 시가지의 확장과 마을의 재편

1930년대 경동철도인 수려선과 수인선이 개설되고, 수원 읍내 각종 도로가 신설 및 개수되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인구가 늘어났다. 그 결과 수원면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읍 승격을 계기로 신문지면을 통하여 수원읍의 상황을 진단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제기되었다. 수원읍이 3,500호에 1만 5,000명이라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회지인 만큼,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것들이 주로 거론되었다.

『매일신보』에서는 수원읍의 당면과제를 ① 시장 문제 ② 동명(同名) 개정 문제 ③ 수도 문제 ④ 명승고적 문제 ⑤ 공원 문제 ⑥ 경찰기관 문제 ⑦ 공동변소 문제 ⑧ 우편기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제로 보았다.[7]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주요 도시 순회좌담회-수원편」에서 참석자들이 지적한 수원의 문제점으로 시가 정리가 필요하고 공동변소나 기생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8] 수원읍 당국도 '시정 발전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1935년 2월 2일 당시 수원읍장 우메하라(梅原靜雄)는 수원 기자단, 군과 경찰의 간부 등 20여 명을 초청하여 수원읍 발전책을 강구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수원읍 행정구역 확장 문제, 교통, 위생시설 등을 강구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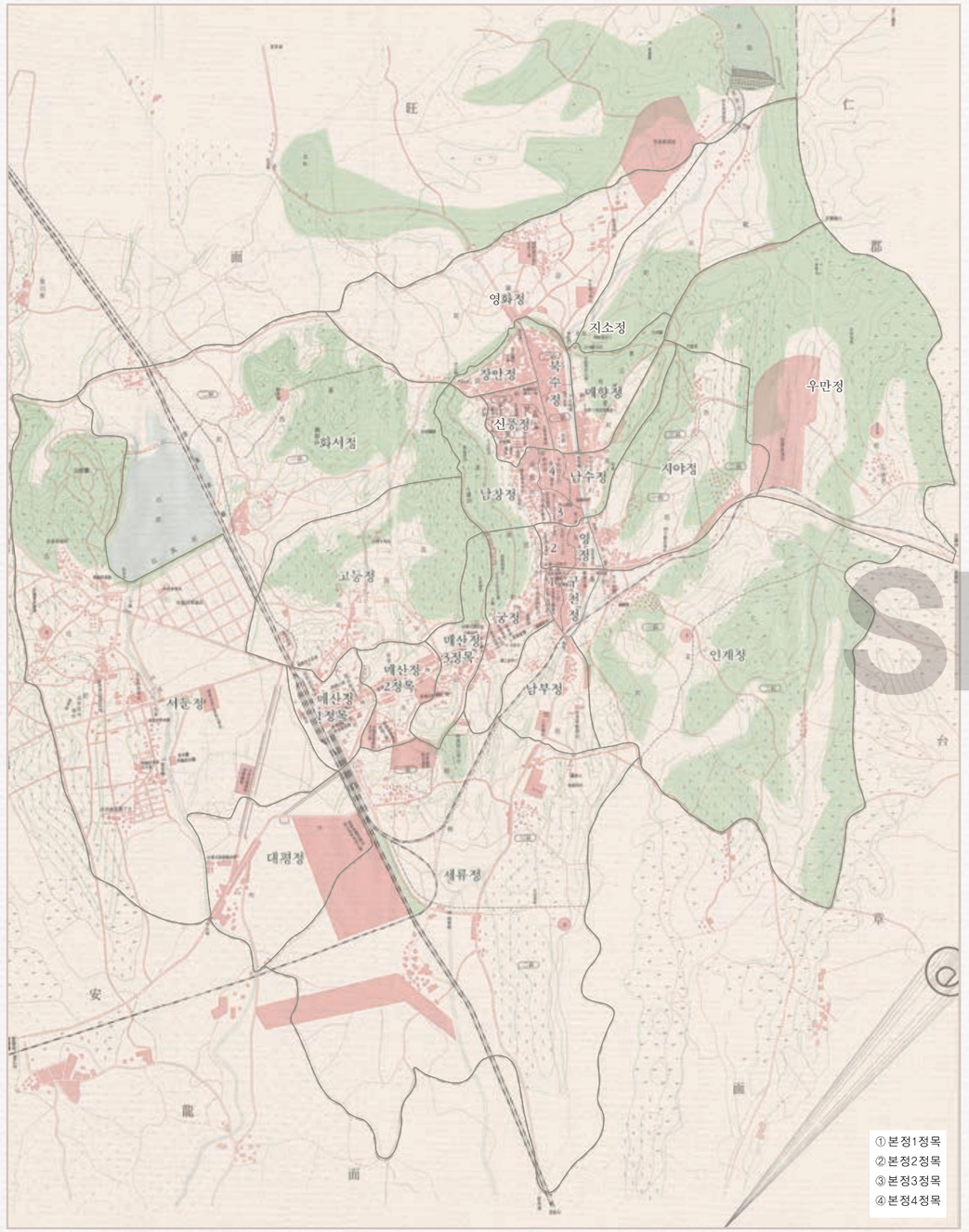
수원읍 당면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수원읍 구역 확장이었는데, 너무 비좁은 수원읍 구역을 주변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양군과 통합된 수원군은 21개 면 279리를 관할하였는데, 이 중 6개 리(신풍리·북수리·남창리·남수리·산루리·매산리)로 구성되었던 수원면은 읍 승격 이후에도 여전히 6개 리 체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면 교통이 발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원 시가지는 기존의 수원읍 외곽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갔다. 즉 수원읍은 행정구역으로서의 수원읍에 더하여 시가지가 발달한 외곽 지역까지 포괄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마침내 1936년 10월 1일부로 수원읍과 인접해 있던 일형면 고등리·영화리·지소리·동리·서둔리, 태장면 지리·인계리·권선리 일부, 안룡면 세리·평리 일부 등 세 면의 10개 리가 수원읍으로 편입되었다.[10] 이와 함께 읍 승격 이후 6개 리 체제로 유지되었던 리 체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구역 확장과 함께 일본식 말단 행정구역인 '정(町)'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기존 수원읍 지역은 12개 정(町)과 7정목(丁目)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은 10개 정으로 재편되었다.

1914년 당시 지금의 교동은 수원면 산루리와 안룡면 세리에 포함되어 있었고, 매교동은 수원면 산루리, 안룡면 세리, 태장면 인계리에 등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3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궁정과 남부정으로 재편되었고, 이는 1949년 수원시 승격과 함께 교동과 매교동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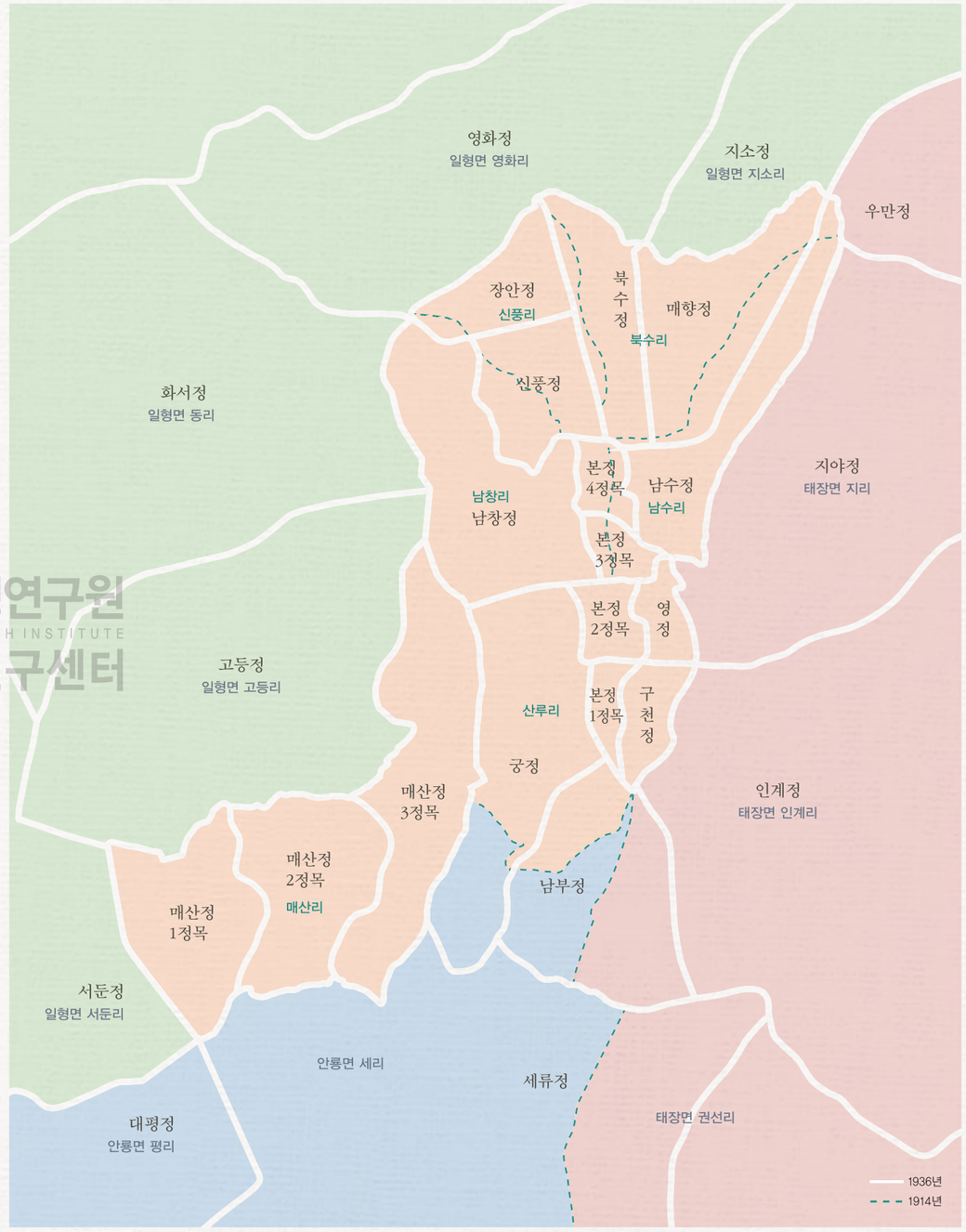
표 4 1936년 수원읍 행정구역 개편

정 체제		관할 지역
북수정		수원읍 북수리, 신풍리
매향정		수원읍 북수리, 남수리
신풍정		수원읍 신풍리, 북수리, 남창리
장안정		수원읍 신풍리, 남창리
남창정		수원읍 남창리
남수정		수원읍 남수리
본정	1정목	수원읍 산루리
	2정목	수원읍 산루리
	3정목	수원읍 남창리, 남수리
	4정목	수원읍 남창리, 남수리
매산정	1정목	수원읍 매산리
	2정목	수원읍 매산리
	3정목	수원읍 매산리
구천정		수원읍 산루리
영정		수원읍 산루리
궁정		수원읍 산루리, 안룡면 세리
남부정		수원읍 산루리, 태장면 인계리, 안룡면 세리
고등정		일형면 고등리
영화정		일형면 영화리
지소정		일형면 지소리
화서정		일형면 동리
서둔정		일형면 서둔리
지야정		태장면 지리
인계정		태장면 인계리 중 남부정과 우만정에 속하지 않는 지역
우만정		태장면 인계리, 태장면 지리 중 지야정에 속하지 않은 지역
세류정		안룡면 세리 중 남부정·궁정·대평정에 속치 아니한 지역, 태장면 권선리 중 수원읍에 속한 지역
대평정		안룡면 평리 중 수원읍에 속한 지역, 안룡면 세리 일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36년에 확장된 수원읍 영역(1943년 지도)



1936년 궁정과 남부정

남부정은 수원읍 산루리, 안룡면 세리, 태장면 인계리 각각의 일부를 합쳐서 만들었고, 궁정은 수원면 산루리와 안룡면 세리 각각의 일부를 합쳐서 만들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5 **매교동과 교동의 행정구역 개편**

조선시대		1914~1936년		1936~1949년		1949년 이후	
면	리동	읍면	리(지번)	읍	정	시	법정동
남부면	산루리	수원면 (1914~1931) 수원읍 (1931~1936)	– 산루리 325–1 – 산루리 325–3 – 산루리 327~329–1 – 산루리 330–2 – 산루리 331–3~332 – 산루리 333–2 – 산루리 334–3 – 산루리 339–3 – 산루리 340–3 – 산루리 341–2 – 산루리 342 – 산루리 343–3 – 산루리 344–3 – 산루리 458~505	수원읍	남부정	수원시	매교동
	구천리	태장면	– 인계리 567~571 – 인계리 572–1~572–2 – 인계리 781~785 – 인계리 798~799 – 인계리 929–1~967				
	세동	안룡면	– 세리 1~36–1 – 세리 102–2 – 세리 103~119 – 세리 132				
			– 세리 37–1 – 세리 38~40 – 세리 43~58		궁정		교동
	교동	수원면 (1914~1931) 수원읍 (1931~1936)	– 산루리 191–1~191–7 – 산루리 201–1~202–4 – 산루리 374–1 – 산루리 375–1 – 산루리 376~379 – 산루리 380–3 – 산루리 381–2~381–3 – 산루리 381–5 – 산루리 390–8 – 산루리 391–5 – 산루리 393–2 – 산루리 393–2 – 산루리 395~457 – 산루리 492~496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신위, 「華城途中」, 『警修堂全藁』 10.
2 김윤식, 「健齋集」, 『雲養集』 1. 乙丑十二月 余拜健寢郎 戊辰春遞歸 此其入直時作.
3 「잡보 治通開役」, 『황성신문』, 1908년 8월 11일.
4 『시가 도로 급 하수도 관계서류』, 1932(국가기록원 소장).
5 『시가 도로 급 하수도 관계서류』, 1932(국가기록원 소장).
6 『매일신보』, 1932년 8월 17일.
7 「地方鎭言. 市區整理와 施設에 對하야(상)」, 『매일신보』, 1932년 8월 8일, 3면; 「地方鎭言. 市區整理와 施設에 對하야(하)」, 『매일신보』, 1932년 8월 10일.
8 「主要 都市 巡廻座談 – 水原編」, 『동아일보』, 1931년 1월 17~24일.
9 「水原 發展策 講究 座談會 開催」, 『동아일보』, 1935년 2월 5일.
10 조선총독부령 제94호, 「邑面及邑面長ニ關スル規程中左ノ通改正ス」, 『조선총독부관보』, 1936년 9월 26일.

수원 인구는 한국 산업화 시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0년 초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크게 꺾인다.
서울의 인구가 1980년대 이후 증가세가 꺾인 것과
수원의 인구 급팽창이 연결되는 대목을 통해 서울의
비대화와 수도권 위성도시의 확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의 인구 증가가 한계에 달하게 되면서
인근 위성도시로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유상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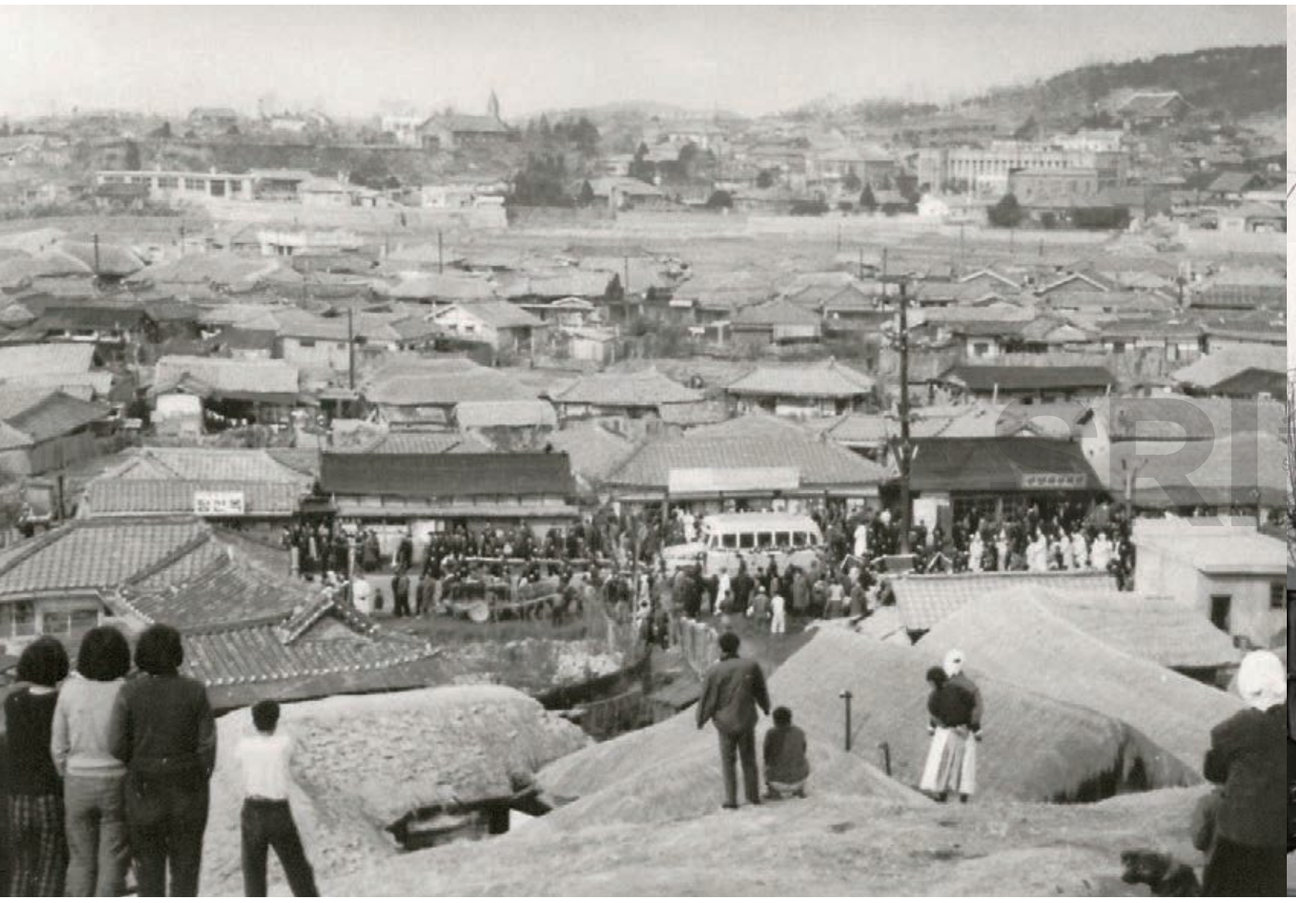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장 매교동의 도시화와 사회 변화

1. 수원의 도시화와 매교동

매교동은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행정동으로 법정동인 매교동과 교동을 관할한다. 현재 면적은 0.72㎢에 불과해 수원 전체에서 0.6%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구는 1980년대 1만 5,000명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한 다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8,000명이 채 안 되고 있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매교동은 향교를 끼고 있는 읍치공간으로 형성되어 전형적인 구도심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요컨대 전근대 시기부터 수원의 중심 공간을 형성하였다. 물론 매교동은 물론이고 교동조차 수원화성 안쪽에 위치한 것은 아니었다. 향교도 팔달문 밖에 위치했고 교동도 팔달문 밖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교동과 매교동은 '문밖마을'로 출발했던 셈이다.

주지하듯이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의 화성 축조로부터 도시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화성은 수원이 도시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기점이 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대 도시 형성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수원 인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10만 명을 넘어섰고 1980년대에는 30만 명을 돌파하였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수십 만 명의 인구를 포괄해야 되는 근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수원화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였다. 한국에서 전근대 시기 성곽도시로 출발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 성곽을 허물고 도시를 확장시켜 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중반 매교동과 교동 시가지(수원고등학교 제공)
우측 상단 팔달산 자락에 수원향교와 수원시청이 보이고,
구 국도 1호선을 따라 수원고등학교 창립자 홍사훈의 장례행렬이 지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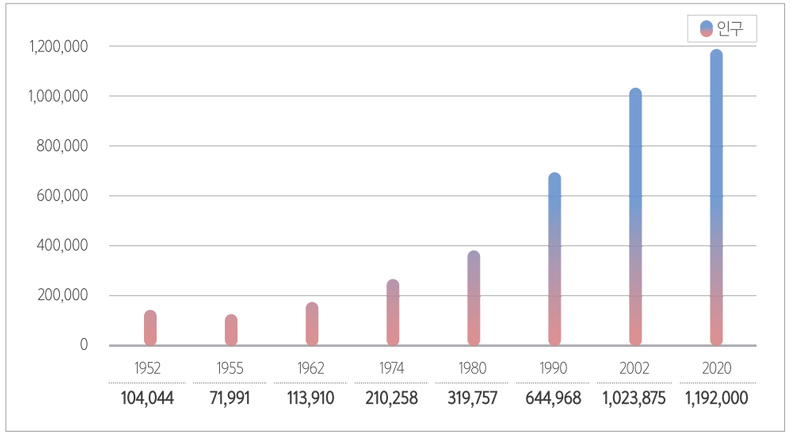


1972년 교동사거리(수원박물관 제공)
유신고속버스 정류장, 삼일사 주유소, 한국주택은행, 새마을운동탑 등이 눈에 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71년 교동과 매교동 시가지(경기도청 제공)



1950년대 이후 수원 인구 변화

수원이 화성의 성곽을 넘어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에 서울과 수도권의 팽창은 결정적 조건이었다. 한국의 도시화를 결정지은 산업화 과정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인구는 1980년대 초반 800만 명 선을 넘을 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그 이후 완만한 증가로 돌아서 1,000만 명대에서 고착된다. 즉 1980년대는 서울 인구 증가의 마지막 시기였으며 그 이후로는 서울 대신 수도권 지역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수원 인구는 한국 산업화 시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0년 초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크게 꺾인다. 서울의 인구가 1980년대 이후 증가세가 꺾인 것과 수원의 인구 급팽창이 연결되는 대목을 통해 서울의 비대화와 수도권 위성도시의 확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의 인구 증가가 한계에 달하게 되면서 인근 위성도시로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의 확장과 도시화가 매교동에 미친 변화는 수려선 폐선과 수원천 정비와 복개 그리고 다시 자연하천 복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일제시기인 1930년 개설되어 경기 서남부와 동남부를 연결했던 수려선은 1972년 4월 1일부로 공식 폐선되었고 철로는 1977년에 철거된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강화되면서 철도교통이 위축되었고 도심 교통으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려선이 폐선된 것이다.

1970년대 수원은 수원천 제방 축조와 하천 개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광교산에서 발원한 수원천은 길이 2.72㎞, 유역면적 25.80㎢으로 큰 하천은 아니지만 수원 화성을 포함해 매교동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기에 매교동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련의 정비 과정은 곧 수원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하천의 정비와 개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도시화는 곧 상하수도 정비를 필요로 하고 특히 자연하천의 경우 도시생활에 걸맞게 정비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홍수 등의 피해는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기에 도심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조치는 시급한 문제가 된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오폐수 증가로 자연하천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도심부를 흐르는 하천의 오염은 각종 악취를 발생시키고 위생문제를 일으키기에 정비 필요성이 배가된다. 20세기까지 이러한 하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복개다. 수원천은 1994년 복개되었다가 2012년 다시 복원되어 자연하천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도시화에 따른 하천의 관리정책 변화 과정은 수원뿐만 아니라 한국 도시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청계천 복개와 복원 과정이다. 서울의 인구 팽창과 함께 대표적 도심하천이었던 청계천은 복개대상이 된다. 수십 년간 복개되었던 청계천은 21세기 들어 자연하천으로 복원되는데, 도심 하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도로 확장 등의 기능적 필요로 하천을 복개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결과이다. 수원천도 청계천과 비슷한 경로로 복개와 복원을 반복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 이미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었지만 1980년대는 더 큰 규모의 인구 증가가 초래되었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계획된 것이 1984년에 입안된『수원도시계획재정비』였다. 이 계획은 1991년 목표연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즉 국가의 경제적 신장에 걸맞게 도시 성장의 형태 및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 수요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구의 적정 배치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1] 한 마디로 경제개발로 표현된 산업화로 이촌향도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함으로써 나타난 도시지역 인구 팽창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1982년에서 1991년까지 10년간의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이 수원의 도시계획을 규정하였다. 이 계획은 공업지역 규모를 축소하고 개발을 제한하고자 준비된 것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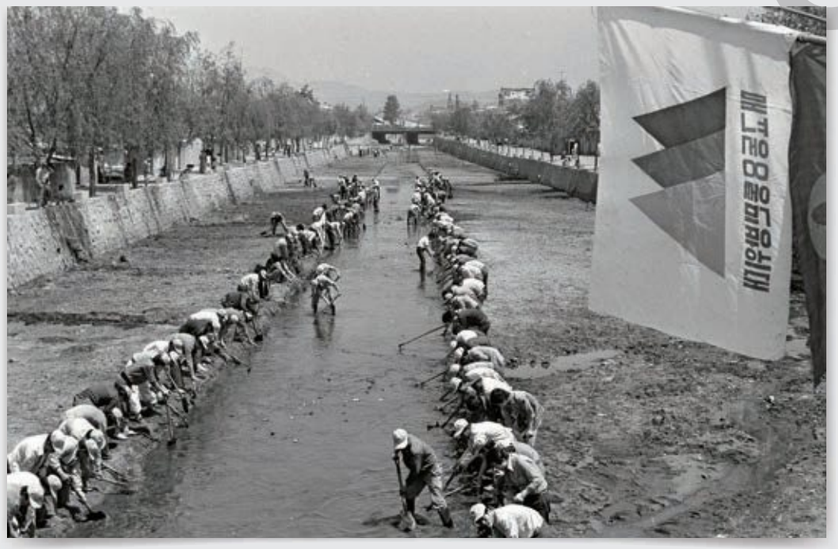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수원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매교동(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수원시청 앞 도로포장공사(수원박물관 제공)



1977년 수원천 정비사업(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수원시청 매산로(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은 인천과 더불어 생산활동이 자족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서울의 기능 분산을 감당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서울로 집중된 인구 및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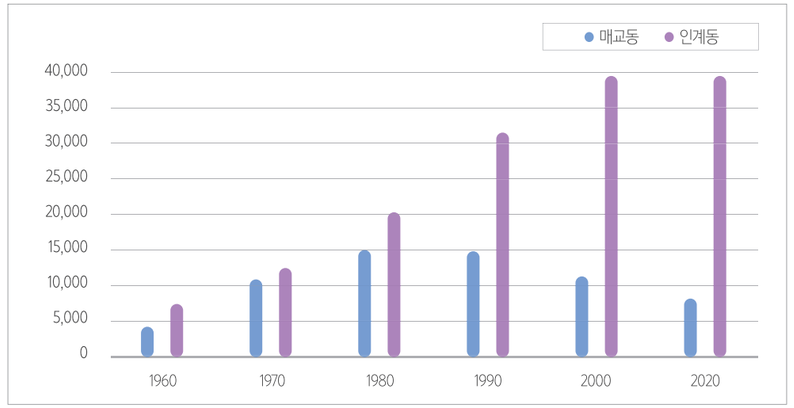
수원의 도시 성장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1960년대는 도시 성장의 기틀 형성, 1970년대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고밀화 현상, 1980년대는 인구 분산과 주택지 확산의 단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3] 이렇게 서울 팽창에 따른 수도권 정비 필요성의 증대는 수원의 팽창 과정을 직접적으로 규정한다. 21세기 들어 수원의 확대는 더욱 놀랍게 진행된다. 광교와 영통지구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세기와 차원을 달리하는 도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수원 도심부는 공동화 현상을 빚게 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심 공동화는 도시학의 중요한 화두였는데 수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 교동과 매교동은 수원의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이었고 수원의 급팽창 속에 급속도로 공동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교동은 수원 도심의 상징과도 같은 수원화성과 인접하기에 변화 양상이 더 복잡해진다. 즉 단순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니라 문화유적 복원과 관광지화에 따라 기존의 상업지구와 거주지구 중심에 문화와 관광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문화와 관광이 새로운 화두가 되면서 기존의 상업과 주거 목적의 개발은 상당한 제약의 대상이 된다. 수원시 전체의 팽창은 새로운 주거지와 상업 중심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기존 매교동과 교동의 역할에 근본적 재조정을 가하게 된다.

2. 매교동의 도시화 과정과 그 특징

1) 매교동의 인구 변화

매교동은 수원 구도심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화 과정도 비교적 빨랐다. 성곽이 허물어지고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1차적으로 매교동이 주요한 확장 대상이 된다. 특히 한국전쟁은 수원의 도심지 파괴와 함께 인구 팽창에 큰 역할을 하였다.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1950년대 중반에는 수려선 철도변을 따라 주택과 도시 시설물의 입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10만 명을 넘었던 수원의 인구는 전후 다시 줄어들어 7만 명 선으로 후퇴하였다.



1960~2020년 매교동과 인계동의 인구 변화

표 1 1960~2020년 매교동과 인계동의 인구 변화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20
매교동	4,129	10,802	15,088	14,716	11,284	7,969
인계동	7,433	12,238	20,449	31,561	39,595	39,614

출처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판.

수원 인구가 다시 1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1960년대부터였으며 이때부터 매교동의 도시화도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1960년대에는 수려선 연변은 물론 수원천변을 따라 시가지가 하류 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즉 1950년대와 1960년대 매교동의 시가지 확장은 수려선 철도, 수원천, 국도 1호선(정조로), 국도 43호선(매산로)을 축으로 하여 남쪽 방향으로 도시화가 진전되었다.[4]

그런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매교동의 인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체상태를 빚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21세기 들어서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2020년 현재 8,000명이 채 안 되는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소위 말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도심 공동화는 인구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20년 현재 가구당 인구수가 2명이 채 안 되고 노인인구 비율도 2015년 15%를 상회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가 떠나고 노인 중심의 1인 세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3년 교동 수원중앙침례교회 옆에 있었던 어린이 놀이터(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교동 이웃돕기 전달식(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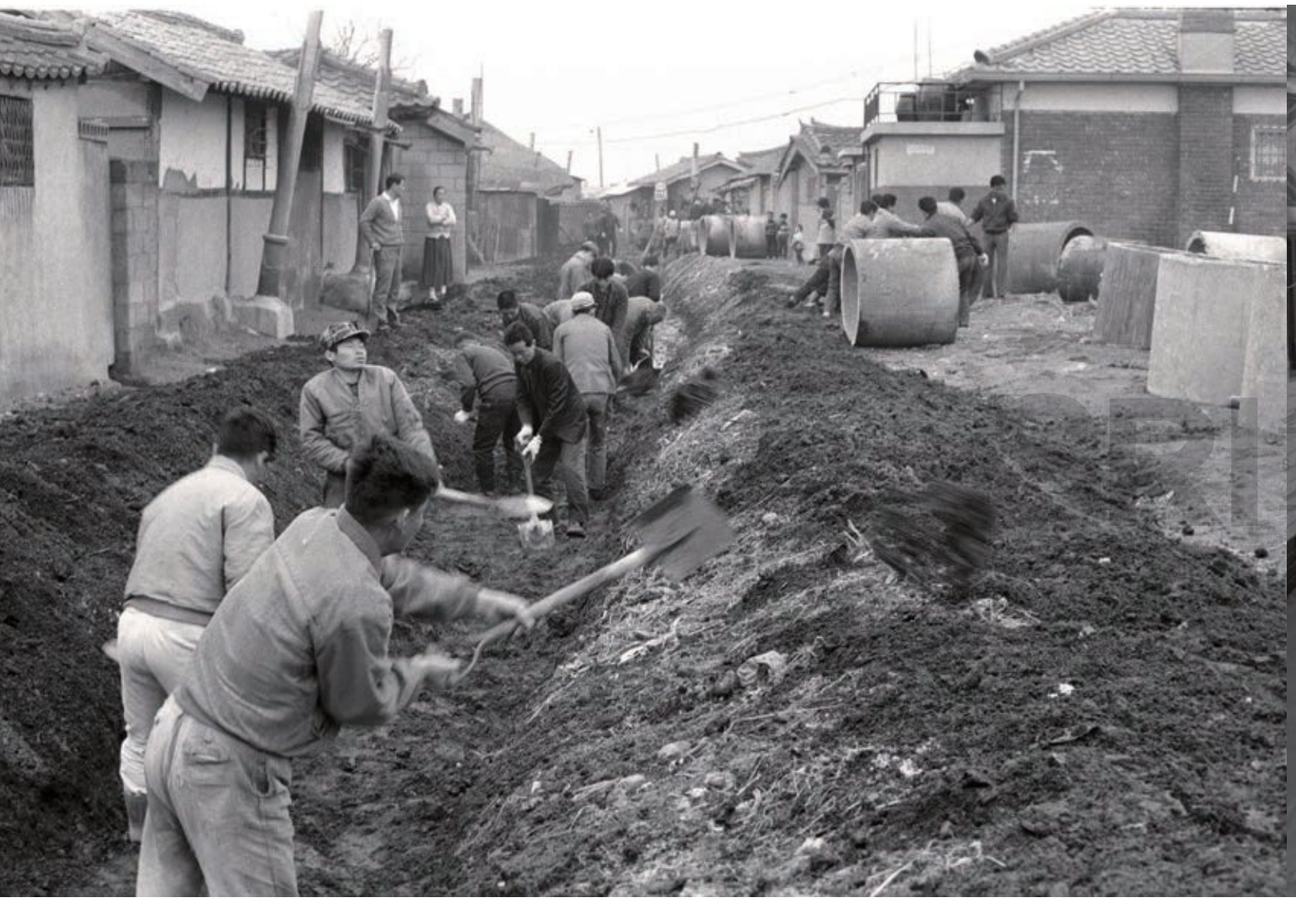


1973년 교동 수원중앙침례교회 옆에 있었던 어린이 놀이터(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매교동 도로공사(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매교동 토관매설사업(수원박물관 제공)



1977년 매교동 민방위훈련(매산로116번길 현 유천파출소 부근, 수원박물관 제공)

렇기에 화성을 포함한 구도심지역은 1966년 도심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5%에서 1987년 16.35%로 떨어졌고 1998년에는 3.14%로 급감하였다.[5] 도심 공동화 현상은 거의 모든 도시가 경험하는 일일 텐데, 매교동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교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도시화 역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매교동은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도시재개발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낡은 주택이나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재개발은 대상 지역의 역사성을 거의 무시하게 되고 거주민의 이해관계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매교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 의미가 배어 있는 기존 시가지나 건축물들이 남김없이 파괴됨으로써 급격한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은 매교동의 역사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교동의 도시화 과정을 꼼꼼하게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전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2) 매교동의 상공업과 도시화

1960년 기준 교동의 관공서는 수원시청과 교육위원회, 소방서 그리고 관재국 수원출장소 등이 위치해 있었다. 시청이 위치할 정도로 교동의 중심성은 수원에서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교육위원회와 소방서가 자리하고 있어 관공서 분포도로는 교동은 여타 지역에 비해 탁월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관공서 외 특히 상공업 분야에서 교동과 매교동의 위치는 달랐다. 도시 상공업 부문은 도시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론해야 될 분야이다. 근대 도시의 특성상 상공업 부문이 도시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교동과 매교동은 이미 일제시기인 1942년 기준 49개와 13개의 상공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수원 전체로 보면 각각 5.1%와 1.3%의 비중이었다. 교동은 매산로와 팔달로 지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공업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교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가 분포해 초기 도시화 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동의 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소매업으로 17개 업체였고 그다음이 제조업 14개소였다.[6]

이 시기 음식·숙박업소 분포도를 보더라도 교동과 매교동은 모두 10개 미만으로 매산로나 팔달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다. 일제시기 상공업은 수원역을 끼고 있는 매산로와 전통적 상업 중심지였던 팔달로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매교동은 주변지역의 성



1977년 교동과 매교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학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972년 매교다리 부근의 우마차(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매교다리 부근의 자동차와 한국주택은행 수원지점(매교동 4-1)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격을 띠었다고 보인다. 매산로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출한 일본인 상공업자들의 거점이었고 팔달로는 조선인들이 힘겹게 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매교동 지역은 이들 지역에 비해 상공업이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1923년 기준 금융기관도 교동에 있던 화성금융조합이 유일하였다.[7]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1964년 말 기준으로 수원의 도시토목사업 실적을 보면 교동과 매교동을 통틀어 유일하게 전신전화국 앞 배수시설 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전체 사업이 22건에 달했음에도 교동과 매교동은 단 한 건의 사업만 집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도시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미 진행되었음을 반증해 준다. 같은 시기 상수도 공사실적을 보더라도 총 15개의 공사 중 교동과 매교동은 전혀 없었다. 주로 하광교동 등에 집중된 상수도 공사를 보건대 매교동 지역은 이미 상수도 보급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8]

운송수단에 관한 통계도 도시화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다. 1964년 말 기준으로 매교동의 우마차는 13대에 불과한 반면 자전거는 226대에 달하였다. 자전거는 매산동과 신안동에 이어 3위 규모였지만 우마차는 하위 3위에 그칠 정도로 적었다. 이는 매교동 지역이 우마차를 이용하는 농촌지역과 거의 관련이 없을 정도였고 대신 도심의 수송수단으로 자전거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려 준다.

1960년대 교동의 가장 대표적인 상공업 분야를 꼽자면 인쇄업이다. 수원의 인쇄업체는 교동에 밀집해 있었다. 1960년 기준 총 13개의 업체 중 교동에 위치한 것이 4개였는데 이는 수원 전체에서 제일 많은 숫자였다. 1970년에는 교동과 매교동에 총 10개의 인쇄업체가 밀집해 있어 상당한 증가세를 보여 주었다. 총 35개의 업체 중 10개는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이다. 인쇄업은 문화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또한 대표적인 관공서 관련 업계이다. 각종 서류와 책자 등을 인쇄할 필요가 많았던 관공서와 인쇄업체는 긴밀한 관계이지 않을 수 없었다. 수원시청을 위시해 관공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교동의 특성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금융기관의 분포도 도시화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금융기관 통계가 잡힌 1970년 기준 매교동의 금융기관은 주택은행 수원지점이 유일하였다. 총 9개 기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매교동은 그 중 하나가 위치한 셈이었다. 지점 개설일은 1970년 8월 28일이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가장 늦게 설립된 것으로 빠른 경우 1962년에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지점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보건대 매교동이 금융기관의 소재지로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이 가장 많았던 곳은 팔달로로, 총 4개 기관이 집중

되어 있었다. 그 외 중동이 3곳을 차지하였다.

1971년에는 매교시장이 설립되어 이 지역 최초의 상설시장이 들어선다. 대지 574㎡에 건물 216㎡으로 설립된 매교시장은 총 46개의 점포가 들어서 다른 시장에 비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어쨌든 1971년에 새로 시장이 개설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도심 상업지구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0여 년 뒤 상황은 많이 변하게 된다. 1980년 기준으로 수원상공회의소 기업체 조사 결과를 보면 매교동에는 경기은행 매교지점(1978년 설립), 수원단위농협(1970년 설립), 외환은행 수원지점(1980년 설립), 대한화재 수원영업소(1978년 설립), 동해생명 경기영업국(1978년 설립) 등이 기록되어 있다.[9] 우연의 일치인지 1978년에만 세 곳의 금융기관 지점이 설치된다. 특히 이 중 보험업종이 두 개 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보험은 흔히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위험사회'로의 진입이기도 하다. 자동차 교통의 확대가 불러오는 사고를 비롯해 화



1970년대 매산로(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6년 경기은행 매교지점과 유신고속버스정류장(수원박물관 제공)

재, 도난, 범죄 등 각종 위험 요소들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험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보험은 일종의 투기적 성격을 내포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견 합리적 선택으로도 보이지만 그 발생을 아무도 보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기의 성격이 내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박의 확률처럼 보험도 통계와 확률에 의거한다. 각종 사고 발생률이 통계 처리되어 확률도가 산출되고 이 확률도에 의거해 보험료와 보험금이 책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계산 가능한 숫자로 환원하여 화폐가치로 재환산함으로써 보험이 하나의 상업금융으로 구성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계산가능성이야말로 자본주의적 근대의 핵심적 원리다. 인간의 노동을 비롯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을 화폐량으로 계산 가능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보편적 척도로서의 화폐가 모든 인간 삶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수원에 보험업종이 등장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삶이 지배적 형태로 관철되었음을 반증해 준다.

1980년대는 여타 상공업 분야에서도 매교동의 비중이 높아진다. 1980년 기준 매교동

1971년 구 국도 1호선(정조로)과 국도 43호선(매산로)이 교차하는 교동삼거리(수원박물관 제공)
현 교동사거리 일대로 팔달문과 팔달산, 유신고속버스정류장, 주유소 삼일사 등이 보인다.



1973년 매교다리 부근 상가(수원박물관 제공)

과 교동을 합쳐 제조업은 32개소로 수원 전체에서 9.3%를 차지했고 도소매업은 240개소로 5.4%, 음식 숙박업은 227개소로 9.1%를 차지하게 된다. 금융업도 5개소로 증가해 11.6%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주기는 했지만 수원 전체에서 매교동의 상공업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980년 기준 수원의 대규모 백화점은 모두 영천동에 위치했고 매교동의 상업시설로는 매교시장이 유일하였다. 그나마 매교시장 규모는 점포 46개에 불과해 수원시에서 가장 작은 시장이었다.[10]

식품위생업소는 1980년 기준 매교동은 총 179개 업체로 수원 전체에서 8.6%의 비중이었다. 이는 영천동의 16.5%, 팔창동의 11% 등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매교동 업소 중 제일 많았던 것은 간이주점으로 28개 업소가 위치해 수원 전체에서 18.1%를 차지하였다. 이는 영천동과 동일한 수치로 이 업종만큼은 매교동이 수원의 중심지였음을 말해 준다.[11]



1985년 매교동어머니구판장(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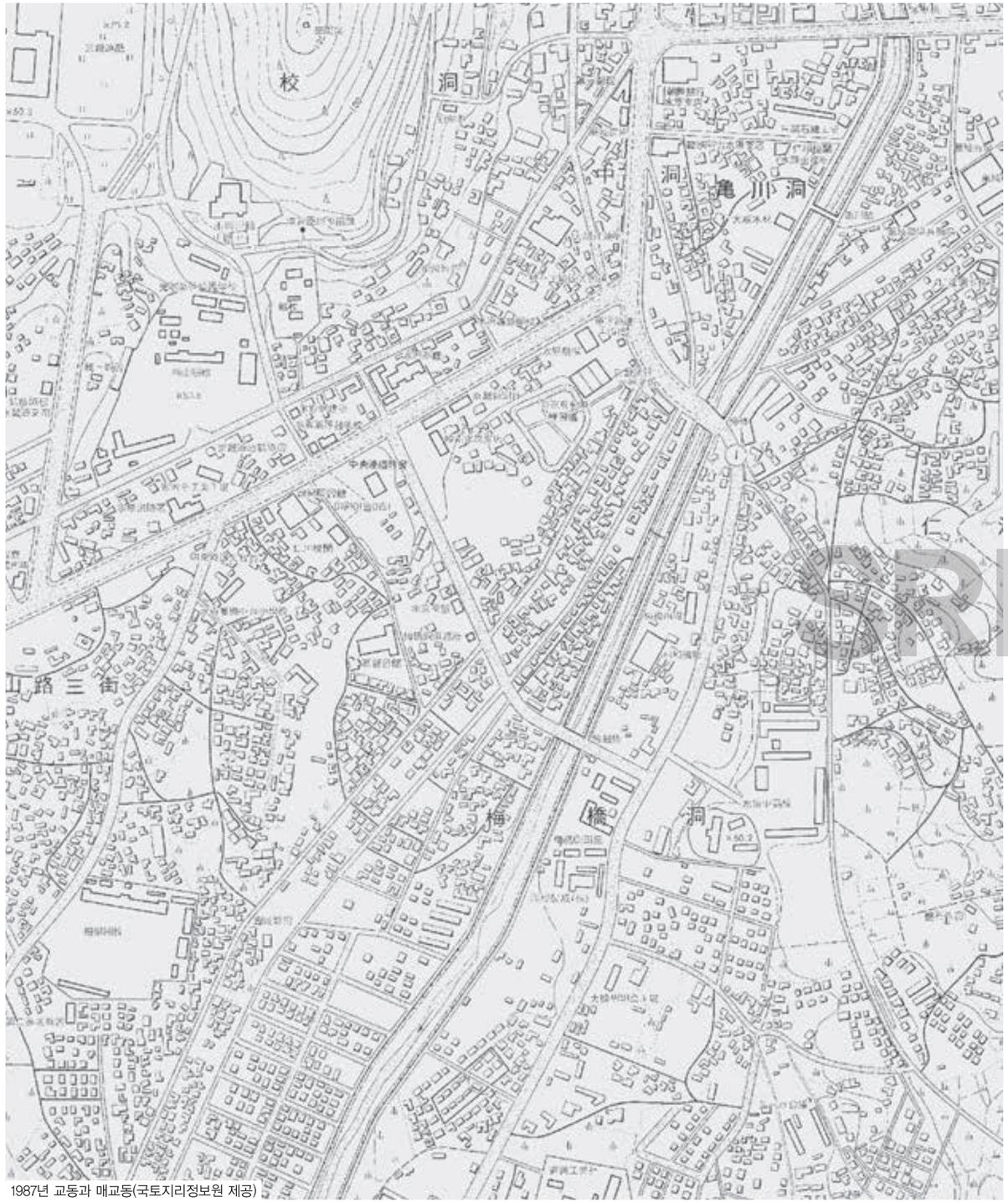
1973년 이춘택병원 뒷길 점포(정조로715번길,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를 『수원 통계연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80년 기준 매교동의 상업시설 통계를 보면 이용업 14개소, 미용업 29개소, 목욕탕 1개소, 유기장 16개소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유기장은 4위, 이용업 4위, 미용업 3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179개소로 수원 전체에서 역시 4위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중음식점이 31개소였고 간이음식점이 91개소로 제일 많았다. 그다음은 간이주점이 28개소로 수원에서 제일 많았고, 다방은 15개소 정도로 수원 전체에서의 순위는 식품위생업소 전체 순위와 엇비슷하였다.

1985년 기준 통계를 보면 매교동은 215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었는데, 4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1980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90년에는 268개소의 식품 접객업소가 기록되었다. 1985년에 비하면 60개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수원 전체에서는 6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대 숫자는 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박업소는 48개 업체에 총 521개 객실로 수원 전체에서 업체는 3위 객실수는 2위였다. 식품위생업에 비해 숙박업소가 상대적으로 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알



1987년 교동과 매교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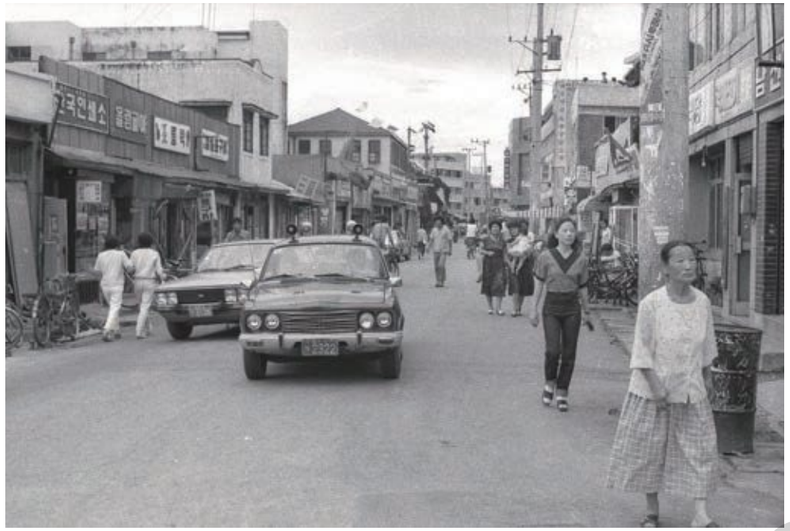
1980년 매교동의 사업체(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 있다. 1985년 통계를 보면 매교동 숙박업소는 45개소로 5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1990년에는 호텔 1개를 포함해 여관 28개소, 여인숙 19개소 등 총 48개 업소가 기록되었다. 이는 수원에서 4위에 해당하는 숫자로 1985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하였다.

특히 1986년 교동에 위치한 석산관광호텔의 개업 소식은 중앙 일간지에도 보도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12] 대지 200평, 건평 772평 규모로 지어진 이 호텔은 객실 32개를 갖추고 올림픽 보조경기장 관련 고객과 수도권 공업지역의 업무용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되었다. 커피숍과 한식당은 물론 60평 규모의 연회장과 오락실을 갖춘 이 호텔은 1980년대 교동의 상업 발전을 상징해 준다.

1980년대 들어서면 자동차 보유 현황이 통계에 잡히고 있는데, 1980년 기준 매교동은 이륜차 113대, 승용차 221대, 버스 4대, 화물차 144대, 특수차 3대로 총 485대의 자동차가 기록되었다. 이는 매산동 782대, 신안동의 512대에 이은 3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러나 매산동은 주로 화물차가 많았는데 495대가 화물차였고 승용차는 172대에 불과해 매교동에 미치지 못하였다. 신안동도 승용차 231대에 화물차 196대로 매교동에 비해 화물차 비율이 높았다. 당시 인구는 신안동이 1만 1,742명이었고 매산동은 1만 2,749



1982년 향교로 인쇄거리(수원박물관 제공)



동수원 개발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한국신도-수원」, 『경향신문』, 1987년 8월 18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명으로 매교동의 1만 5,088명보다 적었다.

반면 운송수단 통계를 보면 매교동은 총 474대로, 손수레와 자전거 그리고 경운기는 10대였으며, 우마차는 전무하였다. 이는 수원 전체에서 14위에 해당하는 숫자로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무렵 매교동은 이미 자동차 중심으로 넘어간 반면 여타 지역은 여전히 우마차나 자전거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음을 보여 준다.

1980년대 매교동 지역의 상업적 위상 변화를 보여 주는 사실 중의 하나가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의 등장이다. 1985년 기준으로 수원시의 중고차 매매업소는 총 6개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무려 4개 업체가 교동과 매교동에 위치하였다. 특히 교동은 3개 업체가 밀집해 있어 수원 중고자동차 시장의 핵심지역이었다. 매매 실적으로 보더라도 총 8,383대로 전체 1만 3,092대의 64%를 차지하였다.

도시화가 토지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토지를 화폐가치로 환원해 이해하는 방식이다. 평당 가격이 토지 가치의 핵심으로 떠올라 여타 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기반한 서열화가 진행되었다. 교동 지역도 수원의 핵심 도심지로서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교동의 주택지 평당 가격은 30만 원을 기록해 서울 변두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한다.[13]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100% 인상된 가격이었다.[14]

20세기의 마지막 무렵인 1999년도 매교동의 사업체수를 보면 제조업은 195개 업체로 5.6%, 도소매업은 429개로 3%, 음식숙박업은 332개소로 3.1%, 금융보험업은 8개소로 1.4%에 불과하였다. 총사업체수도 1,552개소로 3.1%였다.[15] 모든 업종에서 매교동의 비중이 크게 하락했는데, 수원시 팽창에 따라 여타 지역이 눈에 띄게 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1980년대 동수원 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들어 기존 구도심으로는 팽창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동수원



1983년 교동과 매교동 시가지 경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개발이 진행되는데, 그 상징적 사건이 1986년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한 것이었다. 동수원 개발은 수원시 행정구역의 10%에 해당하는 339만 평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다. 동수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기존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매교동은 그 직접적 영향하에 있었다.

매교시장은 이러한 변화의 한 상징이 될 만하다. 1980년대까지도 매교시장은 매우 번성했다고 하지만 매교시장을 인수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사정도 있고 해서 1990년대 들어 급속하게 쇠퇴하게 된다. 시장 부도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교동을 위시한 구도심의 전반적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수원화성 복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에 의한 화성 복원사업이 착수되면서 매교동 특히 교동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16]

이후 수원화성은 수원시의 대표적 상징물이 되었고 시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수원 하면 곧 정조와 화성을 떠올릴 정도로 그 영향이 컸다. 그러나 화성 복원은 매교동, 특히 교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화유적 지구가 되면서 각종 건물의 고도제한이 적용되었고 상업시설 확충이 곤란해진 것이다. 수원 전체 도시계획상 구도심 일부를 문화유적지구로 복원한다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의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사실 화성 복원은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정책의 일환이었다. 즉 수원시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하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정권의 캐치 프레이즈였던 민족 주체성 강화와 전통문화 강조 정책의 산물이었다. 다시 말해 수원 자체의 필요성과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수원의 도시화 과정에서 보자면 돌출적 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수원을 역사문화도시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당시 도시화 과정과 어울리는 정책이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물론 매교동의 쇠퇴는 상대적인 것이었다. 수원이 과거 단일 중심도시에서 다핵 도시로 변모하면서 구도심의 상대적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교동의 상업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형 상업시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9월에는 동민코아 상가 건물 분양 광고가 중앙일간지 지면을 장식하였다.[17] 교동 185-7번지 지역에 신축될 동민코아는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이었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은 상가로 활용하고 나머지 층을 아파트로 분양하는 계획이었다. 상가만 2,600평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었다.

또한 1991년 10월에는 매교동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수원천 복개공사가 확정된다.[18] 1994년 완공된 수원천 복개는 개발연대 매교동을 비롯한 수원 구도심 도시화의 한 상징이다. 군사적 근대화, 돌진적 근대화 등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폭력적이고 압축적이었다. 근대화를 '농업을 뜨어고쳐 공업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박정희의 말대로 한국의 근대화는 자연을 매우 폭력적으로 착취하였다. 도심을 흐르던 자연하천은 도시계획의 필요에 따라 거대한 콘크리트 덮개를 씌워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도시 하수가 증가하면서 자연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었고 각종 오물 등이 뒤섞여 도시 하천은 거의 똥물 수준으로 망가져 갔고 그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눈에 안 띄게 아예 덮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 위로 자동차도로가 개설되고 건물이 들어서곤 하였다. 이는 자연과 거의 차단돼 버린 도시의 삶을 잘 보여 준다. 자신의 서식 공간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진행되는 근대화와 도시화가 오래 갈 수는 없었다. 동물과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준 것인지는 의문이다. 도시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이 웅크리고 있었다. 화려한 고층빌딩과 다 쓰러져 가는 판잣집의 대조는 도시화의 명암을 그대로 보여 준다. 매교동은 도심에 위치했기에 초기 도시화 과정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나았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 구호대상자를 보면 매교동에는 71가구에 181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원 전체 20개 동 중에서 14번째로 적은 숫자였다. 상대적으로 매교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1985년에는 75가구 18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는 수원 전체에서 9번째로 많은 숫자였는데, 1980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셈이었다. 불과 5년 만에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은 매교동 지역의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도심 공동화 현상과 관련되지 않나 한다. 즉



1997년 교동과 매교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92년 복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천(수원박물관 제공)



2002년 오염된 수원천 복개구간을 청소하는 수원시민(수원박물관 제공)



1998년 매교동의 실직자 노임소득사업(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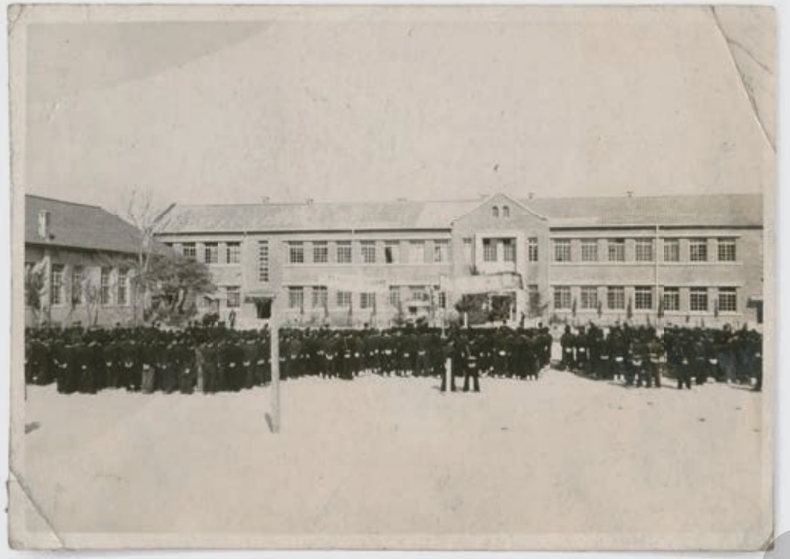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0년에는 82가구에 219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기록되었다. 이는 수원 전체에서 가구는 6위 인구는 8위에 해당하였다. 도심 공동화가 점차 진행될수록 매교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3) 도시화와 교육문화시설의 확충

도시화는 단순히 인구밀집이나 경제생활의 편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골에 비해 도시가 가지는 커다란 장점으로는 흔히 교육과 문화생활의 이점이 꼽힌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에 교육과 문화시설이 도시로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선거를 통한 권력 구성이라는 민주주의 제도상 국가의 정책이 도시민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교육과 문화도 자본주의적 관계의 연장이었기에 대규모 화폐 흐름의 결절점인 도시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 문화시설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교동의 도시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측면이라 할 것이다. 먼저 매교동의 교육시설을 살펴보자. 초등교육기관은 없었지만 교동에는 1954년 개원한 수원유치원이 있었다. 중등학교로는



1950년대 후반 수원고등학교 본관(홍기헌 제공)



수원고등학교 본관

1960년 기준 매교동에 수원중학교가 존재하였다. 1907년 설립된 수원상업강습소에 기원을 둔 수원중학교는 1946년 6년제 중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1951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1960년 수원중학교의 학생수는 846명과 950명, 교사는 10명과 22명씩이었다. 1970년에는 학생수가 1,411명으로 급증하는데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가 기본적 원인으로 보인다. 1985년 기준으로는 대략 1,500여 명의 학생수였는데 1970년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1990년에는 입학생이 411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0여 명이 줄어들었다.

고등학교는 수원고등학교가 매교동에 있었는데, 1960년 현재 교원 18명에 학생은 615명이었다. 수원고등학교는 1964년 말 기준 학생수가 766명으로 증가했으며 1970년에는 745명을 기록해 큰 차이가 없었다. 중학교 학생수가 급증한 것에 비추어 고등학교 학생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진학률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1985년 기준으로 수원고의 입학생은 540명에 이르러 전체 학생수는 1,5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1990년에는 다시 556명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한편 매교동 교육기관의 특징으로 수원가정기술학교와 고려공예기술학교 등의 직업학교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1960년 기준 각각 3학급과 5학급에 학생수는 62명과 232명이었다. 1970년대 들어 가정기술학교가 직업 직업고등공민학교로 개편된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수는 540명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여 준다. 고려공예기술학교도 고려고등기술학교로 개명하여 학생수 287명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보여 준다.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산되면서 점차 축소되는 추세였음에도 수원에서는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고등공민학교는 원래 초등교육을 이수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화되면서 진학률이 올라가자 자연스럽게 그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수원에서 학생들이 대폭 증가한 것은 그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던 사정을 반영한다. 또한 일반 학교가 아니라 직업 고등공민학교였기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대신 사회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이 많았음을 반증해 준다.

또 하나 교동의 특이한 점은 수원화교중정소학교가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다. 1957년 12월 1일 개교한 이 학교는 1960년 기준 6학급에 교사 6명, 학생 136명이었다.[19] 화교학교도 1970년에는 학생수가 169명으로 증가하였다. 화교학교는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 언론에서도 교사 낙성식을 보도하는 등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1962년 9월 16일에는 류어만 주한 중국대사, 이백일 수원시장 등이 참석해 교사 낙성식이 치러졌다.[20]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고려고등기술학교 건물(수원박물관 제공)

화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에서 어지간한 도시치고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화교들의 이주는 폭넓게 이루어졌다. 한국은 드물게 화교들의 집단 거주지가 유지되지 못한 대표적 사회이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 차이나타운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잠시 존재하기도 했지만, 박정희 체제는 화교들의 사회활동을 극도로 제한했기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960년대까지 수원 도심인 매교동에 화교학교가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원의 도시 기반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화교들은 무엇보다 도시 상업을 통해 생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교시설 현황을 살펴보자. 가장 이른 시기에 설립된 종교시설은 성공회 계열의 수원교회이다. 1905년 교동에 설립된 이 교회의 신도는 1960년 기준 500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교세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1970년 통계에는 220명으로 줄어든다. 다음으로 월남한 장로교인들을 중심으로 1946년 설립된 수원교회(돌집교회)이다. 1964년 기준 신도수는 130명으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설립연도는 빨랐다. 1970년 수원교회 신도수는 250명으로 증가한다. 그다음 교동에는 1956년 설립된 수원제2교회(장로교)가 1964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제8회 졸업식 기념촬영(수원화교중정소학교 제공)



수원화교중정소학교

년 기준 210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1958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설립되었고 1964년 기준 신도수 70명이었다. 또한 같은 해인 1958년 설립된 수원성결교회도 1964년 기준 156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었다. 성결교회는 1964년 말에 가면 신도수가 315명으로 증가했고 1970년에는 다시 줄어들어 250명이었다. 신도수가 크게 늘어난 교회는 수원중앙침례교회로 1970년 무려 7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에 신설된 교회로 기독교 성실교회가 있는데 신도수는 150명 정도였다.

특이한 교회로는 화교들이 세운 화교교회(노득파)가 있다. 1956년 세워진 이 교회는 1960년 기준 25명의 신도로 교세가 크지는 않았다. 1970년에는 신도수 4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교의 존재는 도시화의 상당히 의미있는 지표가 된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화교 학교와 교회가 유지될 정도로 매교동의 화교들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천도교 수원교구도 교동에 있었는데, 신도수는 47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 중반까지 매교동에 불교 사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1965년 문수사라는 사찰이 설립된다. 1971년 통계연보에는 신도수 2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교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원향교가 있었다. 향교의 회원수는 2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21] 주지하듯이 한국의 사찰은 주로 산중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도심 한 복판에 사찰이 등장한다는 것은 도시화에 따른 불교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인구가 도심에 밀집하고 대부분의 삶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된 사정 하에서 산중사찰을 고집한다면 신도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도시 중심으로 그 세를 크게 넓혀 가고 있던 기독교 계통의 종교들로부터도 큰 자극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교회는 도시화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불교와 달리 기독교 계통의 종교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졌고 도시민들의 종교생활의 중요한 형태였다. 특히 침례교회가 교동에 위치했던 점이 눈에 띈다. 다른 개신교회가 이미 일제시기부터 포교가 시작된 것에 반해 침례교회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을 통해 들어와 비교적 포교 역사가 매우 짧았다. 침례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음에도 한국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늦어 그만큼 교세 확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교동에 침례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교동의 변화가 컸음을 반증해 준다.

흥미로운 통계 중의 하나는 미신업자 분포 상황이다. 무당과 점쟁이, 관상, 풍수, 사주, 독경 등으로 구분된 통계표를 보면 교동에는 사주 2명 무당 3명 등 총 5명이 기록되었고 매교동에는 무당 11명에 관상과 사주 그리고 풍수가 각각 1명씩 총 14명의 미신업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매교동 단독으로도 수원에서 제일 많은 규모였다. 여기에 교동을 합치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는데, 전체 102명 중 18.6%에 달하였다. 그러나 1964년 말에 가면 교동과 매교동을 합쳐 17명의 미신업자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원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였다. 제일 많은 곳은 27명이 기록된 인계동이었다. 다시 1980년 통계를 보면 미신업자가 11개소로 줄어들어 수원 전체에서도 5위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전통적 신앙체계는 불교와 함께 무속 등의 민간신앙이 주종이었다. 그런데 근대 이후 기독교 계통의 종교가 유입되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기존 신앙체계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특히 민간신앙은 근대화 전략의 주된 타격 대상이기도 하였다. 근대는 흔히 탈주술화와 세속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된다. 근대성의 발원지인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기독교적 세계를 유지하다 근대 이후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사회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국 역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민간신앙 대신 기독교계 신앙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는데, 그 주요한 무대가 도시였다. 매교동의 도시화는 신앙체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겠다.

교동에 위치한 교회와 성당 등은 마땅한 집회공간이 없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시민들의 활동공간이 된 것이다. 1992년 1월 18일에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성공회 교동성당에서 개최되었다.[22] 교동의 수원장로교회도 종종 민주화 관련 모임의 무대가 되었다. 도시가 사회적 생활공간의 중심이 되면서 각종 사회적 갈등의 주무대가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사회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표출되었다. 민주화라는 말에는 단지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이 응축된 구호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일제시기 3·1운동의 독립이란 슬로건이 다양한 사회적 열망을 함축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었다. 교회가 민주화운동의 주요 공간이 된 것은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이 극심했기에 종교적 보호막이 필요했던 사정도 있다. 어쨌건 교동 수원교회가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의 공간적 매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교동의 중심성을 반영하는 일었다고 하겠다.

문화시설로는 수원시립도서관이 교동에 있었다. 1956년 설립된 도서관 규모는 72석의 열람석을 갖춘 66평 건물에 직원은 3명이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도시의 대표적 문화시설이 교동에 있었다는 것은 교동의 중심성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도서관은 곧 신풍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9년경 성공회 수원교회 소년학교 운동회날(성공회 수원교회 제공)



195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교회 제공)



성공회 수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교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7년 수원극장(수원여고 제공)



1960년 수원극장(시사통신 수원지사, 1960, 『수원의 역정』)

다음으로 도시민들의 주요한 문화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극장 분포를 보자. 교동의 대표적 극장은 수원극장이다. 1960년 기준 510석 규모의 수원극장은 종업원 12명에 연간 관객이 7만 8,732명에 달하였다. 인근 영동에 위치한 제일극장의 962석 규모와 18만 명에 달한 관객보다는 규모나 관객수가 적었지만 수원시 전체로 2위 규모였다. 그러나 1964에 가면 수원극장의 관객수는 15만 명으로 증가한다. 시민관의 28만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원도 교동에 위치하였다. 1957년 설립된 수원문화원은 회원수 15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도서 배부 3,527권, 영화 순회상영 56회, 방송 231회, 음악감상회 3회, 강연회 3회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직원은 불과 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지 않을 수 없다.

교동과 매교동의 차이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 라디오 보유대수가 그것이다. 1960년 기준 교동은 584세대에 128대 라디오가 보급된 것에 비해 매교동은 785세대에 127대가 보급되었다. 매교동보다 교동이 훨씬 더 많은 보급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만큼 교동 거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1970년에는 매교동의 가구수는 2,170호였고 TV가 372대 라디오가 2,049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디오는 거의 매호당 1대씩 보급된 셈이었고 TV도 6호당 1대꼴



1975년 향교로에 있었던 수원문화원(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민회관에 자리한 수원문화원

이었다.

같은 시기 세류1동은 2,014호에 1,557대, 고화동은 2,810호에 1,504대의 라디오가 보급된 것에 비해 매교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매교동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준 지역은 영천동이 유일하였다. 이는 그만큼 매교동이 도심지로서 각종 문화수준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했음을 보여 준다.

3. 도시화의 명암과 매교동의 미래

도시화는 근대적 변화의 중심적 공간으로 이른바 '발전'으로 표상된 여러 이점이 존재한다. 편리한 교통, 각종 교육 및 문화시설의 집중, 합리적으로 설계된 공간 배치, 의식주의 편리함, 경제생활수준의 향상 등등 도시화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혹의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촌향도라는 거대한 사회적 이동은 이러한 도시의 특장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시화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도 사실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절도와 강도 등 범죄 역시 시골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빈발하는 위험공간인 것이다. 밀집에 따른 긴장과 스트레스도 도시민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각종 환경파괴로 인한 문제 역시 도시민의 삶을 위협한다. 사회적 긴장과 갈등도 역시 도시의 그것이 시골을 압도한다. 매교동 역시 이러한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이미 1950년대부터 매교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23] 1960~1990년대 도시의 새로운 공포였던 연탄가스 중독 사고도 빈발하였다.[24]

이러한 맥락에서 1976년 교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1976년 4월 교동 지하맥주홀에서 화재가 발생해 종업원 등 5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25]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화재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건물 주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고 발표하였다.[26] 자신도 직접 술집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건물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방화를 한 것이었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화폐 중심의 삶이 일반화되면서 돈 때문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각종 범죄의 한 양상이었다. 1979년에는 교동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점은 범인들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약을



2003년 교동과 매교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상공회의소 SUWON SOUTH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수원남부상공회의소

복용하고 하룻밤 사이에 무려 4건의 강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모두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27]

강도와 절도 같은 도시형 범죄 외에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경제사범도 나타났다. 1979년 12월 수원지검은 불량 난방기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교동 거주 사업가기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보도되었다.[28] 연탄가스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 보일러가 문제였다.

물론 교동의 상업적 도시화는 이러한 어두운 모습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1986년에는 교동에서 35년간 설렁탕집을 운영하여 모은 돈 1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김어진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29] 젊은 시절 남편과 헤어지고 온갖 고생을 하여 모은 돈을 아낌없이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한 이 이야기는 교동의 상업적 도시화가 보여 줄 수 있는 밝은 면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씨는 이 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수십 년간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명암 속에 매교동은 현재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있다. 도심 공동화와 재개발이 그것이다. 수원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시세 확장에 따라 곳곳에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도심 지역은 상대적 쇠퇴를 넘어 절대적으로도 인구가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매교동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곤란해지는 악순환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매교동은 오래된 도심이기에 각종 건물이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투자는 지지부진한 편이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천 서쪽 매교동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준비하였다. 그것이 곧 주택재개발사업인데, 그 대상 지역은 팔달8구역의 매교동 209-14번지 일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총 3,6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지어진다. 인근 인계동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현재 매교동 인구를 훨씬 뛰어넘는 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재개발은 한국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으로 오랫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오기도 하였다. 재개발에 따른 이익(대부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증가)을 기대하는 욕망의 대상이었는가 하면, 원주민들이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자의반타의반 쫓겨나고 새로운 주민들로 교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도시 재개발은 무엇보다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재개발이라면, 돈 많은 외지인들의 재산증식 욕망만 실현시켜 주는 사업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항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개발 반대 주민모임 사무소



팔달8구역 수용재결이전 사전 안내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더 나아가 과연 도시 재개발만이 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시가지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함을 세계 여러 나라가 보여 준다. 한국의 도심 재개발은 거의 무조건 기존 시가지와 주택을 완벽하게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그 허허벌판 위에 완전히 새로운 시가지와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역사와의 거대한 단절을 경험케 하는 재개발은 주민들의 삶조차도 파괴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이 살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안타까움에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라는 설득만이 능사인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매교동의 미래가 돈이 아닌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지길 기대해 본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 1984, 3쪽.
2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 1984, 15쪽.
3 박재용, 「통계자료를 이용한 공간적 변동파악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4집 제1호, 2001 참조.
4 1950~1960년대 간략한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는 본서 1부 1장 「매교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참조.
5 신행우, 「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수원시 수원성을 중심으로」, 세종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64쪽.
6 우성숙, 「수원시 도시발달과 중심기능의 입지 변화」,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8~30쪽.
7 우성숙, 「수원시 도시발달과 중심기능의 입지 변화」,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4~5쪽.
8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65. 이하 특별한 각주 없이 서술되는 내용들은 『수원 통계연보』에 의거한 것이다.
9 우성숙, 「수원시 도시발달과 중심기능의 입지 변화」,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8쪽.
10 우성숙, 「수원시 도시발달과 중심기능의 입지 변화」,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0쪽.
11 우성숙, 「수원시 도시발달과 중심기능의 입지 변화」,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6쪽.
12 『매일경제』 1986년 11월 7일; 『매일경제』 1986년 12월 26일.
13 『동아일보』 1979년 7월 30일.
14 『매일경제』 1979년 7월 30일.
15 수원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0.
16 신행우, 「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수원시 수원성을 중심으로」, 세종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48쪽.
17 『동아일보』 1994년 9월 1일.
18 『한겨레신문』 1991년 10월 13일.
19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61, 56쪽.
20 『경향신문』 1962년 9월 17일.
21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6년, 58~60쪽.
22 『한겨레신문』 1992년 1월 17일.
23 1955년 8월 7일 수원시 매교동 진흥기계공장(구 도가니 공장) 앞 넓은 공지에서 짐을 자던 3명이 트럭에 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동아일보』 1955년 8월 12일)
24 1963년 1월 30일에는 매교동 주민 한 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경향신문』 1963년 2월 1일)
25 『경향신문』 1976년 4월 6일.
26 『경향신문』 1976년 5월 12일.
27 『경향신문』 1979년 5월 30일.
28 『경향신문』 1979년 12월 12일.
29 『경향신문』 1986년 10월 28일.

도시 쇠퇴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시 쇠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사회 특성 지표,
산업·경제 특성 지표, 물리환경 지표를 구축하였으며,
2005년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5년까지 매교동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였다.

류형원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송민정 화성시문화재단 과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장

도시 지표를 이용한 매교동 쇠퇴 진단

1. 연구 방법 및 자료

포털사이트에 '매교동'에 대해 검색하면 '매교동 재개발'과 '매교동 분양'이 연관검색어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 매교동에 대한 주된 관심사가 '재개발'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매교동은 2009~2010년에 재개발지구로 인가가 났지만, 그동안 경기침체 및 주민들의 반대로 10년 이상 묶여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매교역 일대가 구체적인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명 '1만 2,000세대 미니신도시'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그림 1〉.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민들에게 수원시의 구도심이 어디인지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 매교동과 인계동을 대답한다. 또한 이 일대를 가보면 노후한 주택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원시 대표 구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매교동은 주택재개발사업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이라 생각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매교동은 이미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 쇠퇴 현상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 시작되



그림 1 매교동 인근 재개발구역 위치도

지 않았다면 쇠퇴가 심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재개발 승인은 10년이 넘었지만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건 2016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가 많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교동 도시 쇠퇴 지표를 파악하여 수원시 내의 다른 행정동과 비교하였을 때 매교동의 쇠퇴 정도는 어떠하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 지표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분석이 필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쇠퇴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시 쇠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사회 특성 지표, 산업·경제 특성 지표, 물리환경 지표를 구축하였으며, 2005년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5년까지 매교동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였다. 또한 매교동과 수원시 내 다른 행정동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쇠퇴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매교동의 쇠퇴 정도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매교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행정동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모색하여 향후 수원시의 도시 발전 전략과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이 분석 결과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도시 쇠퇴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별 지표를 통해 도시 쇠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각 지표를 표준화시켜 복합쇠퇴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1] 후자는 쇠퇴에 대한 지표들의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자의 분석 방법보다 비교적 복잡하고 세부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도시 쇠퇴와 관련 있는 개별지표 분석을 통해 수원 내 행정동의 도시 쇠퇴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 쇠퇴 산출식을 통해 매교동의 도시 쇠퇴 정도를 진단하였다. 분석은 소지역 단위인 집계구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집계구는 읍면동의 1/30 규모로, 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이다. 또한 약 300세대 내외의 비교적 균질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등질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동별 비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매교동의 비교군이 수원 내 행정동이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집계구 단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지역은 수원시 전 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최근에 개발된 주거지역은 제외시켰다〈그림 2〉. 개발제한구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녹지지역(생산·보전·자연)은 산지 및 농경지이므로 쇠퇴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근 개발된 주거지역은 비교적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도 연구지역에서 제외시켰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이며, 인구·사회 특성 지표, 산업경제 특성 지표, 물리환경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행정동 단위로 가공하여 GIS를 이용해 시각화하였다. 도시 쇠퇴에 활용되는 지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지표만을 구축하였다. 인구·사회 특성 지표로는 인구 변화율, 노령화지수, 고령인구수, 경제활동인구, 노년부양비를 구축하였으며, 산업·경제 특성 지표로는 총사업체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을 구축하였다. 또한 물리환경 지표로는 노후주택 비율과 신규주택 비율, 소형주택 비율을 구축하였다〈표 1〉.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구축한 지표는 집계구에 통계 값을 일 대 일 매칭하였으며, 5분위로 나누고 GIS로 시각화하여 개별 지표별 쇠퇴 정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내 다른 행정동과 비교하여 매교동의 쇠퇴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 쇠퇴 분석 산출식을 통해 매교동의 도시 쇠퇴 정도를 진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최근에 개발된 주거지역을 제외한 수원시 전 지역이며, 수원 내 분포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과 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5년도의 집계구 경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지표

영역	지표	산출식	출처
인구·사회	인구 변화율	[(2015년 인구/2005년 인구)^0.2]-1	통계청 인구총조사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	
	고령인구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65세 미만 인구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100	
산업·경제	총사업체수	총사업체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사업체당 종사자수	종사자수/사업체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종사자수/총종사자수)*100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종사자수 /총종사자수)*100	
물리환경	노후주택 비율	(20년 이상 노후주택수/주택수) *100	통계청 주택총조사
	신규주택 비율	(최근 5년안에 신축된 주택수/전체주택수) *100	
	소형주택 비율	(19평 이하/전체주택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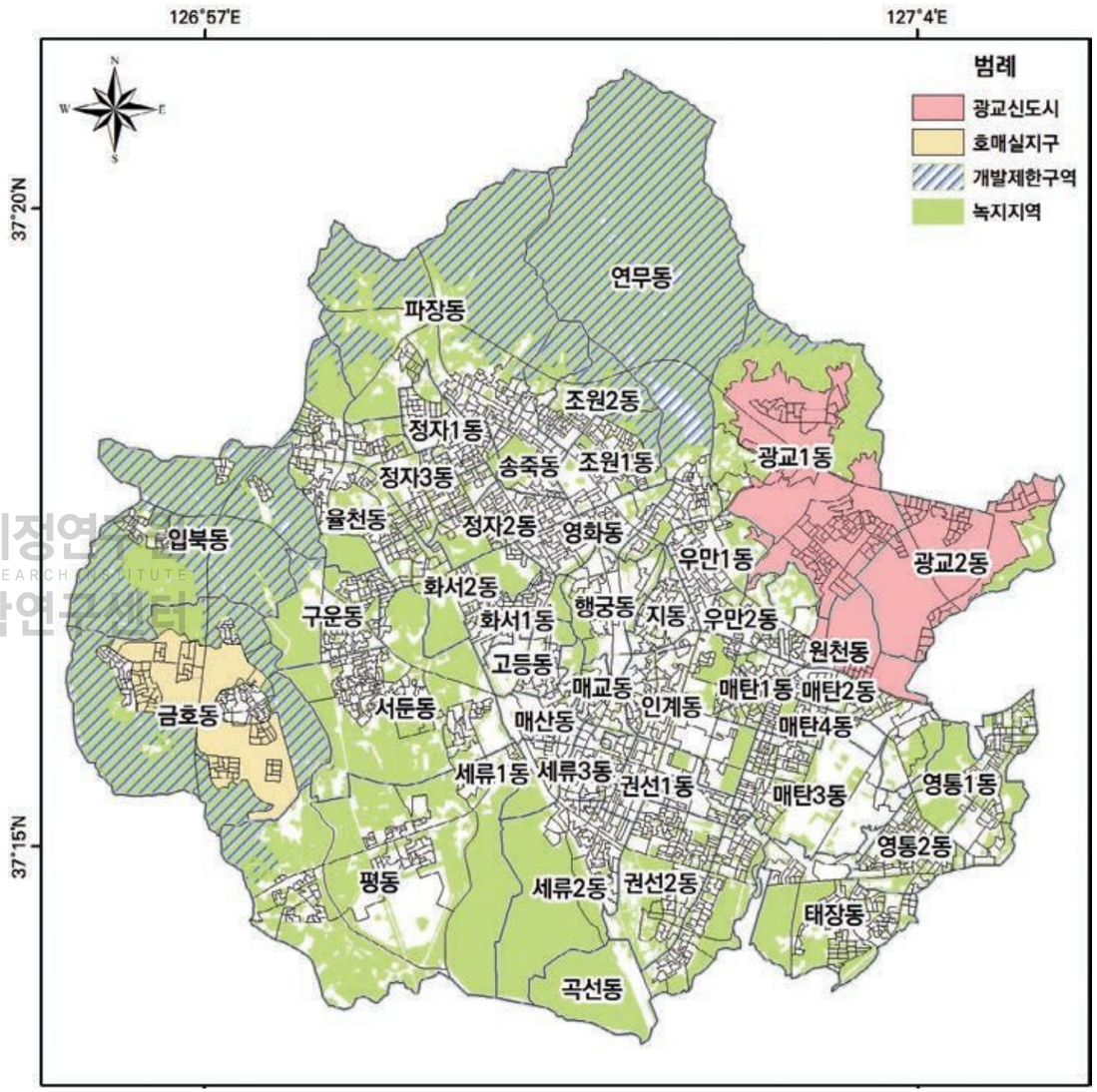


그림 2 도시 쇠퇴 분석 지역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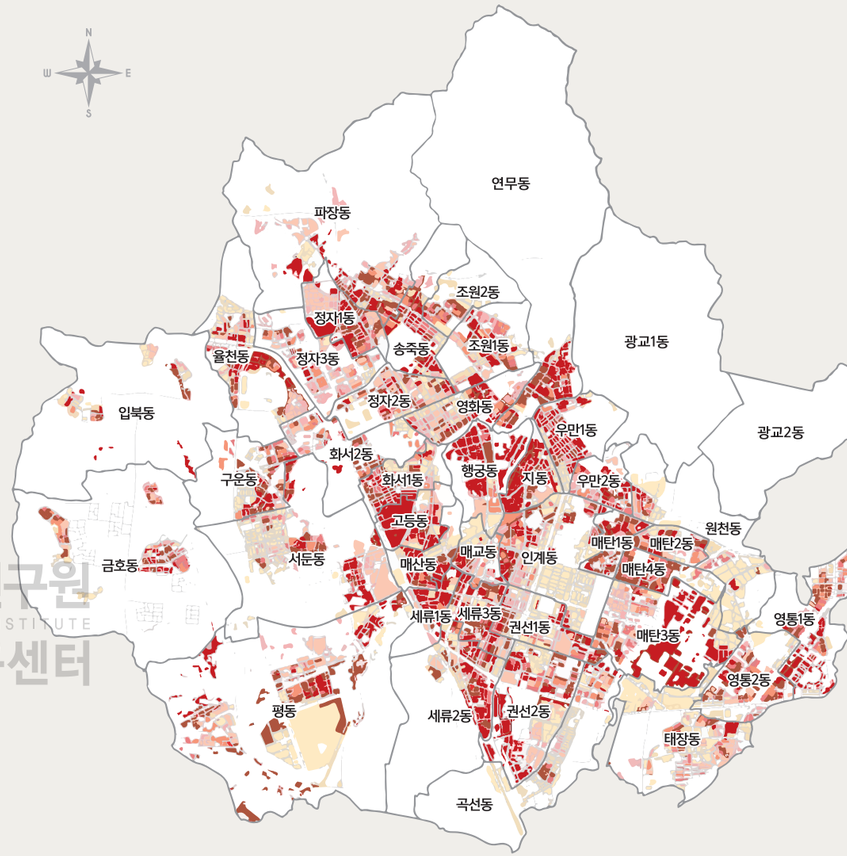
2. 인구 및 사회 부문 도시 쇠퇴 현황

1) 인구 변화율

인구 변화율은 2005년과 2015년 사이의 증감률을 뜻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음(−)의 값으로 나타나며, 인구가 증가하면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10년 동안 수원시 전 지역 중 팔달구 우만1동이 28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권선구 권선2동이 21개, 권선구 세류2동이 20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팔달구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른 행정동과 비교하였을 때 매교동은 수원시 전 지역 기준으로는 인구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지만, 인구 감소가 큰 지역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3〉.

표 2 2005~2015년 인구 변화율 하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우만1동	28	우만2동	13	영통2동	8
권선2동	21	정자1동	13	정자2동	8
세류2동	20	권선1동	12	원천동	7
영통1동	19	파장동	12	영화동	6
인계동	19	평동	12	매탄3동	5
지동	19	화서1동	12	입북동	5
연무동	17	구운동	11	곡선동	4
세류3동	16	세류1동	11	매교동	4
율천동	16	금호동	10	매탄4동	4
행궁동	15	서둔동	10	화서2동	4
송죽동	14	매산동	9	정자3동	3
조원1동	14	매탄1동	8	조원2동	3
고등동	13	매탄2동	8	태장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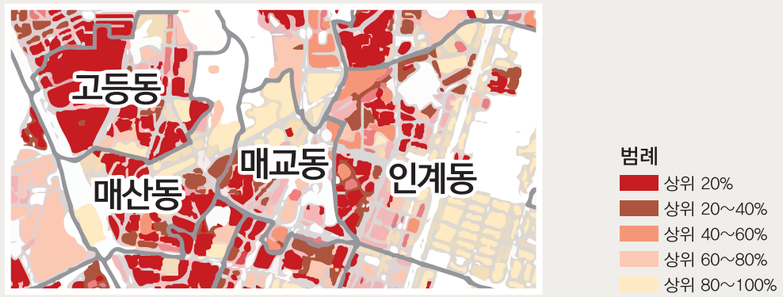


그림 3 2005~2015년 인구 변화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하며, 노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쇠퇴한 지역으로 판단한다. 2005년 노령화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영화동과 팔달구 지동이 26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 연무동이 25개, 팔달구 인계동이 22개, 팔달구 행궁동이 21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팔달구를 중심으로 노령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행정동과 비교했을 때 매교동은 집계구 17개로 상위 20% 지역 중에서도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4〉.

2015년 노령화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연무동이 29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 영화동이 28개, 팔달구 인계동과 지동이 27개, 장안구 파장동이 22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영화동, 인계동 등 팔달구를 중심으로 노령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동안 수원시의 노령화지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다른 행정동과 비교했을 때 매교동은 집계구 16개를 포함하고 있어 상위 20% 지역 중에서도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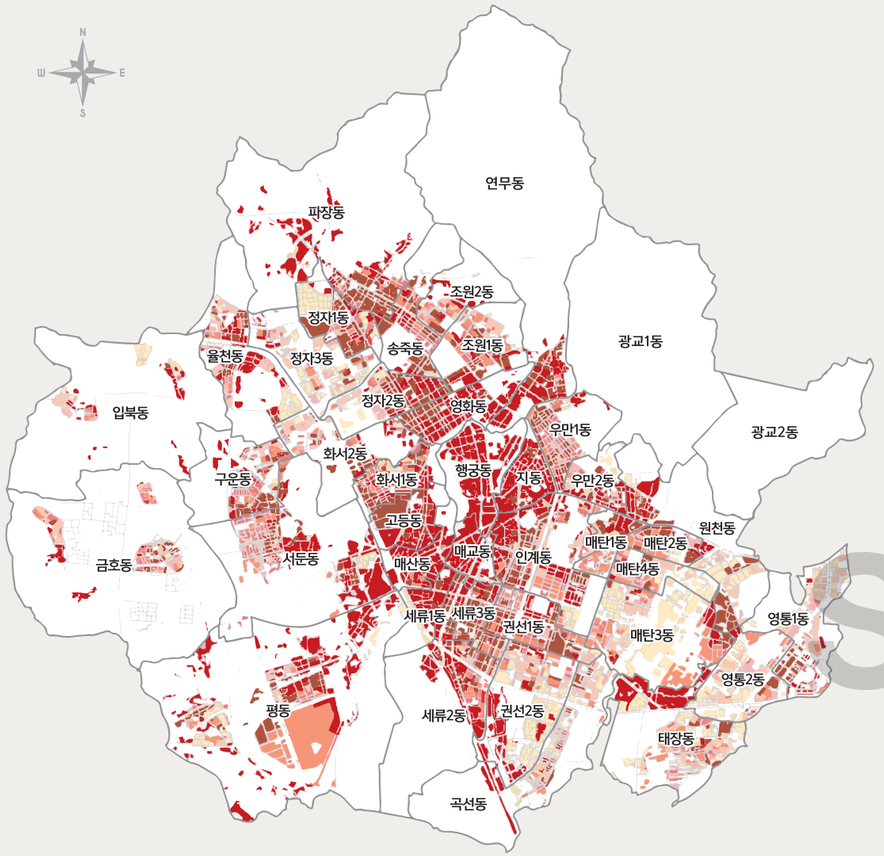
표 3 2005년 노령화지수 상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영화동	26	평동	15	우만1동	6
지동	26	율천동	14	우만2동	6
연무동	25	원천동	11	조원2동	6
인계동	22	화서1동	11	태장동	6
행궁동	21	권선2동	9	금호동	5
세류2동	20	세류3동	9	매탄3동	5
매산동	18	정자1동	9	권선1동	4
서둔동	18	조원1동	9	매탄1동	4
고등동	17	화서2동	8	정자3동	3
매교동	17	송죽동	7	곡선동	2
정자2동	17	입북동	7	매탄2동	2
세류1동	16	구운동	6	매탄4동	1
파장동	15	영통1동	6	영통2동	1

표 4 2015년 노령화지수 상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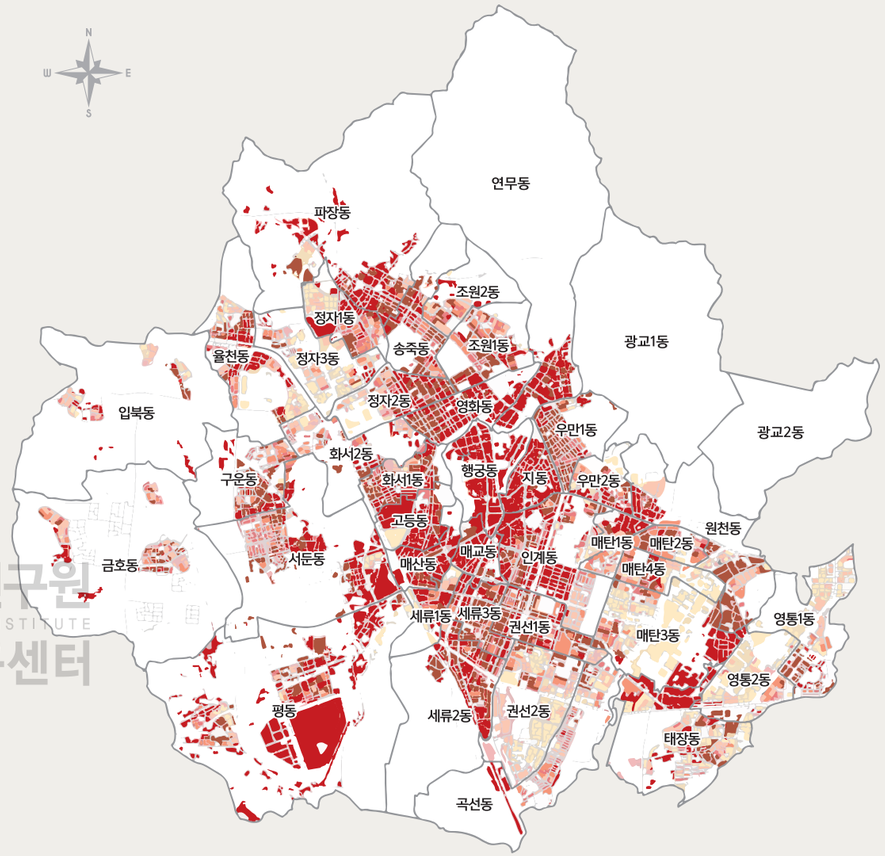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연무동	29	율천동	15	매탄3동	5
영화동	28	정자2동	15	입북동	5
인계동	27	세류3동	14	우만2동	4
지동	27	정자1동	10	곡선동	3
파장동	22	조원1동	10	금호동	3
세류2동	21	구운동	8	매탄4동	3
행궁동	21	우만1동	8	영통1동	3
고등동	18	권선1동	7	영통2동	3
평동	17	매탄1동	7	정자3동	3
매교동	16	송죽동	7	조원2동	3
매산동	16	원천동	7	화서2동	3
서둔동	16	세류1동	6	매탄2동	2
화서1동	16	태장동	6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4 2005년 노령화지수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5 2015년 노령화지수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고령인구수

고령인구수는 만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수를 뜻한다. 고령인구수가 높을수록 쇠퇴한 지역으로 판단한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수원시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8%이므로 고령화사회에 해당한다.

2005년 수원시 내에서 고령인구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연무동이 29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팔달구 지동이 23개, 장안구 정자1동이 20개, 팔달구 화서1동이 20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5〉. 전체적으로는 원도심 지역인 팔달구와 장안구의 인접경계를 중심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다른 행정동과 비교했을 때 매교동은 고령인구 상위 20% 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수원시 내에서 고령인구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연무동이 26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 정자2동이 25개, 팔달구 지동이 25개, 팔달구 화서1동이 24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6〉. 전체적으로는 고령인구가 83,604명이었던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46,285명으로 고령인구가 감소하였다. 고령인구 분포양상이 2005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지만, 권선1동과 세류3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수대로를 중심으로 고령인구가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이 동서로 뚜렷하게 나뉜 것이 특징이다〈그림 7〉. 2005년에 고령인구 상위 20% 지역 중에서도 상위권이었던 매교동은 2015년에 고령인구 상위 20%인 지역 중에서 중위권에 편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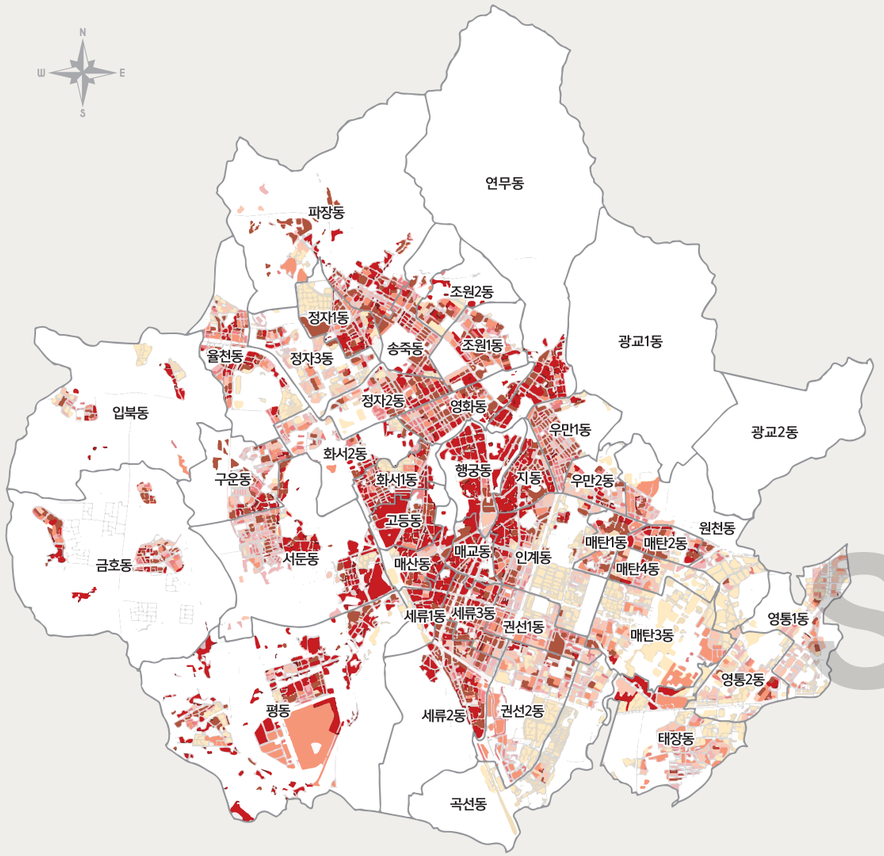
표 5 **2005년 고령인구 상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연무동	29	정자2동	13	우만2동	5
지동	23	조원1동	13	입북동	4
정자1동	20	세류3동	12	정자3동	4
화서1동	20	파장동	12	권선1동	2
서둔동	18	금호동	11	매탄1동	2
인계동	18	율천동	11	매탄3동	2
행궁동	18	매산동	10	매탄4동	2
고등동	16	조원2동	10	영통2동	2
매교동	15	구운동	9	원천동	2
세류1동	14	송죽동	7	광교1동	1
세류2동	14	우만1동	6	권선2동	1
영화동	14	화서2동	6	영통1동	1
평동	14	매탄2동	5	태장동	1

표 6 **2015년 고령인구 상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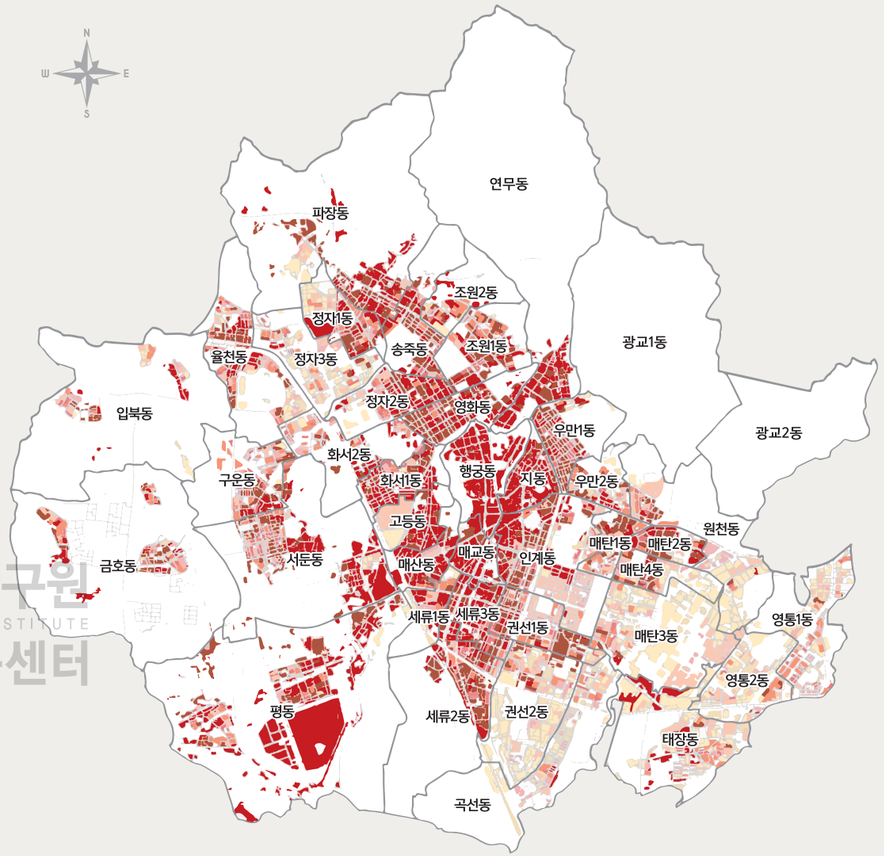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연무동	26	금호동	15	권선1동	3
정자2동	25	매교동	15	매탄1동	3
지동	25	매산동	13	우만2동	3
화서1동	24	정자1동	13	입북동	3
행궁동	21	조원1동	12	태장동	3
영화동	20	송죽동	10	매탄3동	2
세류3동	19	우만1동	10	매탄4동	2
인계동	19	조원2동	10	원천동	2
파장동	19	율천동	7	정자3동	2
고등동	18	세류1동	6	곡선동	1
서둔동	18	구운동	5	광교2동	1
평동	18	매탄2동	5	권선2동	1
세류2동	16	화서2동	5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6 2005년 고령인구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7 2015년 고령인구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별 지역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것이며, 낮을수록 쇠퇴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년 수원시 내에서 경제활동인구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권선구 권선2동이 39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통구 태장동이 38개, 장안구 정자1동이 32개, 매탄3동이 31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7, 그림 8〉.

매교동은 노령화지수와 고령인구가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하위 20% 지역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경제활동인구 하위 20% 지역 대비 비교적 많은 경제활동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수원시 내에서 경제활동인구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정자3동이 37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통구 매탄3동이 22개, 영통구 영통1동이 21개, 권선구 금호동이 21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8〉.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73만 7,359명이었던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790,126명으로 경제활동인구가 52,767명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변화된 지역은 장안구 정자3동이다. 2005년에 10개 집계구로 하위 20%지역 중에서 중위권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하위 20%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마찬가지로 매교동은 경제활동인구 하위 20% 지역 대비 비교적 많은 경제활동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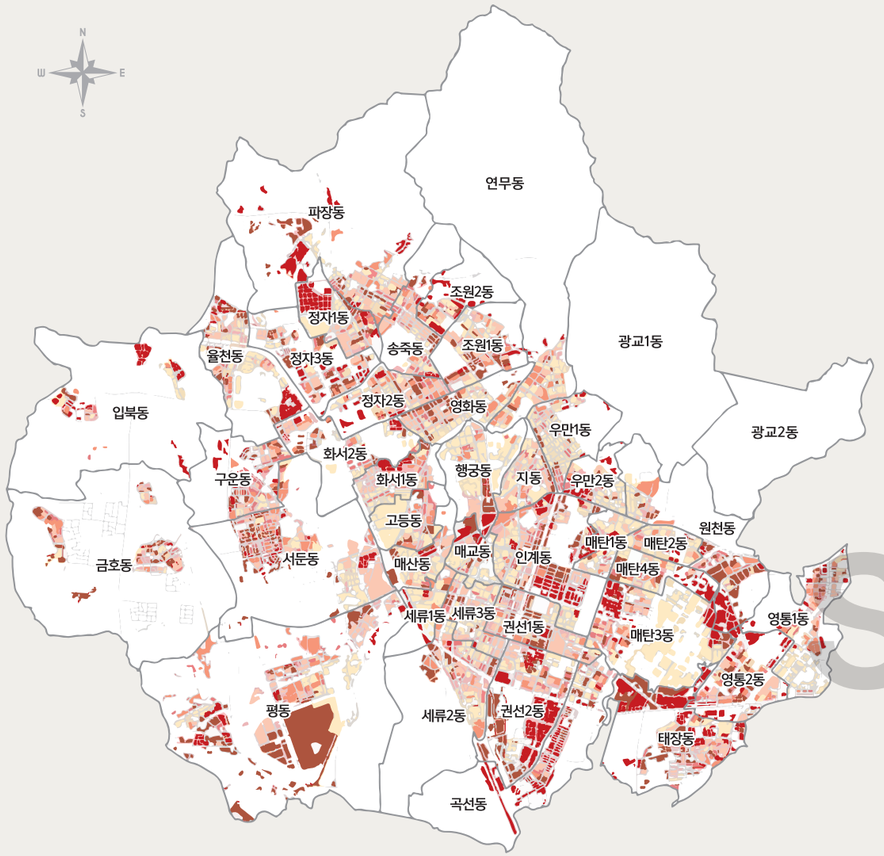
표 7 2005년 경제활동인구 하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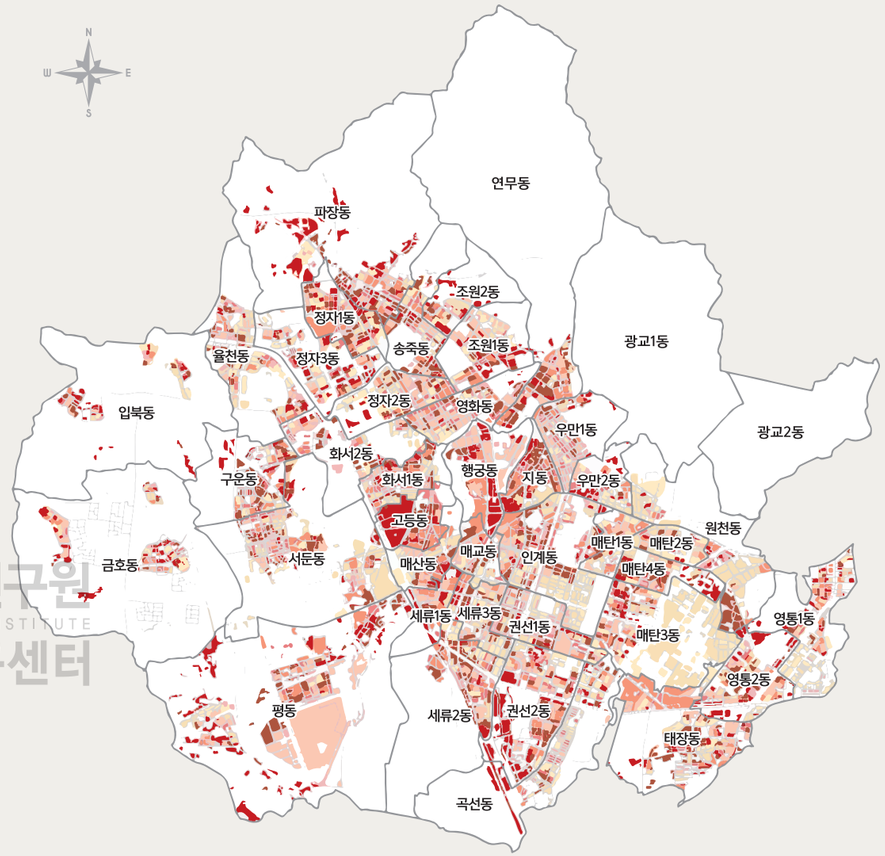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권선2동	39	조원2동	11	금호동	4
태장동	38	영통1동	11	우만1동	3
정자1동	32	영통2동	11	매교동	3
매탄3동	31	화서2동	10	세류1동	3
율천동	25	정자3동	10	세류2동	2
곡선동	24	구운동	9	매탄4동	2
입북동	22	우만2동	8	세류3동	2
인계동	21	원천동	8	연무동	1
평동	16	권선1동	8	매산동	1
서둔동	15	송죽동	7	행궁동	1
매탄1동	15	정자2동	7		
파장동	14	매탄2동	5		
화서1동	12	조원1동	4		

표 8 2015년 경제활동인구 하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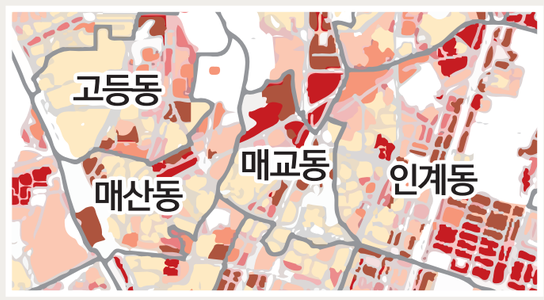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정자3동	37	매탄4동	13	화서2동	8
매탄3동	22	우만2동	12	서둔동	8
영통1동	21	구운동	12	권선1동	8
금호동	21	평동	11	지동	7
정자1동	18	조원2동	11	우만1동	7
권선2동	18	매탄2동	10	세류3동	6
영통2동	18	송죽동	10	고등동	5
태장동	17	원천동	10	세류1동	4
조원1동	17	곡선동	9	매탄1동	3
파장동	15	연무동	9	매교동	3
입북동	15	행궁동	8	영화동	3
인계동	15	정자2동	8	매산동	2
율천동	14	화서1동	8	세류2동	2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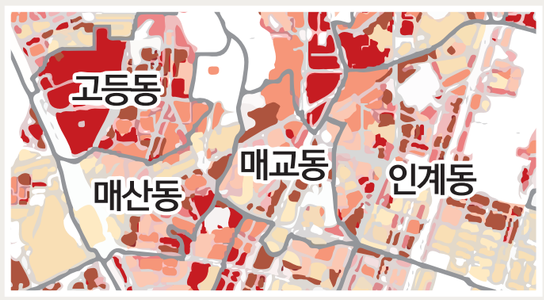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8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9 2015년 경제활동인구 분포도

5)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15~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의 비를 나타내며 높을수록 쇠퇴한 지역으로 판단한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2005년 수원시 내에서 노년부양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권선구 서둔동이 23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 연무동이 22개, 팔달구 행궁동이 21개, 팔달구 화서1동이 20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9, 그림 10〉. 전체적으로는 행궁동, 지동, 매교동, 매산동 등 팔달구를 중심으로 노년부양비가 크게 나타났으며, 어느 한 지역이 월등히 노년부양비가 크게 나타나는 곳은 없었다.

매교동은 노년부양비 상위 20% 지역들 중에서 상위권으로 편재되어 있었으며,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 현황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낮은 지역들 보다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고령인구도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수원시 내에서 노년부양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연무동이 31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 영화동과 파장동이 28개, 팔달구 지동이 26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10〉. 전체적으로는 수원시 노년부양비가 7.63%에서 12.53%로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4.9% 상승하였다. 노년부양비의 상대적인 분포양상은 2005년과 비슷하였지만, 노년부양비의 분화정도가 더욱 팔달구를 중심으로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그림 11〉.

2015년의 매교동은 노년부양비 상위 20% 지역들 중에서 중상위권 정도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평균 노년부양비가 11.84%였지만, 2015년에 22.2%로 10.36% 증가하였다. 이는 10년 동안 매교동의 고령인구는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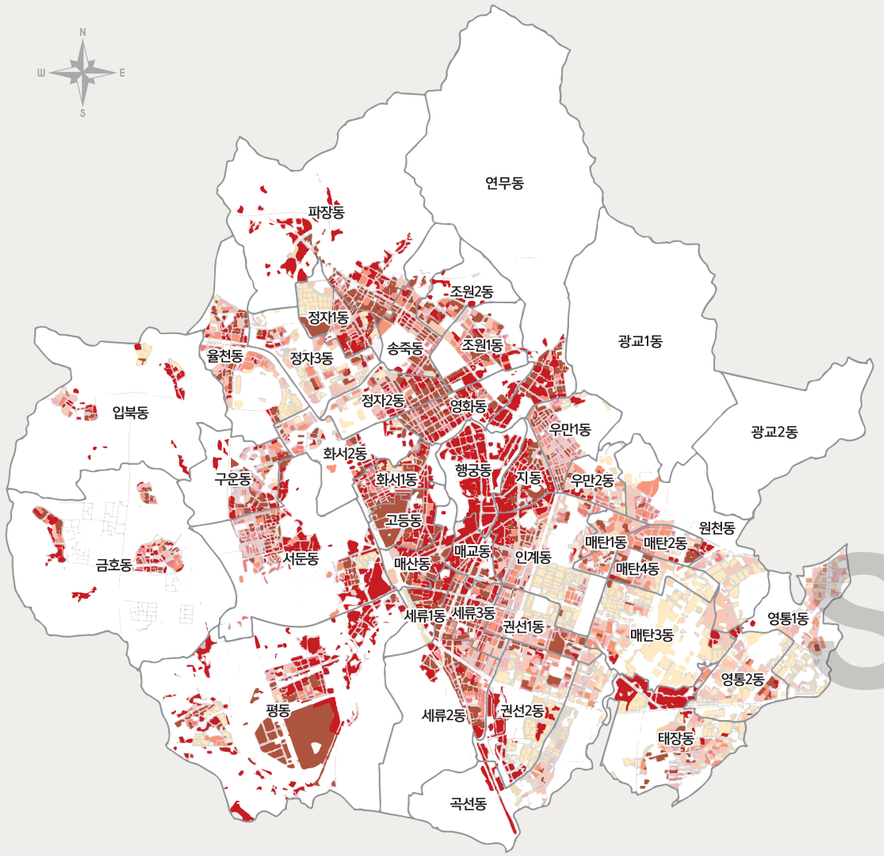
표 9 2005년 노년부양비 상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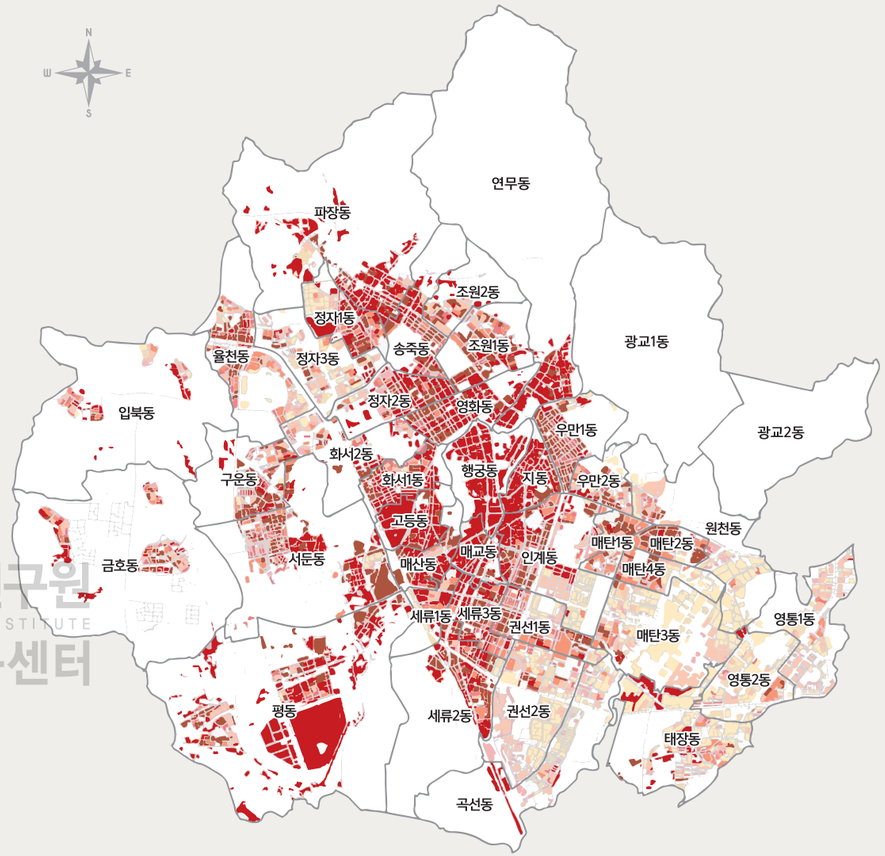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서둔동	23	정자2동	13	정자3동	7
연무동	22	세류1동	12	송죽동	6
행궁동	21	고등동	12	우만1동	5
화서1동	20	입북동	12	원천동	5
지동	20	율천동	11	매탄3동	4
금호동	19	구운동	11	우만2동	3
정자1동	19	매산동	10	영통2동	2
파장동	18	조원2동	10	권선1동	2
조원1동	17	화서2동	10	매탄2동	2
평동	17	권선2동	9	곡선동	1
영화동	17	세류3동	9	영통1동	1
매교동	15	태장동	8	매탄4동	1
인계동	15	세류2동	8		

표 10 2015년 노년부양비 상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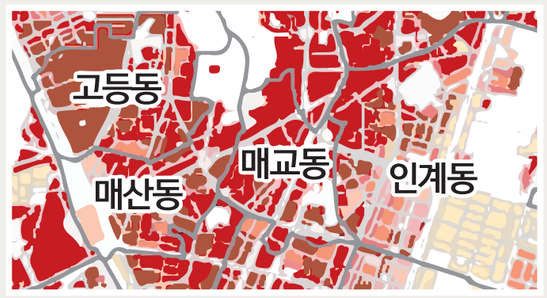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연무동	31	매교동	16	율천동	3
영화동	28	정자1동	14	정자3동	3
파장동	28	조원1동	13	곡선동	2
지동	26	매산동	12	우만2동	2
화서1동	24	송죽동	11	매탄2동	2
정자2동	23	구운동	8	태장동	2
행궁동	21	우만1동	8	매탄3동	2
인계동	19	금호동	8	매탄4동	1
세류2동	19	세류1동	7	권선2동	1
고등동	19	입북동	6	매탄1동	1
평동	18	조원2동	5	영통1동	1
세류3동	18	화서2동	5	영통2동	1
서둔동	17	권선1동	4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0 2005년 노년부양비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1 2015년 노년부양비 분포도

3. 산업·경제 부문 도시 쇠퇴 현황

1) 총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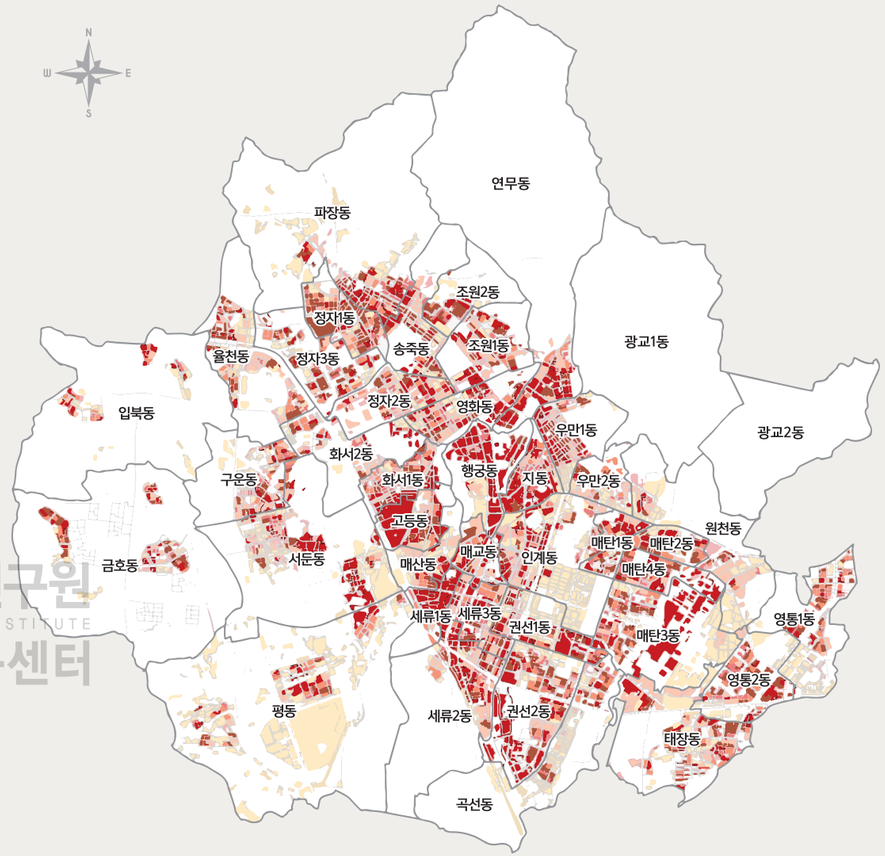
지역에 사업체가 많이 입지하고 있으면,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결국엔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지표는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의 차연산을 통해 산출한 지수로 음(−)의 값이 나타날수록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의 총사업체수 증감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조원1동이 28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권선구 세류2동이 25개, 권선구 서둔동이 24개, 장안동 파장동이 23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11〉. 전체적으로 수원시의 사업체수는 2005년 49,547개에서 2015년에 58,905개로 9,358개 증가하였다. 그 증가량은 수원시청~원천리천 사이의 지역에서 많이 증가하였다〈그림 12〉. 수원시 네 개의 구 중에서 사업체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권선구로 나타났다. 매교동의 경우 사업체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총사업체수 증감 하위 20% 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하위권에 해당하였다.

표 11 2005-2015년 총사업체수 증감 하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조원1동	28	세류3동	17	매교동	13
세류2동	25	세류1동	16	매탄4동	13
서둔동	24	우만1동	16	입북동	13
파장동	23	영통2동	16	매탄1동	12
연무동	22	행궁동	15	영통1동	11
정자3동	21	평동	14	매탄3동	11
영화동	21	화서2동	14	고등동	11
금호동	20	송죽동	14	구운동	11
권선2동	20	정자2동	14	원천동	10
태장동	19	매탄2동	13	조원2동	9
인계동	19	화서1동	13	우만2동	6
권선1동	18	정자1동	13	곡선동	6
지동	17	율천동	13	매산동	5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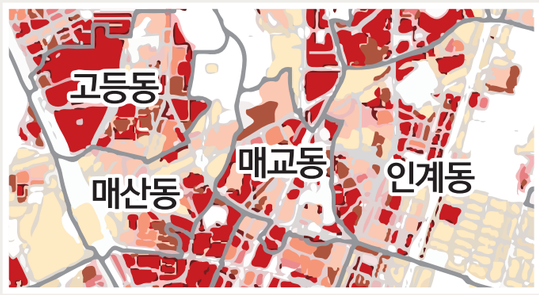


그림 12 2005~2015년 총사업체수 증감 분포도

2) 사업체당 종사자수

수원시에 운영되고 있는 전체 사업체수당 종사자의 비율을 뜻한다.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많다는 것은 지역 내 위치한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며, 규모가 큰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종사자수의 증감은 사업체수의 증감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의 변화나 쇠퇴상권 등을 판단하기에 좋은 지표이다.[3] 따라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낮을수록 쇠퇴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년 수원시 내에서 사업체당 종사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영통구 태장동이 65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 정자3동이 63개, 영통구 영통2동이 61개, 권선구 권선2동이 59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2, 그림 13〉. 매교동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수원시 내의 다른 행정동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이 지표에 한해서는 쇠퇴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수원시 내에서 사업체당 종사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정자3동이 54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권선구 권선2동이 46개, 영통구 태장동이 44개, 영통구 영통2동이 42개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13〉. 이는 2005년 때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급격한 경기 변화나 급격히 쇠퇴하는 상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14〉.

매교동의 경우 2005년엔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60명에서 2015년에 73명으로 증가하였다. 매교동은 10년 동안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증가하긴 하였지만, 2015년에도 다른 동들에 비해 평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이 지표에 한해서는 쇠퇴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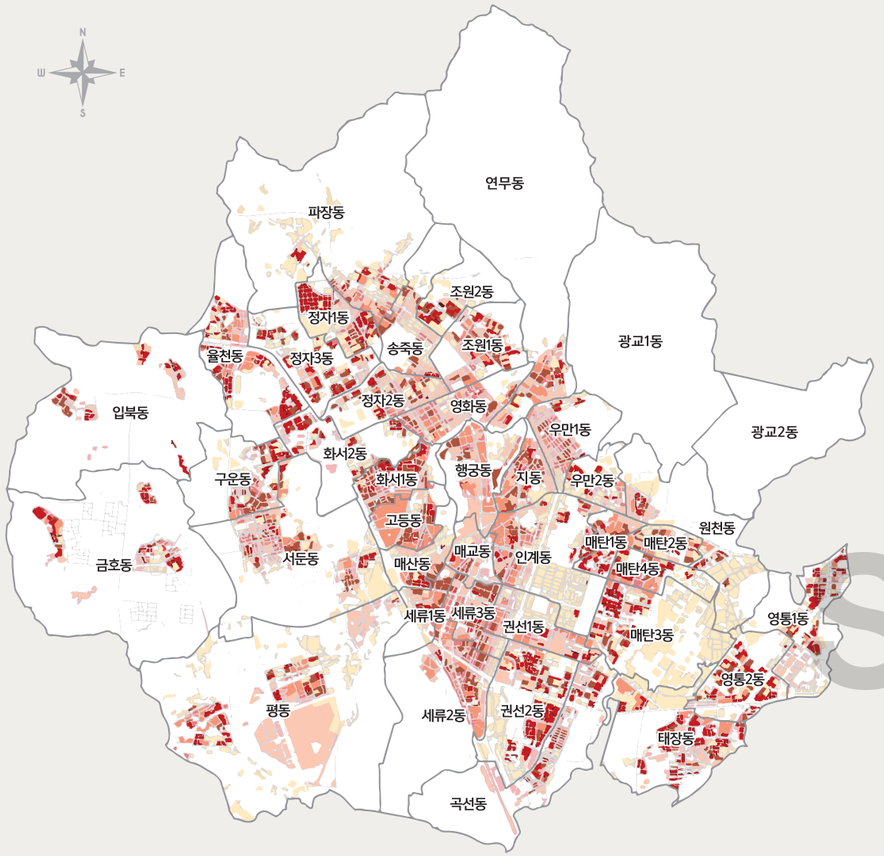
표 12 **2005년 사업체당 종사자수 하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태장동	65	인계동	28	세류3동	11
정자3동	63	구운동	27	송죽동	10
영통2동	61	서둔동	26	우만1동	9
권선2동	59	입북동	24	연무동	8
매탄3동	52	매탄1동	24	매산동	7
율천동	50	우만2동	22	매탄2동	7
영통1동	49	매탄4동	22	세류2동	5
정자1동	45	정자2동	21	세류1동	4
금호동	38	화서1동	21	지동	4
평동	37	조원1동	19	매교동	3
화서2동	36	원천동	17	고등동	3
곡선동	32	권선1동	16	영화동	3
조원2동	30	파장동	13		

표 13 **2015년 사업체당 종사자수 하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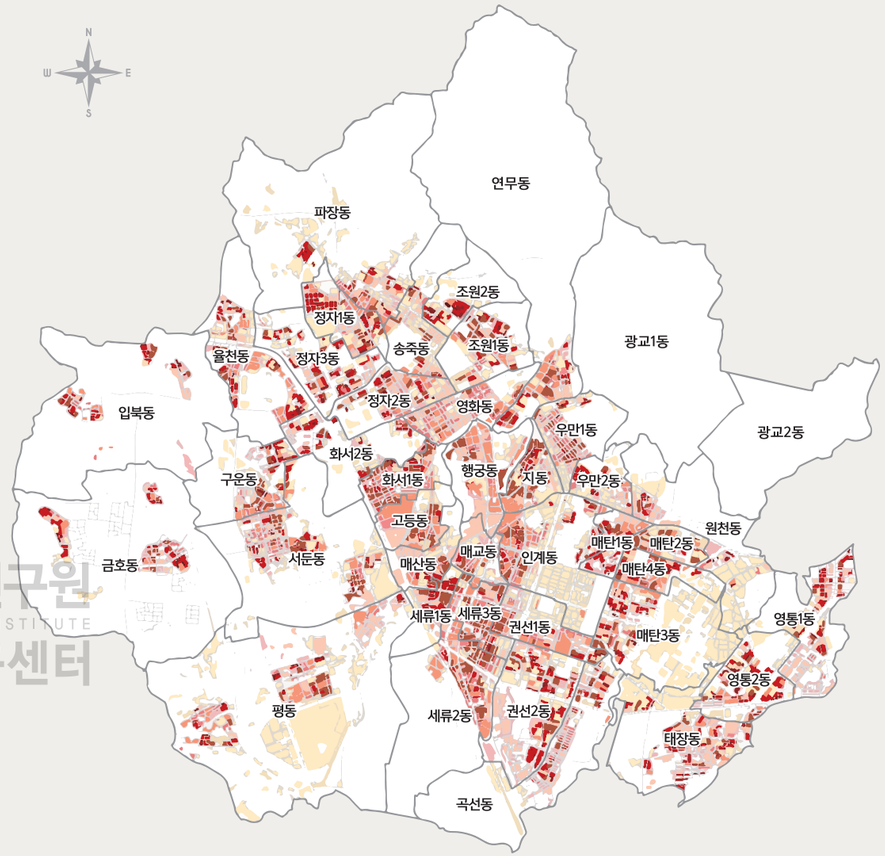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정자3동	54	인계동	22	세류1동	11
권선2동	46	입북동	22	연무동	9
태장동	44	우만2동	20	우만1동	9
영통2동	42	정자2동	19	세류3동	8
매탄3동	39	구운동	19	지동	7
영통1동	35	매탄4동	18	매탄2동	6
금호동	35	파장동	17	세류2동	6
율천동	35	조원1동	17	송죽동	6
화서2동	32	매탄1동	16	매산동	4
정자1동	29	곡선동	15	고등동	4
평동	28	화서1동	12	매교동	2
서둔동	26	권선1동	12	영화동	2
조원2동	24	원천동	12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3 2005년 사업체당 종사자수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4 2015년 사업체당 종사자수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은 모든 산업 활동의 고초로서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제조업의 쇠퇴 여부에 따라 도시경제 기반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4]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과 제조업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제조업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곳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쇠퇴한 지역으로 판단한다.[5]

2005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정자3동이 94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통구 영통2동이 90개, 영통구 태장동이 89개, 권선구 권선2동이 8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4〉. 제조업 종사자 비율 지수가 연구지역 집계구 2,174개 중 1,690개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원의 제조업은 삼성디지털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제조업 상황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매교동은 수원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 하위 20% 지역 중에서 비교적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정자3동이 94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통구 태장동이 92개, 영통구 영통2동이 91개, 권선구 권선2동이 90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5〉. 2015년 제조업 종자자 비율 지수는 여전히 삼성디지털단지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05년과 마찬가지로 매교동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비교적 하위권으로 나타났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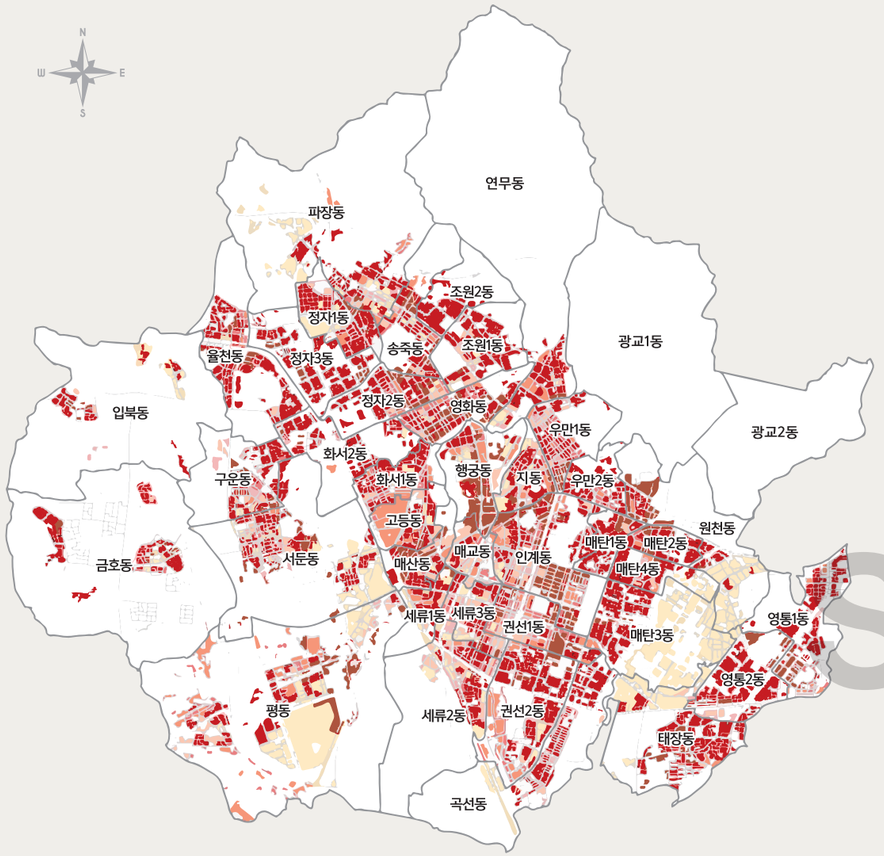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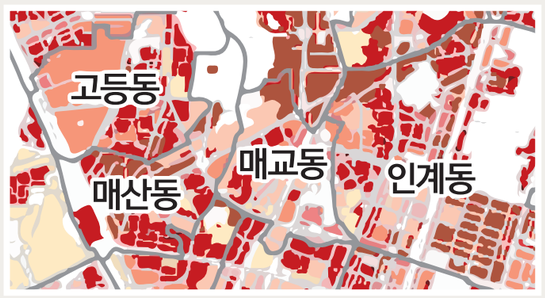
표 14 2005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 하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정자3동	94	인계동	52	권선1동	28
영통2동	90	평동	50	원천동	28
태장동	89	정자2동	48	세류3동	27
권선2동	86	구운동	45	매탄2동	26
영통1동	77	조원2동	44	송죽동	26
율천동	76	매탄4동	42	세류2동	25
매탄3동	75	화서1동	38	영화동	24
정자1동	62	우만2동	36	고등동	14
금호동	62	매탄1동	35	지동	13
곡선동	59	우만1동	31	매산동	13
서둔동	58	파장동	31	세류1동	11
화서2동	53	연무동	29	매교동	7
조원1동	52	입북동	29	행궁동	5

표 15 2015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 하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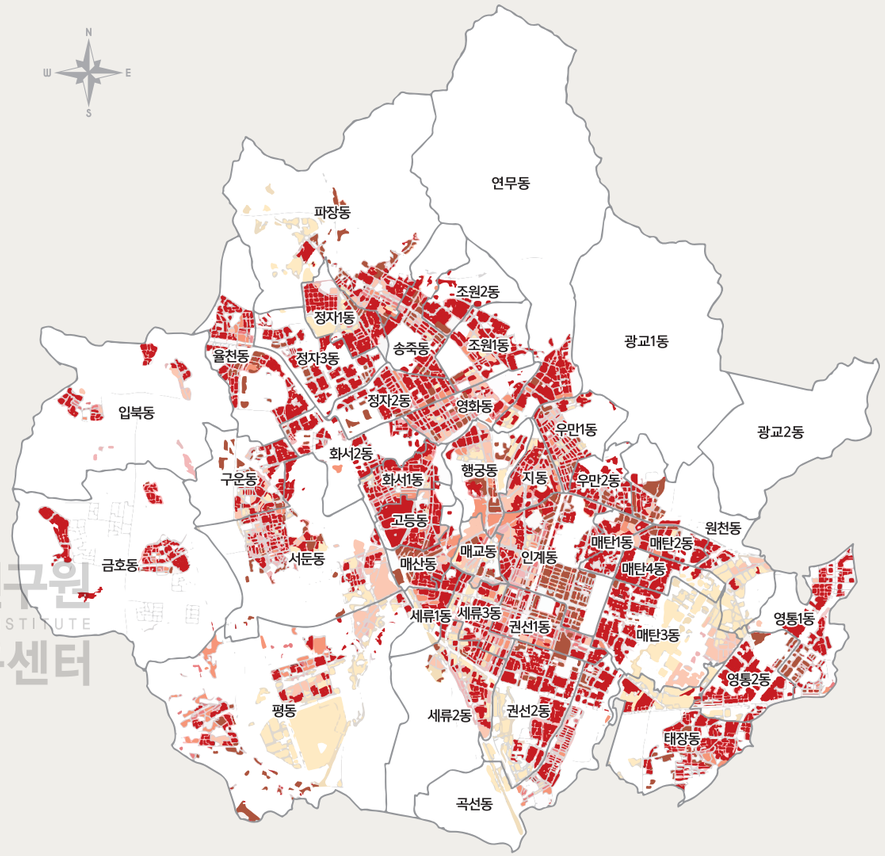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정자3동	94	곡선동	52	권선1동	34
태장동	92	평동	52	원천동	33
영통2동	91	조원1동	50	송죽동	31
권선2동	90	매탄4동	49	세류3동	30
영통1동	80	구운동	47	세류2동	28
매탄3동	76	조원2동	43	매탄2동	27
율천동	75	화서1동	40	영화동	23
금호동	65	우만2동	38	고등동	19
정자1동	64	연무동	35	지동	18
인계동	56	파장동	35	세류1동	16
서둔동	56	우만1동	35	매산동	14
화서2동	54	입북동	34	행궁동	7
정자2동	53	매탄1동	34	매교동	6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5 2005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6 2015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은 비교적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으며, 높은 임금의 고급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6]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은 낮을수록 쇠퇴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년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영통구 태장동이 77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권선구 권선2동이 74개, 장안구 정자3동이 73개, 영통구 영통2동이 6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6〉. 전체적으로 고차서비스 종사자는 수원시청이 위치한 인계동을 중심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영통2동의 경우 큰 제조업인 삼성디지털단지로 인해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매교동은 수원 내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 하위 20% 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하위권에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2015년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정자3동이 75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권선구 권선2동이 73개, 영통구 태장동이 70개, 영통구 영통2동이 68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7〉. 2015년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 지수는 2005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았으며, 여전히 인계동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2005년과 마찬가지로 매교동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비교적 하위권으로 나타났다〈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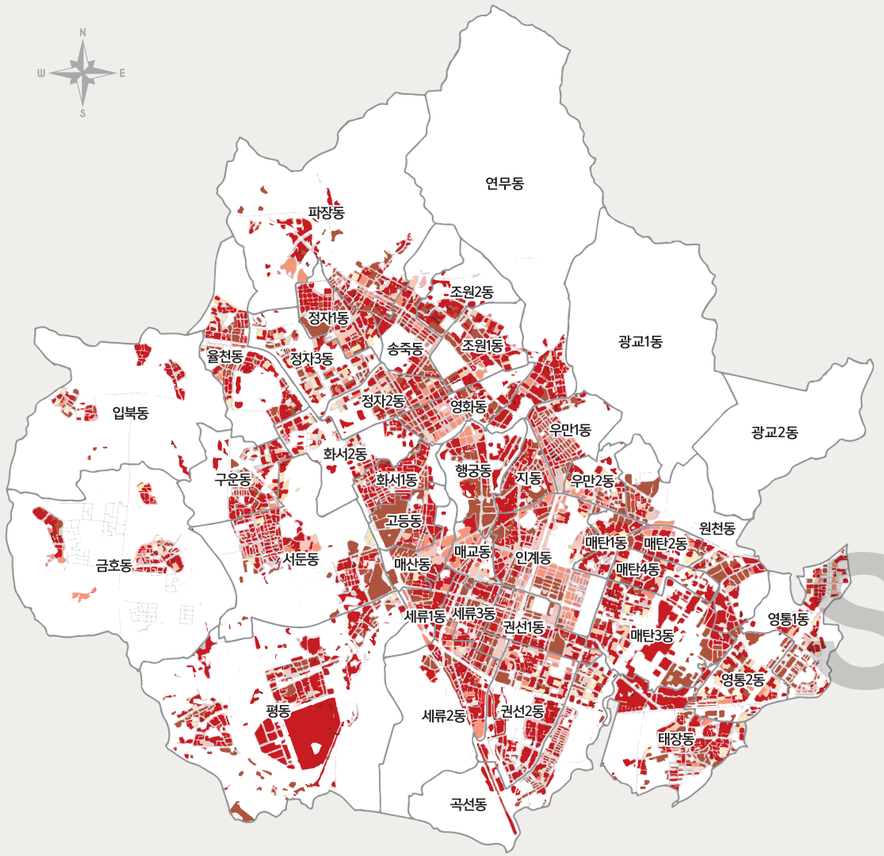
표 16 2005년 고차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하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태장동	77	인계동	44	매탄1동	29
권선2동	74	조원1동	41	권선1동	27
정자3동	73	화서2동	41	우만2동	26
영통2동	66	화서1동	39	원천동	26
율천동	64	조원2동	39	송죽동	24
매탄3동	63	매탄4동	36	영화동	21
서둔동	63	세류3동	35	매탄2동	21
영통1동	57	정자2동	34	지동	19
정자1동	55	파장동	33	고등동	14
금호동	53	연무동	31	세류1동	13
평동	47	세류2동	30	매산동	11
구운동	46	입북동	30	행궁동	11
곡선동	46	우만1동	30	매교동	8

표 17 2015년 고차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하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정자3동	75	화서2동	39	우만2동	29
권선2동	73	조원2동	38	우만1동	28
태장동	70	매탄4동	37	권선1동	23
영통2동	68	정자2동	36	원천동	22
서둔동	61	인계동	36	매탄2동	22
매탄3동	60	곡선동	36	송죽동	20
율천동	59	화서1동	34	지동	19
영통1동	59	입북동	33	영화동	18
금호동	54	연무동	32	세류1동	14
정자1동	49	세류3동	32	고등동	13
평동	45	파장동	31	매산동	9
조원1동	43	매탄1동	30	행궁동	7
구운동	40	세류2동	30	매교동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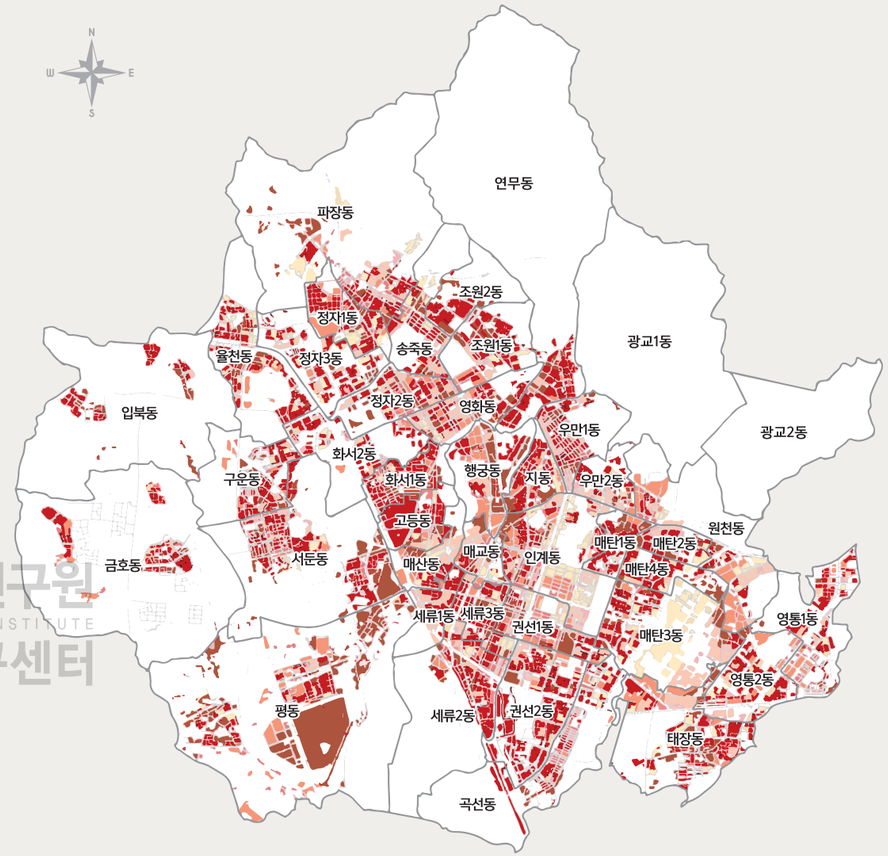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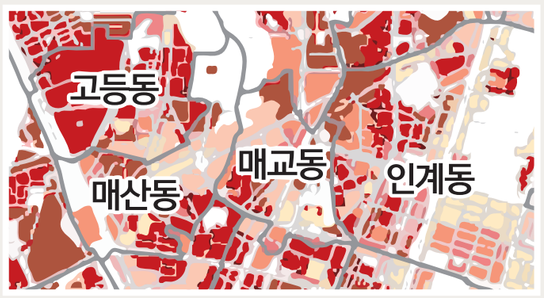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7 2005년 고차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8 2015년 고차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물리환경 부문 도시 쇠퇴 현황

1) 노후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은 총주택수에서 준공연도에서 20년이 지난 주택수를 나눈 지표로, 값이 높으면 해당 지역 내에 신축된 주택의 수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의 증가가 없거나, 재정상 신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쇠퇴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7] 또한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활동이 적으면, 물리적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어 안전이나 위생, 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8] 노후주택 비율 지표의 준공연도는 기준연도인 2005년,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 노후주택 비율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팔달구 행궁동이 13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 파장동이 10개, 팔달구 지동이 9개, 팔달구 화서1동이 9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8〉. 전체적으로 행궁동, 지동, 매교동, 인계동, 고등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높은 쇠퇴양상이 보이고 있다〈그림 19〉.

2015년 노후주택 비율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영통구 매탄4동이 41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권선구 구운동이 27개, 장안구 정자1동이 27개, 권선구 권선2동이 27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9〉. 2015년 전체적인 노후주택 비율 특징은 2005년과 마찬가지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높은 쇠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매탄4동이 월등히 높은 지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조성된 영통과 정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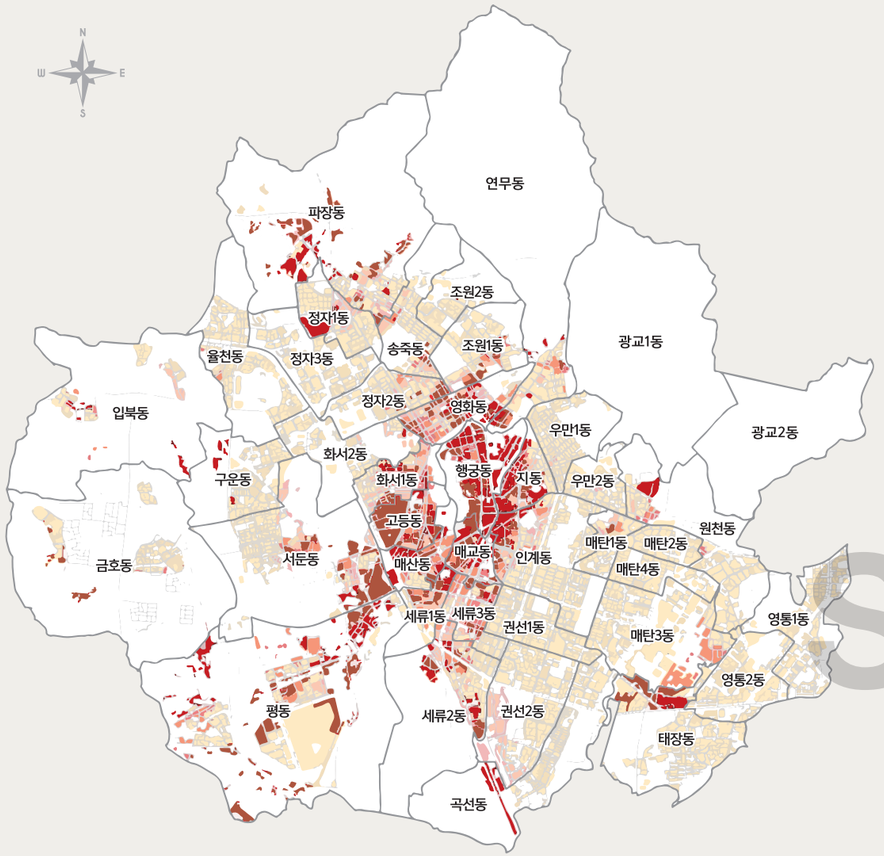
표 18 2005년 노후주택 비율 상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행궁동	13	평동	4	원천동	2
파장동	10	연무동	4	세류3동	1
지동	9	매산동	4	조원2동	1
화서1동	9	영화동	4	서둔동	1
세류2동	8	세류1동	3	태장동	1
매교동	7	입북동	2	화서2동	1
인계동	7	정자1동	2	송죽동	1
고등동	5	구운동	2	곡선동	1

표 19 2015년 노후주택 비율 상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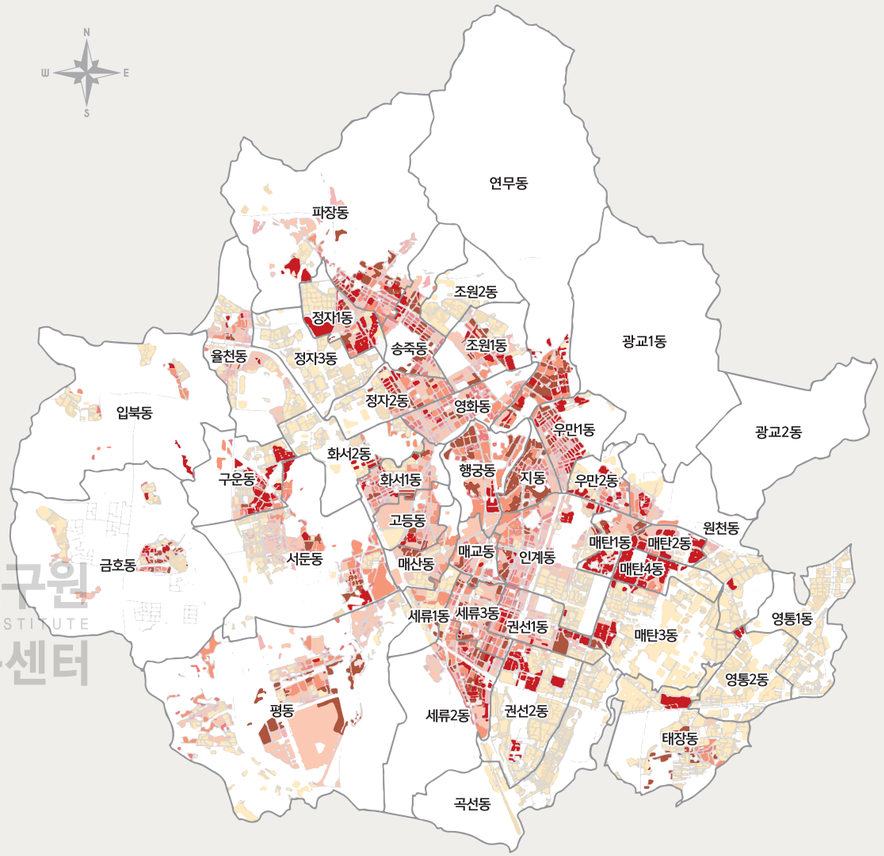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매탄4동	41	파장동	12	율천동	3
구운동	27	세류2동	10	태장동	3
정자1동	27	조원1동	9	고등동	2
권선2동	27	원천동	9	입북동	2
매탄2동	22	금호동	8	영화동	2
우만1동	21	권선1동	7	매교동	1
매탄3동	15	송죽동	7	화서2동	1
우만2동	14	서둔동	6	지동	1
인계동	14	화서1동	6	영통2동	1
매탄1동	14	정자2동	6	평동	1
연무동	13	세류3동	4	행궁동	1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19 2005년 노후주택 비율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20 2015년 노후주택 비율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신규주택 비율

신규주택 비율은 전체주택수를 최근 5년 내에 신축된 주택수로 나눈 값이며 지표값이 낮을수록 쇠퇴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규주택은 노후주택과 반대로 주택의 공급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로 주택의 공급이 곧 안전이나 위생, 치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구의 증가, 주택을 구매 및 임대할 수 있는 거주자의 경제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9] 신규주택 비율의 지표의 노후주택 비율 지표와 마찬가지로 기준년도인 2005년,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 신규주택 비율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권선구 권선2동이 92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통구 영통2동이 79개, 영통구 영통1동이 70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0〉. 본 분석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를 제외시켰지만, 이 두 지구를 제외하면 수원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신규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2015년 신규주택 비율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안구 정자3동이 99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통구 영통2동이 96개, 영통구 영통1동이 84개, 영통구 매탄3동이 83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1〉. 2015년에는 정자3동, 영통2동, 영통1동, 태장동 등 1990년대 조성된 정자와 영통지역의 주택들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신규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안정화되면서 당시의 주택들이 그대로 노후주택으로 분류된 것이 특징이다. 매교동도 수원의 전반적인 건축 노후화에 의해 신규주택 공급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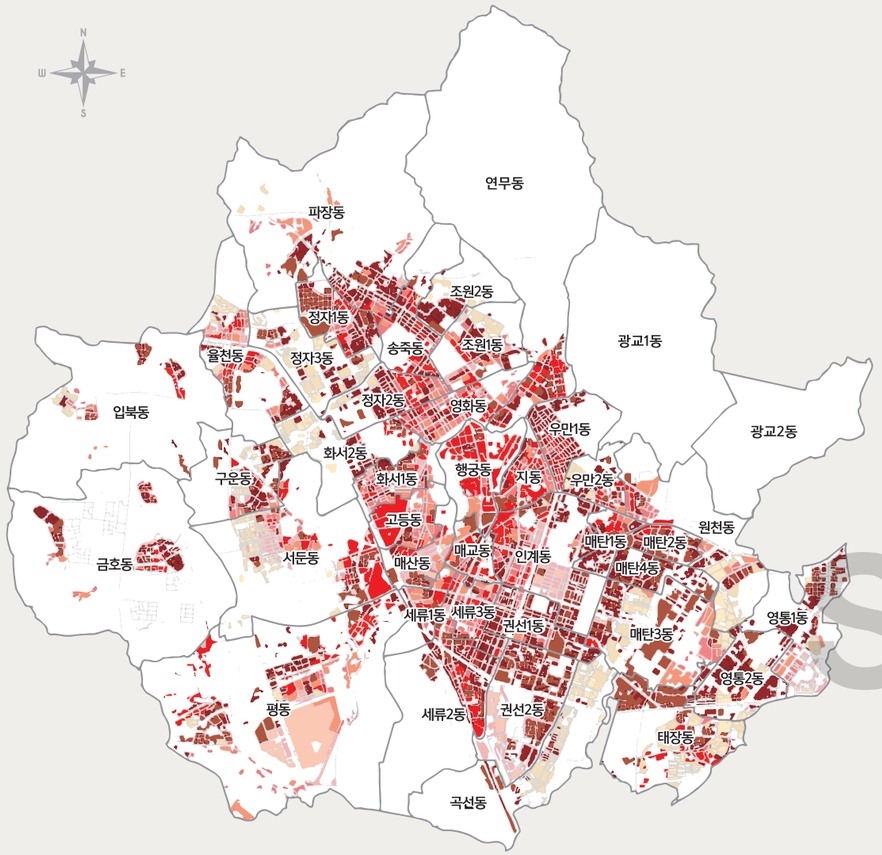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0 2005년 신규주택 비율 하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권선2동	92	구운동	40	연무동	24
영통2동	79	파장동	38	화서1동	24
영통1동	70	태장동	37	우만2동	23
금호동	63	우만1동	37	송죽동	23
정자1동	61	세류2동	35	세류3동	22
인계동	53	정자2동	35	곡선동	13
매탄4동	50	매탄1동	33	매산동	9
권선1동	46	화서2동	32	영화동	9
매탄3동	45	원천동	30	매교동	8
평동	45	매탄2동	30	지동	7
정자3동	44	서둔동	27	세류1동	7
조원2동	43	조원1동	25	고등동	4
율천동	42	입북동	25	행궁동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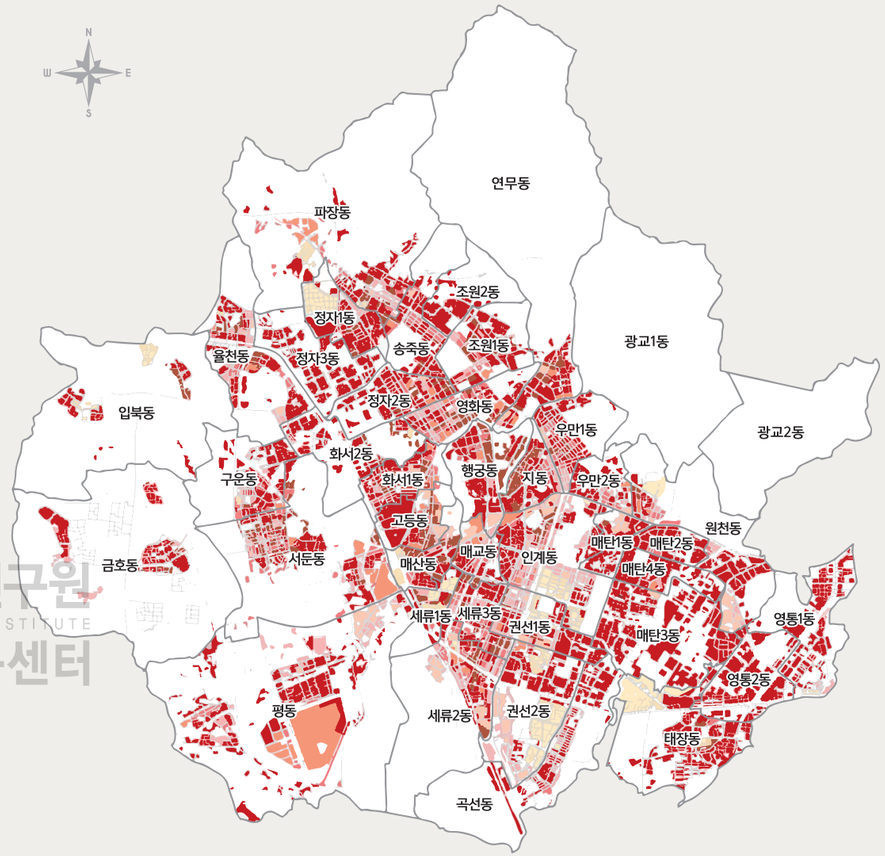
표 21 2015년 신규주택 비율 하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정자3동	99	매탄4동	49	연무동	30
영통2동	96	구운동	46	송죽동	28
영통1동	84	서둔동	45	입북동	28
매탄3동	83	정자1동	44	세류3동	28
태장동	82	조원2동	44	파장동	27
율천동	65	조원1동	39	영화동	22
금호동	61	권선1동	35	세류2동	20
평동	61	매탄1동	35	지동	16
인계동	58	우만2동	34	매산동	14
곡선동	55	우만1동	34	행궁동	11
화서2동	55	화서1동	31	매교동	11
권선2동	54	매탄2동	31	세류1동	5
정자2동	52	원천동	30	고등동	5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21 2005년 신규주택 비율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22 2015년 신규주택 비율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소형주택 비율

소형주택은 19평 이하인 주택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주거지를 반영하는 변수이며, 물리적 쇠퇴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10]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1인가구들의 수요로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이 많이 밀집한 지역을 저소득층 주거지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물리적 쇠퇴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소형주택 비율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영통1동이 37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통2동이 36개, 정자3동이 29개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2〉. 영통1동과 영통2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삼성디지털단지에 근무하는 사회 초년생 혹은 신혼부부 등 가구원수가 많지 않은 가구들의 수요로 인해 소형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3〉. 매교동은 소형주택 비율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주택수 대비 소형주택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소형주택 비율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영통2동이 45개 집계구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통1동이 38개, 정자3동이 34개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3〉. 2005년과 마찬가지로 영통2동과 영통1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구원수가 많지 않은 가구들의 수요가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4〉. 매교동은 소형주택 비율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집계가 되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여전히 전체 주택 수 대비 소형주택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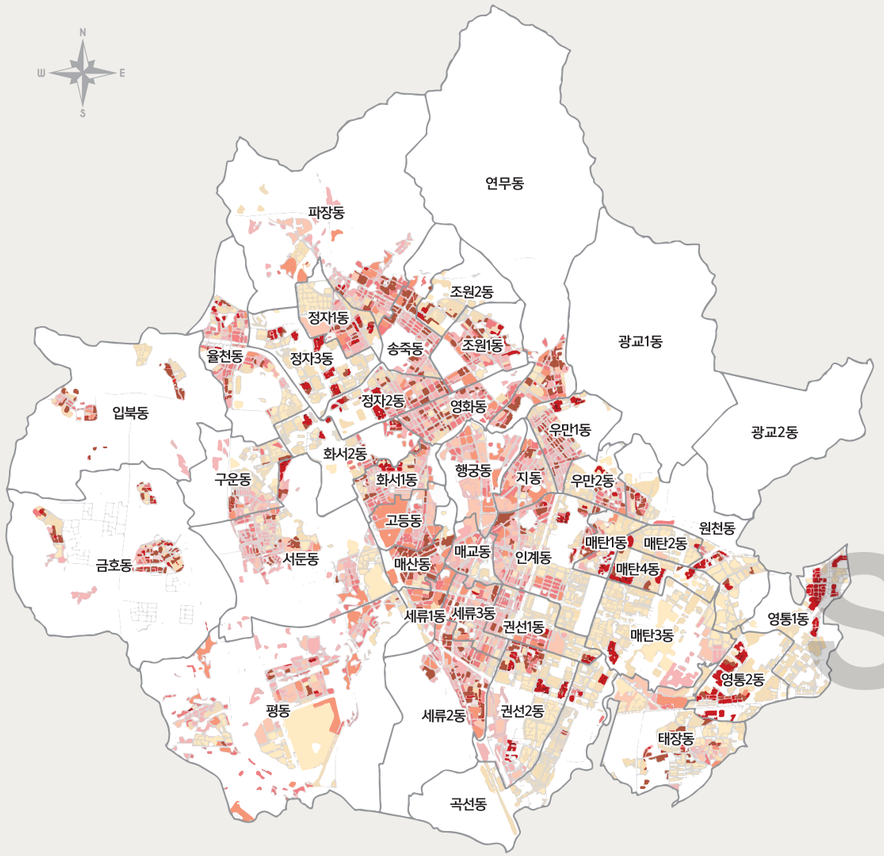
표 22 **2005년 소형주택 비율 상위 20% 해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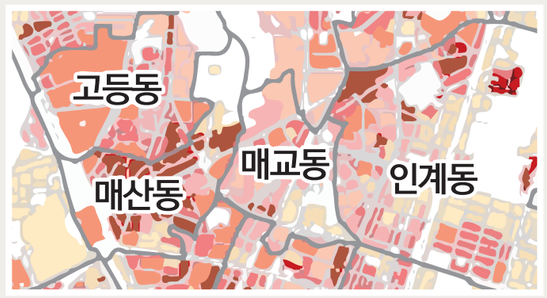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영통1동	37	금호동	9	조원1동	4
영통2동	36	화서1동	8	서둔동	4
정자3동	29	인계동	8	우만2동	4
권선2동	20	정자1동	8	평동	3
정자2동	18	조원2동	7	태장동	2
화서2동	17	매탄3동	7	매탄2동	2
매탄4동	17	율천동	6	연무동	1
원천동	11	매탄1동	5	세류2동	1
우만1동	11	곡선동	5	세류3동	1
권선1동	9	파장동	4		

표 23 **2015년 소형주택 비율 상위 20% 해당 지역**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동	집계구(개)
영통2동	45	금호동	10	매탄2동	5
영통1동	38	정자1동	9	파장동	4
정자3동	34	인계동	9	태장동	4
매탄4동	22	권선1동	9	서둔동	4
권선2동	21	곡선동	9	조원1동	4
정자2동	20	평동	8	세류1동	3
화서2동	18	조원2동	7	매교동	1
원천동	17	우만2동	7	연무동	1
매탄3동	11	매탄1동	6	세류2동	1
우만1동	11	율천동	6	세류3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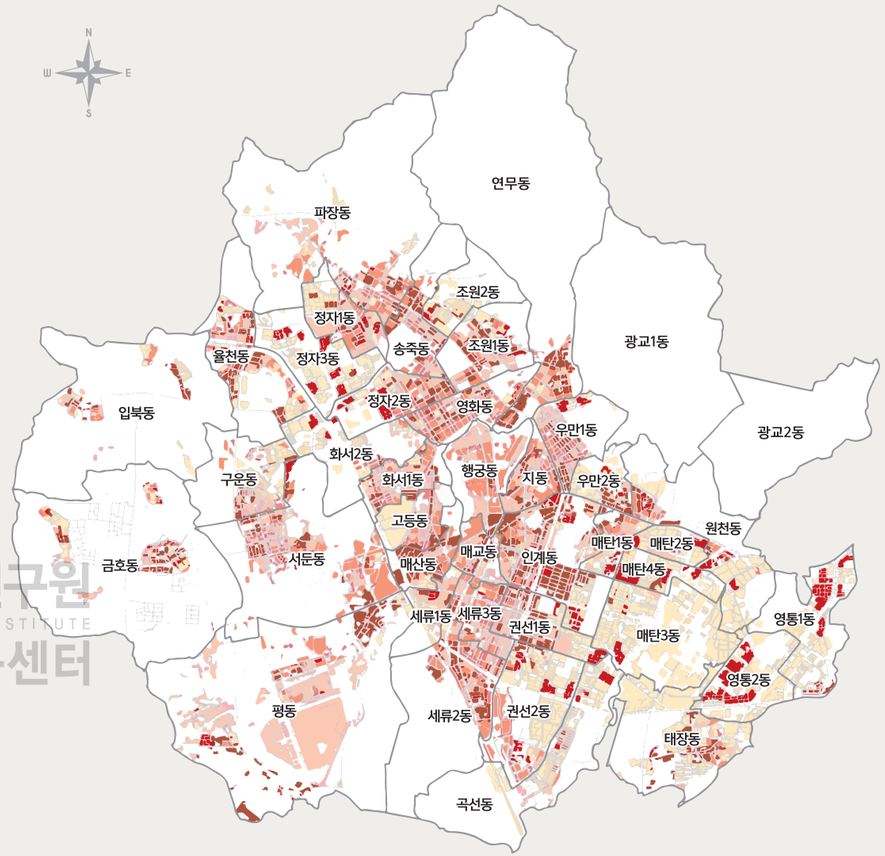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23 2005년 소형주택 비율 분포도





범례
- 상위 20%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그림 24 2015년 소형주택 비율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5. 도시 쇠퇴 정도 분석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도시 쇠퇴 정도를 나타내는 개별 지표들에 대하여 아래의 산출식을 통해 도시 쇠퇴 정도를 분석하였다.

① $Y_i = \frac{X_{i,t-1}}{X_{i,t}}$ ② $Z_i = \frac{X_{i,t}}{X_{i,t-1}}$

Y_i : i 동의 감소율, Z_i : i 동의 증가율, $X_{i,t}$: t년도 i 동의 지수, $X_{i,t-1}$: $t-1$년도 i 동의 지수

노후주택 비율 및 소형주택 비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해 ①식을 활용하였으며, 노후주택 비율 및 소형주택 비율 지표는 ②식을 활용하였다. 각 지표는 1을 기준으로 하며, 그보다 클 경우 각각 인구·사회적, 산업·경제적, 물리적으로 쇠퇴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시 쇠퇴 관련 개별 지표들을 이용하여 매교동의 도시 쇠퇴 양상을 분석하였다〈표 24〉. 분석결과 인구·사회 영역에서는 인구 변화율과 경제활동인구에서 도시 쇠퇴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아 매교동은 10년 동안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유입인구도 감소하였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없다면 노령화지수와 고령인구수, 노년부양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사회 영역에서는 도시 쇠퇴로 진행될 수 있는 잠재적 쇠퇴 도시로 판단된다.

산업·경제 영역에서는 총사업체수와 제조업 종사자 비율 지표에서 도시 쇠퇴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쇠퇴기준에 근접하게 도출되었다. 전문가 혹은 일반시민에게 수원의 경제구조에 대해 질문하면 대부분 삼성에 의해 경제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한다. 앞서 개별 지표 현황 분석 결과처럼 제조업 종사자들이 삼성디지털단지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수원은 삼성에 의해 경제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곧 삼성의 불황이 수원의 경제순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삼성디지털단지가 불황을 겪어도 수원의 경제순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 지역에 걸쳐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향후 수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환경 영역에서는 노후주택과 소형주택 비율 지표에서 도시 쇠퇴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교동은 도시 쇠퇴지표 중 노후주택 비율과 소형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수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인구·사회 영역 및 산업·경제 영역보다 물리환경에서 도시 쇠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인구유입까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수원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쇠퇴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표 24 **도시 쇠퇴 정도 산출식을 통한 매교동 도시 쇠퇴분석 결과표**

지역	영역	지표	지수	쇠퇴기준	쇠퇴 여부
매교동	인구·사회	인구 변화율*	0.01	지수 〈 1	O
		노령화지수	0.39		X
		고령인구수	0.54		X
		경제활동인구	1.03		O
		노년부양비	0.60		X
	산업·경제	총사업체수	1.28		O
		사업체당 종사자수	0.88	지수 〉 1	X
		제조업 종사자 비율	1.64		O
		고차서비스 종사자 비율	0.79		X
	물리환경	노후주택 비율	2.50		O
		신규주택 비율	0.18		X
		소형주택 비율	3.36		O

비고 : 인구 변화율 지수가 1 미만일 경우 노인인구 증가 및 노동력 부족,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쇠퇴분석 지표들을 활용하여 수원시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 쇠퇴 분석 산출식을 통해 매교동의 도시 쇠퇴 정도를 분석하였다.

도시 쇠퇴 관련 개별 지표들의 현황 분석으로 수원 내 다른 행정동 대비 매교동을 살펴본 결과, 인구성장률이 낮으며, 노령화지수 및 고령인구는 상위 20% 지역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편재되어 있었다. 매교동은 노령화지수와 고령인구가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하위 20% 지역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경제활동인구 하위 20% 지역들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경제활동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부양비 지수는 높아 경제활동인구 즉, 청장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은 클 것으로 판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된다. 매교동의 산업·경제 현황은 사업체수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종사자수는 증가하였으며 그 종사자수는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은 수원의 전반적인 건축 노후화에 의해 신규주택 공급은 활발하지 않았으며, 현재 건축되어 있는 주택들 중 소형주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쇠퇴 정도 산출식을 통해 매교동 도시 쇠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 측면에서는 인구 성장률, 경제활동인구,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사업체수, 제조업종사자 비율, 물리환경 측면에서는 노후주택과 소형주택이 도시 쇠퇴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 쇠퇴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 쇠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매교동은 다시 예전의 도심 형태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주

1 엄현태·우명제, 2016, 「도시 쇠퇴의 공간적 확산현상과 쇠퇴확산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51(2), 5~18쪽.
2 엄현태·우명제, 2016, 「도시 쇠퇴의 공간적 확산현상과 쇠퇴확산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51(2), 5~18쪽.
3 최석환·조아라·이설희, 2017, 「수원형 도시재생지표 개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4 최석환·조아라·이설희, 2017, 「수원형 도시재생지표 개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5 박다솜, 2019, 「지방중소도시 쇠퇴변화양상 분석: 순천시 도시화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최석환·조아라·이설희, 2017, 「수원형 도시재생지표 개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7 박다솜, 2019, 「지방중소도시 쇠퇴변화양상 분석: 순천시 도시화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최석환·조아라·이설희, 2017, 「수원형 도시재생지표 개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9 최석환·조아라·이설희, 2017, 「수원형 도시재생지표 개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10 엄현태·우명제, 2016, 「도시 쇠퇴의 공간적 확산현상과 쇠퇴확산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51(2), 5~18쪽.

참고문헌

김준용·박병호, 2009,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지방도시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4), 83~99쪽.
박다솜, 2019, 「지방중소도시 쇠퇴변화양상 분석: 순천시 도시화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수원시, 2018,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엄현태·우명제, 2016, 「도시 쇠퇴의 공간적 확산현상과 쇠퇴확산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51(2), 5~18쪽.
이용환·이도영, 2014, 「지방중소도시 원(구)도심 쇠퇴진단지표 개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2), 249~250쪽.
조윤애, 2014, 「도시 쇠퇴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7), 117~134쪽.
최석환·조아라·이설희, 2017, 「수원형 도시재생지표 개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제2부

校洞의 골목과 거리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 수원 행정 1번지 교동

제2장 | 팔달산 기슭에 자리한 교동 주택가

제3장 | 교동 미술거리의 나날

1987년 인계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전까지 교동은 수원시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시청 일대는 토목·건축, 인쇄, 요식업 등 행정기관을 주로 상대하는 업종들이 밀집하게 되었다.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주애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 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장 수원 행정 1번지 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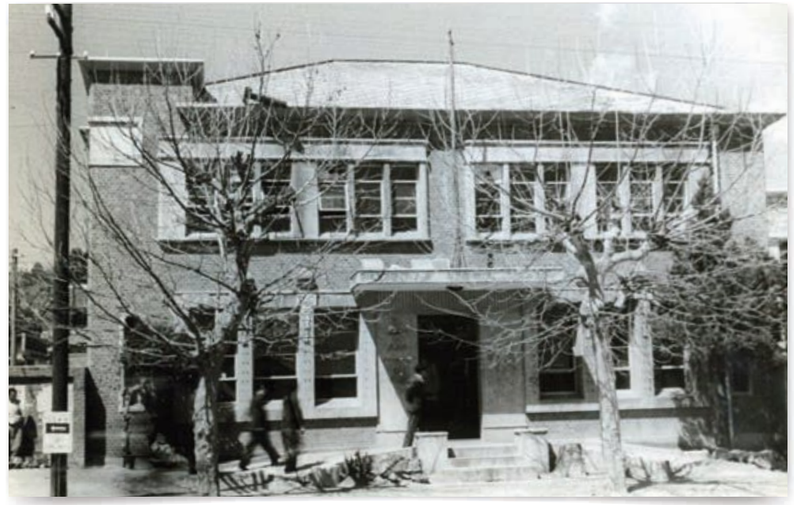
1. 향교 아래 들어선 시청

1949년 8월 15일 시로 승격한 수원시는 팔달문 근처의 수원읍사무소에서 개청식을 갖고 시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한국전쟁의 피해를 입어 청사가 소실되자 상공은행 수원지점이 자리하고 있던 교동의 옛 무진회사 사옥을 임시 청사로 사용하게 되었고 1956년에는 교동에 신청사를 준공하였다. 조선 정조가 수원의 읍치를 화산에서 팔달산 동쪽 아래로 옮긴 후 줄곧 수원화성 안 종로 일대가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시청사가 교동에 신축되면서 수원시 행정의 중심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1987년 인계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전까지 교동은 수원시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시청 일대는 토목·건축, 인쇄, 요식업 등 행정기관을 주로 상대하는 업종들이 밀집하게 되었다.

교동에서 처음 수원시청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금융대부업을 하던 무진회사 사옥이었다. 해방 후 적산으로 분류되어 조선중앙무진회사가 사용했고 이 회사가 한국상공은행으로 개명하면서 전쟁 전에는 한국상공은행 수원지점이 사용하고 있었다. 수원시가 임시 청사로 이 건물을 선택한 것은 당시 수원에서 가장 좋은 건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20년에 당시 경성에서 공제무진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일본인 이케다(池田與三郎)가 수원에서 가장 크고 멋지게 지으려고 멋을 부린 지상 2층 규모



최초의 수원시청사(수원박물관 제공)
팔달문 부근에 있었던 수원읍사무소로, 1949~1950년 수원시청사로 사용되었다.



1950~1956년 수원시청사로 사용된 건물(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의 적벽돌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50리 밖의 용인과 남양에서까지 구경하러 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1] 건평이 13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으므로 규모에서도 이전의 시청사로 사용하던 옛 수원읍사무소에 못지않았고 외관도 시청사로서의 위엄을 보여 주기에 손색없는 수준이었다. 당장 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 당시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수원시는 임시로 대여해서 사용하던 청사(구 한국상공은행 수원지점)를 매입하고 청사 내에 시의회와 시립도서관을 두었다. 1952년 구성된 수원시의회는 청사 2층에 회의실을 두었다가 1953년 말 시청사 옆에 의사당 건물을 신축하여 독립하였고 시립도서관은 1956년 5월에 교동 98번지 농업은행 소유 건물을 임대하여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시청사 단독 건물로 이용하였음에도 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수원시의 인구 규모가 확대되었고 행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사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수원시장 김한복은 시청사 신축을 결정하였다. 수원시의회는 1,000만 환의 예산으로 교동 74번지 230평 대지에 석조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청사신축결의안을 통과시켰다.[2] 기존 청사의 바로 옆에 세워진 신청사는 1954년 10월 27일 착공하여 1956년 7월 21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본관 신축 후 기존의 청사는 수원시의회당으로 이용되다가 1961년 이후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오랫동안 수원문화원사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1966년에 시청사 확장을 위해 본관 옆으로 200평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였다. 별관은 1983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기도경찰청 대공분실로 사용되었다. 군사정권 당시 관선 시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별관이 없어진 수원시는 청사가 비좁아서 청사 옆의 광덕빌딩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했다고 한다.[3]

수원시청사 신축 당시 설계와 시공을 누가 담당했는지 알려 주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은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다만 수원시 원로 언론인 이창식이 조병원 건축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한 내용[4]을 보면, 시청사 신축은 부시장 이실경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건물의 설계는 인계동 인도래 출신의 젊은 건축사 조병원이 총괄하였고 시공은 수원역 근처에 있던 건설사가 맡았는데, 최초 시공사의 부도로 시공사가 교체되면서 완공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한다.



1950년부터 사용하던 수원시청사와 새로 건축되고 있는 시청사(1956년, 수원박물관 제공)
임병진 초대 수원시의원 운구 행렬 뒤로 신축 중인 새 청사가 보인다.
시청사 신축 이후 앞의 건물은 1961년까지 수원시의회당으로 사용되었다.





수원시청사의 건축공사와 낙성식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청사(1981년, 경기도청 제공)

조병원은 성 안의 돌창 복개공사로 버려지는 화강암을 시청사 건축자재로 재활용하고자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남창동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화성행궁에서 중동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에 빗물과 생활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로를 조성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불결하고 지저분한 도랑이라는 뜻의 우리말 '돌창'으로 불렀다. 돌창의 생활하수는 흘러서 수원천에 유입되었다. 덮개가 없는 돌창은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좌우의 절개지에 화강암을 쌓았는데 전후 복구 과정에서 돌창을 복개하기로 하면서 이 화강암의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한다. 폐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조병원은 건물 외벽을 돌로 쌓기로 하고 이 돌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어서 다듬은 후 시청사 외벽에 쌓아 올렸다. 부족한 분량은 석산에서 가져다 사용하였다고 한다.



수원소방서(교동 136번지, 138번지,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립보건소(교동 62번지,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립도서관(교동 98번지,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문화원(1975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건물 기초공사에는 팔달산의 소나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소나무를 잘라서 만든 말뚝을 촘촘히 박고서 시멘트를 타설하였다고 하는데, 이 공법은 건축한 지 70년 가까이 건재하고 있는 건물이 현재 사용하는 공법 못지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조병원은 외벽에 사용한 돌의 두께가 워낙 두껍고 시공을 담당했던 석공들이 당시에 내로라하는 장인들이었으므로 웬만한 폭탄에도 끄떡없을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동수원 개발의 일환으로 시청사를 인계동으로 이전하면서 30여 년간 수원시 행정의 중심지였던 교동은 구도심으로 쇠락하기 시작했고 교동의 옛 시청사들은 다른 공공기관의 청사로 간판을 바꿨다. 첫 번째 시청사는 오랫동안 수원문화원이 사용하였고 두 번째 시청사는 권선구청사로 이용하다가 다시 수원시가족여성회관으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교동의 랜드마크로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청사였던 2층 벽돌조 건물은 규모는 작지만 장식적 요소가 많고 건축기법이 우수한 건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12월 26일 수원시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97호로 지정되었다. 1956년부터 1986년까지 수원시청사로 사용했던 2층 석조 건물은 2014년 9월 1일 국가등록문화재 제598호로 지정되었다.

수원시청이 교동에 자리하면서 이 일대에는 수원소방소, 수원시립보건소, 수원시립도서관, 수원문화원 등 각종 기관과 단체들이 들어섰고 수원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2. 시청 주변은 건축사사무소 명당

1970년대 수원시의 건축사사무소는 절대 다수가 교동에 모여 있었다. 수원상공회의소가 1972년 발행한 『수원상공명감』의 건축설계사무소 현황과 1975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명부를 보면 교동이 수원시 건축의 중심지였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당시 수원시에 등록된 모든 건축사사무소가 교동에 모여 있다.

교동에 간판을 내걸었던 건축사사무소들은 '건축연구소',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등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상호에 '건축사'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게 하면서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말한다.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



1978년 현대건축연구소 건물(수원박물관 제공)
제2회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 입후보자 벽보가 붙어 있다.

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 수련과정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

예전에는 대학이나 공업고등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현장 실무경력을 쌓아 응시자격을 갖춘 후 건축사시험에 합격하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는 특정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특혜도 있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축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학력 제한이 없던 사법시험보다 학력과 실무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응시가 가능한 건축사시험이 더 어렵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1971년 개교한 수원공업고등학교에 건축과가 개설되면서 수원시 건축계에도 수원 출신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는 인천공고, 안양공고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초창기에는 수원공고 졸업생들이 선배가 없어서 기를 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졸업생이 누적되면서 수원시 건축계에 수원공고 출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1972년 건축설계사 현황

구분	상호	대표자	소재지
❶	개풍건축설계사무소	박용의	교동 90–3
❷	광도건축설계사무소	박진영	교동 88–8
❸	금성동원합동건축설계연구소	김진두, 조병원	교동 68
❹	문화건축연구소	김승환	교동 141
❺	삼기종합설계사무소	이병묵	교동 68
❻	삼협건축사	김재경	교동 197
❼	세기건축연구소	박성희	교동 92
❽	수원건축설계사무소	이인구	교동 68
❾	이화건축연구소	조길웅	교동 88–8
❿	정은용건축연구소	정은용	교동 135

출처 : 수원상공회의소, 1972, 『수원상공명감』.

1975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회원

구분	사무소명	대표자	소재지
❶	개풍건축설계연구소	박용의	교동 90–3
❷	국민건축설계사무소	최병천	매산로2가 26
❸	금성건축연구소	김진두	교동 68
❹	대림종합설계사무소	최병상	교동 23
❺	대흥건축설계사무소	조병순	교동 130–1
❻	동원건축설계사무소	조병원	교동 68
❼	문화건축연구소	김승환	교동 64–2
❽	삼기종합설계사무소	이병묵	교동 68
❾	세기건축연구소	박성희	매교동 12
❿	수원건축설계사무소	이인구	교동 68
⓫	유일건축연구소	조길웅	교동 64
⓬	정은용건축연구소	정은용	교동 90–6
⓭	현대건축연구소	박중화	교동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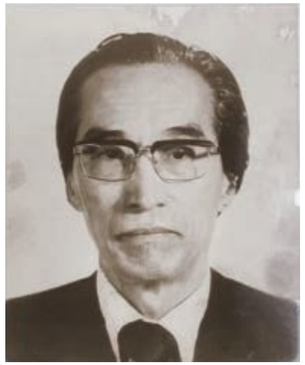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과 1975년 수원시청 부근 건축사사무소 위치

● 1972년 ● 1975년

1978년 교동 95번지 일대에 건축사사무소(수원박물관 제공)
1978년 2월 25일 현대건축연구소, 삼우건축연구소,
수원건축설계사무소, 문화건축연구소 등이 보인다.



수원시 1세대 건축사 정은용

1970년대 교동에 건축사사무소를 열었던 건축사들은 수원시 1세대 건축사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기부터 수원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은용, 교동 수원시청사 건축에 관여한 조병원, 40년 가까이 시청 바로 옆에서 '개풍'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했던 박용의, 민건축의 민병휘, 대림건축 최병상, 수원건축 이인구, 세기건축 박성희, 금성건축 김진두, 삼기건축 이병묵, 문화건축 김승환, 유일건축 조길웅, 대흥건축 조병순 등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 1980년대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창성건축 박효남, 한림건축 이일윤, 예일건축 김의성, 삼우건축 강신호 등이 2세대 건축사로 볼 수 있다.[6]

정은용건축연구소는 수원시 1세대 건축사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정은용이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이다. 정은용은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건축설계를 배우고 수원으로 내려와 건축사무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일제시기부터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제5대와 6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한 수원 건축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다. 『민보(民報)』 수원지국의 발전을 기원하며 발행한 1947년 4월 15일자 '수원 소개'에 광고를 게재한 업체들 가운데 '건축사 정은용' 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정은용건축사사무소 주소는 수원읍 본정 2정목 8-2번지로 되어 있는데, 1963년에는 교동 135번지 중앙인쇄소 옆에 위치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사무소를 교동으로 이전한 듯하다. 사무소는 1970년대 초에 교동 90-6번지로 이전하였고 정은용이 사망한 후 1990년 12월 폐업하였다.

정은용은 건축에 대한 집념과 고집이 강했고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건축사로 평가받는다. 정은용이 설계한 도면을 보면 지금 젊은 건축사들의 감각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앞서갔다고도 한다. 특히 1층과 2층 중간에 공간을 두는 스킵플로어 형식의 설계를 즐겨했다고 한다. 원불교 수원교당 맞은편 행궁로84번길 26-9의 주택은 정은용이 자신의 집으로 직접 건축한 건물이다. 정은용 사후에도 아들 정구영이 살았다고 한다. 정은용은 교동 석산호텔 근처 적산가옥에서 살다가 1960년대에 이 집을 지어서 이사한 듯하다.

정은용은 제6대 대한건축사회 경기도지부장으로 재임하던 1975년 매산로3가 124-5번지에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건물을 건축하면서 설계를 담당하였다. 지하 1층, 지



1972년 매산로에 자리한 정은용건축연구소
(수원박물관 제공)



정은용의 아들인 정구영이 세운 동성건축에서 1991년 설계한 수원시영아파트(수원박물관 제공)

상 2층, 옥탑으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15만 1,807㎡ 대지 위에 연건평 377.337㎡ 규모로 건축하였는데 현재는 수원지역건축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다.[7]

1975년 경기도청 식당 건축 당시 정은용건축연구소에서 건축계획을 담당하였고, 1977년 경기도 위생시험소 증축을 맡아서 수행하였다. 위생시험소의 증축계획은 기존 2층 건물의 우측과 옥상을 증축하여 전체적으로 ㄱ자 형태로 공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증축방식을 고려하여, 3층 바닥의 외벽에 돌출된 수평 띠를 계획하고 옥상 난간을 두껍게 계획하여 3층이 상대적으로 수평성을 강조하는 의장적 특성을 보여 주었다.[8]

정은용건축연구소는 동성건축으로 계승되었다. 정은용의 아들 정구영은 대학 졸업 후 경기도청에 근무하다가 1981년 건축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정구영은 도청에 근무하는 동안 정은용건축연구소의 일을 도와서 함께 했지만 건축사 자격 취득 후에는 교동에 동성건축을 차려서 독립하였다. 수원소방서 매산파출소 옆 독특한 외관의 건물을 짓고 동성건축 사무실을 두었다. 동성건축은 1986년 경기도종합민원실 및 향토자료실 신축 당시 건물설계를 담당하였고, 1990년 도청 본관 증축 공사에도 참여하여 설계를 맡았다.[9] 정구영의 아들 정진영도 2011년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3대 건축사 집안이 되었다. 정구영과 정진영 부자는 동성건축사사무소를 오산으로 옮겼다.

동원건축설계사무소의 창업자 조병원은 1928년생으로 인계동 인도래 출신이다. 아버지가 인도래의 연안 김씨 집안으로 장가를 드는 바람에 외가인 인도래에서 나고 자랐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중퇴하고 이모부인 정은용에게 건축설계를 배웠다고 한다. 조병원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였고 30대 후반에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충남도청에 발령을 받았으나 장남으로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처지라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었던 조병원은 1966년 교동에 동원건축설계사무소를 차렸다. 개업 당시는 매산로 부근 건물에 사무실을 두었다가 현재 자리로 이전하고 1990년대 초반에 동원건축 사옥을 신축하였다.


1979년 5월 18일 건축사회의에 참석한 수원시 건축사들(수원박물관 제공)
계풍, 금성,대동, 대림, 동원, 문화, 삼기, 삼우, 세기, 수원, 유일 소속 건축사들이 참석하였다.

조병원은 1972년부터 대한건축사회 경기도지부 간사로서 회장이던 정은용과 함께 경기도지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병원은 주택과 상가, 공장 등 민간 설계를 많이 했다고 한다. 옛 수원시청 별관도 조병원이 설계한 것이다. 동수원 농협 웨딩홀, 팔달문 근처 우용식 전 축협조합장 소유의 제일사옥 등이 조병원의 설계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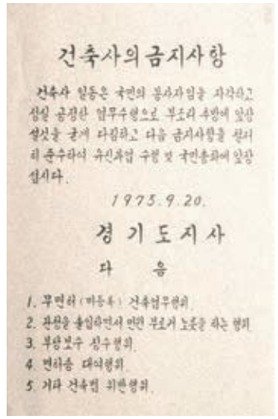
조병원은 은퇴하면서 막냇동생 조병욱에게 동원건축사사무소를 맡겼다. 1981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두손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조병욱은 자신의 사무소를 접고 형의 뒤를 이어 동원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았다. 현재는 조병원의 외조카인 윤병후가 대표로 있다.

개풍건축설계사무소는 개풍군 출신의 건축사 박용의가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이다. 박용의는 개성토목관부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수원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수원시청 근무 당시 수원시 최초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팔달산에 저수탱크를 설치하고 광교저수지에서 물을 흘러오도록 했다고 한다. 팔달산의 고도가 광교저수지보다 낮았기 때문에 팔달산에 저수탱크를 설치한 것인데 산 위에 저수탱크를 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1년 대림·삼기합동건축설계공사와 한도건축설계사무소(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건축사의 금지사항(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임시총회(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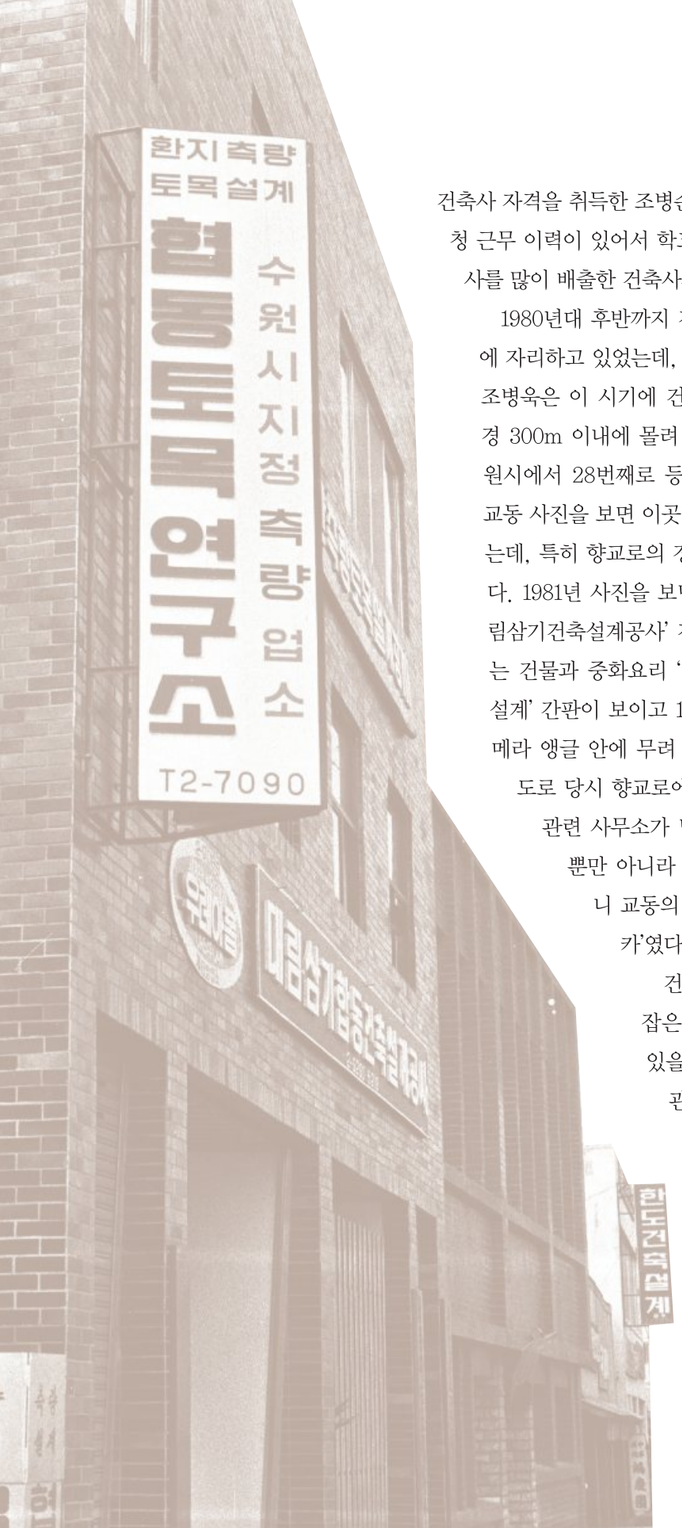
치하면 물이 어떻게 올라가냐며 담당 공무원을 해고하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통수식에서 물이 저수탱크에 고이는 것을 보고 무마되었다고 한다.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미수복지구 출신 공직자들을 퇴출하던 시기에 수원시청을 나와서 교동에 고향 지명을 따서 개풍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경영난으로 폐업하였다.

문화건축연구소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면서 실무경력을 쌓은 김승환이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이다. 김승환은 정은용, 조병원과 더불어 수원시의 1세대 건축가로 활동하였다. 현대건축연구소를 운영했던 박중하는 문화건축에 근무하면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독립하였다.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할 때 사무소를 인계동으로 이전하였다.

금성건축연구소는 수원시청 정문 바로 옆에 있던 건축사사무소로, 수원시 도시과장 출신 김진두가 대표로 있었다. 금성건축에서 일하던 박효남이 건축사 면허 취득 후 창성건축을 개업하였고 1980년대 합동 건축사사무소 운영이 대세일 때 금성창성합동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림건축사사무소는 이일윤이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로, 이일윤은 수원시청에 근무하면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수원시민회관 건축을 감독하다가 사직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수원시 건축사 1세대와 2세대를 이어 주는 건축사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일윤은 인계동 수원시청 앞 10층 건물을 비롯해서 비교적 대형 건물의 설계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한림건축은 대흥건축과 더불어 건축사를 많이 배출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 대림건축은 수원시 건축계장 출신의 최병상이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로, 교동 수원시청사 바로 뒤편에 사무소가 있었다. 삼기건축은 이병묵이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로, 이병묵도 건설직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은 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유일건축연구소는 조길웅이 운영했던 건축사사무소로, 춘천막국수 건물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다. 세기건축은 박성희가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이다. 박성희는 1980년대 초반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를 설계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건물은 김동훈 건축사가 2005년에 증개축한 것이다. 민건축은 민병휘가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로, 동원건축과 나란히 사무소를 두었다. 대흥건축 교육청 시설담당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조병순이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이다. 교육청 근무 이력이 있어서 학교 건축을 주로 담당했다고 한다. 건축사를 많이 배출한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건축사사무소들은 교동 수원시청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1987년에 두손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조병욱은 이 시기에 건축사사무소들의 90%가 시청 주변 반경 300m 이내에 몰려 있었으며, 자신의 건축사사무소는 수원시에서 28번째로 등록한 사무소였다고 한다.[10] 1980년대 교동 사진을 보면 이곳에 소재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이 확인되는데, 특히 향교로의 경우 많은 건축사사무소가 밀집되어 있다. 1981년 사진을 보면 2층 '협동토목연구소' 간판 아래 '대림삼기건축설계공사' 간판이 보인다. 고급 음식점으로 보이는 건물과 중화요리 '명경원' 다음 건물 2층에는 '한도건축설계' 간판이 보이고 1층에는 '문화건축'이 있다. 한 번의 카메라 앵글 안에 무려 4곳의 건축설계 관련 업체가 담길 정도로 당시 향교로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건축·토목 관련 사무소가 밀집해 있었다. 시청사 뒤편인 향교로 뿐만 아니라 정문 쪽 매산로 일대도 마찬가지였으니 교동의 수원시청사 주변은 '수원시 건축의 메카'였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가 시청 주변에 많이 자리잡은 것은 업무의 편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청이나 구청 등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토목·건축 계획서와 건물의 설계도를 첨부해야 하므로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허가 업무를 맡는 것이 관



1982년 이화종합설계사무소(수원박물관 제공)



1983년 유일건축연구소(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1년 한도건축설계사무소(수원박물관 제공)



1985년 금성창성합동건축설계사무소(수원박물관 제공)

행이었다.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허가 관청에 드나들게 되므로 아무래도 관청과 가까이 사무실을 두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편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교동에 건축·토목 관련 업체가 많은 것은 시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7년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하자 일부 건축사사무소는 시청을 따라 인계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교동 시청사가 권선구청사로 사용된다고 하여 교동에 남은 건축사사무소도 여러 곳 있었다. 특히 1970년대 이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수원의 1세대 건축사들은 대부분 교동에 남았다. 이들은 자신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던 건축사들에 비해 사무실 이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청의 뒤를 이어 권선구청이 들어온 탓도 있다. 시청의 허가를 받는 것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긴 하지만 구청에서도 건축허가 업무를 한 것이다. 권선구청이 2006년 탑동 신청사로 이전할 무렵에는 교동에 남아 있던 건축사사무소들이 수원시 전역으로 흩어졌다.

3. 시청 뒤편 향교로 인쇄골목

향교로는 일명 '교동 인쇄골목'이라 불렸다. 중동사거리부터 경기도청 아래 매산로까지 이어지는 도로 양쪽으로 인쇄업체들이 이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1917년 수원시 최초의 인쇄소로 알려진 수원인쇄주식회사가 구 수원시청 자리에 들어선 후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 오고 있다.

향교로에 인쇄업종이 밀집한 것은 인쇄업이 관공서를 주요 고객으로 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과 발간물은 인쇄소에서 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향교로는 일제강점기부터 학교, 세무서, 금융기관, 회사 등이 있던 곳이었으



1972년 향교로 초입에 자리한 형제인쇄소(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센터



1980년 수원의 인쇄소(수원박물관 제공)

며, 한국전쟁 시기에 수원시청이 교동으로 이전하였고, 1967년에는 경기도청이 팔달산 서쪽 수원향교 근처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관청 거리'가 되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들어온 1970년대에는 기업체가 주요 고객 명단에 포함되긴 하였으나 수원시 인쇄소의 주요 고객은 도청과 시청, 농촌진흥청, 교육청, 세무서 등이었다. 경기도청 이전 당시에는 서울에서 인쇄소들이 도청을 따라 내려왔다고도 한다.

교동 향교로에 있던 인쇄업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은 상록사였다. 1969년 수원시에 등록한 상록사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경인쇄업체였다. 전성기에는 30여 명의 오퍼레이터를 고용해서 인쇄소를 가동했고 가장 많은 수의 숙련공을 독립시킨 인쇄소이기도 하다. 농촌진흥청을 주요 고객으로 하였는데 교동에서 인쇄소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아예 농촌진흥청 인쇄실을 임대하여 이전하였다.

1957년 교동 135번지에 들어선 중앙인쇄소는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수원 인쇄업계의 중심에 있었다. 중동 동일인쇄소에서 조판공으로 일했던 임일수가 독립하여 세운 인쇄소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법원을 비롯한 관공서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었다. 수원 인쇄업자들 가운데 중앙인쇄소 출신들이 많았다. 1964년 교동 92-2번지에 대한인쇄소를 세운 서봉석은 인쇄업자로는 처음으로 수원시상공회의소 제8대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69년 경인일보사의 전신인 경기연합일보사가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전할 때도 교동에 본사를 두었다.

1980년대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내었으며, 수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었다. 이에 대규모 공장이나 관공서뿐만 아니라 소규모 점포나 사업체 등에서도 인쇄물이 필요해졌다. 즉 1980년대에 이르면 인쇄물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매체로 자리 잡았으며, 각종 관공서, 사업체, 단체 등에서 출판물, 전단지, 달력, 다이어리, 수첩, 명함 등을 다량으로 제작하였다. 거래처가 다변화되고 인쇄물의 종류와 양이 많아짐에 따라 1980년대 교동 인쇄업소들은 성업을 이루었다. 인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가 큰 인쇄소에서 일하던 숙련공들은 자신의 사업체를 내서 독립해 나갔다. 이들은 자신이 일하던 인쇄소 근처에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향교로가 '인쇄골목'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인쇄업체가 들어서게 되었다.



1980년 수원의 인쇄소(수원박물관 제공)

1980~1990년대 중반은 향교로 인쇄골목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수원의 인쇄업자들은 당시를 '갈퀴로 돈을 긁어모으던' 시절이었다고 표현한다. 매산로 수원세무서에서 중동사거리에 이르는 향교로에는 서너 집 건너마다 인쇄업체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원고를 들고 오면 책으로 받아 갈 수 있는 곳이 향교로 인쇄골목이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팔달로, 중동, 매산로 일대에 분포하였던 인쇄소들이 향교로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이는 이곳이 다른 상업지역보다 임대료가 쌌기 때문이다. 즉 1987년 교동에 있던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하고 동수원 지역 개발이 완성되어 가면서 교동은 구도심으로 전락해 갔고, 상권이 쇠락해 갔다. 하지만 이는 인쇄소들이 들어오는 데 좋은 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0년 향교로 인쇄골목(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건이 되었다. 즉 향교로 일대가 수원시의 번화가로 자리매김하던 1970년대에는 인쇄업체가 사업장을 임대하기 어려웠다. 임대료도 비싸고 활판인쇄의 경우 인쇄기 소리가 시끄럽고 작업공간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쇄 공장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해 시청을 따라 이전한 업체들이 사용하던 공간이 비면서 이 자리를 인쇄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인쇄업도 기술적인 변화와 함께 사양산업으로 취급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로 교동 인쇄골목의 많은 인쇄소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을 접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고색동 지식산업단지로 여러 인쇄소가 이전하면서 인쇄골목은 과거의 영화를 간직한 거리로 남게 되었다. 현재는 향교로를 인쇄골목이라고 부르기 어색할 정도로 경관이 많이 바뀌었다.

4. 관가(官街)의 접객업소들

공공기관이 많이 자리 잡았던 향교로와 매산로 일대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는 건축사사무소나 인쇄소 등이 많아서 이들 업체 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당, 술집, 다방 등도 여러 곳 있었다. 공무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나 다방은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업체들에게 소위 '영업하는' 곳이 되었다. 경기도청이 들어선 곳은 고등동이지만 향교로와 1㎞ 정도 거리에 있어서 점심시간이면 향교로와 매산로 일대 식당에는 도청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다. 오히려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인 도청의 공무원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중동사거리 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다녔다고도 한다.

교동의 건축사사무소들은 단골 식당을 두고 매월 일괄 정산하는 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단골 식당에 갔다가 시청 건설과나 토목과 직원들이 식사하고 있으면 그들의 식사비를 자기네 사무실 외상장부에 달아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였다. 자연스러운 접대가 되는 셈이다. 간혹 두 곳의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겹치는 경우는 먼저 온 건축사사무소 직원이 눈치를 주어 나중에 온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을 내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에서 방문객을 응대할 때 근처 다방에 차를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1972년 교동에는 교동다실, 내다방, 동림다방, 멕심다방, 복다방, 산유화다실, 심지다방 등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 여직원이 차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다방에 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교동에 있던 건축사무소와 다방(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달시키는 것이 상대방을 더 대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의 일이다. 간부 직원이 자신의 차를 배달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경우가 어쨌든 다방의 찻값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에서 대신 내주는 접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양자가 서로 눈치껏 거래를 주고받았다.

건축사사무소에서도 건축주가 방문하면 근처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시켰다. 커피 배달이 많은 사무소는 그만큼 영업실적이 좋은 곳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건축주와 면담을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 실장들은 건축주가 올 때마다 커피를 마시게 되어 하루에 1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날도 많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커피 값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1972년 교동다실(수원박물관 제공)

시청 주변의 다방은 영업장 외에 업무 공간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사무실에서 큰소리를 내야 할 일이 있거나 조금 은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때 이용하는 곳이 다방이었다. 민원인들은 전화로 약속을 하고 다방에서 공무원을 기다렸다.

다방 아가씨들 중에는 사무실로 커피 배달을 가서 사무실 정리나 간단한 청소 등을 해주면서 영업을 하는 '센스 있는' 이들이 있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아가씨가 있는 다방과 단골 거래를 하게 마련이므로 매출을 올리는 전략인 셈이다. 게다가 시청 주변의 다방은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건축사사무소나 인쇄소처럼 공무원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들은 비교적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1982년 다방에 모인 수원 예술인(수원박물관 제공)

교동의 춘천막국수집은 교동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음식점이다. 처음에는 막국수와 함께 도토리묵과 부침개도 팔았는데 술도 함께 먹다 보니 영업시간이 길어져서인지 어느 때인가부터 막국수만 파는 집이 되었다고 한다. 시청 바로 옆에서 설렁탕집 실비옥을 운영하던 '욕쟁이할머니' 김어진은 35년간 설렁탕 장사로 모은 돈 10억 원을 청소년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기부하여 1986년에 국민훈장을 받았다고 한다.[11]

1970년대 들어서는 교동의 매산로 일대에 유흥업소들이 문을 열었다. 이전 시기까지 수원은 남문 상권과 수원역전 상권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시장은 물론 음식점과 유흥업소도 두 상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매산로 주변에 크고 작은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개업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수원시청 아래 현재의 매산로116번길은 수원에서 유명했던 고급 술집들이 여러 곳 있었다. 수원의 판검사나 고위직 공무원 등이 드나들었다는 힐(Hill)은 웬만한 수원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곳이다. 이춘택병원 옆의 나이트클럽 판코리아, 매산로116번길의 나이트클럽 피카소, 고급 요리집 명성회관·한국관·송죽 등도 유명한 곳이었다.

교동에 비교적 규모가 큰 고급 음식점과 유흥업소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수원시청과



1974년 향교로의 태호정

경기도청 주변이라는 입지조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나 인쇄소에 근무한 사람들은 도청이나 시청과 너무 가까워서 공무원 접대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조계 공무원들이 많이 다녔다고 한다. 기존의 중심 상권에는 규모가 큰 음식점이나 유흥업소가 새로 들어올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신흥 개발지역인 교동 매산로 일대에 이런 업소들이 들어왔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신문기사를 보면 교동의 유흥업소와 관공서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75년 6월에는 공무원 시정쇄신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관공서 주변 유흥업소의 경기가 사상 최악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전국적으로 휴·폐업하는 업소가 늘고 종업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애쓰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징수 목표액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산로116번길의 상록회관, 명성회관홀, 호텔수원(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했다. 당시 수원시의 경우 11개 요정 중 6곳이 문을 닫았고, H 요정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주인이 야반도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경기도청 직원들이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거나 다른 일로 평균 한 달에 2~3회 요정에서 회식을 했지만 일명 앉은뱅이 출장비와 급행료가 없어지자 요정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급행료를 1건당 7,000~1만 원을 받아 담당 직원과 나누어 한 달 평균 10만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12]

1976년 4월 6일 교동 130번지 수원회관 건물의 맥주홀 '두꺼비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의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 있었다. 수사 결과 건물주인 최씨가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방화였다. 최씨는 1973년 7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어 1층을 두꺼비하우스에 임대하고 자신도 지하에서 '대하'라는 유흥업소를 경영하였다. 대하는 170평, 두꺼비하우스는 135평으로 규모가 큰 유흥업소였다. 그런데 영업이 부진하여 부채가 늘어나자 화재보험금으로 부채를 변제할 의도로 두꺼비하우스에 불을 지른 것이다.[13] 이런 기사를 보면 교동의 유흥업소와 관공서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5. '공공'의 거리, 시청 앞 매산로

경부선 수원역이 생긴 후 수원역에서 수원화성 안까지 이어지는 신작로가 개통되었다. 지금의 향교로이다. 이 길은 수원의 중심도로가 되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도로 주변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기보다 새 도로를 놓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1932년부터 지금의 매산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매산로보다 향교로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수원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은 향교로가 지름길인 데다가 향교로가 더 번화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향교로에 비해 한적했던 매산로는 1956년 수원시청이 교동으로 이전한 후 명실상부한 수원시 중심도로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양한 노선의 버스가 운행하였고 시청의 정문이 매산로 쪽으로 나 있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변으로 건물들이 들어차기 시작하였다.

매산로는 교동이 수원시 행정의 중심지였던 시절 줄곧 '캠페인의 거리'였다고 할 수 있다. 수원역 광장부터 교동사거리를 지나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길은 수원시에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매산로와 정조로로 이어지는 이 노선은

1960년대 수원시청 앞 자전거 행렬
(수원상공회의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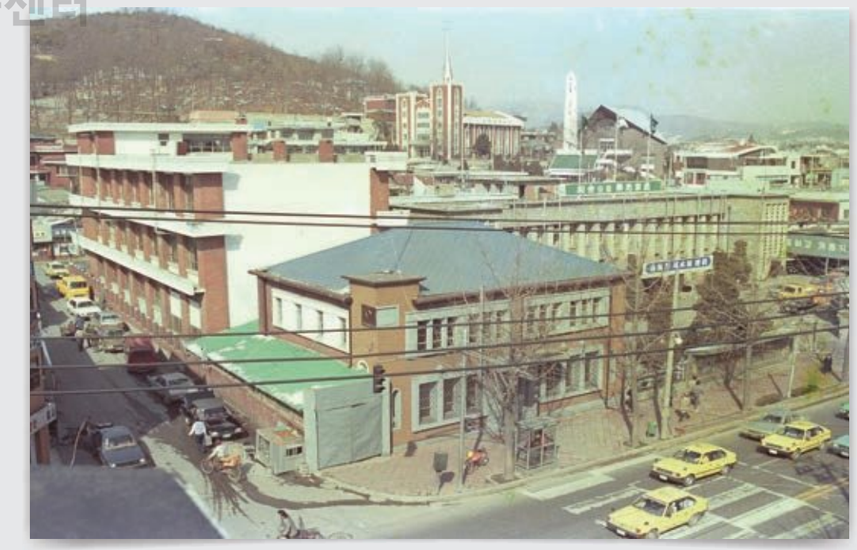
1976년 육군합창단 시민후원공연회(수원박물관 제공)



1980년대 새마을운동 캠페인(수원박물관 제공)



1979년 수원시물가안정시민대회(수원박물관 제공)



1985년 교동 수원시청사(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0년 구 수원시청사 일대(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홍보성 거리 행진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1950년대 초반 시청이 들어선 후 수원시의 기념행사나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거리행진은 대부분 시청 앞 매산로를 지나갔다. 각종 대회나 캠페인 등이 많았던 1970~1980년대 수원역 광장과 매산초등학교 운동장은 이런 행사의 단골 개최장소였다. 행사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할 때면 매산로와 정조로를 따라서 팔달문이나 장안문까지 가는 코스가 정해진 순서였다.

1973년에 수원비행장으로 귀환한 월남 파병 군인들이 수원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도 세류동에서 수원역을 지나 매산로를 통과하고 팔달문과 장안문을 거쳐서 서울로 향하였다. 행렬의 선두에 선 경찰차를 따라 군인들이 탄 차량이 지나는 동안 도로변에는 동원된 환영인파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였다. 북괴만행규탄 수원시민결의대회를 마친 시민들도, 물자절약 캠페인을 하는 주부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악대와 축하행렬도 어깨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도로 위를 행진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조선일보』, 1975년 3월 5일.
2 『경향신문』, 1954년 9월 14일.
3 『경향신문』, 1990년 11월 17일.
4 이창식·한동민, 『수원야사』, 디자인신원, 2017.
5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6 1973년부터 개풍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한 최두호 건축사의 구술 참고.
7 『매일경제』, 1975년 8월 2일.
8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
9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
10 『수원시 통계연보』 참조.
11 『경향신문』, 1986년 10월 28일.
12 『경향신문』, 1975년 6월 7일.
13 『경향신문』, 1976년 5월 12일.

교동은 아직까지 팔달산 아래 위치한 조용한 마을이다.
인쇄골목 주변에 위치한 빌라,
원룸은 비교적 외지인의 이출입이 빈번하다.
반면 언덕 위 팔달산 기슭 아래의 주택가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들이 많은 편이다.
교동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희소한 지금,
이들 3명의 주민을 통해 교동 주택가 주민들의
삶을 그려 보고자 한다.

이승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장 팔달산 기슭에 자리한 교동 주택가

교동(校洞)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인 향교(鄕校)가 있던 동네 이름이 법정동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향교가 있는 마을, 향교가 있는 동네라는 의미이다. 수원의 교동 외에도 경주, 제천, 청주, 춘천 등 지방의 많은 구도심 지역에서 '교동'이라는 지명을 발견할 수 있다. 모두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수원 교동 역시 수원향교(鄕校)가 생기고 난 이후 붙여진 이름이다.[1] 수원향교는 1291년(고려 충렬왕 17)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화산 앞에 세워졌는데, 1789년(정조 13) 정조가 수원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옮길 때 현재 위치인 교동 43번지에 이전 건축되었다.[2]

교동은 곳곳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과 경관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동네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원의 중심거리였지만, 지금은 주변 동네에 비하여 발전이 정체된 구도심에 해당한다. 초고층 아파트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수원에서 교동은 아직까지 팔달산 아래 위치한 조용한 마을이다. 인쇄골목 주변에 위치한 빌라, 원룸은 비교적 외지인의 이출입이 빈번하다. 반면 언덕 위 팔달산 기슭 아래의 주택가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들이 많은 편이다.

요즘 구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원주민이 이주하고, 주택가 경관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전,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교동을 추

억하는 이들, 거주하는 이들을 통해 교동 주택가 주민들의 생활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교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고 없기에, 교동의 과거를 기억하는 인물도 드물다. 교동경로당을 출입하는 고령의 주민들도 1980~1990년대 이후 교동에 들어온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2020년 현재 교동 주택가에서 제일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인물로는 이영하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39년생으로 올해 나이 82세이다. 어린 시절 교동에 들어왔고, 지금은 인쇄골목에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동에 거주한 지 햇수로 75년 정도 된다. 그의 부인은 1963년 결혼하면서 교동에 들어왔으니 58년째 거주하고 있다.

이영하를 제외하고는 교동에 오래 거주한 이를 찾기 힘들었기에 교동에 살다가 떠난 주민들 중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였다. 정인숙은 1938년생으로 올해 82세인데, 수원 고등동에 거주하다가 1970년대 중반 교동 주택가에 들어왔다. 그는 27년간 교동에 거주하면서 사귄 지인들과 아직까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교동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희소한 지금, 이들 3명의 주민을 통해 교동 주택가 주민들의 삶을 그려 보고자 한다.

1. 적산가옥과 고급주택이 들어선 팔달산 기슭

이영하의 아버지는 경기도 용인 출신인데 교동의 적산가옥(敵産家屋)을 불하받아 들어왔다. 적산가옥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한다.[3] 교동은 수원의 옛 중심거리였기에 일본인들이 꽤 거주하였다. 이영하가 어린 시절부터 교동에 살며 초등학교를 다녔으니, 이영하의 아버지가 들어온 시기는 해방 직후로 추정된다. 이영하는 교동 주택가 주민들의 경제적 위상은 수원에서 중산층 정도였으며, 큰 격차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교동 주민 중에는 일본인 주택을 불하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 수원문화원 주차장은 수원신사가 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현장이었다고 한다.[4]

이영하 교동에서는 제가 현재 제일 오래 살고 있습니다. 다 떠나구요. 어릴 때 처음 교동에 왔을 때 일본 집들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떠난 적산가옥이 많았습니다. 수원 내에서 교동은 중간 정도였어요. 그때는 살기가 다 비슷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자리에 일본 사람들 신사가 있었어요. 비스켓 얻어먹으러 지나다녔구요.



1950년대 적산가옥이 많았던 향교로(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
SUWON RESEARCH INST
수원학연구센터



1960년대 교동 주택과 테니스장(수원문화원 제공)



1960년대 향교로 풍경과 교동 아이들(수원문화원 제공)
수원문화원에서 개최한 사이클 하이킹 행사 참가자와 이를 구경나온 아이들이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적산가옥으로 들어왔어요. 살면서 한두 사람씩 떠나다 보니까 없어요. 외지에서 좀 들어오구요.

1963년 결혼하면서 교동에 들어온 이영하의 부인은 매산로 대로변에 위치한 이춘택병원(교동 130-1) 자리를 비롯하여 동네 일대에 논밭이 많았다고 기억한다. 특히 집 근처에 중국인들이 경작하던 시금치 밭을 인상적으로 기억하였다. 교동 수원화교중정소학교(교동 174-3) 일대에 살던 화교(華僑)들이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원에는 일제시기부터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은 건물이나 저수지 축조 등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빵, 만두 등 음식을 만들어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0~1950년대 수원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화교들이 많았다.[5] 수원 화교들은 화교사회를 지탱하고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화교소학교의 존재를 꼽았다. 소학교 6년 과정을 이수하면 평생 중국어를 안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동에는 수원중화기독회와 화교소학교가 있기에 교동은 화교들의 종교와 교육이라는 큰 축을 담당하던 동네였다.

이영하 부인 이춘택병원 자리가 다 논이었고, 동네가 다 논밭이었어요. 지금 이 거리가 길 이름이 생긴 거죠. 중국 사람들이 시금치 재배했어요. 인분으로 길렀대요.

1970년대 중반 교동에 들어온 정인숙은 1970년대 초반부터 교동에 단층의 양옥집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동 주택가 양옥집에는 공군 단장, 대령, 경찰 고위계층, 교장, 서점주인, 영동시장 상인, 사업가 등 다양한 인물들이 거주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수원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보건소장과 학교 교장의 사택도 교동 주택가에 있었



1970년 화홍문화제 행사로 모인 교동 주민들(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아이들(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청소차의 쓰레기 수거(수원박물관 제공)



1984년 교동맨션애서 개최된 부녀자율민방위대 발대식(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7년 팔달산 자락 교동주택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3년 교동 주택가 하수도공사(수원박물관 제공)



1978년 팔달산 기슭에 자리한 교동 고급주택(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위
1978년 교동 12-2번지 정인숙의 주택 마당
(정인숙 제공)

아래
1978년 정인숙 가족(정인숙 제공)



원불교 수원교당 부지로 편입된 정인숙의 주택

다. 교동은 돈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고급 집을 지어 거주하던 '최고의 주택지'였다. 정인숙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수원의 전통적 부자는 남창동에, 의사들은 팔창동 쪽에 많이 거주하였다. 교동에 오기 전 살던 고등동은 대문을 열면 이웃끼리 서로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 사정까지 공유하는 등 관계가 돈독하였다. 그런데 교동은 부촌이어서인지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세세하게 알던 분위기가 아니었다. 언덕 아래 화교소학교 주변의 주택가 사람들과는 더더구나 교류가 없었다. 교동 주민들은 이웃과 교류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정인숙 돈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고급 집을 지었어요. 국회의원, 명동시장 포목상 상인들도 거주했죠. 수원시에서 부자동네로 인식되었어요. 거지들이 와서 적선해 달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정인숙보다 10여 년 일찍 교동에 정착한 이영하의 부인에 따르면 동네 주민들끼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했다고 한다. 이영하의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존속되었다고 하니, 1980년대 중반 정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지에서 살다가 마을에 들어온 정인숙과 어릴 때부터 교동에서 성장한 이영하와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떳달자 동네 주민들끼리의 계모임이요, 쌀계나, 금(金)계 있쟈어요?

이영하 부인 젊을 때 하면서 애들 결혼시키고 필요할 때 썼는데 나이 들면서 안 하죠. 막내가 오십(50)이 넘었어요. 동네에서 계하면서 결혼시켰어요.

교동 주택가는 매산로를 기준으로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나뉘었다. 정인숙과 이영하는 윗동네에 거주하였다. 교동 주택가는 뒤쪽으로 팔달산을, 앞쪽으로 향교를 두었다. 입지가 좋은 주택가였지만 지대가 높아 불편한 점도 있었다. 정인숙은 지하수를 끌어 쓰는 펌프가 있어도 고지대라서 작동이 잘 안 되어, 1970년대 후반까지 아랫동네로 내려가 물을 길어서 먹었다고 한다. 겨울이 되면 길이 얼고 미끄러워 언덕을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계단이 생기면서 비로소 왕래가 용이해졌다. 집에 자가용이 있어도 경사가 높아 운전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외출 때마다 언덕을 오르내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어 몸이 건강해졌다고 한다.

정인숙 겨울에 미끄러웠어요. 물이 흘러내려서 …… 몇 년 후 계단이 들어섰죠. 높은 지대라서 가족들이 운동도 하고,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 전에는 지대가 높아, 수압이 높아 물이 안 나와서 아래까지 가서 길어서 먹었어요.

정인숙은 교동 주택에서 평온한 삶을 누렸지만, 고령이 되면서 언덕을 오르내리고 집안 마당을 관리하는 데 부담감을 느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아파트로 이주하였다. 그녀가 살던 집은 원불교 수원교당에서 매입하였다고 한다.

2. 도심 속 자연과 향교의 정취를 즐기던 주민들

팔달산과 수원향교는 교동 주택가 주민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집 가까이 위치한 팔달산에 오르면 수원 시내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다. 산에는 약수터, 운동시설, 산책로를 비롯하여 강감찬 장군의 기마동상, 홍난파 노래비, 3·1운동기념비, 효원의 종 등이 설치되어 있다. 능선을 따라 축조된 화성은 서장대·서노대·서포루·화양루 등 시설물을 거느리고 있으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6] 주택가 가까이 팔달산 초입이 시작되기에 주민들은 수시로 산책과 등산을 즐기며 자연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다.



매산초등학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교동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팔달산에 대한 추억이 강하게 남아 있다. 1939년생인 이영하는 수원매산국민학교(지금의 매산초등학교)에 다녔다. 팔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 학교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매산국민학교는 수원 지역에 일본인 이주자들이 급증하면서 일본 거류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1906년 9월 28일 화성학교 내에서 7명의 일본인 학생들로 구성된 수원거류민소학교로 개교하였고, 이듬해 학생 수가 20명으로 증가하였다. 1908년 학생 수의 증가로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본인 거류민들의 기부금과 통감부의 지원금으로 수원향교 옆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10년 수원심상고등소학교, 1912년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41년 수원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45년 4월 26일 6학급으로 개교한 수원남수공립국민학교가 같은 해 11월 일제 패망 후 일본 학생들이 떠나간 수원공립국민학교 교사로 이전하면서 12월 수원매산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7]

이영하가 재학하던 시절에는 학생수에 비해 교실이 부족하여 팔달산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교동의 아이들은 팔달산의 정기를 받으며, 흐드러지게 피는 꽃과 신록 속에 뛰어놀면서 재바르고 건강하게 자랐다. 이들은 지금은 광교 호수공원으로 거듭난 원천유원지에 나들이도 갔고, 서호저수지에서 낙조를 감상하기도 했다. 지금의 매교동 공구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심 속 자연과 향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교동(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문화원(시민회관)과 수원중앙도서관(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향교 진입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가 골목에는 수려선(水麗線) 철길이 지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원천에 갈 때면 이 기차에 몰래 타서 1~2㎞를 간 후 내리곤 하였다. 수려선은 수원-여주 구간을 달리다가, 1972년 폐선되었다.

이영하 제가 매산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팔달산에 올라가서 향교 뒤 따뜻한 편에서 공부했어요. 어린이들 노는 곳은 팔달산, 서호에서 놀고. 원천유원지에서 놀구요. 원천으로 갈 때는 수려선 기차에 몰래 타서 빈센트 병원 내려가는 길에 내리기도 했구요. 역무원이 있어도 잘깐씩 몰래 타는 건 괜찮았어요. 매교역이 철로길이었어요. 교통은 주로 걸어 다녔어요.

교동사거리는 팔달문시장,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수원의 전통시장들과 가깝다. 교동 주택가에서 전통시장과 수원역은 도보로 1~2㎞ 이내의 거리이다. 그래서 주택가 주부들은 쉽게 장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소식과 볼거리도 즐길 수 있었다.

정인숙과 이영하의 부인은 가까이 위치한 수원향교와 수원문화원 덕분에 주민들이 큰 문화적 혜택을 누렸다고 말한다. 수원향교에서는 전통의상 입어 보기, 전통문양 그리기, 다도 체험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도 시행한다. 논어, 맹자, 중용 등 유학경전과 함께 서예, 다례 등 전통 인문교육도 실시한다. 또 수원 시민들의 전통혼례도 치러 준다.[8] 조선시대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베푼 잔치였던 기로연(耆老宴)을 이어 받아, 요즘도 유림원로와 관내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잔치를 벌인다. 잔치 때는 사물놀이, 민속춤, 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진다.[9] 향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사람들은 멀리에서도 방문한다. 교동 주택가 주민들은 지척에서 이를 즐길 수 있으니 일상이 무료하지 않았다.

이영하 부인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이 향교 사무실에 있으면서 제사도 지내고 관리해요. 가끔씩 결혼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은 구식 결혼도 시켜 줘요. 집이 한 열댓 호 살던 걸 다 헐었어요. 거기도 공원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관광객이 한 500명이 갔다 온다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한복 입고 절하는 법을 배우려고 와요. 와서 방학 동안 그렇게 배워요.

정인숙은 향교 한문반 수강생으로 오랜 시간 활동했고, 예절 교육 강사로도 10여 년간 일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장노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향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교동을 떠난 지 15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 시절 한문반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향교 수강생들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다.

정인숙 교동에서 사는데 편한 점은 문화생활을 빨리 접하는 거예요. 문화원과 향교가 있어 신식 문물을 접했고, 사통팔달 교통도 편리했어요. 저는 문화원에서 수업 듣으며 신바람 나는 생활을 했어요. 수원시에서 데산이 나와서 예절교육 강사로 활동했어요. 향교에서 예절강사를 10년쯤 했구요. …… 한문반 주부반 수강할 때 그 멤버들을 요즘도 만나요.

1956년 창립된 수원문화원은 수원 전역에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도자기 공예, 모듬북, 사물놀이, 서예, 전통한복 만들기, 하모니카, 한국무용, 핸드드립커피 만들기 등 전통예술, 운동, 취미를 아우르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10] 학생, 일반 시민, 외국인 주민들까지 문화원을 통해 여가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처럼 교동 주택가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근대 문화유산과 자연을 벗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7년 교동 주택가



교동 주택가 풍경

3. 개발과 이주, 사라지는 동네

교동 주택가는 일제강점기부터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디고 발전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구도심 주택가이자 노인들이 주로 사는 한산한 주거지이다. 주민들은 이를 가까이 위치한 수원향교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팔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기고, 향교를 통해 일상에서 전통과 멋을 가까이할 수 있는 반면,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했다는 것이다. 수원향교는 1983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재 보호방침에 따라 향교 주변으로 고층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지 못했다. 향교와 가까운 주택은 2층까지밖에 집을 짓지 못하기에 부동산 시세가 오르지 않았고, 집 주인들은 집이 노후되어도 신·개축하지 않았다.

교동 외에도 고등동·매산동·중동 등 경기도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원의 행정·문화·상업의 중심지로서 번화했던 곳이다. 하지만 현재 동수원·영통·광교 등 신시가지 개발로 상권이 쇠퇴하고,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전체의 슬럼화가 진행 중이다.[11]





교동 주택가 골목

교동에 거주하던 부유층들은 동네가 쇠락하면서 새로운 주택지 또는 아파트단지로 떠났다. 계속 남아 있는 주민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이들의 장성한 자녀들은 분가하여 하나 둘씩 교동을 떠났다. 이제 교동의 주택가는 서민과 노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 되었다. 이영하 부부는 아버지 대부터 살아온 교동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물려받은 적산가옥을 개축하여 3층으로 올렸다. 그런데 시(市)에서 주택가 일대에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이유로 이주를 요청하자, 난감한 상황이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집을 개축한 데 비하여 보상과 이주비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럽다.

시의 정책에 협조하여 빨리 이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희망하는 만큼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살던 동네를 떠나기 싫을 경우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영하　향교가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고 짓는 데 제한이 있어서 새로 짓기 싫고 있던 사람들은 좀 살다가 빠져 나갔어요. 문화재라서 우리 집도 수용해서 문화재 생태공원을 앞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니 협조도 하고, 반대도 합니다. 시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죠. 동네가 좀 서민층이 많이 살죠.

이영하 부인　잘사는 사람들은 서울로도 가고, 수원 각지로 많이 갔어요. 집 헐려서 간 사람들은 아파트 전셋집으로 많이들 갔어요.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시에서 단계적으로 몇 집씩 이주를 시켜서 반대나 시위가 없어요. 집을 이주해야 하니까 반대들도 하구요. 우리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려고 3층으로 지었어요. 근데 집을 지은 비용을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줘요. 그래서 그냥 나가야 되요. 아직 갈 데 마련도 안 해 놨어요. 매교동, 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향교로 주변에 들어선 원룸

동 다 재개발되어서.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하죠. 향교 앞에는 2층까지밖에 집을 못 지어요. 그래서 집장사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람이 안 오죠. 향교에서 생태공원 된다고 이주하라고 하고, 길 건너 세류동, 인계동도 다 재개발하구요. …… 향교 앞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구요, 나머지는 이사 가시구요. 어머님,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여기서 살면서 떠나면 안 돼요.

주민들은 교동이 쇠락한 또 다른 이유로 수원시청의 이전을 꼽았다. 한국전쟁 이후 늘어난 행정업무를 위해 새 청사가 필요했던 수원시는 1954년 교동에 새로운 청사 건립에 착수해 1년 9개월 만에 완공하였다. 당시 수원은 전쟁복구가 한창이었고 화성행궁부터 중동사거리까지 연결된 하수로 복개공사도 그 중 하나였다. 이 과정에서 나온 화강암 돌덩이들을 청사 건축에 활용하였다. 1987년 인계동으로 시청이 이전하면서 기존 청사는 2007년까지 권선구청사로 사용되다 현재 가족여성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돌집'으로도 불리는 옛 시청 건물은 현재 등록문화재 제598호다.[12]

이명화 부인 시청이 떠전에 이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요기가 살기가 괜찮았죠. 시청 떠나고 이렇게 된 거죠. …… 교동은 분동이 안 되고 좁아서 1개 동이에요. 성씨도 대성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부자나 지주도 몰라요. 그 적산 땅 많이 불하받은 사람 자식이 다 서울 가서 살아요.

정인숙 사는 동안에 주택이 많이 안 늘어났어요. …… 제가 이사 후 수원 시내가 개발되면서 교동이 죽어가는 동네가 됐어요.

향교로 주변으로는 원룸, 빌라 등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언덕 위 주택가에 비하면 주민들의 이출입이 빈번하다. 신축 건물 외벽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현수막 광고도 붙어 있다. 교동경로당을 지나 이춘택병원 방향 도로를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 좀 더 오래된 빌라와 주택이 몇 채 나온다. 교동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한때 분위기가 어두웠다. 그러나 구불구불한 골목길의 낡은 담벼락에 무궁화, 태극기 등 벽화를 그리는 '향교로 벽화골목길'을 조성하여 지금은 동네에 따뜻함과 멋스러움을 더하였다. 향교 입구 주택 외벽에는 "옛 향기가 있는 마을 교동" 이라는 문구와 그림이 지나가는 이들을 반긴다. 골목에 CCTV를 설치하여 치안도 강화하였다.[13]

향교 입구에는 메밀막국수집과 중화요리집, 꽃집 등이 있다. 막국수집은 고령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경영을 하는 곳인데, 3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수원 최고의 막국수집으로 꼽힌다. 이들 점포들도 이주를 앞두고 있다.

교동 인쇄골목은 100년 남짓한 수원 인쇄업의 역사가 흐르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일제시기 수원인쇄주식회사의 활판 인쇄업으로부터 시작된 이곳은 1970~1980년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로 문을 닫는 인쇄사들이 늘어나 업체가 많이 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향교 입구에 있는 오래된 가게





이영하가 운영하는 신세계이발관

소하였다.[14] 한때는 서울 을지로처럼 유명했지만 인쇄문화가 쇠락하고 디지털 장비가 발전하면서 더욱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다. 선광인쇄소 등 2대째 대물림을 하는 곳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명맥이 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소도 이주 비용을 받아 하나 둘 동네를 떠나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업체는 태일인쇄, 경기복사, 조은문화사, 인영문화사 등이다.

동네 사람들이 주로 다니던 골목길은 이제 도심 속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관광객이 대신하고 있다. 근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던 주부들은 사라지고, 커피와 카메라를 손에 쥔 젊은이들이 눈에 띈다.

이영하 부인 고물상에 세도 주고, 막국수 집 있던 자리는 옛날 판잣집이에요. 목이 좋고 세가 싸니까 아직까지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에서 이사 가라고 하니까, 지금은 고 앞이 다 비었어요. 이사 비용은 다른 동네보다는 많이 줬어요. 인쇄소도 한 3,000만~4,000만 원씩 주나 봐요.

팔달산 기슭 아래 조용한 마을, 근대 역사와 문물이 숨 쉬는 고즈넉한 마을은 바야흐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평생을 교동에서 살아온 이도, 수십 년간 교동에서 장사를 하며 터를 잡았던 이도, 교동을 떠날 날이 임박해졌다. 노후화된 이곳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팔달산과 향교의 정취를 누리던 주민들은 떠나지만, 이들의 기억 속에 교동은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수원시청(https://www.suwon.go.kr/).
2 수원향교(http://www.skk-suwon.com/).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인문학 역사탐방과 가을 낭만 여행을 동시에」, 『e수원뉴스』, 2018년 10월 19일.
5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수원시사』 12, 2014, 223쪽.
6 『두산백과』.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수원향교(http://www.skk-suwon.com/).
9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10 수원문화원(www.suwonsarang.com/).
11 「수원시, 낙후지역 경기도청 주변 '활력 넘치는 도심'으로 되살린다」, 『기호일보』, 2018년 1월 8일.
12 「수원시청의 변화」, 『수원일보』, 2019년 10월 1일.
13 「수원 팔달구 매교동, 주민이 만들어가는 '향교로벽화골목길' 조성」, 『서울뉴스통신』, 2019년 10월 30일.
14 「사양길 인쇄골목 활력소 찾아라」, 『인쇄산업신문』, 2016년 7월 22일.

교동에 입시미술학원가가 형성되기 전까지
수원화방의 주요 고객은
아동미술학원, 순수회화 작가, 그리고 건축가였다.
수원시청 주변에 건축가 사무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때문에 설계도면을 그릴 때 쓰는
제도기 같은 용품들이 많이 팔렸다.
입소문을 타서 안산이나 평택에서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이 와서 미술용품을 사가기도 하였다.

정민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
정채연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장 교동 미술거리의 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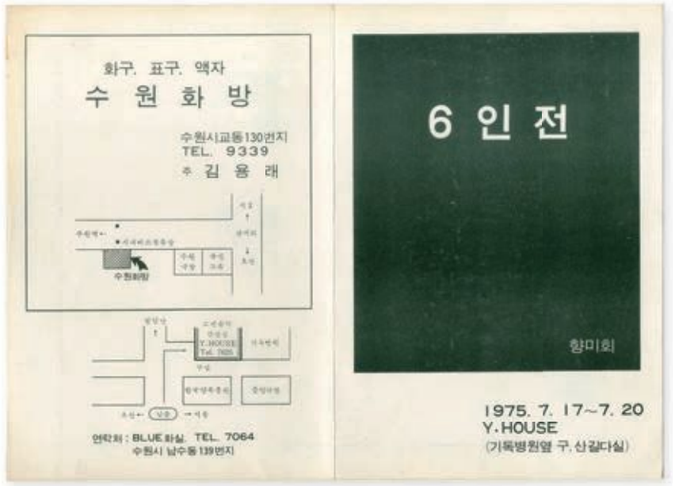
1. 교동 미술거리의 시작

매산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인 화실들이 생기고, 곧 이어 미술학원들이 개업하면서 일명 미술거리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는 수원 종로 인근에 화실이 몰려 있었는데 점차 매산로로 내려왔다고 한다. 교동 지역의 대표적인 화실로는 1980년대 중반 교동사거리에 들어섰던 남부희 작가의 개인 화실이 있었다. 남부희 작가는 교동에서 1990년대 초까지 남갤러리를 운영하기도 했다.

황옥남 관장(1960년생)은 당시 수원극장, 중앙극장, 로열극장 그리고 대한극장 등이 교동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또 영화 간판을 그리는 화공들이 활동하면서 극장과 화공들이 교동의 문화예술이 자리 잡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 회고하였다.

> 황옥남 문화예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영화는 영화 간판이 있죠. 간판을 그리시는 분들이, 물론 그 당시에는 상업 예술이라고 우리가 약간 쳐주질 않았어. 쳐주질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시대의 예술의 발전을 보면 그런 걸개그림이라든지 극장의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초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수원에는 입시미술을 위한 화방이나 문화예술을 전업으로



1975년 향미회에서 개최한 6인전 팸플릿에 광고를 실은 김용래의 수원화방(권용택 제공)



1985년 수원화방(수원박물관 제공)



수원화방문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작가를 위한 화방이 많지 않았는데, 수원극장 옆에 작은 화방이 있었다고 한다. 그 화방이 문을 닫은 후, 이해균 작가가 1980년 12월경에 '수원화방'을 개업하였다. 6평 남짓한 공간에서 자그맣게 시작한 수원화방(팔달구 매산로 131)은 현재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해 해움미술관(팔달구 매산로 133-1) 1층에 자리하고 있다.

황옥남 70년대에 수원극장 있는 데 보면 여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 할머니 하고 아드님하고 하는 수원화방이라는 곳이 아주 조그맣게 하나 있다가, 그분이 몇 년을 하시다가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있었다는 건 아주 연로하신 분들도, 그림 하시던 분들은 기억을 [해요]. [수원극장] 옆에 있었어요.

이해균 작가는 수원 시내를 세 바퀴나 돌며 수원화방의 자리를 물색하였다. 그때에는 인계동 쪽이 허허벌판이어서 자연스럽게 장안문·화서문과 수원역 쪽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가 수원시청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역과도 가까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월세도 굉장히 저렴하였다.

수원화방은 수원의 전문 미술화방으로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황옥남 관장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황옥남 관장이 이해균 작가와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원화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해균 작가가 운영하던 화방은 전문 미술화방답게 미술 입시에 필요한 석고상과 각종 미술용품이 즐비하였다. 특히 4B연필 한 자루에 350원 하던 시절에 3,500원짜리 석고상이 선반 위를 가득 메우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황옥남 여기를 딱 와 보니까 이게 선반을 해 갖고 석고가 아그리파, 줄리앙, 비너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막연하잖아 우리가 결혼을 선택한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저런 것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밥은 굶지 않고 살겠구나. 그래도 좀 넉넉하겠지?'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화방에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석고가 3,500원이야. 저는 그게 굉장히 부자스러웠던 거죠. 2,800원에 나와서 3,500원에 파는 거였어. 석고가 하나에. 선반에 가득한 게 굉장히 많이 부자스러웠던 거죠, 제 눈에.

황옥남 관장은 이해균 작가와 1983년에 결혼해서 곧바로 수원화방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수원시에는 고등동과 화서동 부근에 아동미술학원이 100개 정도 있었으나 입시미술학원은 없었다. 구도심에는 학교들도 많고, 주택도 올망졸망 밀집되어 있어



창조의아침



목우미술학원

서 아동미술학원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였다. 당시 아동미술학원들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학원 미술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액자 주문이 많아서 밤을 세워 가면서 일을 했다.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화방에 소파를 얻어다가 아이들을 뉘여 놓고 액자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 5시까지 일하였다.

황옥남 제가 그 당시에 소망이 애들을 젖병 안 물리는 거였어요. 젖병을 입에 물고 있으면 이유식을 먹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젖병을 떼려고 애들을 재우면서 젖병을 입에 물리면 젖병을 던져 버리고



영원한미소

달라 그래서 저렴해서 들어갔었어요. 친구랑 둘이.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둘이서 작업실 했고. 또 그 옆에 작업실 공간이 비니까 저렴해서 들어왔고. 자기는 20~30만 원 주고 쪼끄만한, 요만한 공간인데, 거기는 한 30평 되는 공간을 30만 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인테리어 해서 들어오고.

이처럼 1990년대 초부터 미술학원들이 교동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수원에서 시작하여 오랜 시간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목우미술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16일 목우화실로 시작한 목우미술학원은 1998년 현재 교동캠퍼스 위치로 이전하며 수원미술학원 학원가 형성 초기부터 자리 잡았다.

황욱남 90년대 초반인가? 내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 했는데 비봉고등학교가 디자인과가 처음 생겼을 때야. 그때 목우미술학원이 많이 성장하고. 그담에 저희 가게 2층에 그런섬미술학원이 있고, 그 때가 전성기였어. 옆에 호우와자명 있고 그다음에 길 건너 푸른솔미술학원 있었고, 옆에 김철수교습소. 학원으로 인가를 안 내주고 교습소로 인가를 내시고. 그담에 한국화 가르치시는 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신랑을 만나시더니만 금방 없애고 법원사거리 있는 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호우와자명도 이 시기에 자리를 잡았다. 호우와자명의 전신은 1983년 종로에서 개업한 자명미술학원이라 할 수 있다. 호우와자명의 박태균 원장은 자명학원의 권용택 원장의 제자이자 강사였는데, 1994년 근처에 호우미술학원을 차려 독립했다고 한다. 이후 권용택 원장이 은퇴하면서 자명학원을 제자이자 강사였던 친구 최승일 원장에게 물려주었고, 1999년 두 학원을 합쳐 호우와자명으로 이름 짓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호우와자명은 2016년 1월까지 교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동의 미술학원가가 형성되는 역사를 초창기부터 함께해 왔다.

박태균 권용택 선생님이 자명미술학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거기 학생이었고 강사 생활하다가 제가 호우를 차린 거죠. 그랬는데, 제 친구가 최승일이 맡아 갖고 하고 있었는데 친구끼리 해라 그래서 호우와자명으로. 근데 처음에 저도 자명 출신이고 거기서 계속 강사니까 자명미술학원으로 하려 그랬는데 또 호우 다니던 애들이 같이 좀 써요 해서 그래 그럼 호우와자명도 괜찮겠네 해서 시작을 해서 다시 묶친 거죠. 종로를 떼비반 캠퍼스로 하고 교동은 입시반 캠퍼스로 했는데, 그게 99년이에요. 그때 합친 거거든요. 근데 종로가 다 미술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다 시에 땅들이 넘어가면서 거기는 없애고 교동에서 학원가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 근처에 학원들이 한 10개 정도가 생겼죠. 처음에 제가 94년에 할 때는 2개였던 걸 같아요. 호우하고 또 다른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화실이.

박태균 원장은 교동에 미술학원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2000년부터라고 회고하였다. 이때부터 개인 화실들이 입시미술학원으로 변모하기도 했고, 처음부터 입시미술학원으로 개업한 곳도 있었다. '목우미술학원', '영원한미소', '창조의아침', '클릭앤전원', '고도' 등 지금은 유명한 수원의 입시미술학원들이 완전히 터를 잡은 게 이 때부터이다. 2000년도 이전에는 미술거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화실과 미술학원 수가 적었다고 한다.

미술학원가가 완전히 형성된 초창기에는 학원 원장들끼리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 누


호우와자명 박태균 원장

구 학원 원장이 아니라 호형호제 하면서 퇴근하고 밤에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학원별로 축구대회나 팔달산 일주 마라톤 대회를 열기도 했다.[1] 입시미술학원연합회 경기인천연합에 가서 타 지역 사람들과 체육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함께 들었다. 2010년 전성기를 맞아 수원뿐만 아니라 안산, 화성, 오산, 평택 등 타 지역에서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늘고 나서부터는 수원시입시미술학원연합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를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다.

박태균 학생들이 전성기가 2000년에 제가 시작했을 때 학원들이 많아지면서 2010년 이때 굉장히 전성기였거든요. 미술학원에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때서부터 봉고차도 같이 하고 승차권도 같이 나눠 주면서, 승차권을 우리가 사서 얼마씩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좀 편리 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담에 우리끼리 모여서 교통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교통관리도 하고. (…) 미술학원끼리도 서로 단합을 해서 봉고차를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 데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비용을 아끼고 애들한테 환원해 주자 해서 비용 같이 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술도 한 잔 먹고. 우리끼리 담배 피는 애들 있으면 자율적으로 못 피게 순찰하고. 학원들끼리 당번 정해서 돌아가면서 교통정리, 주변 담배 못 피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하면서 잘 됐었거든요.

1,600명에 육박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귀가를 챙기려면 승합차 운영은 필수적이었다. 이때 승합차가 하도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한다. 승합차 운영은 7~8년 정도 지속되다가 교동 미술학원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2. '수원시 미술의 거리'로 거듭나는 교동

미술학원가가 형성된 교동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지역이 낙후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문로데오시장상인회 김한중 상인회장이 당시 수원시입시미술학원연합회 회장이었던 박태균 원장에게 미술학원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어 낙후된 거리를 살려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다. 미술학원이 중점적으로 위치한 교동은 이미 빈 상가도 많아서 그 외벽에 액자를 껴서 그림을 전시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다. 그래서 2012년 6월 28일 남문로데오시장상인회와 수원시입시미술학원연합회가 정식으로 MOU를 맺고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달고 전시회를 시작하였다. 가볍게 시작했던 그림 전시회는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서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던 상가 매물들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현재 수원시청년지원센터가 위치한 청년바람지대 건물이었다.



2012년 제1회 로데오거리 가로등 갤러리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박태균 십몇 년 동안 공실이었는데 거기[청년바람지대]가 나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야외갤러리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동대문운동장인가 박스형 야외갤러리 사진을 한 번 봤는데, 이런 게 있으면 괜찮겠다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넣는데 이번에는 대규모로 됐어요. 30미터짜리 송산주차장 외벽을 갤러리로. 그걸 처음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박스형 갤러리도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스트리트 갤러리라고, 이충택 병원 앞에 약간 삼각형 느낌의 그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디자인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정류장 갤러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문화의 거리, 제가 그냥 남문로데오 미술의 거리라고 붙였어요. 정류장 갤러리에. 그러면서 거기 제가 갤러리 대표를 맡으면서 100여 개 넘는, 3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 정도 전시를 하기 시작했고. (…) 큐레이터를 1년 정도, 저희가 상인회에서 구인광고를 내서 큐레이터를 데리고 전시회를 하

SRI 수원시청년지원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면서 판매전까지 했어요. 호응이 되게 좋았구요. 작가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되게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었고. 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성공사례로 많이 왔었어요.

미술의 거리가 본격적으로 변화한 것은 201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해피니스 옆에 처음으로 야외 갤러리를 만들고 그림을 전시하였다. 원래 밤에 어둡고 낙후된 곳이어서 다니기 위험한 곳이었는데, 조명이 환하게 켜진 갤러리가 들어오니 거리가 밝아져서 장사도 잘 되고 다니기에 안심된다며 근처 상인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2014년에는 송산주차장과 이춘택병원 앞에 야외 갤러리와 정류장 갤러리를 추가적으로 오픈하였다. 특히 박태균 원장이 시도한 실물 작품을 직접 전시하는 형태의 정류장 갤러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작가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박태균 정류장 갤러리 같은 경우도 실물 그림을 넣는 게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거 할라고 구글, 다른 나라 사이트 다 들어가서 몇 천개의 정류장을 봤는데, 다들 너무 특징적이고 괜찮은 게 많은데 미술거리를 특별나게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갤러리구나.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줬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잘 보여서 작가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박태균 원장이 사비를 들여 혼자 일을 하던 것이 갤러리의 수가 늘고 일이 많아지자 더 이상 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2015년에는 정식으로 큐레이터도 채용해서 일을 분담하였다. 주요한 기획과 디자인은 박태균 원장이, 작가들과 연락해 전시의 내용을 채워 넣고 설명하는 일은 큐레이터가 하는 식이었다. 갤러리에서는 매주 전시가 열렸고, 3년 동안 진행된 전시만 100여 회, 참여한 지역작가는 300여 명이 넘었다. 이때는 외부에서 미술의 거리 조성 성공사례를 참고하러 교동에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박태균 원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해외 작가들도 방문해서 야외 갤러리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근처 가게에서 술을 먹기도 하였다. 많을 때는 200명씩 미술의 거리를 방문하였다.

박태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작가들이나 외국에서 알고 있는 작가들, 제가 부산국제아트페어는 매번 나가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그때는 계속 정기적으로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기 오게 되면 거리에 대한, 미술거리다 설명해 주는 것도 제가 좀 간간히 했었어요. 오시면. 근데 이렇게 수원에 재미난 데가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또 먹거리도 괜찮아서. 소맥도 알더라고요 폴란드 분들. 그렇게 해



2012년 유리창 갤러리



2012년 무궁화 벽화골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서 소맥 먹고. 그다음에 인도문화원 원장이 각띠라고요, 그분도 이쪽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은 제가 다 구경시켜 드렸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도 인도문화원을 첸나이 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도에 있는 TVS모터스가 운영하는 인도-한국 갤러리거든요. 문화 사업하고 있는.

이렇게 교동을 미술의 거리로 만드는 사업은 점점 커져서 2016년에는 판매전도 진행하였다. 수익은 모두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깨끗하게 진행해서 잡음이 없었다. 특히 2016년은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아서 남문로데오아트홀에도 갤러리를 오픈하여 특별기획전을 열기도 하였다.

이처럼 2013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교동은 미술의 거리로 거듭났다. 초기에 상인회와 함께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박태균 원장은 일절 수익이나 지원을 바라지 않고 본인 사비로 활동을 이어 나갔다. 활동을 오래 지속하려면 최대한 돈 문제가 얽히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미술의 거리 주역들의 이주와 변화

잡음이 생긴 것은 롯데몰 수원점이 개점하면서부터이다. 롯데몰은 2014년 상인연합회에서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롯데몰 수원점 개점에 따른 22개 전통시장의 피해실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각각의 전통시장마다 상생자금을 지급하였다. 이 상생자금을 두고 "문화사업에 투자해야 한다."와 "상인들끼리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였다. 초기에는 문화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 쪽에 힘이 실려 그 상생자금으로 2016년 수원남문로데오아트홀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갤러리를 여러 군데 오픈하면서 채용하게 된 큐레이터의 임금이 상생자금에서 지급되고 있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불만도 컸다. 상인회 회장이 직무정지가 되고, 갈등이 법적 재판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화되자 결국 2017년 상인회에서는 큐레이터에게 퇴직을 권고했고, 아트홀을 위탁 운영하던 공연기획업체와도 사업자계약을 종료시켰다.[2] 4개 갤러리와 미술학원 운영을 혼자 도맡아서 할 수 없었던 박태균 원장도 이 일을 계기로 미술의 거리 관련한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교동의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었다. 처음 미술학원을 개업할 때 냈던 월세의 10배가량을 내고 있는 학원들도 있었다. 모 건물주를 중심으로 건물주들 사이에서 월세 올리기 붐이 일었다고 한다. 월세를 견디지 못한 학원들은 점차 영통과 매탄 지구로 떠나기 시작하였다.

박태균 우리도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쌌거든요. 거기 500에 20만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도 1,000에 얼마 있었다가 점점 올리더니 이제는 뭐 월세만 거기 내는 게 돈 천 만 원씩 내게 된 거예요. (…) 지금 월세가 문제다, 여기 있는 학원 원장들이 영통에 가도 어렵지 않다. 여기가 잘된다고 생각하니 있겠지만, 이제는 시세가 똑같다면 영통이나 정자지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 그리고 그런섬 거기가 마지막에 있다가 나간다고 그랬더니 깎아준다고 그러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거기 건물세가 너무 올랐어요. 10배가 올랐어요, 거의. 저희도 칠팔백씩 내고, 옆에까지 하면 돈 천 만 원씩 낼 것 같아요. 많이 쓰긴 했죠. 근데 처음에 했던 것보다 옆에 건물도 뭐 너무 심하게 올려 갖고요.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다른 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리 너무 심하다 얘기해도 건물주들은 상관없다 그러고 올렸어요.



교동에 있는 화실

학원이 이주를 감행한 요인 중 하나로는 수원시 주거지의 변화도 있었다. 이미 교동은 구도심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영통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입시미술학원의 대상인 학생들의 주거지가 신도심으로 많이 이주한 것이다. 동수원으로 이주한 학생들은 교통도 불편하고 낙후된 교동보다는 분당이나 서울 쪽 입시미술학원을 찾기 시작하였다. 결국 학원들이 수요를 찾아서, 보다 나은 조건의 건물을 찾아서 이주하는 수밖에 없었다. 박태균 원장도 2016년 1월을 마지막으로 교동을 떠나 매탄동과 동탄에 학원을 새로 꾸렸다. 자연스럽게 입시미술학원들끼리 도모하던 친목도 사라졌다.

황옥남 명통 생기고 그 담에 동탄 생기고. 학원 다니는 애들도 조금, 주거가 옮긴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로 가면 벌써 교육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 그리고 명통 정도로 가니까 거기서 다니는 애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보다 서울 쪽이나 분당 쪽으로 또 많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 교동이 예전에는 문화·행정·교육 모든 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다면 그런 것들이 주거문제가 이동하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학원도 마찬가지고. 많이 없어진 건 2009년? 2000년대 중반 때. 여기가 학원이 많이 빠져나간 지가 근 한 5년 정도 돼 가요.

박태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선후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장님이라고 우린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 형, 누구 형 이렇게, 우린 그렇게 했었죠.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잘 있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입시학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제는 원장님이지, 형 이런 말이 사라진 거죠. 다 상업가로 들어갔잖아요. 중심상가. 명통, 매탄중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굳이 미술학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우정을 나눌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경쟁 대상이 되는 옆에 있는 학원들이니까.

현재 교동에 미술 갤러리를 조성한 시초격인 미술학원들은 거의 다 이주한 상태고 남은 것은 '목우미술학원', '창조의아침' 정도이다. 다만 황옥남 관장은 여전히 교동에 남아 수원시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해움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미술의 거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4. 수원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부활하기 위해서

수원화방을 운영하던 황옥남 관장은 2011년에 건물을 매입하고 약 2년간 준비해서 2013년에 해움미술관을 개관하였다. 해움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지난 2014년 3월 21일에 '오래된 始作-교동, 수원예술을 품다'란 대규모 기획전도 열었다. 이때 수원을 비롯해 안성, 안산, 오산, 화성, 평택, 용인 등 도내 곳곳에서 활동 중인 작가 76명이 참여하였다. 대규모 기획전답게 전시 기간도 1부(3월 21일~4월 23일)와 2부(4월 25일~5월 25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되었다.[3]

해움미술관 개관과 더불어 이해균 작가는 지역의 뜻있는 작가들을 모아 함께 작업하는 예술공동체를 설립하였다. 바로 교동창작촌의 시작이다. 교동창작촌의 작가들은 공동작업을 통해 각자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2014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교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미술교실이나



해움미술관



해움미술관 입구

인문학 강좌, 전시장을 지역민과 작가들을 위한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익사업이다.[4] 같은 해 9월 12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교동창작촌 주민워크숍을 개최해 교동을 '미술마을'이라는 수원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5]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교동커뮤니티아트센터(해움미술관 4층)에서 '교동창작촌 미술마을 만들기展'을 열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예술적 소통을 모색하였다. 동네 주민과 미술단체 및 작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미술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객들에게 보다 다채롭고 편안한 전시 감상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시에 참여한 단체는 가족여성회관미술팀, 매교동경로당, 중앙문화센터미술팀, 그린섬미술학원, 영원한미소미술학원, 호우와자명미술학원, 수원고등학교, 향교서예교실이었다.[6]

현재까지도 창작촌 작가들은 지역 정서에 걸맞은 문화 창출을 위해 각종 예술프로젝트 및 커뮤니티아트의 수행자로서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다만 중심 작가인 이해균 작가가 민족미술인협회 수원지부장을 맡게 되면서 잠시 눈에 띄는 활동들은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가족이 희망이다'라는 예술프로젝트를 수원시가족여성회관과 해움미술관에서 실행한 바 있으며 향교 앞 벽화사업도 진행하였고 각종 인문학 강좌를 주민을 위해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수원시 팔달구 마을르네상스 사업 추진주체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움미술관의 전시



해움미술관과 수원화방

황옥남 대표적으로 2016년인가? '가족이 희망이다'라는 컨셉을 갖고 가족여성회관하고, 작가들 67명인가 그 정도 참여하셔서 가족에 대한 작품들을 다 내셔서. 외벽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원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현수막식으로 뽑아서 프린팅 작업해서 거기다 한 달 내내 설치했었어요. 그리고 원작은 우리 미술관에서 한 달 내내 전시를 했었는데 세미나도 하고 시낭송회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가족여성회관 직원들이 그걸 달아 놨더니 한 달 동안 껍껍해서 혼났다고 하더라고. 가족여성회관 뒤마당에서 우리가 행위미술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나 교동창작촌 운영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업 작가들이 지역을 위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곧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항상 뒤따랐다. 예술가와 지역민들 간의 소통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지속적으로 사회봉사처럼 지역을 위한 예술 활동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슬럼화 되어가는 지역을 보며 지쳐가는 작가들이 생겨났다. 가장 시급한 것은 활동을 위한 재정 확보였다. 현재는 수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공모해 지역 예술 활동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남문 로데오 미술의 거리 버스정류장

대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하는 중이다.

이처럼 교동 미술거리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미술학원들과 화방이 주도적으로 공익적 예술문화를 조성했다는 것에서 특색을 지닌다. 이윤을 추구하고 서로 경쟁해야할 업체들이 단합하여 함께 학생들의 귀갓길과 지역 치안을 걱정했었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전시회도 운영하였다. 그 와중에 본인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역 예술 진흥과 주민 소통을 위해 사립미술관까지 건립하였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낙후되어 가던 교동이 3~4년 만에 '수원시 미술의 거리'라는 호칭까지 얻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현재는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교동 미술거리 변화의 주역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그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금은 천천히 변할지 몰라도 언젠가 지역을 위해 힘쓴 이들의 노력이 빛나는 날이 오리라 기원해 본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신연호, 「이런 골목이 또 있을까요」, 『골목잡지 사이다』 2013년 8월 여름호, (주)더페이퍼, 2013, 50~58쪽.
2 「남문로데오거리 갤러리·소공연장, 사업자계약 종료, 큐레이터 퇴직 권고 등 운영 차질」, 『경기일보』, 2017년 4월 13일(검색일자 : 2019년 12월 2일).
3 「오래된 始作-교동, 수원예술을 품다」, 『경기일보』, 2014년 3월 19일.
4 「[인문360°] 나에서 우리로, 일상에서 예술로, 경기문화재단」, 『인문360°』, 2017년 4월 14일.
5 「2014 교동창작촌 주민 워크숍-매교동 마을 만들기 가동」, 『e수원뉴스』, 2014년 9월 17일(검색일자 : 2019년 11월 17일).
6 「교동창작촌 미술마을 만들기展… 해움미술관서 내일 개막」, 『경기일보』, 2014년 10월 29일.

제3부

梅橋洞의 마을 풍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 전쟁이 지나간 매교동 1번국도변 마을

제2장 | 매교동 기찻길 옆 마을

제3장 |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

제4장 | 매교동 랜드마크 문화맨션

제5장 | 111년간 수원 교육을 선도한 수원중고등학교

매교동은 지나는 도로는 명색이 국도였음에도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까지 자전거를 처음 타는 소년이
겁 없이 자전거를 끌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통행이 적은 도로였다. 그러나 6·25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군용 차량과 군인들이 지나갔다.
남으로 내려가고 북으로 올라가는 편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도로 위에 펼쳐졌다.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주애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 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장 전쟁이 지나간 매교동 1번국도변 마을

1944년 수원군 수원읍 남부정 211-16번지에서 출생한 소년 신현준은 세류초등학교 1학년 때 6·25전쟁을 경험하였다. 생전 처음 듣는 대포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고 매교가 폭파되었다. 어른들은 전쟁이 났으니 피란을 가야 한다며 술렁거렸고 짐을 싸서 피란길에 올랐다. 소란하던 모습을 보면서도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던 소년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부모를 따라 태장면의 어느 마을에 피란을 가서 지내다가 돌아왔고 1·4후퇴 때는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란을 다녀왔다. 1960년에 수원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휘문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경험했던 1950년대는 6·25전쟁과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다.

소년은 자신이 경험했던 1950년대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가며 『민초가 겪은 6·25전쟁 야사』(신현준, 2015, 북랩)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기에 당시의 사회상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하여,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1950년대 매교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1. 1번국도변 마을

내가 살던 매교동 집은 경부국도변에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는 서울과 부산 간을 잇



1954년 매교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는 대표적인 국도였다. 6·25전쟁 전에는 이 길로 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기가 어려웠다. 집 앞 도로변에 나가서 있어도 그냥 빈 도로였다. 한가롭게 소가 끄는 4륜 마차나 가끔 지나갔다. 전쟁 후에도 군용차량 이외에는 민간인 차량을 보기가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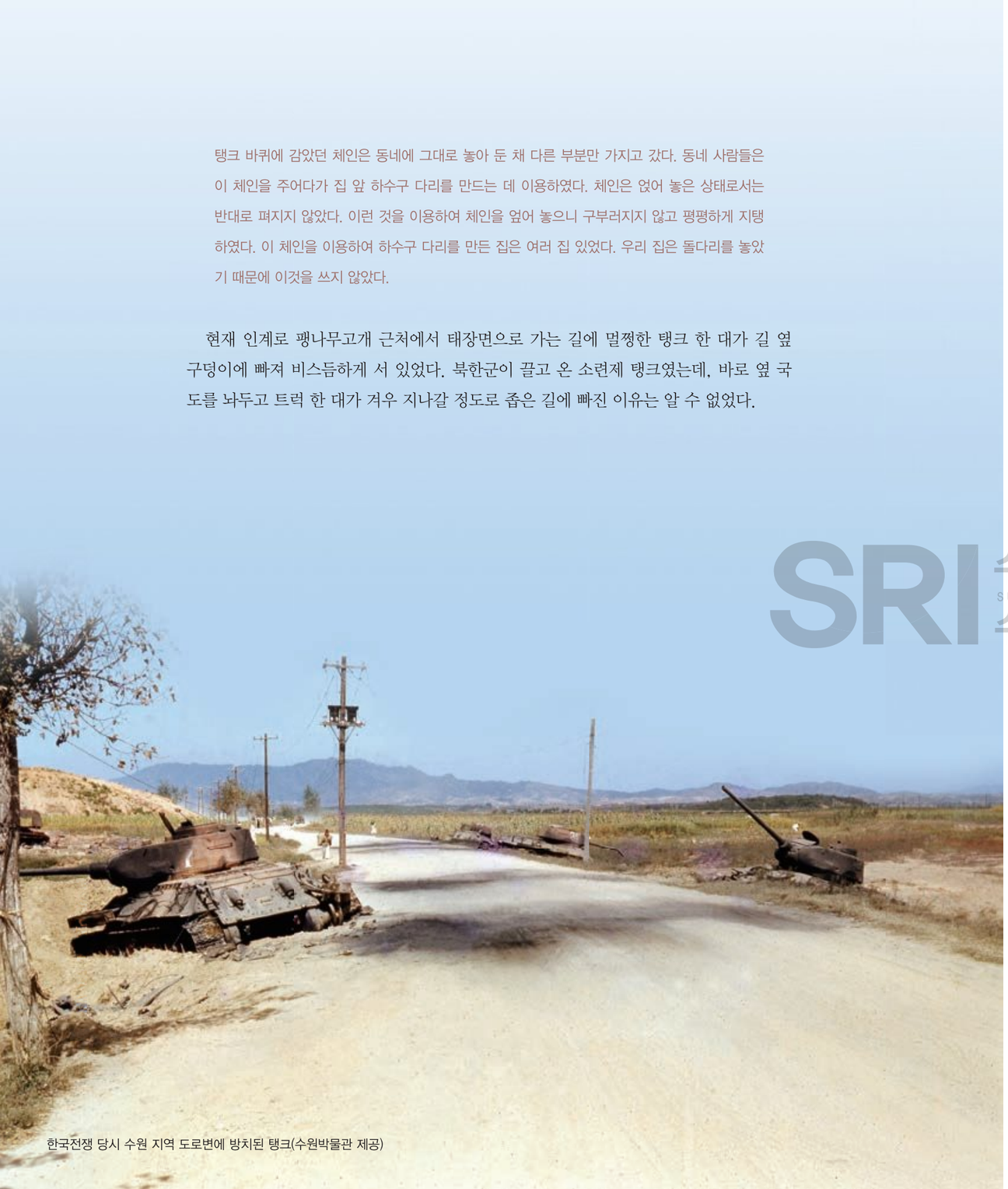
1950년대 매교동은 매교에서부터 수원중고등학교까지 큰길 양편으로 도로를 따라 집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 가촌(街村)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수원과 여주를 운행하던 협궤열차 수려선 철길 주변 평촌(坪村)에도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긴 했지만 규모가 작아서 1960년대까지 매교동은 국도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가 중심이었다. 매교동을 남북으로 지나는 큰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는 주요 도로였고, 정조가 현륭원으로 능행차를 할 때 오갔던 길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목포에서 경성에 이르는 신작로로서 국도 3호선이 되었다가 해방 후에 국도 1호선의 지위를 부여받을 정도로 예전부터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많던 길이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이 도로 양편으로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수원시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유입인구가 늘어 기존 주거지 외곽의 밭이나 공터에 주택들이 들어서 현재의 매교동이 된 것이다.

국도 1호선이 현재의 경수대로로 변경되기 전까지 매교동을 지나는 정조로가 국도 1호선이었다. 전쟁 후에 국도변 마을의 주민들은 종종 도로 관리에 동원되었다. 매년 국도 주변에 자갈을 모아서 쌓아 둘 것을 지시했고 자갈 더미 위에는 세대주의 이름을 쓴 푯말을 꽂아 두도록 했다. 모아 둔 자갈은 일제히 국도에 깔아서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매교동 주민들은 대부분 수원천에서 자갈을 주어다가 쌓았다.

매교동은 지나는 도로는 명색이 국도였음에도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까지 자전거를 처음 타는 소년이 겁 없이 자전거를 끌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통행이 적은 도로였다. 그러나 6·25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군용 차량과 군인들이 지나갔다. 남으로 내려가고 북으로 올라가는 편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도로 위에 펼쳐졌다. 인천상륙작전 후 북진하는 국군과 유엔군의 탱크와 장갑차 행렬을 보러 나온 매교동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해서 김장독에 가득 채웠다. 그런데 올라갔던 국군과 유엔군의 행렬이 되돌아오기 시작하였다. 남하 행렬이 여러 날 계속되자 국도변 마을은 술렁거렸고 불안해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피난 보따리를 쌌다.

탱크 바퀴에 감았던 체인은 동네에 그대로 놓아 둔 채 다른 부분만 가지고 갔다. 동네 사람들은 이 체인을 주어다가 집 앞 하수구 다리를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체인은 얹어 놓은 상태로서는 반대로 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용하여 체인을 엎어 놓으니 구부러지지 않고 평평하게 지탱하였다. 이 체인을 이용하여 하수구 다리를 만든 집은 여러 집 있었다. 우리 집은 돌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았다.

현재 인계로 팽나무고개 근처에서 태장면으로 가는 길에 멀쩡한 탱크 한 대가 길 옆 구덩이에 빠져 비스듬하게 서 있었다. 북한군이 끌고 온 소련제 탱크였는데, 바로 옆 국도를 놔두고 트럭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에 빠진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 수원 지역 도로변에 방치된 탱크(수원박물관 제공)

탱크는 한동안 그대로 있다가 미군이 들어왔을 때 해체해서 가져갔다. 그런데 이때 탱크 바퀴의 캐터필러는 두고 간 모양이다. 동네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구부러지는 캐터필러의 특성을 이용하여 경부국도와 집 사이 하수구 위에 다리 형태로 얹어 놓고서 발판으로 사용한 듯하다. 해체되기 전까지 이 탱크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전쟁 당시 매교동에서 살았던 사람이면 누구나 이 탱크를 기억한다.

마쓰무라네 건너편 표씨네 앞길로 들어서면 왼쪽에 재판소 집이 있고 복(福)자 쓴 집을 오른편으로 끼고 가면 수원중·고교 뒷문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권선리로 가는 길로 접어든다. 그 길은 차가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노폭인 도로이다. 마쓰무라네 가게에는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담배와 버스표를 팔았고, 오산·평택·천안 등 경부국도 하행선의 매교동 버스 정류장이기도 하였다.

매교에서 수원중고등학교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양쪽으로 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 풍경이 1950년대 매교동이었다. 수원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부터는 태장면고개까지 가는 도중에 논밭 사이로 간간이 몇 채의 집이 보이는 정도였다. 도로 바로 옆에는 가게들이 있었고 주택은 대부분 가게를 지나서 마을 안쪽으로 있었다. 방앗간, 해장국집, 술집, 쌀집, 약국, 사진관, 자전거포 같은 가게들이 길을 따라 죽 늘어서 있었다.

매교를 건너면 바로 권선리로 가는 갈림길이 있었는데 이곳에 마쓰무라네 가게가 있었다. '마쓰무라[松村]'라는 상호로 보아 일제시기부터 영업을 한 시외버스 매표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 안 종로에서 출발한 하행선 버스가 마쓰무라네 가게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갔다. 일제시기에 매교동에 자리 잡은 회춘당은 죽어 가는 사람도 살릴 정도로 용하다고 소문난 전영태가 운영하던 한약방이었다.

수원중고등학교 근처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소년은 이 나무를 쌍둥이 나무로 기억하였는데 아마도 팽나무였을 것이다. '팽나무고개'라는 지명이 마을 안쪽에 있던 두 그루의 팽나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그루가 고사하고 한 그루만 남아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인계로 옆 현재 위치로 옮겨 심으면서 새롭게 한 그루를 더 심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매교동 마을지도
(신현준, 2015, 『민초가 겪은 6·25전쟁 야사』, 북랩)



수원중고등학교 주변 마을 경관(1962년, 수원고등학교 제공)

2. 전쟁이 지나간 자리

1·4후퇴 후 서울을 재탈환하고 38선 근처에서 전선이 교착되자 후방에서는 빠르게 전후 복구가 진행되었다. 피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였고 시장도 열렸다. 휴전이 되고 이전의 일상을 찾았으나 전쟁으로 황폐된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일거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노점 장사였을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기 전까지 아이들도 집안 경제활동에 동참해야 했다.

SRI 수원 SUWON 수원



한국전쟁 시기 돈을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했던 수원 아이들(수원박물관 제공)

부산 피난생활을 끝내고 수원 집으로 돌아왔다. 부산에서 이제 막 돌아왔으니 식구들 중에는 호구지책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저 막연할 뿐이었다. 당장 먹고살려면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집에서 만들어 준 깨엿을 가지고 삼거리에 나가서 깨엿을 팔았다. 삼거리란 수원극장이 있는 삼거리를 가리키는데, 수원극장 옆에는 헌병대가 있었다. 그 헌병대 건너편 길 모판에 깨엿을 놓고 팔았다. 헌병대가 들어 있던 건물은 부친이 전에 다녔던 회사 소유의 건물이었다. 모판에 깨엿을 담아 웅크리고 앉아 깨엿을 팔았는데 좀처럼 깨엿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

영동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싸 주는 종이봉투의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휴전을 전후로 몇 년간 매교동에서는 봉투 만들기를 부업으로 하는 집들이 많았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종이라면 어떤 것이든 잘라서 풀로 붙여 봉투 형태로 만들었다. 가족의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만든 봉투를 영동시장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모여들어 봉투를 집어 갔다. 봉투 값은 후불이었고 공급자가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해서 주는 것이었다.

봉투 붙이기는 우리 집만 한 것이 아니었다. 집집마다 부업으로 시간과 인력이 나는 대로 봉투를 붙였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그 대가는 너무나 미천한 것이었다.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하루 저녁 내내 붙여도 그 양은 많지 않으려니와 경제적 가치도 아주 적었다.

반듯한 회사원이었던 소년의 아버지는 전쟁 후 미군부대 세탁소 일자리를 겨우 얻었다. 그러나 농사가 없는 소년의 집은 식재료를 모두 시장에서 구입해야 했으므로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웠다. 아버지가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양곡회사에 취직을 한 후에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쉬운 대로 방을 비워서 하숙을 치거나 세를 놓아서 살림에 보탰다. 매교동 국도변에 있던 소년의 집은 수원 시내와 가까워서 세를 들거나 하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방이 비었을 때는 소년이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종로의 버스터미널에 가서 민박 손님을 데려오기도 했다.

휴전 이후 우리 집 건넌방에는 등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하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등사기와 등사판을 방에다 들여 놓고 잡자는 시간만 빼고 밤낮으로 무엇인가 등사를 해댔다. 인쇄소가 전후에는 그다지 변변하지 않았으며 기계설비도 미흡하였던 관계로 우리 집 건넌방에서와 같이 가내수공업적인 인쇄소가 인쇄소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우리 집은 그들이 있는 동안 생계비 걱정은 안 해도 되었다. 하숙비를 받아서 그들의 밥을 해 주고 우리 집 식구도 먹고 지내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다.

또한 전쟁 당시 폭격으로 학교 본관이 파괴된 세류초등학교 옆 언덕에는 불발탄이 많았다. 마치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듯 불발탄을 캐냈다고 한다. 별다른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은 곱돌을 캐기 위해 산과 들을 누비고 다녔다. 긴 막대기 같은 것으로 땅을 쑤셔 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 돌을 두드려 보면서 곱돌을 찾다가 불발탄을 발견하면 곱돌 다루듯이 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불발탄은 땅 속에 박힌 채 일부가 노출되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그걸 캐내려고 하다가 뇌관을 건드리면 영락없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 우리 동네 아이로서 우리 집에서 몇 집 건너 살고 있던 아이도 이러한 폭발물 사고로 죽었다. 이름은 HE. S였다. 그의 부모가 죽은 아이를 마대에 싸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우리 집 대문 앞을 지나갔는데 그 부모의 처절한 통곡소리와 몸부림치는 모습이 지금도 역력히 떠오른다. 그 애가 직접 폭발물을 만졌고 주위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은 크게 다쳤다. 이러한 사고는 간단없이 발생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3. "헬로우 초코렛트 기브 미"

지금의 매교역사거리 부근에 대동제지가 있었다. 일제시기 건립된 대동제지는 전쟁 시기에 미군은 이곳을 주둔지로 사용하였다. 미군이 야구를 하면 동네 아이들이 관중이 되었고, 밤에 영화 상영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관객이 되었다. 대동제지 바로 옆으로 흐르던 수원천은 미군의 세차 장소로 활용되었고 매교동 사람들은 이곳을 '와시(wash) 냇갈'이라고 불렀다. 미군들이 지프(jeep)를 타고 냇가로 내려오면 10대 소년들이 깡통으로 물을 끼얹어 가며 차를 닦아 주고서 돈을 받았는데, 차를 닦는 냇가라고 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다. 미군은 주둔하는 동안 인근 태장면고개 쪽에 있던 화장장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했다고도 한다.

>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서너 명의 아이들이 철조망 근처에서 종이공장을 향하여 이내 그 소리인 "헬로우 초코렛트 기브 미"를 합창이라도 하는 듯 연거푸 외쳐대고 있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 드디어 미군 하나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깡통 2~3개가 철조망 밖으로 던져졌다. (…) 아이들은 일제히 깡통이 낙하한 지점으로 몰려갔다. (…) 다른 아이의 손도 마구 덮쳐 오기 시작했다. 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몸집이 나를 눌러왔다. 깡통을 잡은 손이 뻐근하였다. (…) 손가락이 짓눌린 것 같다. 손을 놓았다. 포기한 것이다. 손가락이 내 눈앞에 보일 때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동생을 업고 있는 아이에게 껌을 내밀고 있는 미군(팔달산, 수원박물관 제공)

대동제지 주변으로 철조망이 둘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미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볼 수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대동제지 철조망 근처를 왔다갔다하며 미군들에게 "헬로우 초코렛트 기브 미"를 외쳤다. 먹을 것이 귀하던 전시 상황에서 미군들이 호의로 던져 주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호사를 누리는 것이었다. 그러니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군만 보면 이내 "헬로우 초코렛트 기브 미"를 외쳤다. 그 말은 어쩌면 아이들이 미군에게 건네는 인사였을 수도 있다.

> 어머니는 메리라는 미국식 이름을 가진 한국 여성에게 건넌방을 세를 놓았다. 처음에는 무척 망설였으나 생활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한 푼이라도 수입원을 찾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 (…) 메리는 오직 한 사람만의 미군을 지아비로 삼은 색시였다. 옷도 항시 예쁜 것을 입고 있었다. 비록 초가집 건넌방이긴 하나 수를 놓아 방을 아름답고 깨끗이 꾸몄다. 신혼살림 방 같았다.

휴전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전선이 38선 주변에 정체되면서 후방은 일상을 회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매교동(수원박물관 제공)



양키 물건들이 거래되었던 1950년대 남문 일대 시장(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하기 시작하였다. 세류동 수원비행장은 전쟁 당시 유엔군의 수송과 보급을 담당하는 미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미군과 동거하거나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양공주' 또는 '양색시'로 불렸다.

소년의 집에서 하숙을 하던 메리는 미군과 동거하는 양색시였다. 당시는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기에 소년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해가 될세라 선뜻 방을 내어 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가족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주변의 시선을 무릅쓰고서 메리에게 방을 내어 주었을 것이다. 한 푼이 아쉽던 시절이었다.

메리는 애인이 갖다 주는 미제 물건들을 모아 두었다가 소년의 어머니에게 시장에 가서 팔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 미군들은 자신의 보급품을 모아 두었다가 애인에게 갖다 주었고 그녀들을 이것을 양키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장만하였다. 메리는 소년의 어머니가 받아 온 물건 값에서 얼마를 수고비로 떼어 주었다.

메리가 부탁한 미군 물품을 팔았던 곳은 일명 '양키시장'이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양키시장이 형성된 곳은 미군이 주둔한 지역이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기에 양키시장에는 보자기나 광주리에 물건을 담아 와서 판매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전쟁 피난민도 양키시장 상인으로 뛰어들었다. 팔달문 밖 공터에 있던 수원의 양키시장은 영동시장 양키골목으로 알려진 곳이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규모가 크진 않았으나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수원에 양키시장이 형성된 것은 수원비행장에 미군이 상주하고 있었고 오산과 평택에도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미군 물품들이 영동시장의 양키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4. 학교 가는 길

1950년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는 3곳이었다. 수원 최초의 공립초등학교 신풍초등학교, 일제시기에 일본인학교로 세워진 매산초등학교, 그리고 세류초등학교였다. 휴전 직후 남창·영화·지동초등학교 등이 개교했지만 세 학교는 일제시기부터 수원의 초등교육을 담당해 왔다. 매교동은 1937년 세류초등학교가 개교한 후 세류초등학교 학군에 속하였다.

1950년대 매교동에서 세류초등학교 가는 길은 매교를 건너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후 수원극장과 망루가 있는 소방서를 지나서 수원역 방향으로 걷다 보면 왼쪽으로 세류동 가는 오르막길이 나오면 이 길로 접어들어서 학교 정문까지 가는 것이 소위 정식 코스였다. 그러나 매교까지 걷지 않고 수원중고등학교 앞쪽 수원천에 놓인 간이 다리(지금의 매세교)를 건너서 수려선 철길 둑 아래로 걷다가 짧은 철교를 만나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야산을 넘으면 학교 강당이 보였다. 야산을 내려와서 논밭을 지나면 학교 후문이 나왔다. 통학거리가 짧은 지름길이긴 했으나 산을 오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고무신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새끼줄이나 나무줄기를 매고 올라가면 그나마 발에 힘이 실렸다. 수원천을 건너는 코스였기 때문에 비가 와서 수원천이 불어나면 지름길로 통학할 수 없었다.

> 혈거민들이 사는 곳은 수여선 화성역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협궤 철도변 오른쪽 약 50m 떨어진 곳에 100m 이상 연해서 서너 개의 혈거가 있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납치하여 이상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 학교에서도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다. 나는 이 길이 학교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무척 공포 속에서 이 길을 갔다왔다했다.

언덕을 넘어야 하고 비가 오면 갈 수 없다는 단점 외에도 지름길 통학은 두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현재 중앙침례교회가 있는 곳은 '백산포'라고 부르던 야산이었다. 하얀 흙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일제가 수원비행장을 건설할 때 백산포의 흙을 파다가 사용했다고 한다. 1950년대 백산포에는 굴을 파고 거주하는 혈거민(穴居民)이 있었다. 이들은 '문둥이'라고 불리던 한센병 환자들이었다. 전염병이긴 하나 일상생활 속 접촉에서 쉽게 전염되지 않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의 증상이 혐오감을 주는 외모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문둥이가 어린 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어서 아이들이 유독 이들을 무서워했는데, 이는 아이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른들이 지어낸 말이 아닐까 싶다. 백산포의 혈거민들은 나중에 의왕의 한센병 환자 집단 거주지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등하교 시에 백산포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명이 무리지어 다니도록 공지하기도 했다.

수원역과 매산로 일대는 모두 폭격 피해를 입어 온전한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매교 역시 전쟁 중에 폭파되었다. 사람들은 부서진 다리 옆에 나무로 임시교를 가설하여 수원천을 건너다녔고 휴전 후에 예전의 위치에 다리가 복구되었다. 세류초등학교도 1·4 후퇴 당시 폭격으로 본관이 반파되고 강당만 남아 있었다. 전쟁 발발로 휴교에 들어갔던 학교가 1년 만에 개교를 했지만 본관 건물을 복구할 때까지 강당만 교사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3~4학년은 수원향교에서 수업을 했다.



1950년대 세류초등학교 전경(세류국민학교 1957년 졸업앨범, 모하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다시 신축된 매교다리(1957년, 수원박물관 제공)

향교로 건물이 바뀌었을 뿐 등굣길에 공습경보가 울리면 건물 처마 밑으로 대피하거나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부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향교 마당이 학교 운동장을 대신해서 체육수업을 하는 장소가 되었다. 학생들은 향교 마당에서 땅따먹기, 뎅구치기, 가이셍, 딱지치기 등을 하며 놀았고 은행나무 아래의 연못에서 낚시 놀이를 하기도 했다. 향교 뒤쪽의 팔달산 중턱에 호랑이가 살던 곳이라고 해서 '호랑이굴'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점심식사 장소가 되기도 했다. 휴전 후 교실 다섯 개짜리 단층 교사가 신축된 후 학생들은 예전의 학교생활로 돌아갔다.

강당은 저학년에게 내어 주고 우리는 수원향교로 수업 장소를 옮겼다. 수원향교는 팔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향교의 규모는 컸다. 향교 입구에 들어서면 향교와 역사를 같이한 은행나무가 수많은 은행잎을 자랑하며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다. 그 밑에는 연못이 있다. 어두컴컴한 향교 교실은 비가 올 때면 더욱 어두컴컴했다. 향교 건물 바닥은 돌덩어리로 깔려 있었다. 우리는 그 위에 가마니를 깔고 앉았다. 앉은뱅이책상도 없이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였다. 글씨를 쓸 때는 웅크려 엎드린 자세에서 글씨를 썼다. 모든 것이 다 귀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교 1973, 옛 1번국도를 따라서

❶ 매교다리 앞에서



❷ 동명정육점–퀴논양화점–매교다리



❸ 동명정육점과 매교다리 사이 도로



❹ 퀴논양화점(매교동 105번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❺ 매교다리에서 바라본 수려선철교



❻ 매교다리 앞 상가(매교동 224-52, 224-53번지)



❼ 매교다리 옆 언덕마을

SRI



❽ 매교자전차점–골목–인삼직매소–부환사–정만페인트



❾ 매교자전차점(매교동 223번지)



⑩ 동남한의원 골목



⑪ 부환사와 정만페인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⑫ 정만페인트 남쪽 옛 1번국도 풍경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선터



⑬ 정만페인트–통일역리철학원–미영크리닝사(매교동 214번지)–진미순대집



⑭ 진미순대집–우미사(시계, 안경)–대명양복점(매교동 214번지)–일흥한약방–최약국



⑮ 최약국–매교미용실–매교정육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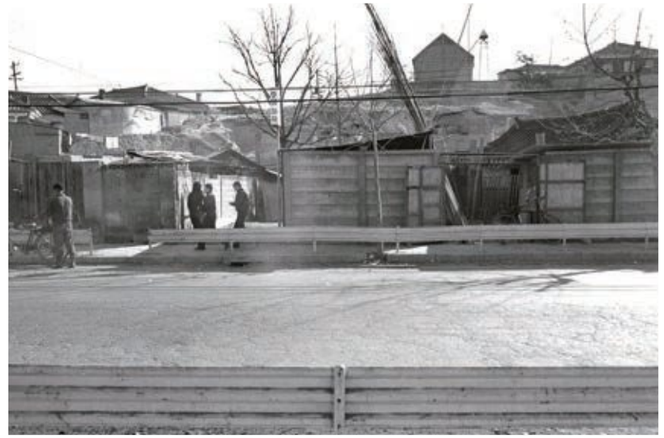
⑯ 매교미용실과 매교정육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⑱ 수용하숙–에덴양장



⑲ 수용하숙 골목



⑳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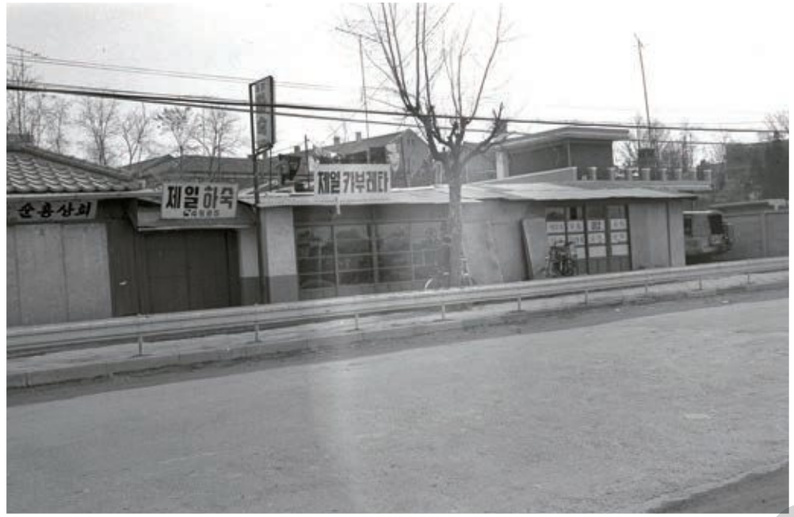
㉑ 중화반점



㉒ 제일하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㉓ 중화반점-제일하숙



㉔ 순흥상회–제일하숙–제일카부레타–분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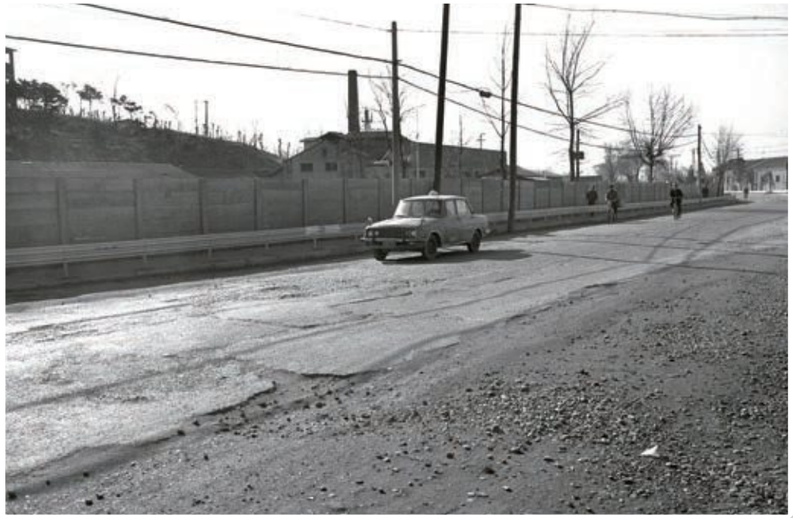


㉕ 제일하숙–제일카부레타–분식집



㉖ 수원중고등학교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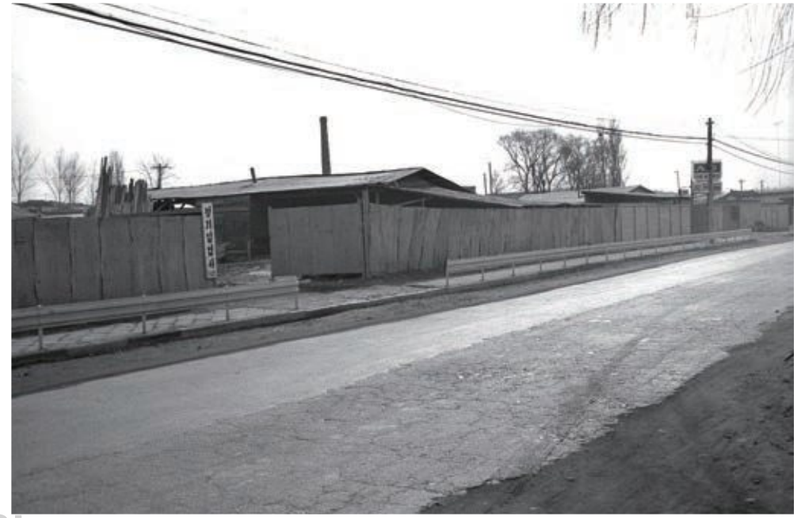
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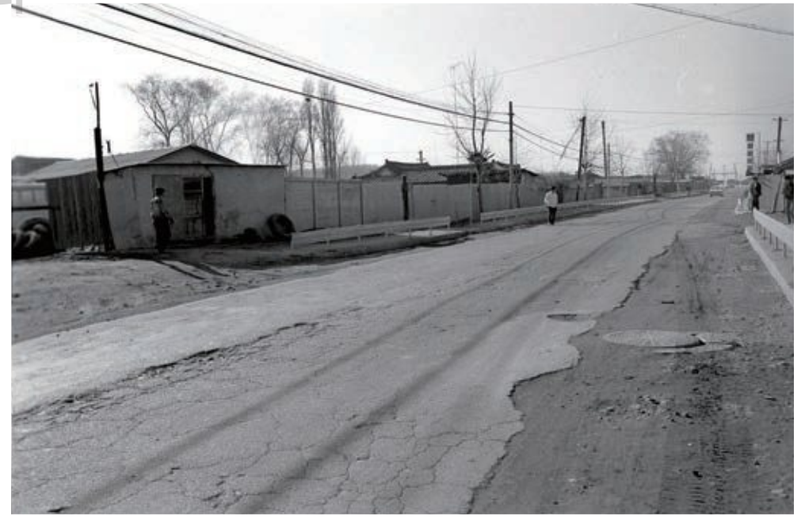
㉗ 공장



㉘ 신흥석유



㉙ 경기임업사(세류동 1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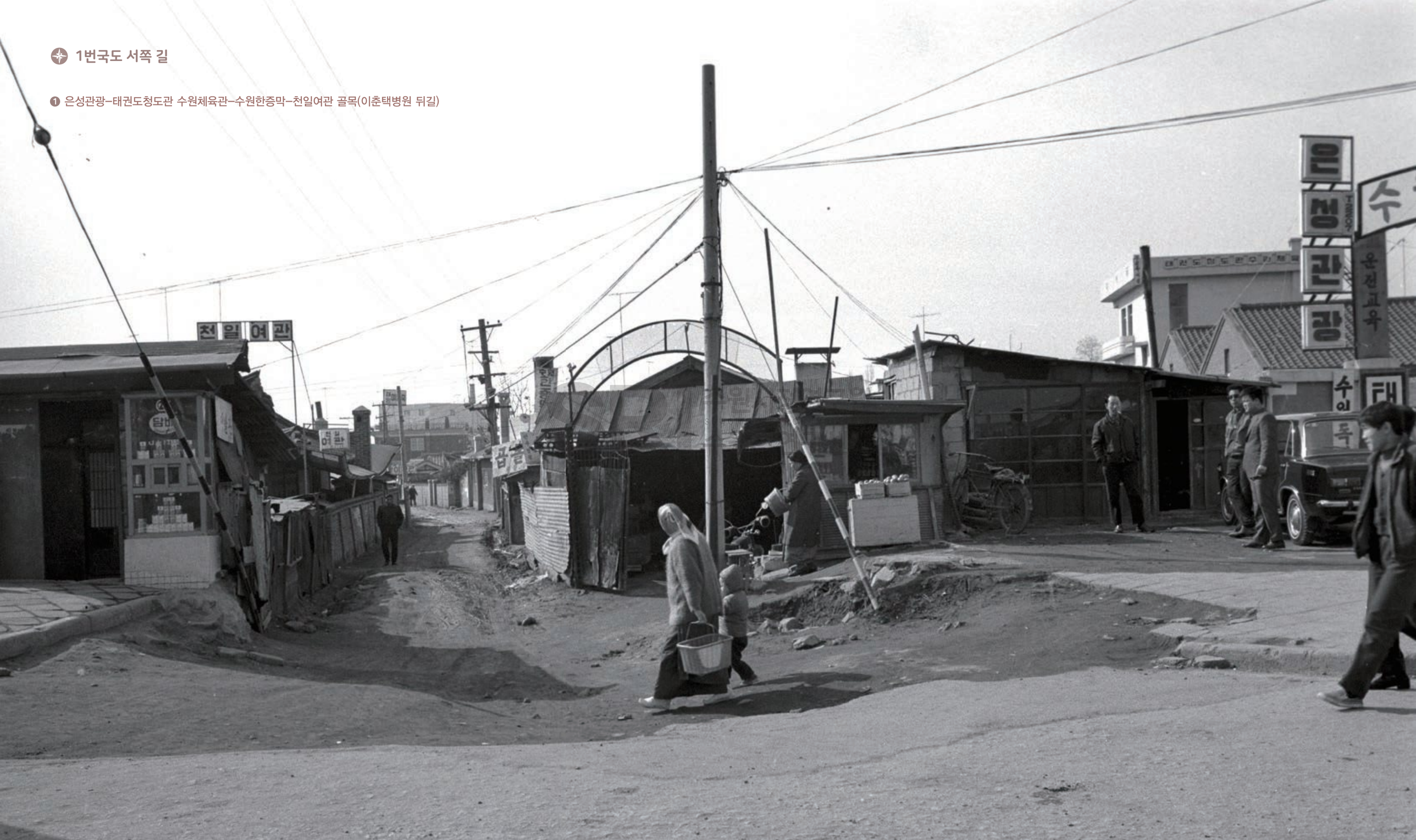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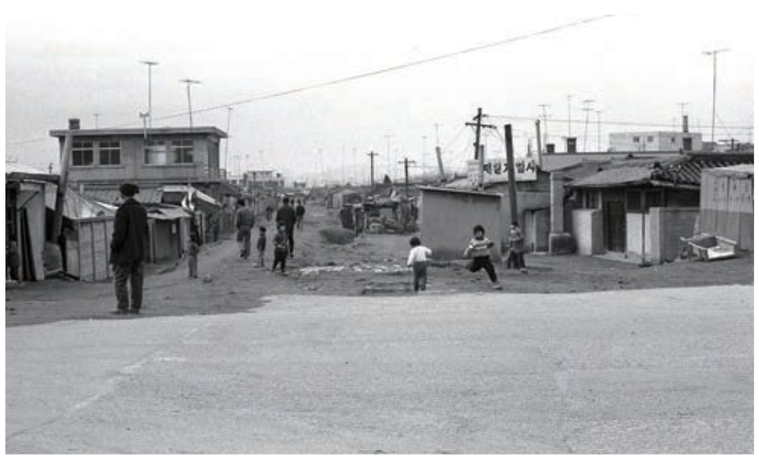
㉚ 청원약국 건너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번국도 서쪽 길

❶ 은성관광–태권도청도관 수원체육관–수원한증막–천일여관 골목(이춘택병원 뒤길)





❸ 제일기업사–수려선 길(현 정조로709번길)–천리교 수원교회(매교동 52)



❹ 일용품 가게–왕대표–매교다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② 유신고속 앞 버스정류장–천일여관 간판



❺ 매교다리에서 바라본 수원천(서쪽) 풍경



❻ 매교다리에서 바라본 수원천(동쪽) 풍경



❼ 매교다리–합동장의사–매교방아간–수성미장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❽ 수성미장원–대화철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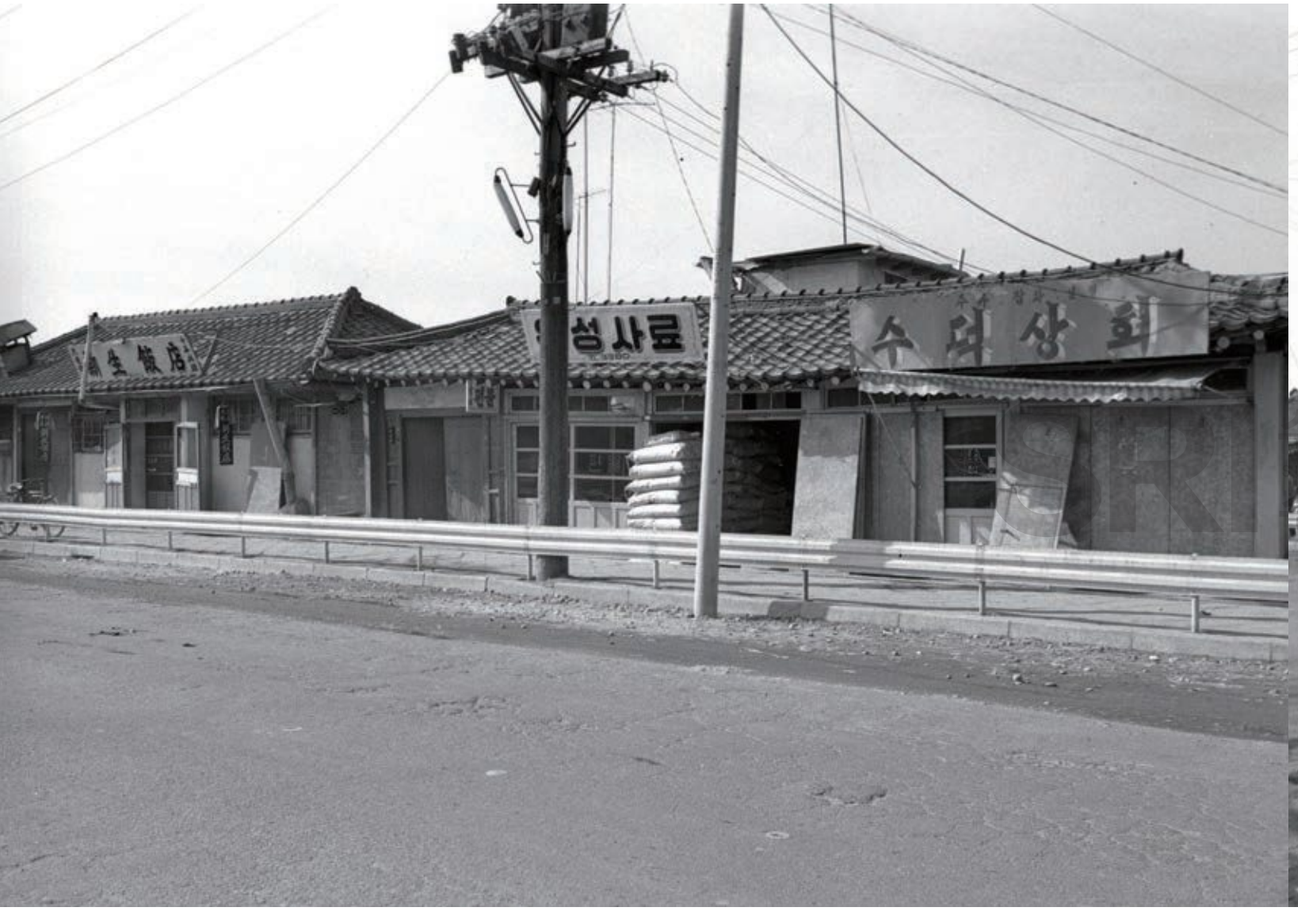


❾ 대화철공소–동양양복점–대승이발관–매교유리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⑩ 매교유리점–한국TV사–매교크라닝사–미림의상실(매교동 138)–진흥페인트–진흥제유소





⓫ 수덕상회–우성사료–장미편물–신생반점



⓬ 초원–영신자전차점–흥안전파사–광명자전차상회(매교동 141)–매원상회



⑬ 매원상회–현대여인숙–수원하숙–복덕방–신일부속센타–매교동 버스정류소



⑭ 신일부속센타–매교동 버스정류소–매교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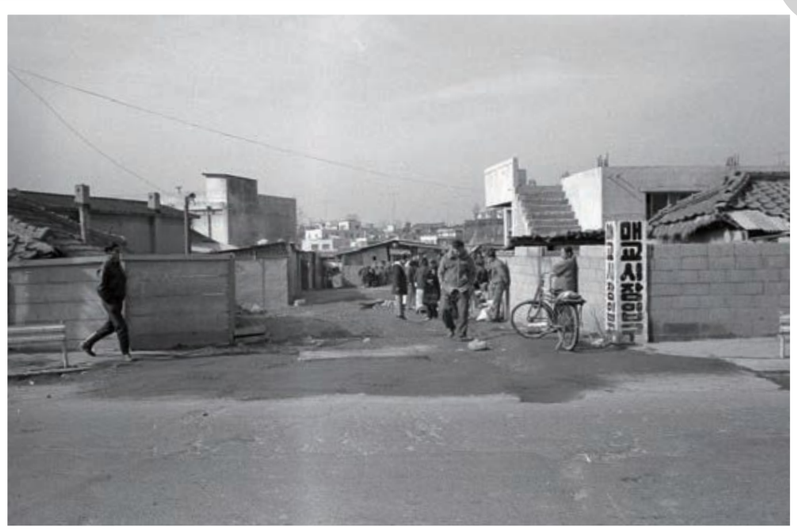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⑮ 매교시장 입구



⑰ 우신철공소



⑯ 매교시장 진입로



⑱ 동명기공사(매교동 156)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⑲ 왕대포



㉑ 유니미용실(매교동 167-7)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⑳ 제일주유소(매교동 158-7)



㉒ 청원약국(매교동 171)-건재상회-용인상회



2017년 재개발 공사 이전 옛 1번국도(정조로) 경관(김승일 제공)



2019년 재개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옛 1번국도 경관(김승일 제공)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연구원
SUWON CULTURE FOUNDATION SUWON CULTURE RESEARCH INSTITUTE

수원천 주변으로는 일제시기에 설립된 제지공장인
대동제지가 있었는데, 6·25전쟁 당시에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였다. 부대 안에는 인공연못도 있었다.
미군 주둔 당시 동네 형들은 미군들이 차를 끌고 와서
세차를 하던 냇가 부근을
'와시냇갈(와시내깔)'이라고 불렀다.

이진희 시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장 매교동 기찻길 옆 마을

1. 기찻길 옆 오두막집

1) 집 앞으로 지나다니던 꼬마기차

1946년 매교동 122번지에서 태어난 이종원은 1968년 7월에 입대하여 다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만 3년을 빼고는 매교동을 떠나 본 적 없는 매교동 토박이이다. 2005년부터 매교동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었지만 그러기 몇 년 전까지는 매산초등학교 인근에 있던 인쇄회사에 오래 다녔다. 군대 가기 전에도 초등학교 시험문제며 학습지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직원이 10명 정도였던 작은 인쇄소에서 일을 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대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인쇄 일을 하였다. 제대 후에 들어간 인쇄회사는 규모가 컸다.

하지만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차차 인쇄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IMF 외환위기가 벌어지고는 결국 그 여파로 회사는 아예 문을 닫고 말았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하였다. 아들 둘이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다. 국비지원 자격증에 이것저것 도전하여 정비사 자격증을 땄지만 실습을 나가 보니 너무 힘에 부쳤다. 베트남에서 작전 중에 헬기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렸는데 땅에 떨어진 순간 머리만 남고 온몸에 전기가 나간 듯한 느낌이었



1947년 수려선 철로 서쪽에 자리한 평촌(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54년 수려선 철로 동쪽과 수원천 서쪽 사이에 형성된 마을(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50년대 수려선 협궤열차(1953년 오정역, Don's Depot Railroad photos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다. 다행히 몇 초 후 감각이 돌아왔지만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부비트랩이 터져 사람이 죽고 사는 마당에 아프다고 입도 뻥끗할 수조차 없었다. 나이가 드니 그때 다친 게 도진 것인지 몸을 쓰는 일은 무리였다. 게다가 안사람은 기왕에 딸 자격증이라면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라고 성화였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였다.

이종원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충남 공주 출신으로 수원으로 이주해 온 뒤에 이종원을 낳았다. 이종원의 형제는 모두 7남매로, 위로는 누님들이고 이종원이 수원에서 태어난 이후 남동생이 둘 더 태어났다. 현재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건물 바로 앞 골목, '정조로709번길'은 그 옛날 수려선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길이었다. 수려선은 여주와 이천 등지에서는 쌀을 실어 나르려고 일제가 깔아 놓은 철로로, '꼬마기차'라고 부르던 협궤열차가 화성역에서 이곳을 거쳐 수원역을 지나 인천까지 갔다.

수원에 막 도착해서 세를 살던 부모님은 만 3년 후, 셋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의 땅을 빌려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기둥 세우고 지붕만 덮으면 집이라고 하였다. 마루도 없이 구들만 대충 깐, 그래도 방 두 개에 부엌 하나가 딸린

초가에 살면서 1년에 콩 한두 말 정도를 도지(賭地)로 주었다. 그땐 다들 그런 식으로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살았다. 이종원 네 가족이 집을 짓고 나서 그다음 집, 또 그다음 집이 차례로 들어섰다. 집들이 들어선 일대가 그때는 다 콩밭이었다. 그래서 그 집들도 콩으로 도지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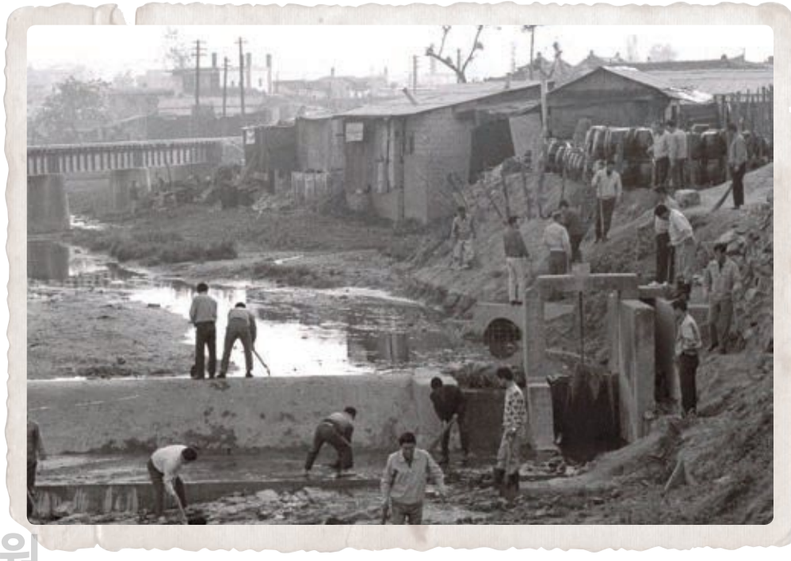
2) 알고 보니 시(市) 소유지

그런데 1960년대 어느 해, 갑자기 시에서 나와서 그 일대를 측량하였다. 알고 보니 그곳은 전부 시의 땅이었다. 이후부터는 시에다가 사용료를 지불했는데, 시에서 다녀간 사실을 몰랐는지 때가 되면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며 도지를 받던, 땅주인이라고 여겼던 할아버지가 또 도지를 받겠다고 나타났다. 이미 동네 사람들 전부가 실상을 다 파악하고는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참이었다. 주민들에게 된통 혼이 난 뒤로 그 할아버지는 다시는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고도 한참을 시에 사용료를 내며 살다가 그 땅을 용도 폐지해 달라고 신청을 넣었다. 불하를 받아 새로 집을 지을 참이었다. 이종원이 살던 곳은 이른바 구거부지였는데, 구거는 개골창, 즉 도랑을 의미한다. 도랑이었던 곳이 일제시기에 메워져 땅이 된 것이다. 당시 일제는 지금의 매교다리 지점에 수중보를 세우고는 평동과 고색동 들판으로 나가는 인공수로를 만들었다. 보에 수문을 만들어 수원천의 물을 가두었다가 농사철에 이용한 것이다. 어릴 적 이종원은 매교동 일대 천변에서 수로의 시멘트관이 흙 밖으로 일부 드러나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 수로의 흔적은 평동과 고색동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수원시 토지과에 매입신청을 한 땅은 총 40평으로, 4~5조각의 땅을 합친 평수인데, 다양한 필지로 되어 있는 땅들을 다 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살고 있던 구거부지 23평에 철도부지와 또 다른 필지의 땅을 사들여 1994년 새로 집을 지어 올렸다. 그 집 1층에 지금의 부동산을 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종원이 열아홉이던 해에, 어머니는 이종원이 결혼해서 큰아이를 낳고 난 이후인 서른 살 무렵에 돌아가셨다. 조금씩 고쳐 살던 초가는 이종원이 스물여섯 되던 1972년에 월남에서 벌어 온 돈으로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기와를 올렸다.

이종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나이는 예순 살이다. 지금의 여성회관 앞 맞은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현재 목우미술학원이 있는 자리이다.



매교다리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수중보 수문(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년을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지만 안타깝게도 첫 시험에서 몇 문제 차이로 다 떨어졌다. 학원을 집어치우고 아예 집에서 방을 하나 차지하고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인터넷으로 공부했는데, 그때 이종원이 공부하는 걸 본 아들이 "내가 아버지처럼 공부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거"라고 했을 정도로 열심히 하였다. 그리하여 응시한 게 전설의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수험생들이 과천청사에 몰려가 데모를 하였다. 현직 사시변호사도 과락으로 떨어질 정도였으니 그럴 법도 하였다. 변별력을 때문이었다지만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어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마침내 합격하였다. 국가고시 재시험은 아마 그때가 전무후무이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딴 뒤로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또래 친구가 오산에 부동산을 열어서 몇 달 거기로 출퇴근하였다. 그런데 이종원 네 집 1층에서 부동산을 하던 세입자가 어느 날 가게를 비우고 나갔다. 1994년에 집을 지을 때부터 1층에는 부동산이 들어왔다. 중개인이던 친구 누님이 1층을 꼭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세를 줬던 건데 그 누



1966년 수려선 연변으로 빼곡이 들어선 주택(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수려선 철로가 사라지고 도로가 된 정조로709번길 일대 지적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님이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면서 다른 사람이 이어서 부동산을 하였다. 그랬는데 세입자가 주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레짐작으로 가게를 비워 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이종원은 위층 자기 집에서 1층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1층 부동산은 지금의 절반 크기였다. 예전에는 부동산 사무실 뒤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셋집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세가 나가지 않아서 터서 사무실로 쓰고 있다. 매교동 재개발 얘기는 2004년부터 돌았던 것 같다. 2005년에 자격증을 따고 오니까 벌써 한 발 늦은 시기였다. 매매가 한 바퀴 다 돈 후였다. 돈이 급한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다는 말이다. 이후에는 서둘러 집이며 땅을 샀던 사람들이 이익을 조금 되붙여 파는 정도였다.

2. 기찻길 옆 마을의 변화

1) '와시냇갈'과 매세교

이종원이 어렸을 적에는 수원천에 물고기가 많았다. 겨울 지나고 얼음이 녹으면 조각 얼음을 뗏목처럼 타고 놀았다.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이 냇가에서 천렵을 자주 했는데, 밤에 횃불을 만들어 들고 고기를 잡으면 팔뚝만한 크기도 잡혔다. 그땐 수원천으로 여기저기서 샘물이 흘러들었는데, 팔달산에서도 물이 내려왔다. 지금 이춘택병원 맞은편 로데오거리도 복개된 길이라고 한다. 남문 백병원 앞에 가보면 '남창교(南昌橋)'라는 다리가 있었다는 표석이 있다.

수원천 주변으로는 일제시기에 설립된 제지공장인 대동제지가 있었는데, 6·25전쟁 당시에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였다. 부대 안에는 인공연못도 있었다. 미군 주둔 당시 동네 형들은 미군들이 차를 끌고 와서 세차를 하던 냇가 부근을 '와시냇갈(와시내깔)'이라고 불렀다. 와시는 영어 'wash'를 말한다. 미군들이 지프차를 타고 냇가로 내려오면 동네 형들은 깡통으로 물을 끼얹어 차를 닦아 주고는 돈을 받기도 하였다. 매세교가 생기기 전, 그곳으로 탱크며 차가 그냥 지나다녔다. 나중에는 둑이 만들어지고 다리가 놓였지만 수원천 양쪽은 밋밋한 흙 비탈이었다. 현재 '노란 자전거'라는 카페가 있는 매세교로 이어지는 골목이 굉장히 넓었다. 이곳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저녁에 놀 때도 그곳은 불이 켜 있고 환하니까 그 근처에서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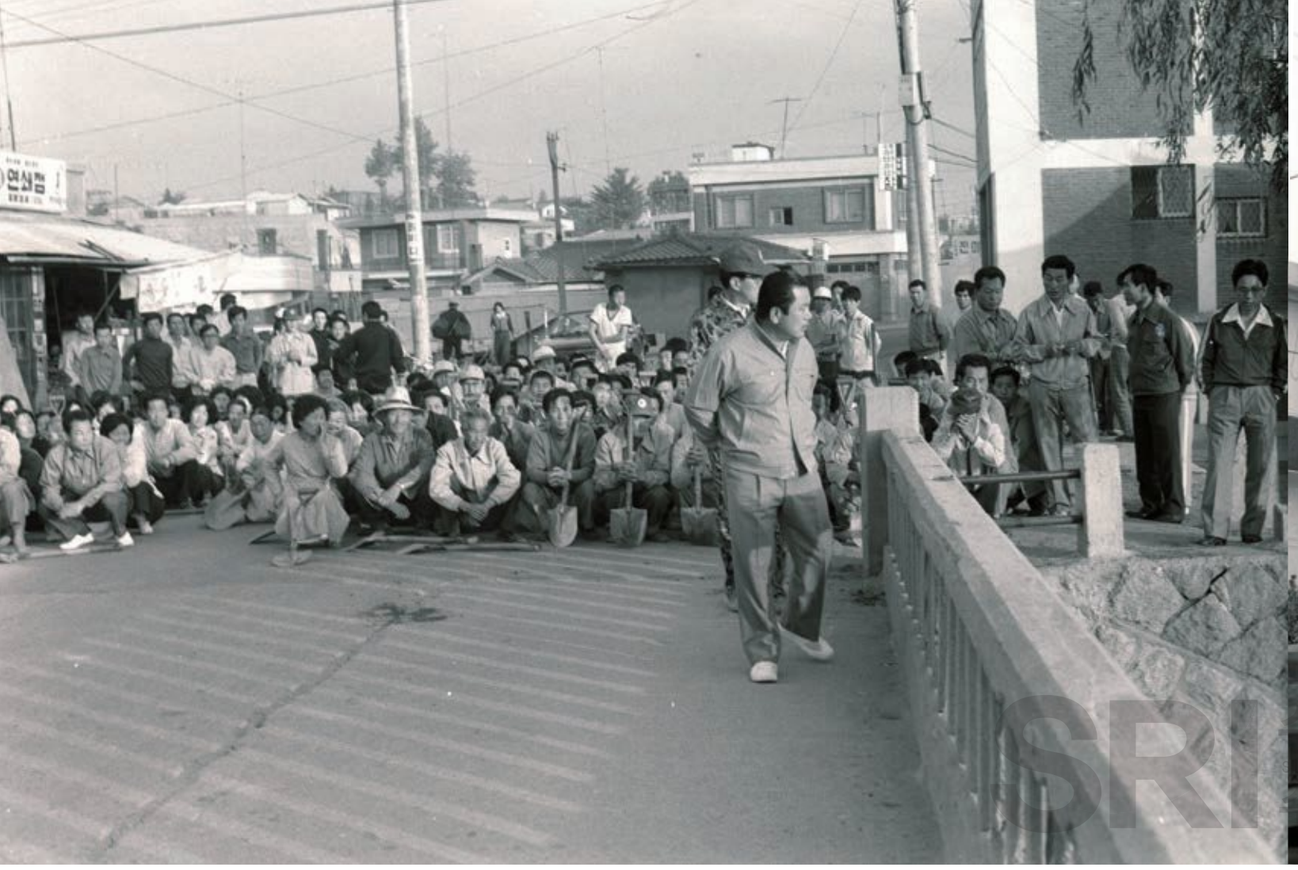
1954년 대동제지와 '와시(wash)냇갈'로 불린 수원천(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문화맨션과 대동제지(1980년대, 수원시청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3년 매세교 아래에서 실시된 수원천 수해대책훈련(수원박물관 제공)



1976년 매세교 주변(수원박물관 제공)
현재 다리 오른쪽 건물 자리에는 '노란 자전거'라는 카페가, 왼쪽 건물 자리에는 월드할인마트가 있다.



1978년 매산로116번길에 있었던 매교동사무소와 수원호텔(수원박물관 제공)
매교동사무소 자리에 유천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다.

전쟁 당시 대동제지 옆 공터는 미군들의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는데, 미군들은 운동장에서 럭비나 야구를 했고, 밤이면 운동장에서 영사기로 영화를 보여 주어서 동네 사람들이 죄다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물론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서부영화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 말 타고 총 쏘는 장면들이 무척 신기하였다. 이곳 공터에는 수원 최초의 아파트 문화맨션이 1979년 들어섰고, 당시 수원에서 제일 부자들이 이사를 왔다.

중앙침례교회와 한국전력공사관리소에서 매세교로 이어지는, 현재 '매산로116번길'이라고 이름 붙은 길이 난 것은 1969년 여름 이후였다. 왜냐하면 1968년 7월에 입대한 이종원이 만 1년 만에 휴가를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쪽으론 길이 없었다. 그 후 1969년 하반기에 이 길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복귀하여 바로 월남에 가서 2년을 있다가 제대하여 군용 더플백을 메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집을 찾지 못하였다. 길이 새로 나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선명하다.

이종원 네 집이 자리한 일대는 밭이었고, 길 건너편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2019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팔달 6구역 쪽으로는 거의 다 논이었다. 밭이었던 쪽에 집 장사들이 일렬로 지은 집들이 쭉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이곳을 '새 동네'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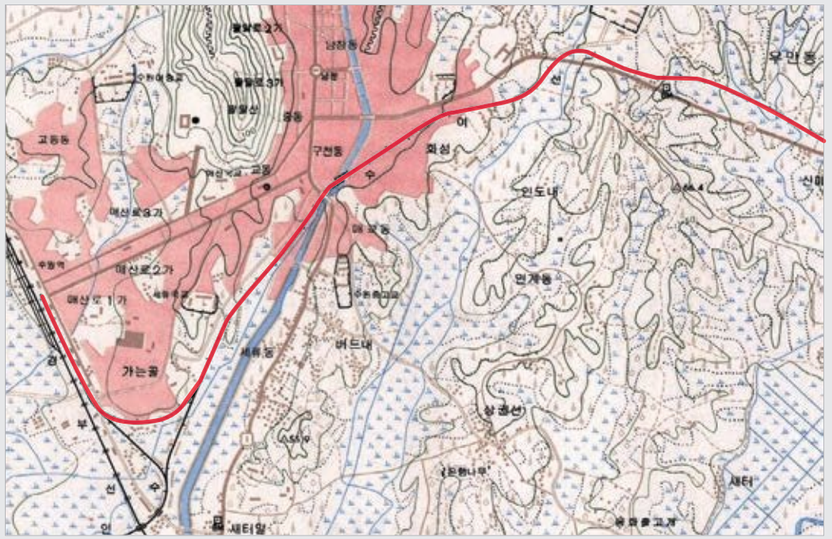
2) 철길도 골목길도 사라지고

여주에서 출발한 수려선 열차는 화성역을 지나 매교동 철길을 따라 수원역에 이르게 된다. 6·25전쟁이 터지고 피난을 간다고 아버지 지게에 얹혀 집도 별로 없는, 아버지 지인이 있다는 구운동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다. 그때 수원역 육교를 지나는데 기차 위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타고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집 앞 철길을 따라 피난민들이 꾸역꾸역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어머니가 잠깐 시루떡이며 인절미 같은 떡을 해서 팔기도 하였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던 터라 떡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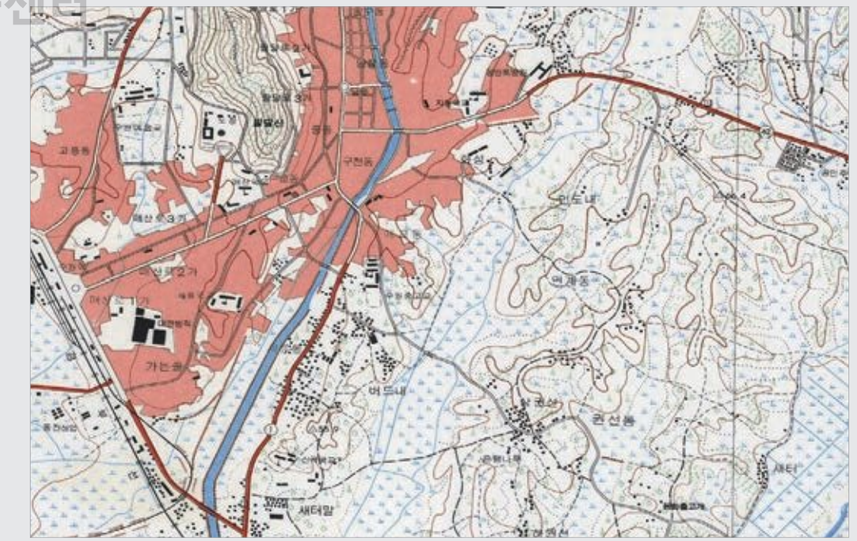
없이 사는 사람들이 논둑에다가도 집을 짓고, 천변에도 집들을 지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도 수려선 철로가 지나다니던 '정조로709번길' 일대의 매교동은 휑하였다. 1960



한국전쟁 직후 화성역



수려선 철로(1971년)



철거된 수려선 철로(1975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3년 수려선 철로가 철거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정조로709번길(수원박물관 제공)
왼쪽 전봇대로 가려진 건물이 천부교 수원교회이다.



1977년 수려선 철로가 사라진 이후 개설된 도로(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년대에는 동네에 구멍가게가 4개인가밖에 없었다. 생활용품에서 어린애들 군것질거리, 문구까지 파는 가게, 철길 건너편으로는 구멍가게 겸 막걸리도 한 잔씩 파는 가게도 있었다. 밤에 전등불빛이 들어온 곳이라고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그 일대뿐이었다. 그때는 전기도 잘 안 쓰던 시절이었고 집이라곤 이종원 네 집과 또 몇 집 말고 근처는 다 밭이었다. 이종원이 군대를 다녀오고 난 이후, 새로운 길이 생기고 나서부터 매교동에 이런저런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예전 골목들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매교동에는 1970년대부터 집들이 차츰 늘어난 것 같다.

기찻길은 지대가 높았고 그 길 양 옆으로 들어선 집들은 기찻길보다 낮았다. 1972년 수려선이 폐쇄되고 나서도 한동안 기찻길은 남아 있었다. 1973년 시가 발달하면서 도로를 만드느라 철로를 걷었는데, 이 길은 현재까지도 철도청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철로를 걷어냈을 당시까지도 초가집이 몇 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니던 옛길을 침범해서 집이 지어지고, 본격적으로 상가들이 들어선 것은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였던 것 같다. 아이제이빌아파트 옆으로도 원래는 큰길이었다. 집들이 들어서면서 좁아져 골목이 되었다가 근래에 숙박시설이 세 동 들어서면서 예전 길은 거의 사라졌다. 숙박시설은 앞으로 한 동 더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길 지나려면 남의 건물 주차장을 가로질러야 한다. 그 옛날에는 그 길로 쭉 나가서 가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일구던 밭도 있었다.

3) 매교다리 부근 풍경

이종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인근까지 철을 다루는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데, 1970년대 초부터 구천동에 있던 대장간이나 철공소들이 차츰 매교동 골목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종원이 군대에 다녀왔을 즈음까지도 공구상가들은 구천동 쪽에 많았지 매교동 쪽으로는 몇 집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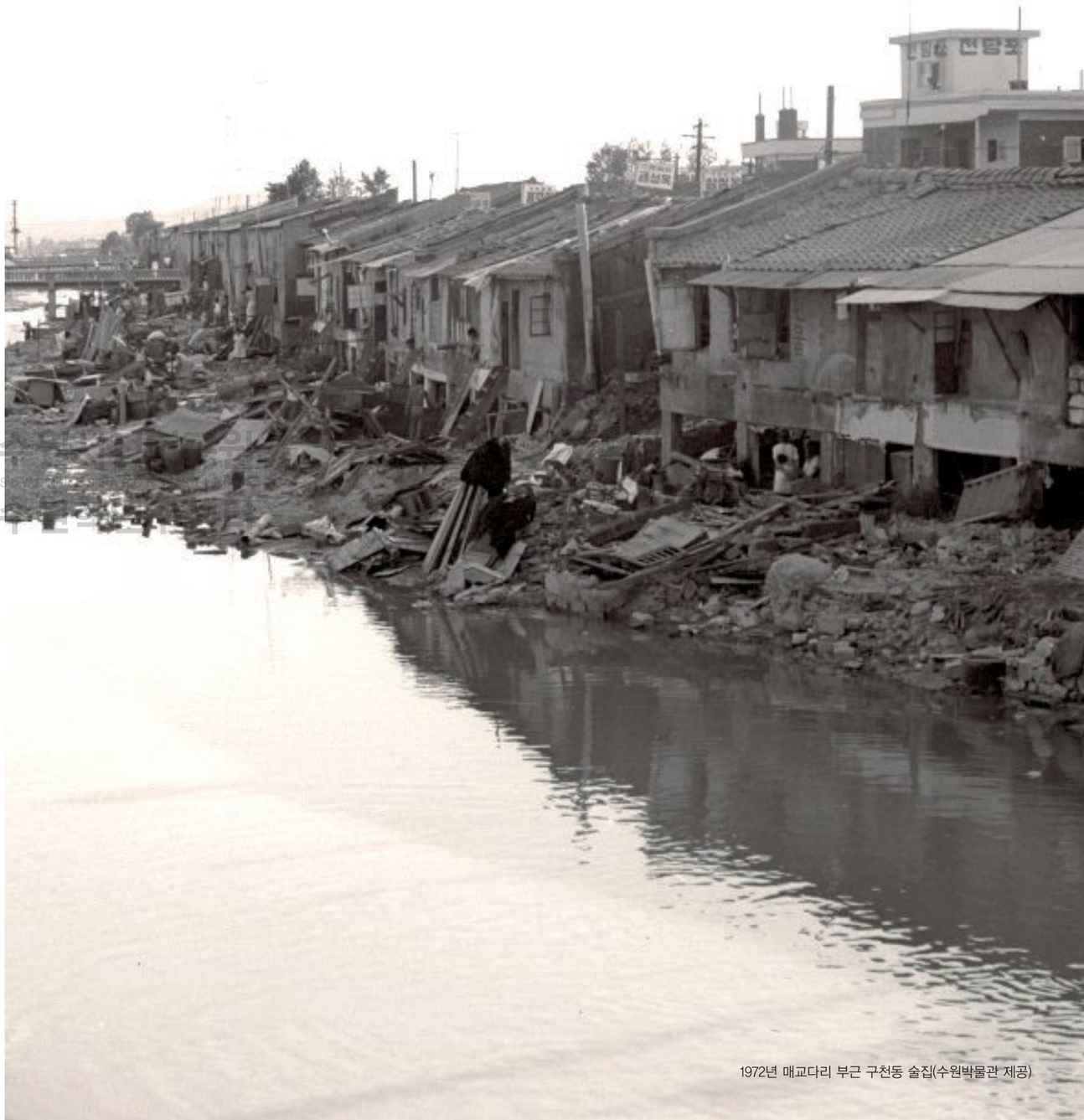
대장간이며 함석을 두드려 연통을 만들던 집, 철물점들이 들어서 있던 구천동 천변은 원래는 나무장사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천변 이쪽으로는 장작이며 연료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제재소도 있었다. 지금도 한 곳 '이화목재'라는 곳이 남아 있다. 옛날에는 광교산에서 나무를 해 와서 구천동 천변에서 팔았다. 그야말로 노점이었다. 가게들 맞은편 냇갈 옆에 지게 채로 주욱 나무를 부려 놓으면 저녁 무렵에 장보러 나온 주부들이 흥정해서 딱 찍으면 그 집에 져다 줬다. 장작은 가게에서 팔았고 노점에서는 주로 잡목이



1950년대 매교동 나무시장(최기호 제공)

며 솔잎을 팔았다. 나무 말고도 숯을 파는 장사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나무장사들이 장사를 하던 천변에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일명 '방석집'이라고 하는 술집들이 쭉 들어서서 불야성을 이루었다. 이 술집들이 유명하였다. 그곳을 지나가면 아가씨들이 붙잡고 호객행위를 하기 일쑤였는데, 이 술집들은 천변에 말뚝을 박아 냇갈 둑에 걸쳐서 다닥다닥 세운 무허가 집들로 전기회사 다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줄어들다가 1990년대 들어서도 몇 집은 남아 있었는데, 1991년 수원천을 복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리되었다.



1972년 매교다리 부근 구천동 술집(수원박물관 제공)

SRI



1973년 매교다리 부근 구천동 공구상가(수원박물관 제공)

4) 1990년대까지 번성했던 거리

철길 양편 지대가 낮았던 집들은 새로 지을 때 땅을 돋워서 지었다. 아직도 이종원 네 집 왼편 다섯 집들은 지대가 낮다. 지금의 이춘택병원 주차장 옆쪽으로 큰 낫공장이 있었다. 매교다리에서도 낫공장이 보였다. 이 낫공장 주인 아들은 인계동에 살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춘택병원 후문에서 지금의 유천파출소 자리로 이어지는 길 중간 지점까지 번화하였다. 당시 젊은이들이 이 골목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유천파출소는 당시에 세류동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 옆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 있던 건물 지하에도 술집이 하나 크게 있었다.

구천동에서 매교동으로 넘어온 철공소들이 1990년대 초중반까지도 번성해서 골목을 지나다니려면 아주 복잡하였다. 그때 상인들이 건의하여 주차장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상권이 점점 죽기 시작하였다. 수원에서는 기계부품을 사려면 죄다 구천동이나 매교동으로 오는 것으로 인식했었으나 시 정책상 2006년 고색동에 대규모 공구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갈렸다. 그보다 먼저 2004년 삼성전자가 백색가전 생산라인을 광주로 이전하면서 하청업체들이 동반 이전한 것 또한 상권이 전과 같지 않은 데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도 가게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은 대부분 가게가 자기 건물인 사람들이다. 그 중 몇은 화성 등지에 따로 공장을 차려두고 매교동 가게를 연락사무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교동은 현재 일반상업지역만 빼고는 다 개발하기로 되어 있다. 물론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하는 용도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층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3. 매교동의 시장과 가게들

1) 뽕뽕다리 건너 매교시장

1952년 화성에서 출생한 이순자는 지인의 소개로 이종원을 만나 1975년에 결혼하였고, 매교동에 산 지 45년이 되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 아이가 유치원 들어간 무렵부터 부녀회장을 십 년 남짓 하였다. 부녀회 활동은 주로 봉사활동이다. 시나 구·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해 주고, 인원 동원하면 거기 참석하고 독거 어르신들도 돌보는 일도 하고, 김장도 했다. 부녀회 활동이라는 게 다 그런 일이다. 심지어 부녀회비를 내고 하는 봉사활동이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은 동 김장을 하였다. 200통 정도 해서 평생학교에 60개 보내고, 동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 130명이랑 매교동 동대에



1970년대 뽕뽕다리(수원박물관 제공)
1986년 새마을교가 가설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5년 수원천변과 뽕뽕다리(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매교시장 입구(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 김장을 보냈다. 부녀회 인원은 10명 가까이 되기는 하는데, 다들 바빠서 모이는 인원은 4~5명 정도이다.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하나 싶어 작년부터 다시 부녀회장 일을 맡았다.

이순자는 매교동의 변화한 과정을 묻자 구천동 복개천 얘기부터 꺼냈다. 행정구역상으로 그쪽은 구천동이지만 심정적으로는 매교다리 일대까지를 한 동네로 여기로 살았기 때문인 듯하다. 매교다리 지점부터 남문 방향으로 그 중간까지 개천을 덮었다고. 그래서 성빈센트병원 가는 쪽까지 길이 연결되었고, 복개되었을 당시에는 공구상가 쪽에 주차장이 있었다고 한다. 주차장이 있던 곳은 시 땅이었다.

> 집 뒤로 수원천이 흐르고/ 그 건너 매교시장/ 그 사이를 가로질러 놓여 있는/
> 길고 먼 철근 한판/ 뽕뽕 뚫린 구멍마다 환히 켜지는 물소리/ 발목을 잡아당기던 다리
> (윤주은, 뽕뽕다리 1—달콤한 두려움, 부분)

매교동에도 시장이 있었다. 심지어 꽤 컸다. 지금은 화숙이네(가게이름이 아니라 딸 이름)라고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만 남아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하천부지 쪽에 과일가게, 생선가게, 기름집, 뻥튀기집, 닭을 잡아서 파는 집까지 꽤 크게 시장이 들어서 있었다. 그런 가게들이 사라지고 2004년 그 자리에 연향(예스빌)아파트가 들어섰다. 백합상회라고 정말이지 오래된 가게도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슈퍼마켓이다. 주인이 남양인가에서 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장사를 엄청 오래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들었다. 백합상회 말고도 옷집도 있었고 크고 작은 가게들이 엄청 많았다. 지금 그곳에 리버빌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일자로 건물이 있는 데서부터 얼추 연향아파트 어디까지, 아니 그 뒤쪽 골목까지 정육점도 있었고 시장이 꽤 컸다.

옛날에는 다리가 없어서 철로에서 뽕뽕다리를 건너야 해서 매교시장을 뽕뽕시장이라고도 하면서 장을 보러 갔다. 특히 야채가게가 많았다. 야채가게에 생선가게, 옷가게, 생필품 파는 상회, 두부 파는 집까지. 그러다가 오후에 시골사람들이 자기들이 키운 것을 가져와서 팔면 장도 서고, 저녁이면 주민들은 싸게 파는 야채를 사다 먹기도 하고, 상인들은 시골사람들한테서 과일도 받아서 많이들 팔고 하였다. 과일가게며 기름집 등이 꽤 많았다. 남문시장만큼은 아니어도 신발가게며 별거 별거 웬만한 것들은 다 있고 뽕뽕다리 건너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지금은 거의 흔적이 사라졌다.

매교동에서 오래된 가게가 병점기름집과 남창떡방앗간 두 집인데, 병점기름집도 원래

는 예전 매교시장에 있다가 다리 건너 이쪽으로 와서 지금의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이다. 매교시장에는 고추방앗간도 있었다. 남창떡방앗간도 그곳에서 고춧가루랑 기름을 취급했었고, 돼지머리 삶아서 파는 청일식품은 오히려 나중에 생긴 가게이다. 그전에는 다리 건너 그 자리가 무척 활성화가 됐었다. 뽕뽕다리를 대신해 생긴 다리가 1986년에 가설된 새마을교인데 이 다리가 생기고 나서도 꽤 오래 시장이 유지됐었다. 그러니까 새마을교는 매교다리와 매세교 중간에 놓인 작은 다리이다.

매교시장 자리에 한때 노래방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장사가 안 돼서 그 일대를 싹 헐고 빌라들이 들어섰다. 그전에는 거기에 이화직물이라는 직물공장도 있었는데, 나중에 단무지 공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다. 시장이 없어지고부터는 그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어져서 이제는 그곳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예전에는 근방이 생활권이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는데 지금은 시절이 이렇게 달라졌다. 아무튼 이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그 자리에 과연 시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별다른 흔적이 없다. 겨우 몇 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절의 이야기인데도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한다.

매교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도 살기는 산다. 다들 연세들이 드셔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고,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다가 한 명이 아프면 장사를 접는 건데, 어르신들이 하는 가게에 잘 안 가게 된다. 얼른 살 거나 조금 사지 싱싱하지도 않지, 비싸지 하니까 이순자 여자부터도 기왕이면 남문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더라고 한다.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들이나 며느리를 봐도 차를 끌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지 시장을 가지는 않는다. 거기는 주차도 편하지 아이들 놀이방도 있지 하니, 물건이 비싸니 어쩌니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이든 사람들이야 일하고 나면 집에 들어오기 바쁘고,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 물건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사지 않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쁘고 좋으면 샀다가 싫증나면 쉽게 버린다. 그 세대들은 그렇게 사나 보다 하고 만다.


1960년대 이화직물(최기호 제공)

2) '부로크' 찍던 벽돌공장과 뷔페까지 있던 매교상가

문화맨션은 이순자가 시집 와서 낳은 큰아이가 서너 살 때부터 짓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오래되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아파트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수원 최초의 맨션아파트라 유명하였다. 이 동네 사람들은 문화맨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큰 부자만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수원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가장자리에도 옛날에는 '부로크(블록)' 찍는 벽돌공장이 있었다. 공장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사장님 이름이 신정섭이었다.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다. 아들들은 저기 어디에 살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공장에 다니면서들 돈 벌어 먹고살았다. 그쪽도 많이 달라졌다.

재개발 때문에 다 나가고 없지만 공장이 팔리고 나서는 슈퍼며 상가들이 들어섰었다. 시멘트벽돌이 나오기 전에는 흙벽돌을 찍어냈다고 했는데, 흙벽돌 찍는 건 보지 못하고 얘기로만 들었다. 그땐 기계가 어디 있었나. 사람이 일일이 틀에다가 재료를 넣은 다음 흔들어서 차례로 하나씩 놓고는 기다렸다가 굳으면 빼고, 굳으면 빼고 하였다. 그리고 수원중고등학교 근처로는 문방구가 꽤 있었다. 서점도 몇 개 있었고. 지금이야 워낙 큰 상점들이 생기고 인터넷으로도 구입하고 그래서 조그만 문구점들이 다 없어져 버렸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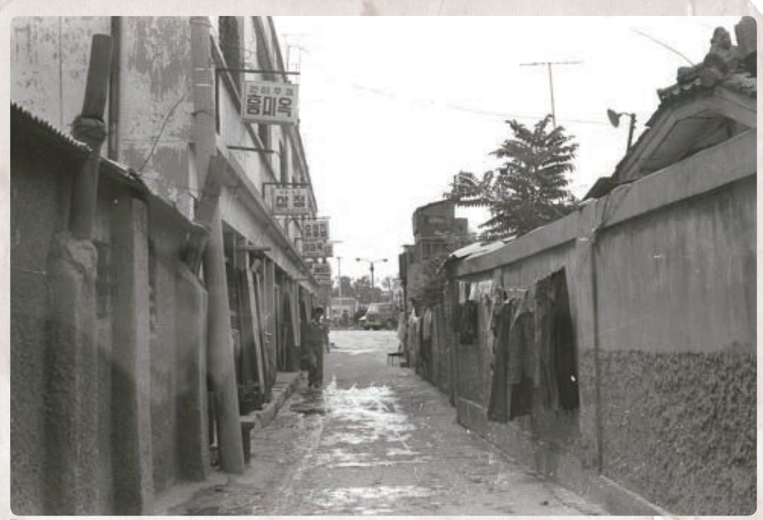
현재 매교역이 생긴 그쪽은 결혼회관이 들어서고 나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매교상가가 저러고 오래 있어서 발전이 안 되고 있지만 처음에 상가가 생겼을 때는 꽤 활성화가 됐었다. 작기는 했지만 웬만한 가게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 안쪽까지 다 불이 켜져 있고 이런저런 가게들이 있어서 거기로 구경들도 가고 그랬는데, 물건이 비싸서 사지는 않았다. 남문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무슨 재료들 파는 집, 전기제품 파는 집, 작은 양품점 같은 그런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초창기 사람들은 차츰차츰 가게를 팔고 나갔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건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들 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시멘트 벽돌공장(수원박물관 제공)



매교다리 옆 상가 술집(1980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금이야 부동산들하고 식당들만 있지만 옛날에는 매교상가 지하에 뷔페도 있었다. 젊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안다.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그 뷔페에서 꽤 하였다. 지금 90살 넘은 사람들 환갑잔치에도 가고 했으니까 30년 전 일이다. 그러다가 타산이 뷔페가 안 맞아서 나가고 나서는 건강식품 파는 약장사도 들어왔고 한 때는 수성교회가 그 자리를 쓰다가 교회를 지어서 나갔다. 성결교회도 그 자리를 쓰다가 나갔다. 자기네 교회를 지을 동안 들어와 있곤 했던 것이다.

3) 살림집 겸 가게였던 우산집, 아다다집 ……

시집을 왔을 때만 해도 동네에 집이 몇 채 없었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고 나서 집이며 건물들이 들어섰다. 이순자는 1994년에 새로 집을 지었지만 주변 집들은 다 그보다 먼저 지어진 것들이다. 당시에는 전세들이 잘 나가서 전세를 끼고 집을 지었다.

현재 철공소들이 있는 정조로709번길 일대에는 술집이 있었다. 우산집이라고, 막걸리를 팔던 술집인데 그 집이 우산을 고쳤는지 어쨌는지 희한하게도 그렇게 불렀다. 예전에는 철공소가 바로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다. 시집 왔을 때 우산집 말고도 아다다집, 삼계탕집이 있기는 하였다. 아다다집은 주인 여자가 벙어리라서 그렇게 불렀다. 지금 남창떡방앗간 자리도 그전에는 개나리집이라고 살림집 겸 가게를 같이 했던 것이지 당시에는 상가가 그다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순자가 사는 골목 쪽으로는 가게가 별로 없었다. 매교시장 저쪽으로 갈퀴집, 말마차집이 있었고 여인숙도 있었다. 지금 매교다리 뒤쪽으로 새로 빌라를 지은 데도 무슨 여인숙인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지금처럼 상가가 매교다리까지 쭉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죄다 헌집들이었다. 매교다리 저쪽으로 (구천동) 술집들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건물들이 지어져서 가게들이 들어오면서 상가가 형성된 것이다. 아다다집이며 삼계탕집도 가정집을 가게로 꾸며서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곤 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먹고살려고 장사들을 그렇게들 했었다. 그러니까 매교다리 이쪽으로는 사실 다 살림집이었던 것이다.

4) 한때 술집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던 골목

이춘택병원 주차장 뒷길 쪽으로는 장사가 잘되었다. 은정집이라는 해물탕집도 있었고, 그쪽으로는 먹자골목 비슷하게 식당들이 있었다. 판코리아라는 나이트클럽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거기도 헌집들을 수리해서 가게로 만든 곳들이었다. 매교동은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농협 옆 부부치과 자리라고 해야 하나 거기가 나이트클럽인지 술집인지 그랬는데, 그 시절에는 선거운동을 할 때면 자리가 넓으니까 낮에 장사를 안 할 시간에 그곳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 새마을마을금고 자리에는 지하에 허리우드라는 알아주는 술집이 있었다. 그 위로 지금은 이가네밥상이라는 곳도 예전에는 한 상에 수백만 원 하는 비싼 술집이었다. 모두 1980년대 얘기이다. 그 당시에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술집들. 풍림아이원아파트 자리도 술집이었다. 한때 매교동에 큰 술집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술집들이 하나둘 없어지면서 풍림아파트가 제일 먼저 지어졌는데, 풍림아파트는 짓는 중간에 부도가 나서 몇 년간 공백 기간이 생겼다가 뒤늦게 완공되어 분양을 하였다. 그곳 버스정류장 쪽에도 부동산, 꽃집, 컴퓨터가게 등이 있던 상가건물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중앙교회에서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술집들이 번성했을 때는 이순자 네 집 앞으로도 야식집이며 술집들이 들어와 있어서 밤에 음악을 틀어놓으면 여름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른다. 문 좀 닫고 영업하라고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땐 별짓을 다하였다. 지금은 쇠락했지만 대명부동산 지하에도 청수옥이라고 색시들이 있는 술집이 있었고 거기 말고도 지하에 술집들이 있는, 한동안 매교동은 유흥가로 번성했을 때가 있었다. 지금 마흔이 넘은 아이들이 어릴 때 얘기니까 1980년대 이야기이다. 술집들이 많아서 과일가게도 많았고, 지금은 중앙교회가 쓰고 있는 다른 한쪽으로는 외환은행이 오래 자리하고 있다가 갔다. 1980년대에는 밤에 매교동에 오면 다 장사들을 해서 골목이 환하였다.

5)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가게들

그랬던 술집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다 없어졌다. 당시에는 다방도 많았다. 반도다방, 동네다방, 성희다방, 복다방 ……. 옛날엔 땅을 활용하고 방공호로도 이용해야 한다고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하실을 만들어야 했는데 한때는 다 다방이나 술집에 세를 줬다. 실제로 1970년대에 남북 간 냉전이 심화되자 유사시 대피용도로 주택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다. 이 지하층이 주택의 절대 부족 현상과 맞물려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튼 다방이나 술집 말고도 양장점, 양복점, 정육점, 거울가게, 태극당과 독일빵집이라는 빵집에 금은방도 두 군데 있었고 과일가게도 몇 개나 되고 말로 되어 파는 쌀가게도 꽤 있었고 연탄가게도 두 집 있었다. 가게들이 서로 자기네 물건을 팔아 달라고 경쟁하였다. 그렇게들 이 골목에서 먹고살았다.

이 골목에 사람들이 붐빌 때는 전세고 월세고 방이 비어 있을 때가 없었다. 삼성전자 다니는 아가씨들 중에 기숙사에 있기 싫거나 여럿이 사는 게 불편한 아가씨들이 월셋방을 많이 이용하였다. 지금은 풀옵션이 갖춰진 원룸을 선호해서 월세가 한 번 빠지면 다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매교동은 도시가스가 무척 늦게 들어온 동네이다. 2000년 초에 경기대 쪽으로 일하러 다닐 때 연무동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매교동 이쪽 골목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었다. 한전 뒤쪽 빌라를 새로 지을 때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집도 있다. 그런 집들은 LPG가스를 쓴다. 매교동은 주민이 무척 적은 동네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순자는 인터뷰 끝에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옛 추억에 빠진 듯하였다. 그 옛날 이순자가 젊었듯 동네도 젊었을 것이다. 25년 전에 새로 지어 올렸던 건물도 주변에 새로 들어선 건물에 견주면 낡고 소박해 보일 뿐이다. 재개발에 들어간 팔달 6구역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종원과 이순자가 살고 있는 곳은 그야말로 옛날 동네가 될 것이다. 어쩌면 한때는 철도가 지나다니던 그 골목도 머지않아 사라질지 모른다. 그때는 또 누군가 그 골목을 그리워하면 그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리워할지 모른다.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생로병사의 운명을 거치듯 도시도 흥망성쇠의 고비를 거쳐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듯하다. 한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모두들 떠나고, 알게 모르게 달라지다가 어느 날 깨닫고 보면 사뭇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듯, 또 그렇게 시간은 결코 미래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여 주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가듯.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3년 이춘택병원 뒷길(정조로715번길, 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1번국도(현 정조로) 주변 상점(수원박물관 제공)
약국 뒤로 동부교회 건물이 보인다.



1979년 이춘택병원 뒷길(정조로715번길,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매교동사무소 주변(매산로116번길, 수원박물관 제공)



정조로709번길과 수원천(김승일 제공)

매교다리 옆 언덕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로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
이전에는 야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철도관사가 있었고 관사에서 화성역이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송민정 화성시문화재단 과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장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

1. 매교다리 옆 언덕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와 그로 인한 신·구시가지 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완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수원시는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시가지에 속하는 매교동은 팔달 6·8·10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도 팔달 10구역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팔달 10구역은 인계동 849번지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데 매교동 221~224번지, 231·232·240번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팔달 10구역의 한쪽 모서리에 위치하는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은 인계동과 매교동의 경계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매교동이지만 생활권은 인계동에 속하는 곳이다. 언덕 마을의 동쪽과 북쪽은 인계동, 남쪽은 인계로, 서쪽은 수원천과 정조로를 대강의 경계로 하며 매교동의 북동쪽 귀퉁이에 위치한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주거지가 형성된 탓에 언덕 마을 일대를 지칭하여 전해지는 지명은 없다. 이곳은 광교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야트막한 산이었다.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이 산줄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1960년대까지도 산의 경사면 중턱에는 작은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었고 경사면 상층부에는 커다란 아



1917년 지형도에 나타난 매교다리 옆 언덕



1954년 매교다리 옆 언덕(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카시아 나무가 산을 빙 둘러 있었다. 매교동성당에서 인계로 맞은편으로 보이는 팽나무 고개 역시 주변보다 고도가 조금 높은 곳이라 붙은 지명이다.

1917년 지형도에는 이 지역이 침엽수림이 분포한 산지로 표시되어 있다. 야산 서쪽의 오산·평택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 주변에만 약간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야산 주변은 집들이 거의 없었다. 군데군데 보이는 무덤 표시로 보아 묘를 쓰는 정도로 이용되었던 것 같다. 야산 바로 옆의 수원천은 모래톱이 형성되는 자연하천이었다. 1943년 수원읍지도에도 여전히 '小岳(소악)'으로 표기된 야산으로 남아 있다. 매교를 건너 남쪽으로 향하는 국도에서 동쪽으로 살짝 빠져나온 길이 곧바로 인계동과 태장면 방면으로 갈라지는데 인계동으로 향하는 길은 이 산의 남동쪽을 돌아서 인계본동 들어간다.

1957년 지도에는 야산이 논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표기의 오류로 보는 것이 맞다. 지형조건으로 보나 산꼭대기에 밭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으로 보나 야산의 정상부가 밭으로 이용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들어서야 야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야산의 경작 시기는 소유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1966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밭의 면적은 2,500평 정도 되는 인계초등학교 전체 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 시기에는 수원천 쪽으로도 집들이 들어섰다. 이전에는 수원천의 범람으로 양안(兩岸)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인공제방을 높게 설치하여 범람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면서 주거지가 형성된 것이다.

매교다리 옆 언덕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로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 이전에는 야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철도관사가 있었고 관사에서 화성역이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6·25전쟁 당시 남으로 피난 온 이북 사람들 가운데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귀향하려다가 한강 이남에 정착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수원에 정착하였다. 피난민의 유입으로 수원시의 인구는 1951년 5만 2,452명에서 1952년에 10만 명이 넘는 정도로 급증하였다. 피난민들은 대개 임자가 없는 수원천변, 성곽 주변, 맹지 등에 주거를 마련하였다가 여력이 생기는 대로 거처를 옮겼다. 수원의 중심지와 붙어 있으면서도 한지였던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은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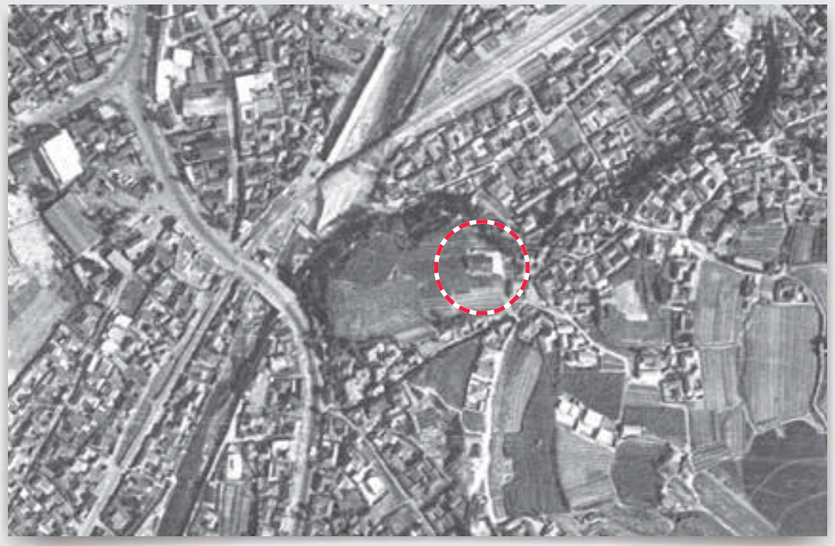
2. 매교다리 옆 언덕, '전도관산'이 되다

매교다리 옆 언덕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야산이었기 때문에 특정하게 부르는 지명은 없다. 그런데 1957년 7월 야산 꼭대기에 수원 최초의 전도관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이 산을 '전도관산'으로 불렀다. 전도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장로였던 박태선이 1955년에 창시한 신흥종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는 천부교(天父敎)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도관은 신앙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해 형성한 '신앙촌'으로 유명하다. 1970~1980년대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용하던 '신앙촌밍크담요'가 바로 신앙촌에서 생산한 물품이다. 전도관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앙촌은 알 정도였다.

전도관 교회가 세워지기 전 야산의 정상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고구마를 많이 재배해서 수확철이면 동네 아이들이 고구마를 얻어먹으러 다녔다고 한다. 전도관 교회는 마을에서 밭으로 올라오는 길 초입에 들어섰다. 단조로운 시멘트 건물의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리 종탑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다. 천부교는 개신교와 별개 종교임을 표방하므로 십자가 대신 비둘기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 위에 전도관 교회가 들어올 때 마을 사람들은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던 듯하다. 그런데 한밤중에 산꼭대기 교회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은 곧바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아마도 부흥회 야간 집회나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철야기도회의 통성기도 소리였던 것 같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전도관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 가더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동네 사람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의 전도관 교회는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전도관은 196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통해 교세를 확장하였다.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좁아지자 매교동의 전도관 교회는 1967년에 지동초등학교 근처 언덕에 교회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2,000여 평의 대지에 30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지었는데 벽을 흰색으로 칠해서 1970~1980년대 수원 시내 전경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정도였다. 이 교회는 1999년 4월 같은 자리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축하였다.



1966년 매교다리 옆 언덕과 전도관 교회(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매교동에서 지동으로 이전한 전도관 교회(1977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매교다리 옆 언덕에 마을이 생기다

1950년대 중반까지도 철도관사를 제외하면 현재의 인계로 주변과 정조로 주변으로 일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정도였고 철도관사가 있는 지역, 즉 수원천 쪽으로는 집들이 거의 없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수원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화성역 일대를 비롯한 기존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전도관산 아래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중반에는 전도관산을 제외한 모든 곳에 주택이 꽉 들어차 있을 정도로 10년 남짓한 기간에 주거 밀집지역이 되었다.

언덕 마을에서 60년 가까이 거주한 임한용도 1950년대 말 부모님을 따라 이곳으로 들어왔다. 임한용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피난 내려온 월남민으로 연무동 피난민촌에 살면서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연무동 판자촌을 떠나 영동시장에서 멀지 않은 언덕 마을 한옥에 방을 얻어 이사하였다. 당시 수원 소재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집이었는데 임한용이 기억하는 상량일자가 1950년대라고 한다. 1954년생인 임한용은 매교동으로 이사한 후 1960년 매산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은 인계동 관할이었고 임한용의 주소지는 인계동 774번지여서 지동초등학교 학구에 속했지만, 임한용의 부모는 장남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매산초등학교에 보낸 것이다. 그 시절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소위 일류학교에 보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1961년에 들어선 군사정부가 학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임한용은 3학년부터 지동초등학교로 등교하였고, 지동초등학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인계초등학교가 개교하자 인계초등학교에서 5~6학년을 다니고 졸업하였다.

임한용의 부모는 세 들어 살던 집 주인이 사업 실패로 어렵게 되자 집은 매입하였다. 인계동 774번지의 개량한옥은 마루에 유리 분합문을 달고 안마당에는 우물과 화단이 있는 제법 괜찮은 집이었다. 1990년대 양옥으로 신축할 때까지 임한용은 이 한옥에서 살았다. 임한용의 옆집은 전쟁 피난민으로 영동시장에서 신발장사하는 집이었다. 임한용의 친구네였는데 친구 어머니는 흑돼지 두 마리를 키우면서 새끼를 내서 살림에 보탰다고 한다. 임한용과 친구네 집 말고도 주변에는 수원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여러 집 있었다. 경찰, 군인, 교사 등 근무지를 따라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미군을 상대하는 윤락여성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하는 집도 있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하는 집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게 했지만 남자아이들은 호기심에서 이 집을 기웃거리곤 했다고 한다. 토박이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집이었다.



1960년대 언덕 마을에 살던 임한용의 4형제(임한용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려선 철교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임한용(임한용 제공)



1960년대 초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임한용 제공)



1960년대
수려선 철로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언덕 마을 사람들
(임한용 제공)



1970년대 임한용이 살던 한옥(임한용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경기도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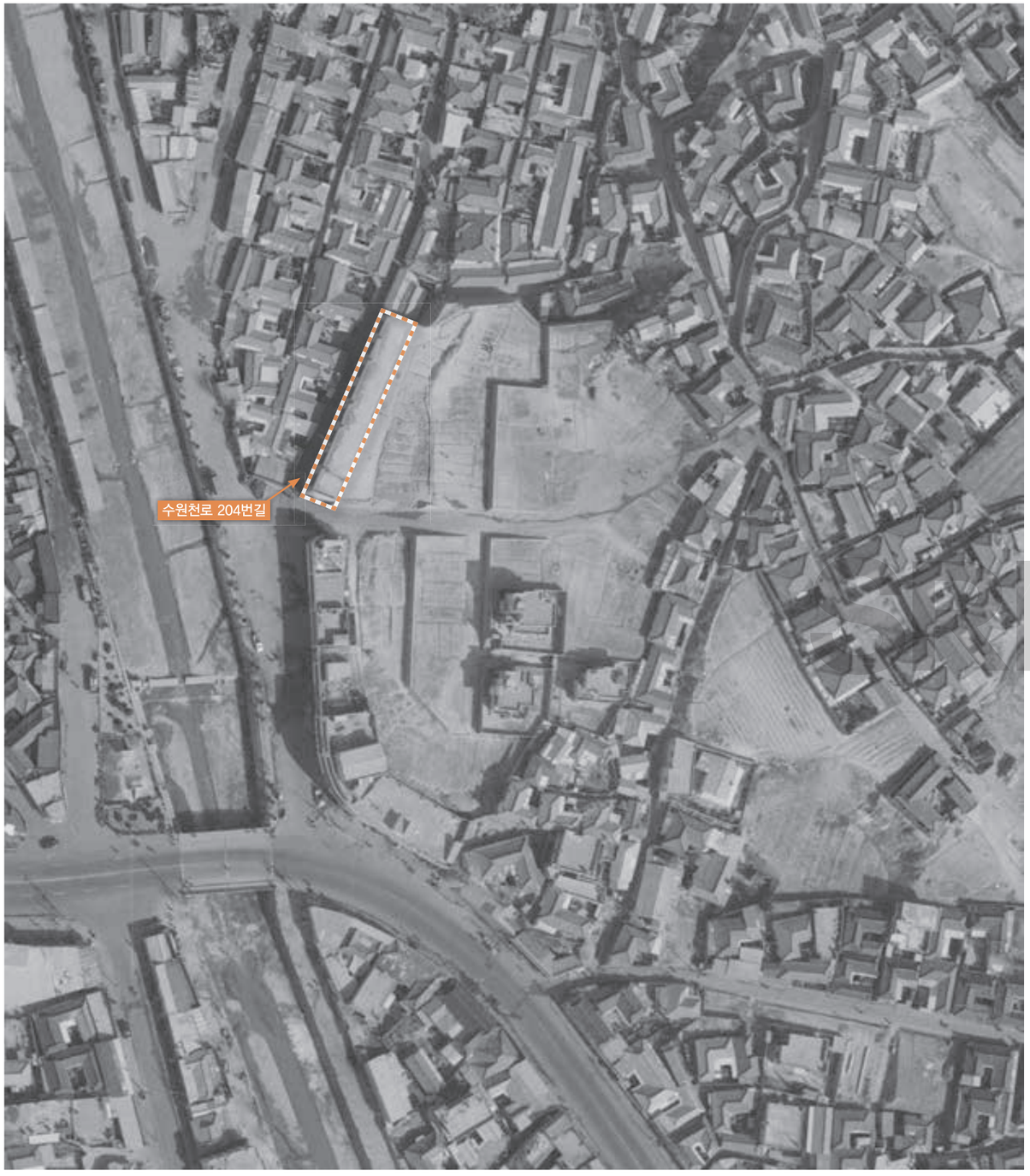
SR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매교다리에서 바라본 언덕 마을 입구(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매교동 언덕 마을에서 지동으로 이전한 전도관 교회가 수려선 철교 너머로 보인다.



1972년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수원박물관 제공)



1977년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수원천로 204번길 옆 상가건물에는 8곳의 술집이 영업을 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토박이들은 시장에서 장사하거나 월급을 받는 집에 비해 낮은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

한편 1965년 '수원도시계획용도지역지정계획도(안)'에는 언덕 마을이 수원시 도심구역에 포함되었고 지금의 인계로와 정조로 주변은 상가지역이고 야산은 주거지로 계획되었다. 이 개발계획에 따라 야산은 1970년대 택지로 개발되었다. 이에 산의 모습은 사라지고 축대를 쌓아서 조성한 계단식 택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수원천변도로에서 야산을 개발하여 조성한 택지로 진입하는 길도 함께 조성되어, 이전까지 매교에서 인계동으로 들어오려면 산비탈 같은 길을 따라 수원천 쪽으로 내려갔다가 언덕마을 진입로로 올라가거나 팽나무고개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택지가 조성되고 집들이 들어서면서 야산은 도시 주택가로 변신하였다.



1979년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 입구 술집(수원박물관 제공)

야산에 택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매교에서 택지 진입로까지 길게 이어지는 상가가 신축되었다. 특이한 것은 택지 진입로이자 성당 아래쪽 주택가 골목 입구에 술집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야산의 아래쪽을 따라 나있던 골목은 매교에서 인계동으로 들어오는 오솔길이었다. 길을 따라 작은 구거가 있었는데 구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주택가, 한쪽은 텃밭이 있었다. 구거를 복개하고 텃밭을 밀어버린 자리에 2층 상가가 세워졌고 8곳의 술집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현재의 수원천로 204번길이다. 언덕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이곳에 술집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듯하다. 또한 주택가 입구에 당시로서는 큰 규모의 술집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원천 건너편에 보이는 구천동 술집골목에 익숙한 탓이었는지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던 듯하다. 구천동 술집골목은 100여 곳의 술집이 영업을 하던 수원 최대의 유흥가였다.



1973년 매교다리 일대 점포(수원박물관 제공)

2층 건물의 술집은 1층을 2~3개의 테이블과 주방이 있는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방을 두어 종업원들 숙소로 사용했는데, 손님이 많을 때는 2층 방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섬마을집, 유미집, 불로집, 낙동강, 삼화옥, 유성집, 삼정, 흥미옥, 청자집 등의 간판을 내건 술집에서는 막걸리와 소주를 주로 팔았다. 술집의 주인들은 모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종업원들 역시 외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젊은 여성들이었다. 술집 바로 앞에 살았던 임한용은 대학생 때 술집 종업원들과 동네 친구처럼 어울려 지냈다고 한다. 영업 외 시간에 방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돈이 없으면 외상술을 마시기도 했다. 임한용이 지동시장에서 식당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러 온 사람도 있었다. 1990년대에 소방도로가 나면서 술집 건물은 철거되었다.

1987년 결혼과 함께 시댁이 있는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로 들어온 송은정은 30년 정도 이 마을에서 살았다. 엄밀히 말해 매교동과 인계동의 경계에서 살았다. 시아버지가 철도공무원이라 가족들이 관사에 살았는데 수려선 폐선 후에도 관사를 불하받아 살았다. 송은정이 결혼할 때는 관사를 세놓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언덕 마을이 인계동에서 매교동으로 관할로 바뀌면서 관사는 매교동 232-3번지, 옆에 지은 새 집은 인계동 779-4번지가 되었다. 송은정은 인계동 집을 신축할 동안 잠시 관사에 거주한 적이 있다.

송은정의 집 주변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들이 있었다. 영동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물을 파는 사람 집에서는 항상 나물 삶는 냄새가 났다고 한다. 전기회사다리에서 삼성전자 통근버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삼성전자 직원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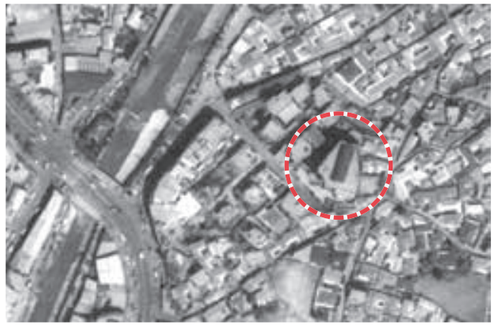
송은정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1990년대만 해도 언덕 마을에는 친목계가 있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계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정을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아이 낳고 떡을 돌렸어요. 그때만 해도 가을이면 가을떡이라고 해서, 추수 끝나고 가을쯤 되면 집집마다 고사떡이라는 걸 했었어요. 방앗간에서 쌀을 빻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시루에다가 직접 안쳐서 떡을 찌셨어요. 그러고는 기원하듯 부엌에다가도 놓고 어디에다가도 놓고 그랬어요. 풍습이었죠. 그게 저희 집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가 그렇게 했었어요. 시간 차를 두고 한 날은 이 집이 떡을 하면 그다음 날 또 몇 집이 떡을 해서 가을 그 시기에는 계속 시루떡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기억이 나요. 생신 때도 서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요, 다 통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통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역할을 맡으면,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이 부녀회장이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통장도 하셨고, 그래서 뭘 했냐면 마당 대문을 열어 놓고 마당에서 전을 부쳐요. 그 통에서 쓸 것들을. 그래서 동네 행사할 때 같이 했죠. 몇 명이 한 통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골목 단위로 묶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길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전 부치고 그랬죠. 대부분 대문 열어 놓고 살았고요. 제 경우는 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젊으니까 바깥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했어요. 나가면 항상 누구네 며느리 간다고 이랬을 정도였으니까요.

1977년 매교다리 옆 언덕 마을 입구(수원박물관 제공)





언덕 마을에 들어선 매교동성당(1987년, 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매교동성당

4. '전도관산'에 매교동성당이 세워지다

전도관산 정상부의 밭은 전도관 교회가 이전한 후에도 계속 경작되다가 1970년대 택지로 개발되었다. 새롭게 조성된 택지에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유입인구가 급증하던 1970년대 수원시에 조성되는 택지마다 '집장사'라고 불리던 건축업자들이 지은 주택이 신축되었다. 1981년 그 주택들 가운데서 매교동성당 건축이 시작되었다.

매교동성당은 1981년 새해에 건립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수동성당 주임신부였던 최경환은 북수동성당 관할구역이 비대해져 신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구역 분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목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었다. 1980년 12월 현재 북수동성당의 신자 수는 3,996명이었다. 북수동성당 사목협의회에서는 수원시에 또 하나의 본당을 창설하여 지역복음화 사업을 가속화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매교동 본당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경환 신부는 사목협의회에서 확정된 새 본당 설립안을 교구청에 제출하였고 당시 교구장이던 김남수 주교는 4월 1일자로 북수동·세류동·고등동 성당에서 각각 지역을 분할하여 새 본당인 매교동성당의 관할구역을 공시하였다. 매교동성당 설립 준비는 가장 많은 지역을 분할하는 북수동성당의 주임신부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북수동성당에서 매교동성당으로 이전한 신도는 1,000명이 넘는 규모였다. 매교동성당에 편입되는 구역은 매교동, 인계동, 세류동, 구천동, 중동 및 교동 일부, 곡반정동, 권선동, 병점, 기산리 등이었다. 교구청 공문상의 설립일은 8월 1일이지만 매교동성당 공동체의 정식 출범일은 8월 21일 고건선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날로 정하고 있다. 고건선 바오로 신부는 약 4개월간 북수동성당 보좌로 봉직하다가 군종으로 입대하였고 예편한 후에 매교동성당 주임신부로 임명받았다. 1981년 4월 12일 매교동성당 부지에서 착공 미사를 드리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매교동성당의 주보성인(主保聖人)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이고, 매교동성당에서는 1985년에 병점성당이 분리되었고 1987년에 권선동성당이 분리되었다.

5. 매교동과 인계동 사이에서

언덕 마을은 매교동 관할구역이지만 매교동에서 떨어져 나와 인계동에 붙어 버린 섬처럼 보인다. 언덕 마을의 애매한 위치는 인계로의 완전 개통에서 비롯되었다. 팔달구 매교동의 팽나무고개 삼거리와 영통구 매탄동의 삼성교 사거리를 잇는 인계로는 1990년 12월 29일 매교-향원아파트 구간을 마지막으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1965년 수원시 도시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이 도로는 1970년대 삼성전자가 들어선 후 매탄동 삼성교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마지막 구간의 완공과 함께 언덕 마을은 팽나무고개 마을과 인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게 되면서 매교동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었다. 인계로가 완공되기 전에는 수려선 화성역에서 팽나무고개 쪽으로 해서 태장면고개를 지나 매탄동으로 가던 옛길을 경계로 인계동과 매교동이 나뉘었다. 그런데 인계로가 뚫리고 나서 언덕 마을은 동쪽과 북쪽은 인계동, 남쪽은 인계로, 서쪽은 수원천과 정조로로 사방이 막혀 매교동과 단절된 형세가 되고 말았다. 어느 모로 보나 생활권은 인계동인데 행정구역은 매교동에 속하는 정체성이 모호한 지역이 된 것이다. 성당이 들어올 때는 이곳이 인계동에 속한 곳이었는데도 '매교동'성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지역 사람들은 도로를 기준으로 나누든지 하천을 기준으로 나누든지 해야 하는데 "인계동의 한 귀퉁이를 잘라다가 매교동이라고 하냐." 불만이 많았다. 재개발사업 추진할 때도 "귀퉁이 매교동은 빼놓고 인계동만 하지, 왜 매교동 귀퉁이를 포함시키냐."는 말이 있었다.

언덕 마을은 세류초등학교로 진학하는 매교동 다른 지역과 달리 지동초등학교와 인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5년 매교동 231-10번지(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초등학교로 진학하였다. 동사무소와 거리도 매교동사무소보다 인계동사무소가 더 가까웠다. 민원서류 전산시스템 운영 이후에는 반드시 매교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고서는 굳이 매교동사무소를 갈 일도 없었다. 매교동에 속했음에도 매교동 다른 지역과는 생활권이 달랐던 것이다. 임한용과 동네 친구들은 자신들을 인계동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인계초등학교 동창들도 임한용의 집이 인계동이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 인계동 774번지 주소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계동 774번지가 익숙하다.

언덕 마을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과거 인계동 774번지 일대(매교동 231, 232번지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인계동 774 모임'을 만들었다. 김원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이 친목모임은 2006년 9월 수원시 고시 제2006-177호 팔달115-9구역의 발표가 나기 전 2004년 무렵에 결성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동수원 개발로 인계동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자 구시가지에서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장다리천 건너 논밭과 과수원이 있던 곳에 반듯한 도로가 나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본 인계동 구시가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도 곧 재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그런 기대를 품은 지 한참 만인 2000년대 초반에 인계동 구시가지의 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던 시기에 자신들이 살았던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끼리 친목을 유지하자고 모임을 조직한 것이다. 인계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학교 주변의 인계본동 출신들은 '인계동향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안덕 마을 출신들은 '인계동 774모임'을 만든 셈이다.

인계동 774번지 일대에서 살았던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회원들은 대개 형제지간이었다. 그러니까 몇 집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친목회를 구성한 셈이다.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는데 형제가 함께 하는 술자리가 어려워지면서 모임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철거를 앞두고는 관사와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 짓기 전 옛 마을을 배경으로 사진 한 번 찍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추진되지 못하였다.



2017년 매고다리 옆 언덕 마을(김승일 제공)

2020년 재개발로 매교동성당만 남고
모든 주택이 철거된 언덕 마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SW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문화맨션이 그냥 문화아파트가 아니라
맨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문화맨션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아파트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만큼 문화맨션에는 수원에서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문화맨션은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되었다.

정명림 작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장 매교동 랜드마크 문화맨션

1. 맨션이라는 이름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이 처음 들어선 것은 1930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대를 연 것은 해방 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한강맨션, 한보미도맨션, 삼익그린맨션 등은 1970~198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 이름이다. 맨션이라는 이름은 아파트 시대가 열리면서 주로 중·고층 분양 아파트에 주로 붙이기 시작하였다. 한때 유행으로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맨션이라고 하면 고급 아파트를 이르는 다른 이름이었다.

건축용어사전을 보면 원래 맨션은 서양 중세 시대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영주들이 살던 대저택을 이르는 말이다. 본래 뜻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맨션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맨션은 일반 아파트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당시 맨션은 일반 아파트와 차별화해서 홀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갖추어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였다.

문화맨션이 그냥 문화아파트가 아니라 맨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문화맨션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아파트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만큼 문화맨션에는 수원에서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문화맨션은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되었다.

1981년 문화맨션(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모화자 우리 애들이 꿈만 같다고 했어. 그때는 아파트가 귀했으니까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이사 오니까 좋지. 단독주택에서 35년 살다가 왔는데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

장계순 옛날에는 아파트 여기가 최고였지. 돈이 조금 있으면 문화맨션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

얼마나 좋았기에 꿈만 같고 천국 같았을까. 문화맨션에 산다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했다는 그 아파트, 이제 문화맨션의 40년을 들여다보자.

2. 엘리베이터를 타러 놀러 오다



1977년 문화맨션이 건설되기 전 수원천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분당선 매교역 6번 출구에서 나와 200여m를 걸어가면 건물 두 동으로 된 아파트가 보인다. 정문에 다다르자 경비실 옆에 높이 솟아 있는 기둥이 눈에 띈다. 예전에 기름보일러를 가동하던 때 연기를 내뿜던 굴뚝이다. 정문으로 들어서니 ㄱ자 모양으로 꺾인 A동과 B동 두 건물이 아파트 마당을 감싸듯 마주서 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흔한 요즘이라서 그런지 두 동짜리 아파트 모습에서는 아기자기한 작은 마을 느낌이 났다. 아파트 정문 입구에 왼쪽에는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 옆으로 경로당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 예전에는 각 동 입구에도 경비실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문 경비실만 남아 있다.

문화맨션은 A동과 B동 두 동으로 복도식 구조에 지상 12층 지하 1층으로 된 건물과 경로당으로 쓰이는 C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A동은 1층에 상가와 관리 사무실이 있고 모두 27평형으로 91세대가 살고 있다. B동에는 27평형이 12세대, 30평형이 48세대, 34평형과 38평형이 각각 12세대씩 있어 두 동을 합치면 모두 175세대가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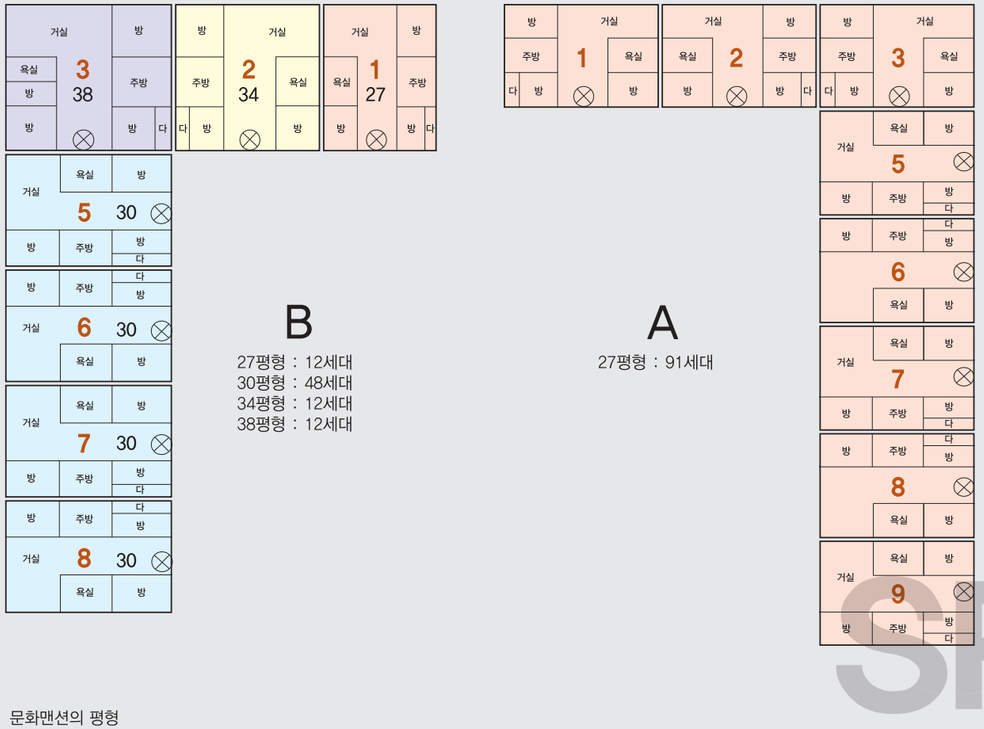
삼일건축연구소에서 제작한 문화맨션 조감도

주차장은 건물 앞뒤로 지상에 있는데 1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애초에 세대수에 비해 적은데 요즘은 세대당 차량 소유가 많아져서 더욱 부족할 듯싶다. B동 뒤편으로 돌아가면 양지바른 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문화맨션은 1979년에 준공이 되어 2019년 현재 41년이 되었다. 지금은 비록 오래된 아파트지만 그때 당시에는 첨단 고층 아파트였다. 애초에 문화맨션은 설계 때부터 기존 아파트와는 차별되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였다. 그래서인지 호텔처럼 설계를 해서 지었다는 말도 있다. 그 당시 수원에서는 고층 아파트도 없었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된 곳이 없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놓인 것은 수원에서 문화맨션이 최초이다.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는 수원천 옆에 주변 지대보다 낮게 팬 공터였다. 너른 공터에 제지공장과 솜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을 헐고 낮은 땅을 돋아 건물을 지었다. 수원지역 연탄재를 모아 낮은 땅을 메꾸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1978년 5월에 사업승인이 난 뒤 1979년 5월에 준공이 되었으니 공사 기간은 일 년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는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서 12층 건물인 문화맨션은 단연 돋보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화맨션의 평형



1981년 팔달산에서 바라본 문화맨션(수원박물관 제공)
문화맨션은 당시 교동과 매교동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분양은 모집 공고를 낸 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추첨으로 하였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아파트 분양 공고나 분양 신청 경쟁률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세 채를 신청했는데도 하나도 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 제법 경쟁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자의 기억에 따르면 분양사기도 있었다고 한다. 삼인진흥건설주식회사 대표 이태근이 분양한다고 했다가 돈만 받아 챙겨 도망간 사건을 말한다.

> 아파트 건설업체인 삼인진흥건설주식회사(대표 이태근, 서울 중구 정동 15-5)가 수원시 매교동 158-6에 178가구분의 문화맨션아파트를 지은 후 회사대표가 은행과 사채업자에게 이 아파트를 저당잡혀 20억여 원을 끌어 쓰고 다시 일반분양과 전세를 놓아 5억 8천여 만 원을 가로채 달아나 86가구 450여 명의 주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다.(『매일경제』 1981년 10월 29일)

초기에는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하기도 하고 분양되고 남은 집이 있어서 매입해 입주하기도 하였다. 추첨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남는 집이 있었는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 그런 집들이 매매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건물이 다 올라간 뒤에 부도가 나자 현금을 주고 매입을 했다는 입주민도 있었다. 이때 매매가가 1,8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수원에 처음 들어선 고급 아파트인 만큼 지역에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였다. 항간에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산다고 소문이 났다. 인터뷰하다 보니 403호에 검사가 살았고 1007호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1005호에는 내과 의사, 505호에는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살았다는 식으로 줄줄이 아파트 호수와 직업

이 나온다.

그때는 택시를 타고 문화맨션을 가자고 하면 부자 동네 간다고 아는 체를 하였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소문이 있었다.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시설 좋은 아파트라는 소문이 나니 문화맨션은 인근 주민에게는 살고 싶은 집이었다. 문화맨션에 사는 지인이 좋다고 소개해서 1990년에 이사를 오게 된 김명자는 단독주택에 살다가 이사한 경우다. 집을 보러 와서 보고는 환하고 좋아서 2,400만 원 주고 샀다고 한다.

문화맨션은 시설이 좋았던 만큼 관리비가 비싸서 부자 아니면 없는 사람은 거저 줘도 못 산다고도 하였다. 아파트가 많지 않던 때라 단독주택에는 없던 관리비라는 개념이 낯선 시절이었으니 다달이 내야 하는 관리비가 부담스러울 만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초기 입주민인 한정자는 비싼 관리비 때문에 처음에는 사지 않았다가 몇 년 뒤에 집을 샀다고 하였다.

관리비가 비싼 주된 이유는 난방비 때문이었다. 관리비는 초창기에는 7,000~8,000원이었다고 한다. 1990년에는 27평이 2만 7,000원 정도였고 1996년도에는 8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관리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단독 주택에서 이사 온 김명자의 경우에는 잡비를 한꺼번에 낼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았다고 하였다.

난방은 중앙난방식이었는데 지하 보일러실에서 기름보일러를 돌려 열을 만들어 각 집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는 열효율은 높지만 개별 가정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난방 방식이다. 경비실 옆쪽을 보면 예전에 기름보일러를 가동하던 때 연기를 내뿜던 굴뚝을 볼 수 있다. 기름을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문화맨션은 오후와 새벽, 두 차례 보일러를 돌려 난방을 공급하였다. 각 가정에는 난방열을 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라디에이터가 있었다. 도시가스로 바꾸면서 없앤 집들이 많지만 그전까지 거실에 양말을 널어놓은 라디에이터는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였다. 난방은 대체로 따뜻한 편이어서 겨울에도 반소매에 반바지 차림으로 살았다고 한다.

한정자는 새벽 3시면 '덜커덕' 하고 보일러 돌아가던 소리도 기억하였다. 보일러가 돌아가고 난방이 되면 지하에 있는 중앙 보일러실에서 연결된 굴뚝으로 김이 나갔다. 이때 굴뚝에서 나온 그을음이 아래로 내려앉아서 차를 닦으면 시커먼 먼지가 묻어 나왔다고 한다.

수원에서 단수가 되어도 문화맨션에는 물이 끊기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가 수원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을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화맨션만 특별히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같은 배수관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요인들이 문화맨션을 다른 지역 주택들과 달리 보이게 했을 것이다. 다만 수압은 약한 편이었다고 한다.



1984년 문화맨션 앞 하수도공사(수원박물관 제공)

그 당시 문화맨션의 자랑거리가 또 있는데 바로 엘리베이터이다. 수원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가 문화맨션이다.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을까. 더러는 무서워하며 못 타는 사람들도 있었을 성 싶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엘리베이터는 신기한 기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 본다고 일부러 아파트에 놀러 올 정도였다고 한다.

아파트 놀이터도 동네 아이들에게는 선망의 장소였다. 놀이터가 흔하지 않는 시절이라 그네와 시소만 있는 단출한 놀이터라도 아이들이 늘 북적였다. 하지만 아파트 정문에서 외부인들을 통제하는 시대이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야박하다고 할 일이지만 그때 고급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아닌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고급 아파트를 추구했지만 하자도 있었다. 건설사에서 여기저기 하청을 줘서 내부 공사를 했는데 자재를 불량으로 쓴 업자들이 있어서 층에 따라 마감에 편차가 있었다. 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바닥 공사가 잘못된 가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사를 하기도 했다.

문화맨션은 요즘 흔히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이 없다고 한다. 건물이 오래 되기는 했지만 좋은 자재로 튼튼하게 지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잦은 다툼이 생기도 이웃끼리 험한 일을 당하는 사고가 많은 때라 층간소음이 없다는 것은 큰 미덕이 아닐 수 없다.

3. "남문이 보여요"

김명자 난 첨에 여기 오니깐 천국 같았어. 문을 열고 나가면 팔달산이 딱 보이지, 광교산까지 다 보이지, 남문도 훤하게 보이고.

문화맨션은 수원에서 이른 시기에 생긴 고층 아파트인 만큼 전망도 좋았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이 생겨서 예전 같은 전망을 누릴 수는 없지만 남문도 팔달산도 가까이 있어서 나들이 다니기도 좋다. 1991년도에 이사 온 장계순도 수원화성 남문이 훤히 보이는 게 참 좋았다고 한다. 교통도 편리하고 수원 중심지에 사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꼭 오고 싶은 아파트였다고 한다.

주민들이 문화맨션에 살면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점은 바로 교통이다. 지금은 분당선 매교역이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지만 매교역이 있기 전에도 이곳은 교통의 요지였다. 수원역까지 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걸어도 15분 정도 거리이다. 수원버스터미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매교역이 생기고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도 새로 생기면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매교역은 2013년 11월에 개통되었다. 분당선 연장선 마지막 구간인 망포역에서 수원역 구간이 개통된 것이다. 분당선은 수원역에서 왕십리를 잇는 철도 노선으로 수원역에서 성남과 서울 강남 지역을 거쳐 왕십리까지 85분이 걸리는 구간이다. 이로써 수원에서 성남이나 서울 강남권으로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졌다. 그전에는 버스 노선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지하철의 편리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공사 기간에 매교역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기는 하였다. 매교역 공사현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와 화재가 나기도 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소음, 진동 피해 호소하는 민원도 많았다. 특히 매교역 구간의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장 크게 홍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역세권이냐 아니냐 하는 추세를 보면 문화맨션에게 매교역은 엄청나게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매교역은 문화맨션에서 200m 정도 거리에 있어 요즘 말로 초역세권인 셈이다.

매교역이 들어서기로 결정되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아파트에서 길 건너 맞은편에는 수원고등학교와 수원중학교가 있고 근처에 세류초등학교, 권선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가 있어서 자녀들 학교 보내기에도 좋다. 재래시장이 가까워서 편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남문시장까지 걸어서 장보러 다닌다고 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매교시장도 가까이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아파트 뒤편으로는 잘 정비된 수원천이 길게 뻗어 있다. 수원천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에서 시작되어 광교저수지를 거쳐 수원시 남쪽을 가로질러 황구지천으로 흘러드는 지방 2급 하천이다. 수원천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길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아파트가 들어선 1980년대에는 오염도 되고 냄새도 나는 하천이었다. 수원시가 교



1985년 문화맨션과 팔달산(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화맨션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매교역



문화맨션 정문 앞 수원고등학교

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1992년부터 지동교에서 매교 구간을 복개하는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복개한 다음에 수원천 수질이 더욱 나빠졌다. 추가로 복개 구간을 연장하려던 시의 계획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되었다.

1996년부터 복개된 구간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벌여 2012년 4월에 수원천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파트 바로 뒤편 수원천 산책로에는 간단한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자연의 정취를 흠뻑 느끼면서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건강도 챙기고 시름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수원천에서
바라본 문화맨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아무리 최고의 시설이라 해도 세월 앞에서는 낡을 수밖에 없다. 매교맨션은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40년 세월을 지내 오면서 이것저것 바뀐 것들이 많다. 먼저 흙으로 된 아파트 마당을 아스팔트로 바꾸는 공사가 있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1988년이나 1990년대 초로 짐작된다. 제13~14대 국회의원인 김인영은 문화맨션에서 직접 살지는 않았고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아파트 부녀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공사를 해 주었다고 한다. 요즘 같으면 부녀회를 선거운동에 동원한다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1996년에 아파트 전체 도시가스를 들여오는 공사를 하였다. 도시가스를 들여오면서 난방 방식도 중앙난방식으로 하던 것을 개별난방으로 바꾸었다. 이때 자치회장이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주민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시설물 공사를 할 때면 이런저런 뒷거래가 있던 시절 이야기다. 어찌 되었건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문화맨션의 난방방식이 바뀌면서 집집마다 놓여 있던 라디에이터도 쓸모가 없어졌다. 난방으로 연기를 뿜어대던 굴뚝은 제 할 일을 잃어버린 채 옛 영화의 상징처럼 서 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지어 자재창고로 쓰던 건물은 공사가 끝난 뒤에 경로당으로 변신하였다. 그 전까지는 경로당이 없었던 셈이다. 경로당을 지을 때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 사랑방으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있는 경로당은 건물 안팎이 노후화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에 리모델링을 한 것이다.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 스스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시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경비실 옆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면 경로당이 나온다. 경로당 내부에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다. 13평 남짓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모임을 갖고 요가 수업을 하고 있다.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 2013년에 새롭게 고쳤다. 개나 고양이 배설물로 오염 문제가 제기된 모래 바닥을 고무칩 바닥으로 바꾸고 낡은 시설물도 바꾸었다. 지금은 미끄럼틀과 그네와 시소와 철봉 등이 있고 어른을 위한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은 예전처럼 아이들이 북적이며 놀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로 탈바꿈하였다. 낡은 수도 배관도 교체를 해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온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새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 왔지만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제 문화맨션 엘리베이터는 수원 지역에서 엘리베이터를 가장 처음 설치했다는 이름만 남긴 채 모두 바뀌게 되었다.

아파트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새로 꾸미는 경우에 비용은 시 보조금이나 주민 분담금으로 했지만 개별 세대는 각자 내부를 고치는 식으로 바꾸어나갔다. 새로 이사 오는 주민들도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후



2019년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문화맨션 아파트 구조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주방과 앞쪽 발코니다. 특히 38평 발코니는 다른 평형보다 작아서 빨래를 널 때는 문턱을 딛고 널어야 하였다. 화분이라도 놓여 있으면 사람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할 정도라고 한다. 세탁실로 통하는 문은 주방 옆에 있는데 문 크기가 좁아서 요즘처럼 세탁기가 큰 경우에는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대체로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발코니까지 확장하고 주방에 곁달린 듯 보이는 작은 방을 터서 주방을 늘리는 식으로 공사를 하였다.

이런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로 해결이 되었지만 화장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요즘에는 작은 평수라고 해도 화장실이 두 개 정도 있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문화맨션이 만들어질 때는 그러지 않아서 38평에도 화장실은 하나 밖에 없다.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문화맨션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느 새 아파트 못지않게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거듭나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5. 함께 누리는 행복

경로당을 방문한 날은 경로회원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날이었다. 경로당에 들어서니 방 가운데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고 어르신들이 열 분 남짓 와 계셨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점심을 준비해 함께 드신다고 하였다. 식사를 하면서 두런두런 사는 이야기들을 나눈다.

검정콩을 갈아서 부침개를 해 먹는다는 이야기, 동치미가 맛이 들었다는 이야기, 무청 시래기가 부드럽고 맛있다는 이야기, 때로는 정치적 견해까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신다. 소소하게 오가는 대화로 일상을 나누는 일이 함께 사는 정을 돋우는 비결일 것이다.

현재 문화맨션에 있는 입주자 활동 모임으로는 경로회만 남아 있다. 초기에는 관리 사무실에 모여서 반상회를 하곤 했으나 지금은 반상회가 없어졌다. 다만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의논할 거리가 있으면 경로당에 모여 임시 반상회를 하였다.

1980~1990년대에는 부녀회 활동이 활발하였다. 부녀회 활동은 아파트 안팎으로 분주하였다. 부녀회가 단지 안에서 했던 활동으로는 어르신 효도 관광 준비, 혼자 사는 어르신 돌보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었다. 효도 관광은 부녀회에서 음식이며 차량을 준비해 1년에 한 두 번씩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왔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세대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우 이웃은 없었지만 점차 혼자 사는 어르신이 생기자 그런 세대를 돌보았다. 동에서 지원해 주는 쌀로 명절에 떡을 만들어 나누어 주거나 입주민이 쌀과 김치 같은 것을 모아 가져다주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몇 년 전부터 관리실에서 맡아 하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아파트 부녀회원들은 시나 구에서 실시하는 외부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였다. 길거리 화단에 꽃을 심거나 학교 앞 교통정리도 부녀회 몫이었다. 또 김장철이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불우이웃 돕기 김장하기 행사에 참여해 다른 지역 부녀회원들과 함께 봉사를 하였다. 그때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운동장 같은 곳에서 모여 추위에 떨면서 김장을 했는데 요즘은 체육관이나 실내 시설에서 김장 행사를 하니 세상 많이 변했다고 한다. 더러 시나 구에서 하는 행사에 부녀회원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는 문화맨션에 친목모임인 한울타리회가 있어서 아파트 분위기를 살리는 데 한몫을 하였다. 부부동반으로 관광여행도 가고 대보름날에 주민들이 모여 윷놀이도 하였다. 으레 그렇듯 그런 행사 때면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흥을 돋우었다. 한울타리회도 회원이 20여 명이었는데 점점 줄어 지금은 8명 정도 남아 있다.



문화맨션 전경과 입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화맨션 내부



문화맨션 상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화맨션 주민 친목회(1993년, 모하자 제공)

현재 문화맨션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임은 경로회이다. 예전에는 경로당에 삼삼오오 모여 손자, 손녀를 돌보며 소일을 했다면 요즘에는 정해진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모임을 꾸려 가고 있다. 경로회원들은 일주일에 2~3차례 점심 식사를 하고 주 2회 요가를 배운다. 경로회는 매달 내는 회원들 회비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경로회에 분기마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에 따라 알맞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조금과 별도로 각종 단체에서 지원한 쌀이나 여러 물품을 받을 때도 있다.

인계동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사 온 주민은 그전에 살던 동네보다 이곳 문화맨션 경로회 모임이 잘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팔달구 내에서 회원수로나 활동으로나 상당히 활성화된 편이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경로회 덕분에 주민들과 금방 어울릴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백세운동교실' 사업에 선정되어 일주일에 두 번 요가 수업도 한다. '백세운동교실'은 연초에 각 경로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 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7년 문화맨션 일대



1990년 문화맨션 일대



2009년 문화맨션 일대



2020년 문화맨션 일대

가운데 선별된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하여 수업하는 사업이다. 3~11월을 1년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청한 경로당 가운데서 노인회원수와 수업을 진행할 공간 등을 심사해서 지원할 경로당을 선정한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운동교실을 운영할 강사를 파견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지원한다. 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실력 있는 강사를 뽑는다.

문화맨션은 요가 수업으로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주 2회 수업 가운데 한 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사가 나와서 하고 한 번은 백기분 어르신이 수업을 진행한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며 건강도 지키고 친목을 다지는 알찬 시간이다. 문화맨션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명절에는 부모님을 뵈러 오는 가족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주차장이 가득 찬다. 예전에는 더 많이 왔었다고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다.

주민들에게 문화맨션에 살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냐고 물으니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다만 아쉬운 게 있는데 요즘은 새로 이사 오는 주민들이 인사를 잘 나누지 않는 점이라고 하신다. 문화맨션은 복도식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 이사 온 주민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금방 어울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는 비단 문화맨션에서만 겪는 변화는 아닐 것이다.


문화맨션 아경

6. "문화맨션에 살아요"

팔달구는 지금 뜨거운 동네이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구역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문화맨션은 이 바람에서 살짝 비켜나 있어 주민들로서는 아쉽기도 할 터다. 문화맨션도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워낙 튼튼하게 지어서 재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는 주변에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져서 예전에 "문화맨션에 살아요." 하면 받던 부러움 섞인 시선은 없다. 지금 문화맨션은 번쩍이는 고급스러운 모습도 고층의 당당한 모습도 아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흔해진 요즘에는 오히려 작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바라며 예전의 영화를 꿈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화맨션에는 겉보기에 크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갖추기 힘든 아기자기하고 푸근한 정서가 있다.

이웃에 새로 생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세대도 많지만 여전히 문화맨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화맨션은 더없는 보금자리이다. 인터뷰한 주민들은 대체로 문화맨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처음 문화맨션에 들어와서 살던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하다.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가꾸어 온 아름다운 순간들이 문화맨션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시간은 내내 주민들의 문화맨션 자랑으로 넘쳐났다. 오랜 세월 불편하고 성가신 일들이 없었을 리 없건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이들은 4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맨션에서 앞으로도 쭉 행복한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화맨션 주민들의 옛 사진



1960년대
서둔동 서호에서
(모하자 제공)



1960년대 매교동
이화방직 건물 앞에서
(모하자 제공)





1960년대 수원천변에서(백기분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9년 설립된 수원상업강습소는
1926년 이후 화성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다시 1941년 수원상업전수학교를 거쳐
지금의 수원중고등학교가 되었으며,
수원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이정수 수원시의회 전문위원

5장

111년간 수원 교육을 선도한 수원중고등학교

매교동에서 수원중고등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상당히 넓고 크다. 현재 매교동이 재개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원중고등학교가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다. 마을 전체를 통째로 밀어 버리는 개발방식에서 그나마 학교는 남아서 옛 기억의 지표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

규모가 큰 대동제지 공장 및 이화직물 공장은 매교동을 대표하는 대형 사업체였다. 이들 공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매교동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은 모두 아파트와 택지가 된 지 오래되어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도 드물게 되었다. 직공 수백 명이 근무했던 매교동 153번지 일대의 이화직물 공장은 수원천과 현재 연향아파트와 문화맨션 사이의 넓은 주택지가 되었다. 본사는 서울 무교동에 위치하였고 매교동 161번지에 있었던 대동제지 수원공장은 문화맨션과 국민건강보험공단(결혼회관) 사이에 위치했는데, 현재 매교상가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매교동에서 해방 전부터 그 자리에 위치하며 대표적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은 수원중고등학교가 유일하다. 1909년 설립된 수원상업강습소는 1926년 이후 화성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다시 1941년 수원상업전수학교를 거쳐 지금의 수원중고등학교가 되었으며, 수원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윤한흠 그림에 그려진 수원상업회의소(남수리 253번지)와 수원상업강습소(남수리 260번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무산아동의 교육 터전이 되다 : 수원상업강습소와 화성학원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는 수원상업회의소가 운영한 교육기관으로, 수원상업회의소는 1908년 4월 15일 양성관, 홍건섭, 홍민섭 등 수원을 대표하는 상인들이 설립한 상업단체였다. 이들은 3,000여 원의 거금을 걷어 성 안 남수리에 상업회의소를 건축하여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두었다. 이듬해 1909년 2월 2일 수원상업강습소를 설치하여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문·영어·상업·부기 등 상업과 근대교육을 실시시켰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상권이 점차 수원의 중심지인 남문 일대로 몰려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수원 지역 상권을 지키는 동량들을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수원상업회의소와 수원상업강습소는 남수리 253번지(166평)와 남수리 260번지(120평)로 지금의 팔달로2가 29번지와 56번지 일대이다. 이곳은 김희경(金禧景)·홍민섭(洪敏燮)·김제구(金濟九)·신준희(申駿熙) 등 4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들의 수원상업회의소를 해산시켜 일본인 위주의 상업회의소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이에 조선인 수원상업회의소는 1916년 봄에 해산됨에 따라 수원상업강습소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후 지역유지들과 강습소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수원상업강소 졸업생들은 1919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상업강습소 출신인 김노적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수원상업강습소는 당시 '수원의 유일한 무산 아동교육기관', 조선 사람의 교육기관이라고는 수원에 오직 하나뿐인 강습소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더욱이 1919년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확산되면서 교육기관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상업강습소는 나이가 많아서 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1920년대 남수리 260번지에 있었던 화성학원(수원고등학교 제공)

가르쳤다는 점에서 지역의 사랑을 받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었다.

수원상업강습소는 1926년 5월 화성학원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홍사훈(洪思勛, 1891~1965)이 화성학원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욱이 1931년 1월 남수리 수원청년동맹운동장을 화성학원이 인수하고, 이곳으로 1934년 10월 교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화성학원은 더욱 수원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920~1930년대 수원 지역 사회단체 활동과 각종 모임이 화성학원 강당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원청년회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1925년), 을축년 대홍수에 따른 수재동포구제의연회(水災同胞救濟義捐會) 발기회(1925년), 수원인쇄직공 친목회 창립대회(1926년), 수원 출신 유학생 강연회(1927년), 신간회 수원지회 제3회 정기대회(1928년), 수원노동조합 창립총회(1929년), 수원소년동맹 창립대회(1929년), 재수원배재동창회 창립총회(1929년), 에스페란토연구회 창립총회(1930년),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1930년), 조선소년군 수원본부 임시 연차대회(1933년) 등이 있다.

1931년 1월 수원청년동맹 운동장을 화성학원 운동장으로 확보한 이후 전조선 소년야구대회(1934년), 수원시민 대운동회(1934년), 중조선 농구대회(1934년), 수원소년군 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34년 수원청년동맹 운동장(남수리 100번지) 자리로 신축 이전한 화성학원(수원고등학교 제공)

린이날 행사(1935년) 등이 화성학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화성학원 운동회에 태극기가 나부껴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화성학원은 수원 사회운동의 중심지로서,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된 공간이었다. 1930년 화성학원에서 개최된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는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탄압도 컸던 행사였다. 또한 화성학원은 각종 격문이 뿌려지는 곳으로 늘 주목받았다. 1930년 10월 12일 「무산대중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이 문밖 사거리와 팔달문, 수구문, 화성학원 앞, 청년동맹운동장 등에 나붙었다. 이 사건으로 화성학원 교사 박봉득(朴奉得)·김도생(金道生)·백남선(白南善) 등이 경찰서에 끌려가 곤혹을 치르고, 일제 경찰은 화성학원 5학년 강명길(姜命吉, 16세)을 수업 중에 잡아 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렇게 화성학원은 수원상업전수학교로 승격되어 1943년 매교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수원 주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공간이었다.

2. 매교동에 뿌리를 내리다 : 수원상업전수학교

무산아동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화성학원은 수원상업전수학교로 승격하는 설립 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1941년 3월 27일 수원상업전수학교가 설립자 홍사훈 이름으로 인가되었다.[1] 3년제 수원상업학교가 인가됨에 따라 화성학원 안에 있는 수원상업학교 창립 사무소에서 입학 신청을 받아 120명의 신입생들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인 수원상업전수학교 개교식이 1941년 4월 27일 오전 10시 남수동 화성학원에서 거행되었다.[2] 설립자는 홍사훈 선생이었고, 수원상업전수학교 교장으로 홍사운 선생이 취임하였다. 120명에 달하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수원에는 인문계 고등보통학교 설립은 허가되지 않은 채 실업계 수원농업학교와 수원상업학교가 설치된 셈이다. 이는 일제의 조선인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인문계 학교가 아닌 실업계 학교만을 인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수원상업전수학교는 인가된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초등교육기관인 화성학원과 별도의 학교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새롭게 교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대상지를 물색하였는데, 선택된 곳이 매교동 팽나무고개 주변의 구릉지였다. 매교동 250번지 일대에 학교부지를 확정하고 교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 이에 매교동 학교부지에서 지진제(地鎭祭)를 1941년 10월 21일 거행하였다. 지진제는 토목 공사나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땅의 신(地神)에게 공사의 안전과 건물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 의식이다. 전통시대의 고유제(告由祭)와 같고 현재의 기공식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며칠 뒤인 11월 2일 수원상업전수학교 신축부지 정지작업에 '남부정청년대(南部町青年隊)'가 투입되어 근로봉사를 하였다. 즉 1941년 11월 4일 '남부정청년대(南部町青年隊)'의 근로봉사와 11월 10일 '남부애국반(南部愛國班)' 근로봉사를 통해 학교 부지 정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남부정(南部町)이라는 이름은 1936년 수원읍 영역이 확장되고 일본식 지명으로 바뀔 때 매교동 일대를 일컫는 지명이다. 따라서 매교동 청년들이 근로봉사에 동원된 셈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일제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조직하여 노동력 착취를 하였다. 근로보국대는 일제가 중일전쟁 도발 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하여 공포한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과 각종 통제법령의 대상인 상시요원 이외의 임시요원인 학생·여성·농촌 노동력의 강제동원을 위한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1938년 7월)에 의해 조직되었다.



1941년 10월 29일 수원상업전수학교 신축지 지신제(수원고등학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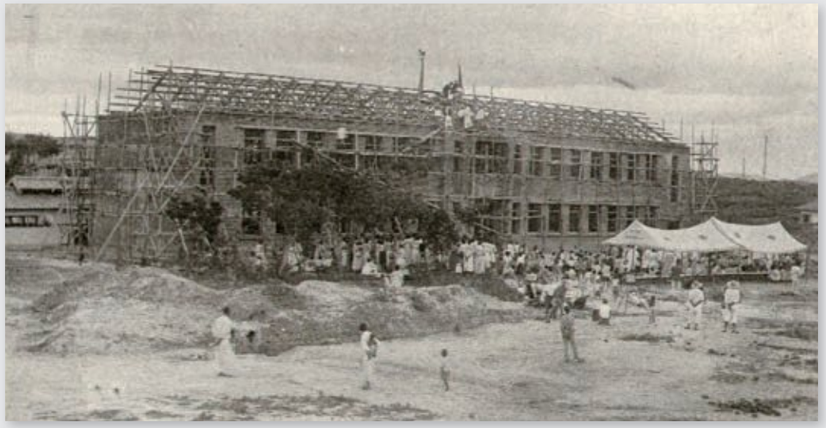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학교별 근로보국대와 20~40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근로보국대 및 각 단체 중심의 각종 연맹별 근로보국대가 결성되었다. 이후 근로보국대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강제로 할당하는 형식으로 강화되었다. 처음엔 10~15일 정도 동원하다가 점차 한 달로 늘었고 전쟁이 심화된 이후에는 동원기간을 1년까지 늘리기도 했다. 이러한 노동력 동원의 대표적 사례가 수원비행장 건설이었다. 침략전쟁에 사용되는 군 비행장 건설에 비해 수원상업학교 건설에 동원되는 것은 매교동 청년들의 처지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있었다. 이렇게 남부정 청년들로 구성된 근로보국대가 동원되어 수원상업전수학교터 닦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교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공식 이후 1년 만인 1942년 12월 30일 새로운 교사(본관)가 준공되었다. 당시 신축된 교사는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이었다. 1~2층에 각각 교실 4개씩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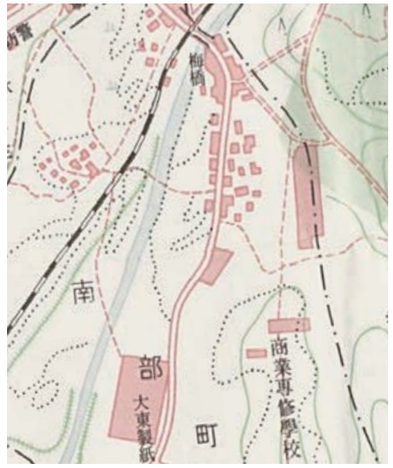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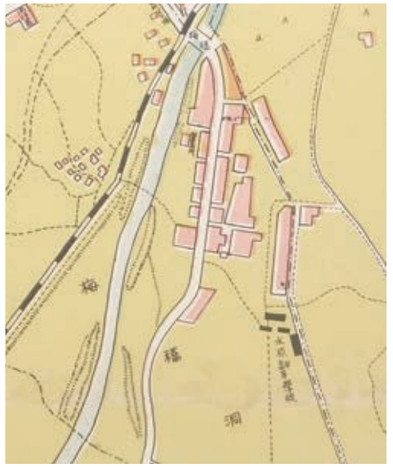
1941년 11월 2일 수원상업전수학교 신축지 남부정청년대 근로봉사(수원고등학교 제공)



본관 건립 과정(1944년 졸업앨범, 수원고등학교 제공)



1943년 상업전수학교



1957년 수원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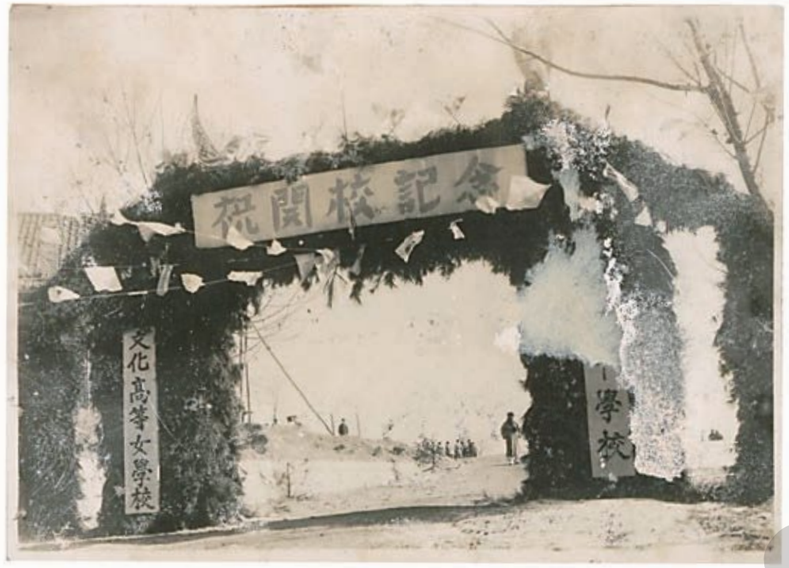
두 8개 교실이 들어섰다. 건물 중앙에 현관이 들어선 멋진 건물 앞에는 화단을 만들어 관상목을 심었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원형화단을 만들어 교정을 가꾸었다. 새로운 교사가 신축됨에 따라 남수동에서 매교동으로 학교가 이전한 것은 이듬해인 1943년 2월 27일이었다. 학생들도 나서서 각자 책걸상을 수레에 실어 매교동 신축교사로 옮겼다. 이렇듯 성 안 남수동에서 성 밖 매교동으로 이전함으로써 매교동 시대가 열린 것이다.

3. 문화고등여학교와 수원중학교가 함께 운영되다

수원상업전수학교는 1944년 제1회 졸업생 98명을 배출하였는데, 졸업생들은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과 평택, 광주 등 경기도 지역을 비롯하여 경상도 영주·상주·경주, 전라도 영암·부안 및 평안도 지역에서도 수원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 많았다. 당시 수원상업전수학교의 위상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수원상업전수학교는 1941년부터 1946년까지 5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1944년 4월 수원상업학교는 '수원여자상업학교'로 바뀌면서 수원상업전수학교는 제3회 졸업생을 배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45년 문화고등여학교와 수원중학교 개교기념(수원고등학교 제공)

하고 인가 폐지되었다. 1944년 수원여자상업학교가 되면서 제1학년 신입생은 모두 여학생이었다. 그러나 당시 2학년과 3학년은 남학생들이었다. 수원여자상업학교 제1학년 신입 여학생은 모두 50명으로 조선인 여학생 25명, 일본인 여학생 25명이었다. 당시 여자상업학교로 변경한 이유는 태평양전쟁으로 남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하게 되고, 후방을 병참기지화하면서 여학생들을 전쟁에 필요한 간호부 등으로 육성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수원여자상업학교의 1944년 첫해 입학생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25명씩으로 전체 50명이 입학하였다. 이듬해 1945년 2회 입학생은 2개 반으로 증가되어 130명을 선발하였다. 이에 1~2학년은 여학생이고, 3학년만 남학생이어서 여학생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다. 상업학교는 전국적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역적 분포는 다양하였다. 당시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고등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함경도·평안도 등 이북 지역과 강원도·제주도에서까지 전국에서 여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당시 차재윤(車載潤)이 운영하던 직물공장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운영했는데, 전국 각처에서 온 학



1949년 학훈 3기 2반 여자학도 호국대 간부훈련 졸업(수원고등학교 제공)



1950년 제1기 학도지도자훈련 수료생 일동(수원고등학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생들이 이곳에서 기숙하였다.

1945년 해방 직후 수원여자상업학교는 이름을 '문화고등여학교'로 변경하고 수원중학교와 병설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수원중학교와 여학생의 문화여자고등학교가 한 학교에 있게 되면 인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등여학교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1946년 4월 이를 알게 된 학생들과 교사들은 맹렬한 반대를 했다. 학교 측이 여학교 분리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과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도 교사들의 반발을 크게 만들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교내 분규가 교사들의 책동이라 책임을 전가하면서 학원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던 교무주임을 돌연 파면시켰다. 이러한 학교의 강경한 조처에 항의하여 교사들도 총사퇴로 맞섰다. 이에 따라 학내 분규문제는 사회문제로 발전하였다. 당시 1946년 4월 수원중학교의 교사 총사퇴와 함께 삼일중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민전(民戰)'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돌연 3명의 교사를 파면하여 물의를 일으켜 수원 지역 학부형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수원중학교 분규에 따른 당사자들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우선 교사들은 ① 여학생 분리문제는 우리 교원들에게 비밀리 진행한 것으로 이에 협력할 수 없다. ② 폐교가 아니고 분리인 이상 학생들의 장래를 위하여 현 교명(校名)인 '문화고녀(文化高女)'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③ 학생들의 교육진전을 위하여 당분간이라도 교육진의 교류를 해야 한다.

학부형의 결의 사항은 ① 재학생만이라도 최후 1인까지 졸업시킬 의무를 이행할 것, ② 학업 즉시 계속, ③ 학원의 민주주의 확립, 민주교원 파면 절대 반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교당국은 '기정방침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재단 측은 이것을 교사들의 배후 조종이라 여기고 그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무주임을 돌연 파면시키게 되면서 학교 전 교직원이 그 조처에 반대하고 총사퇴를 단행하였다.[3] 이러한 여상 폐지의 학교 조치에 따른 여학생들의 적극적 항의와 데모가 진행되었다. 학생 측은 나중에 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학생대표 심우임과 김영숙 등이 검찰에 출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여자상업학교 운영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호소하며 남학교로 전환할 것을 전격 결정하고 '수원상업전수학교 폐지 및 수원중학교 설립신청'을 1946년 4월 29일 수원군을 경유하여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다시 남학생 중심의 수원중학교로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2학년을 마친 여학생들은 2개 반 가운데 1개 반에 해당하는 수가 매향여학교 고등과로 전학하고 나머지는 수원고녀 및 서울 제2고녀 등으로 전학하였다. 매향여학교로 진학한 수원여상 1회 입학생들은 1946년 매향여상 고등과에 편입하여 3학년을 마치게 되었다. 당시 매향여상은 중등과정(여중)과 동일한 고등과(1~3년)가 있어서 고등과로 진학한 것이다.

1946년 수원문화여학교는 폐지되고 남학생 중심의 6년제 수원중학교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수원중학교가 설립되면서 1946년 8월 10일 수원중학교가 자리한 매교동과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 수원중학교를 위하여 토지를 기부하였다. 지역 유지들은 새로 설립하는 수원중학교 기본재산으로 기부한 것이다. 이들 유지들은 차준담(車濬潭)을 비롯하여 박태관(朴台寬), 윤태은(尹泰殷), 김응화(金應化), 김범동(金凡童), 심용선(沈龍先), 양성관(梁聖寬), 박성남(朴成男) 등 8명이다.[4]

1946년 수원중학교 토지 기부 현황

기부자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평)	비고
차준담	수원면 801	전(田)	705	남창정 52
윤태은	수원읍 남부정 192-2	임(林)	783	
	수원읍 남부정 192-3	임	494	
	수원읍 남부정 193	전	90	
	수원읍 남부정 195	대	61	
	수원읍 남부정 198	묘지	85	
김응화	수원읍 남부정 196	전	476	
박태관	수원읍 남부정 252-1	전	1,807	
김범동	수원읍 남부정 199	임야	60	
심용선	수원읍 남부정 200	임야	150	
양성관	수원읍 남부정 254	전	910	
박성남	수원읍 남부정 194	대	362	
합계			5,983	

이 가운데 1,000평이 넘는 규모의 토지를 기부한 인물을 살펴보면, 인계리 밀양 박씨 박문양(朴文陽)의 2남인 박태관(朴台寬, 1879~1955)이 1,807평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산루리 출신의 윤태은(尹泰殷, 1888~1957)이 1,428평을 기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수원의 3대 지주로 불렸던 양성관과 차준담이 각각 910평과 705평을 기부하였다.

이렇게 수원여상을 거쳐 문화고녀의 여학생들은 수원시 내 수원여고 및 매향여자상업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학교로 전학하면서 수원중학교가 설립되었다. 수원중학교는 재정 곤란으로 여러 지장을 받아 오던 중 1946년 9월 설립자 홍사훈을 비롯하여 유지 다수의 적극적 원조로 재단을 완성하여 고급 중학으로 승격될 수 있었다.[5] 수원중학교는 이후 재단법인 화성학원 인가를 받은 것을 계기로 1948년 10월 기념관 및 대운동장 공사를 진행하였다.[6] 당시 수원중학교 기본재산은 수원군 송산면·서신면·향남면 등 3개 면의 35만 평이 넘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었다. 이 가운데 송산면에 20만 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수원중학교는 1942년 12월 2층 벽돌의 본관(378평) 신축 이후 1946년 10월 시멘트 단층 건물(120평) 신축을 시작으로 1948년 2월 벽돌 단층의 동관(東館, 180평)으로 수원중학교 학급 증설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1949년 2월 1일 문교부장관 안호상 이름으로 수원중학교는 학급수 15학급, 학생정원 750명으로 학칙 변경을 승인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4. 수원중학교와 수원고등학교로 분리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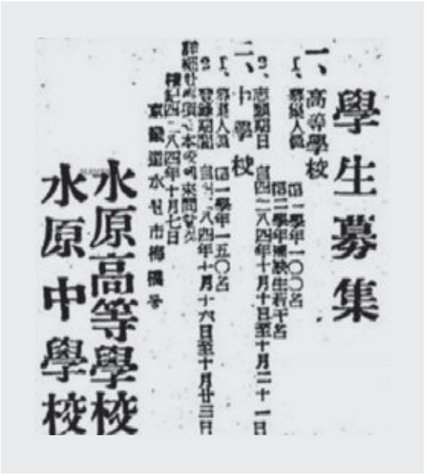
1950년 한국전쟁으로 수원중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1·4후퇴 당시 중공군이 수원을 점령하자 수원 사람들은 대거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시 1월 말 미군이 수원을 재탈환하였음에도 학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951년 6월 매향여자중학교는 학생 30여 명을 겨우 모아 놓고 종로교회 임시교사에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삼일중학교도 개학 예정이었지만 학생이 채 1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아 개교식을 연기할 지경이었다.[7] 종로교회에서 임시 개교한 것은 매향여자중학교와 삼일중학교 학교 건물을 유엔군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종로교회에서 임시로 개교를 하였는데, 그나마 삼일중학교는 남학생들이 모이지 않아 개교식을 연기할 정도였다.

전쟁으로 학생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중고등학교는 1951년 10월 학생모집 광고를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는데, 수원고등학교 모집인원은 1학년 100명, 2학년 보결생 약간 명, 그리고 수원중학교는 1학년 150명을 모집하고자 했다. 전쟁으로 인한 학생 부족 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학제 개편에 따라 수원고등학교와 수원중학교가 분리된 것을 광고를 통해 학교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2년 2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졸업식이 다가왔다. 이 해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누어지고 학기말이 3월로 결정되면서 한 학교에서 중학교 졸업반과 고등학교 졸업반이 생겨 졸업생과 재학생의 기분이 야릇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 기간이어도 졸업앨범과 졸업기념품이 만들어졌고, 졸업은 즐거운 일이었다. 평화 시절처럼 졸업식 날엔 어김없이 꽃다발도 나타났다.

그러나 1952년 12월이 되어도 서울의 피난민들은 서울로 가지 못하였다. 이에 한강을 경계로 서울로 올라가지 못한 피난민들이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초등학생들을 위해 '서울피난민종합국민학교'가 수원에서 운영되었다. 이들 피난민 아동 1,400여 명은 19개 학급으로 나누어져 파괴된 수원중학교 강당을 비롯한 여러 분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는 피난민종합국민학교 김종태(金鐘泰) 교장의 적극적인 주선과 아동들을 총동원하여 토막교실 4개소를 신축하여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난방시설이 없어 추운 겨울을 나기가 어려울뿐더러 피난민들인 까닭에 사친회비를 못내는 아동들이 20%가 넘는 상황이었고, 결식아동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다.[8]


學生募集
一、高等學校
二、中學校
水原高等學校
水原中學校

학생모집 광고(『조선일보』, 1951년 10월 13일)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중 수원중학교에는 서울 피난민 국민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즉 1951년 10월 수원중학교 별관에서 개교한 '피난종합초등학교'에 5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 1954년 3월 31일 피난학교를 해산하고 학생 약 100명은 서울로 복귀하고, 나머지 400여 명은 수원 시내 국민학교에 분산 편입시켰다. 교원도 10명 중 4명은 수원 시내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하고 나머지 6명은 서울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9] 이에 따라 1954년부터 4월부터 수원중학교도 정상화될 수 있었다.

다행히 수원중학교는 전쟁의 피해가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강당의 일부가 파괴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삼일중학교와 북중학교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수원북중학교는 전란으로 소실된 교사 복구를 위해 수원 제5공군의 원조자재와 500만 환의 예산으로 3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1954년 7월 20일 낙성식을 거행하였

다.[10] 삼일중학교도 전란으로 파괴된 교사 복구와 13개 교실을 신축하여 1954년 10월 30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수원중학교도 1954년 11월 시멘트 단층의 북관(北館, 234평)을 신축하였고, 다시 1959년 5월 시멘트 단층의 남관(南館, 186평)을 신축하고 다시 1961년에는 2층으로 신축하였다. 이로써 전쟁의 복구가 끝나고 안정을 되찾으면서 수원을 대표하는 사학 명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수원중고등학교 건물 신축 현황

번호	시기	구조 및 명칭	건평
1	1942.12.30.	벽돌 2층 本館	378
	1942.12.30.	흑벽돌 변소(교사용)	4
	1942.12.30.	흑벽돌 변소(학생용)	14
2	1946.10.25.	세멘트 단층 구조	132
3	1948. 2. 3.	벽돌 단층 東館	180
	1948. 2. 3.	창고	28
	1948. 2. 3.	숙직실	8
4	1954.11.30.	세멘트 단층 北館	234
	1954.11.30.	창고	10
	1954.11.30.	매점	6
5	1959. 5.13.	세멘트 단층 南館	186
	1959. 8.30.	콘셀 체육관	80
	1959. 5.13.	변소	12
6	1961. 7.30.	세멘트 2단층 南館	
	1963. 7.30.	식당	26

5. 지역사회와 함께하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고 수원시청이 매산로에 자리 잡으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수원시청을 가까이 두고 있는 교동과 매교동은 기존의 성 밖이라는 시골이미지에서 벗어나 행정의 중심지를 가까이 둔 살기 좋은 구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수원 읍내를 가르는 상징적 공간이었던 매교는 수원시청의 행정적 영향력에 더하여 1960년대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과 더불어 매산로 일대와 매교동 일대를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급격히 변모시켰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수원고등학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쟁 이후 전국적 현상이지만 수원중고등학교는 안정되어 갔다. 교실을 증건하고 과학실과 도서관을 정비하면서 학교가 정상화되었다. 수원중고등학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학교로 성장하였다. 이에 서울로 유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도 입학하기 어려운 명문학교였다. 사학이면서 그 지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다. 대개의 경우 공립학교로 시작하여 지역명을 학교 이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설립주체도 외국의 재단이거나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 지역유지들의 순수한 뜻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는 자부심에 더하여 실력 있는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학하는 수원중고등학교는 수원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다.

자율을 바탕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토론학습을 중심으로 한 선진교육은 각 학생들의 특기를 존중하는 민주교육으로 거듭났다. 교사와 학생들 스스로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수원중고등학교는 자유스러운 학교 분위기 속에 자율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전통에 힘입어 1960년 4·19혁명과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에 앞장선 수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권위주의적 박정희 정권





1965년 10월 15일 제2회 수원시민의 날 가장행렬 참가(수원고등학교 제공)

이 들어서면서 학도호국단이 결성되고 학교의 병영화가 추진되는 등 학원의 경직화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는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완전히 이전함에 따라 수원의 변화와 발전이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른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과 더불어 수원시민의 날이 제정되고 화홍문화제로 발전함에 따라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수원고등학생들은 시민의 날 행사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등 가장행렬을 조직하여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후 화홍문화제의 대표적인 주요 행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수원중학교 모내기 봉사활동
(수원고등학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78년 수원중학교 모내기 봉사활동(수원고등학교 제공)



1978년 새마을 거리청소(수원고등학교 제공)



1986년 제1회 매교동민의 날(수원고등학교 제공)



1989년 전국체전 역도경기장(수원고등학교 제공)



1987년 수원청년회의소 축구대회(수원고등학교 제공)



2003년 물외한마당 참관하는 수원고 학생들(수원고등학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편 1970~1980년대 학도호국단 체제의 군사훈련과 새마을운동 등 관제 동원이 이루어졌다. 물론 지역의 행사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한 화홍문화제에 참여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농번기 모내기철에 일손을 돕기 위해 모내기 봉사활동을 하거나 수원천 정화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물론 학교 앞 교통질서 캠페인을 비롯한 청소 활동을 비롯하여 팔달산 정화활동도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중학교 수원천 정화활동(1976년), 광교 수해복구 지원(1977년), 새마을 거리청소(1978년) 등이 계속되었다.

수원중고등학교는 역도부와 축구부가 유명하였다.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학교를 넘어 수원의 자랑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힘입어 전국체전이 수원에서 개최되었을 때 역도경기장은 수원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게 하였다. 수원중고등학교 운동장은 매교동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도시민들의 일상이 지역과 매개되는 것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활용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대로 마을에 학교 운동장이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1972년 12월 겨울방학을 앞두고 수원고등학교가 수원시민회관을 임대해 음악과 연극 및 시화전을 열었던 송년예술제는 고등학교 축제문화의 효시가 되었다. 학교 단독으로 시민회관을 임대한 사례가 없었던 때라 다른 학교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물뫼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수원고등학교의 축제가 펼쳐지면 수원 전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함께 참관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6. 수원 교육에 헌신하다 : 홍사훈과 홍사운

수원중고등학교의 설립자 홍사훈과 영원한 교장 홍사운은 수원중고등학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양한 업적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이승을 하직하는 날의 사진을 통해 수원 지역에서 이들의 위상과 수원중고등학교 및 매교동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다.

홍사훈(洪思勛, 1891년 12월 1일~1965년 2월 12일)은 수원의 유지인 남양 홍씨 홍민섭(洪敏燮)과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실업 및 교육사업 등을 펼치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일제강점기 수원의 3대 지주로 손꼽혔는데,



수원고등학교 설립자 홍사훈(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1926년 화성학원 제20회 졸업기념)



1965년 2월 14일 설립자 홍사훈의 장례 행렬(수원고등학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용인군(66정보, 소작인 109명), 진위군(100정보, 소작인 141명), 수원군(383정보, 소작인 789명)에 걸쳐 전답 549정보에 소작인 1,039명을 거느린 대지주였다.[11]

1909년(융희 3)에 경성 보성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년 만에 중퇴하고, 1910년 11월에 수원상업강습소 법상과를 졸업했다. 학업을 마치고 남창교 건너편 남수동에 포목·모시·주단·모직 등 각종 직물류를 취급하는 '홍사훈상점(洪思勛商店)'을 경영하며 실업가로 입지를 굳혔다. 이에 1923년 수원청년회장을 거쳐 수원체육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에서 명성을 이어갔고, 이후 1931년 용수흥농주식회사 취체역, 1935년 서울의 경성택시 주주, 1936년 수원극장 대표이사, 1938년 만종원 대표이사를 지내며 수원을 대표하는 실업인이 되었다.

홍사훈은 교육에도 관심이 커서 1926년 2월 20일에는 운영에 한계를 들어낸 수원상업강습소를 단독으로 인수하여 화성학원으로 인가받았다. 1928년 화성학원 원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에 헌신했다. 특히 1934년 4월 퇴락해가는 화성학원의 교사 신축을 위해 건축비 5천 원을 단독으로 부담하였고, 1935년 10월 15일 신축낙성을 본 수원체육관 건립비로 거금을 희사하였다. 또한 경기도평의회원(京畿道評議會員), 수룡수리조합장(水龍水利組合長)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광복 후 홍사훈은 1946년 수원중학교를 설립하고, 1948년에는 수원중학교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화성학원을 창설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51년 학제 변경에 따라 수원중학교와 수원고등학교로 분리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수원의 사립 명문 수원중고등학교가 되었다.

홍사훈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남면 문학리로 거처를 옮긴 뒤 일체 외부활동을 끊고 은둔생활을 하다가 1965년 타계하였다. 홍사훈이 말년에 살았던 문학리 628번지 고택은 경기도 부농의 전통적 주거생활 양식을 보여 주는 가옥으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965년 2월 14일 매교다리를 건너고 있는 설립자 홍사훈의 장례 행렬(수원고등학교 제공)



1952년 홍사운 교장(앞줄 가운데, 수원고등학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74호(1985년 9월 20일)로 지정되었다. 홍사훈의 손자 홍승인에게 상속되어 '홍승인 고가(洪承仁 古家)'로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도예과 출신의 홍승인은 한국미술협회 경기도 지부장으로 활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조부 홍사훈은 "인자한 반면에 몹시 엄격하였고, 검약정신은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다."고 회고한다.[12]

1965년 2월 홍사훈의 장례 절차에 따라 노제가 수원중고등학교에서 거행되었다. 남수동 본가에서 학교로 오는 도중의 매교동 일대를 담은 사진이 남아 있다. 장엄한 장례 행렬은 홍사훈을 비롯한 남양 홍씨 가문의 위세를 당당히 보여 주고 있다.

홍사운(洪思運, 1906년 7월 8일~1979년 6월 9일)은 홍건섭(洪健燮)의 아들로 태어났다. 원래 홍명섭(洪明燮)·홍건섭(洪建燮)·홍민섭(洪敏燮) 3형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갓집을 의탁하였는데, 이들이 성장하면서 둘째 홍건섭과 막내 홍민섭이 먼저 큰 재산을 모았다. 이후 이들은 큰형 홍명섭을 도와 함께 수원의 거부가 되었다.

홍사운은 1925년 서울 중동중학교 본과(5년)를 졸업하고 일본 동양대학교 철학과를 1931년 3월 졸업하였다. 일제강점기 엘리트 교육을 받은 홍사운은 고향 수원으로 돌아오





1979년 6월 11일 홍사운 교장 영결식(수원고등학교 제공)

자마자 교육사업에 헌신하였다. 당시 수원에는 제대로 된 중등교육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2년제 야학의 수원중학강습소를 설립하여 5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여 1931년 10월 개학하였다. 홍사운은 홍길선·홍사근·홍사성 등 남양 홍씨 이외에 수원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수원의원의 신현익과 운곡의원 이완선 등과 함께 운영하여 당시 언론으로부터 민중적 교육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34년 3월 중등강습소는 폐지되었고, 1932년 4월부터 사촌형님인 홍사훈이 운영하던 화성학원교사로 복무하였다. 1939년 3월부터 화성학원 원장의 중책을 맡았고, 1941년 수원상업학교가 인가되면서 교장으로 복무하였다. 1943년 매교동 교사 신축과 학교 이전을 주관하였고, 이후 1978년 수원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9년간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수원중고등학교의 영원한 교장 선생님이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每日新報』 1941년 3월 30일.
2 「수원상업전수교 27일 개교식 거행」, 『每日新報』 1941년 5월 2일.
3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수원중학교원 총사직」, 『해방일보』 1946년 4월 15일.
4 「수원중학교 기부」, 『재단설립인가』, 화성학원, 1952.
5 「水中, 재단확보코 승격」, 『동아일보』 1946년 9월 17일.
6 「화성재단인가 계기로 기념관 신축과 대운동장 착수」, 『동아일보』 1948년 10월 12일.
7 「매향여중 개학」, 『조선일보』 1951년 6월 17일.
8 「鬪食兒童이 3할, 수원의 서울피난민학교」, 『조선일보』 1952년 12월 2일.
9 「피난국민학교 해산」, 『조선일보』 1954년 2월 19일.
10 「수원북중 교사낙성」, 『조선일보』 1954년 7월 24일.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名簿』, 1985, 108쪽.
12 수원상공회의소, 『水原商議史』, 1986, 1654~1655쪽.

제4부

梅橋洞의 시장과 상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 매교시장의 형성과 변화

제2장 | 엔지니어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 매교동 공구상가

제3장 | 매교상가의 설립과 변천

수원시에서 수원천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 수원천 인근에 판자촌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몰리자 판자촌을 중심으로 노점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매교동 쪽에서 장사하던 노점 상인이 100여 명도
더 넘었다고 말하는 매교동 주민의 구술로 미루어,
매교동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동네였음을 알 수가 있다.

송지영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조항인 강원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장 매교시장의 형성과 변화

1. 매교시장의 설립

수원 사람들에게는 매교시장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매교시장이 수원시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개설된 것은 1971년이지만, 수원 사람들에게 매교시장에 대한 기억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이후 수원천 인근에는 판자촌이 형성되며 거주자들이 증가하였다. 판자촌에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노점상이 모여들며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1970년대 시장 상가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매교시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남문의 영동시장만큼이나 번성했던 곳이 매교시장이었다. 하지만 매교시장의 화려했던 과거는 그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다.

안타깝게도 매교시장 상가건물은 사라졌고 당시 장사하던 상인들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졌다. 가게 네 곳이 남아서 과거 매교시장의 명맥을 잇고 있다. 매교시장 상가건물이 있었던 팔달구 정조로 687에는 매교시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연향예스빌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 매교시장 상가 부지가 매각되면서 점포들이 이전하였고 건물이 철거되었다. 한참 뒤 그곳은 아파트단지가 되었다. 매교시장 개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업 중인 가게로는 야채를 파는 광성상회, 남창방앗간, 병점기름집, 정남쌀상회가 있다. 이들 네 가게와 이전 후에 문을 연 형제정육점이 오늘날



1977년 매교시장(국토지리정보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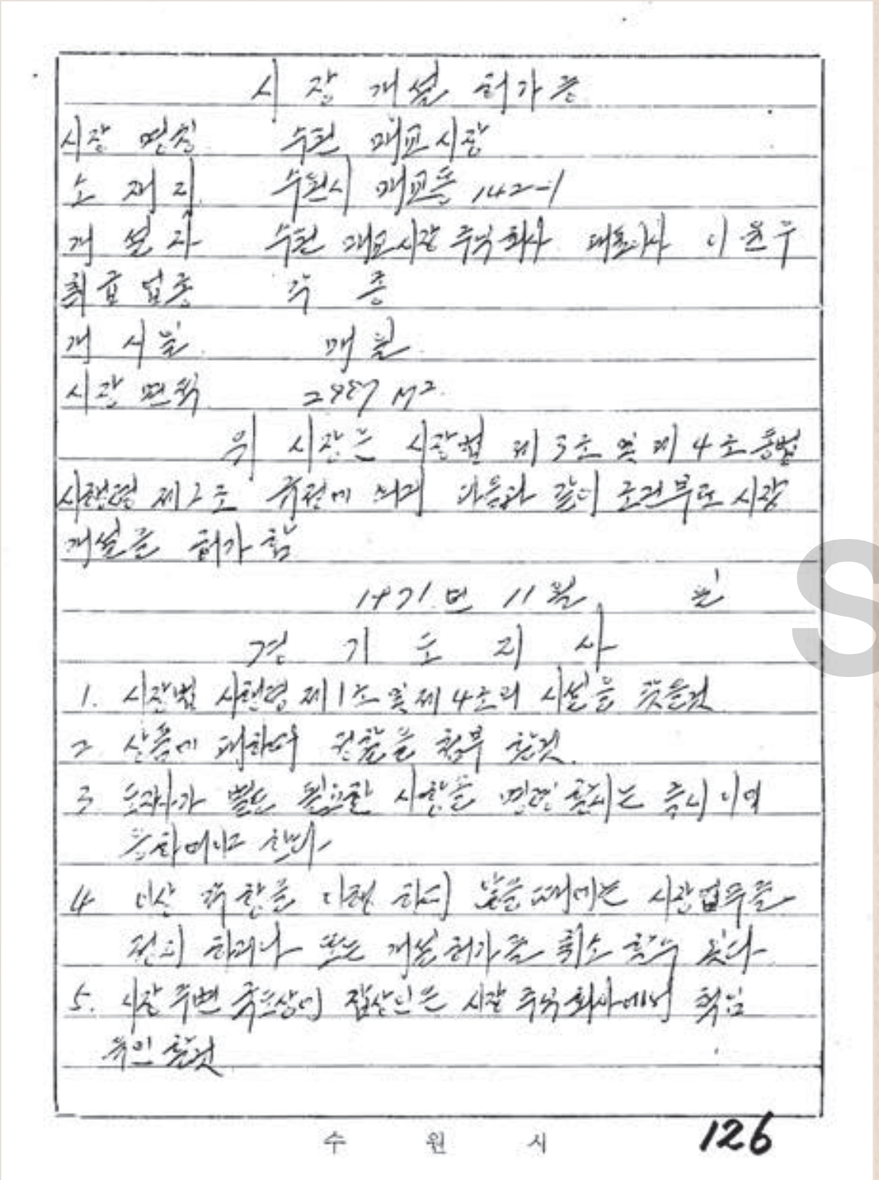
매교시장의 상권을 만들고 매교시장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을 뿐이다.

당시 매교시장의 설립과 이전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1971년 수원시가 생산한 '시장 개설 및 변경'에 관한 문서로 개설 당시 매교시장의 규모 정도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1971년 11월 27일 개설(허가번호 294) 당시 매교시장은 건물 형태의 상가였다. 수원시 매교동 142-1번지 2,897㎡ 면적의 대지에 상가를 건축하고 매교시장을 개설하겠다는 매교시장주식회사(이윤우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개설 당시 매교시장은 건평 2,427.44㎡의 2층 상가에 총 43개의 점포가 입점하는 상가로, 개별 점포를 상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곡물, 청과 및 채소류, 해산물, 주단 및 포목, 주류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였다. 개설 당시 매교시장은 15일과 말일만을 쉬고 매일 개시하였다. 상가 점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었고, 여름에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영업하였다. 수원시의 「시장 개설 허가」(1971년 11월 27일, 산업 1311-110155)에 따르면 매교시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관내에 산재한 시장이(영동시장, 지동시장) 협소한 관계로 화성군 일대에서 들어오는 상인 및 당시 거주하는 소매상인들이 매교권 부근과 매교 다리를 중심한 도로상에 운집하여 상행위를 함으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도청 소재지로써의 시의 면모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 무허가 상행위를 하고 있어 시장 개설이 요청되는바 상기 장소는 시장 개설지로서 필요한 위치로 사료됨.

수원시에서 수원천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 수원천 인근에 판자촌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몰리자 판자촌을 중심으로 노점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매교동 쪽에서 장사하던 노점 상인이 100여 명도 더 넘었다고 말하는 매교동 주민의 구술로 미루어, 매교동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동네였음을 알 수가 있다. 수원시는 매교시장주식회사가 상가에 입점한 점포 43개뿐만 아니라 좌판 20개와 노점 100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지역의 무허가 상행위를 정리하는 차원 이상으로 무허가 상인들을 공식 상권으로 흡수하고자 했던 수원시의 의도를 볼 수 있다. 매교시장주식회사가 수원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매교시장을 통해 "각 시장 주변에 산재한 노점 상인을 유치하여 도시 미화에 협조할 것이며 유통 과정의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개설 이후 노점 상인이 매교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매교시장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좌판과 노점이 다수 존재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시장 개설 허가증

시장 명칭 수원 매교시장
소재지 수원시 매교동 142-1
개설자 수원 매교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윤구
취급 업종 각 종
개시일 매일
시장 면적 2987 M²

위 시장은 시장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시장 개설을 허가함

1971년 11월 일

경기도지사

1. 시장법 시행령 제1조 및 제4조의 시설을 갖출것
2. 상품에 대하여 정찰을 첨부 할것.
3. 도지사가 별도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이상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업무를 정지하거나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시장 주변 국도상인 잡상인은 시장 주식회사에서 책임 유인할 것

수 원 시 126

시장 개설 허가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교시장(수원상공회의소 제공)

문서는 수원시에서 생산했지만 매교시장 설립 허가는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발급되었다. 경기도지사는 매교시장 개설을 허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1. 시장법 시행령 제1조 및 제 4조의 시설을 갖출 것
2. 상품에 대하여 정찰을 첨부할 것
3. 도지사가 별도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이상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업무를 정지하거나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시장 주변 국도 상인, 잡상인은 시장주식회사에서 책임 유인할 것

1969년 9월 29일부터 대통령령 제4081호로 시행된 시장법시행령 1조는 소방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과 오물처리장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 구역의 도로를 포장해야 하고 건물의 채광과 환기 설비를 갖춰야만 하였다. 4조에 따르면 화기(火器)를 사용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방화벽으로 구획된 점포 내에서만 영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매교시장주식회사가 이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준수했을지는 알 수



1973년 매교시장 입구(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수원천(매세교)에서 바라본 매교시장(1973년, 수원박물관 제공)
매교다리와 새마을교가 보이고, 이화직물 좌측에 매교시장이 있다.

SRI 수원 SUWON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매교시장 이용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매교시장 건너편 정류장 풍경(수원박물관 제공)
현 백겸전통창호공방 건너편 모습으로 대명양복점은 매교동 214번지에 위치하였다.

없지만, 당시 시장 상가건물에는 시행령에서 언급한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보기 힘든 정찰제를 실시하라고 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경기도지사는 시장 주변의 미등록 상인에 대한 책임도 매교시장주식회사에 맡겼다. 이를 통해 수원의 다른 시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노점상 단속 등이 매교시장에서도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광성상회를 운영 중인 성홍구(남, 79세)는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해서 살다가 1975년 직장을 따라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그가 수원에 이주할 당시 매교시장은 성업 중이었다. 1975년 당시 매교시장의 점포수는 118개였다. 수원으로 이주한 후 성홍구는 두산기계에 근무하였으며, 성홍구의 부인은 1980년 무렵부터 매교시장에서 광성상회를 개업하고 야채를 팔기 시작하였다. 1990년 지금의 자리로 가게가 이전하면서 성홍구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광성상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매교시장은 아주 장사가 잘되었다.

성홍구 그때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이 진짜 저 영동시장 마냥, 저녁때, 저녁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엄청 많았었다고. 진짜, 그 경계 골목이 좁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한테 밀려서 가다시피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고. 장사가 잘됐어.

당시 매교시장 상가는 점포수가 많았고, 상가의 위치도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찾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70~1980년대 수원은 삼성전자, 선경직물 등 제조업 시설이 수원에 집중되어 인구수가 많다 보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2. 매교시장의 이전

번성했던 매교시장은 이전 과정을 거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매교시장주식회사가 상가건물 밑 부지를 슈퍼마켓 체인점인 나드리유통(대표 윤영택)에 매각하게 되면서 가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982년부터 남창방앗간을 운영해 오고 있는 박석준(남, 68세)에 따르면 이곳 상가건물이 헐리고 아파트와 복합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고 한다. 상가건물이 다른 곳에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매교시장이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성홍구(남, 79세)는 "그 할라고 하면 이야기가 길어."라며 내력을 들려 줬다.

성홍구 옛날 그쪽에 매교시장 사장이 있었는데, 이윤우라고 있었는데, 그 시장을 땅을 팔아먹었어. 땅을 팔아서, 그 사람도 사기당한 거야. (중략) 우리가 알기로는 나드리 사장, 나드리 사장. 근데 그 사람들한테 땅 팔라고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땅을 팔고, 근데 그 나드리도 뭐 한 10년 간 땅을 묵혀 놨었어. 그때 시장. 그래 갖고 떠 아파트 들어선 지는 한 10년? 10년도 안 될 거야.

엄순용(남, 57세)은 수원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가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합병되면서 퇴직한 뒤 정육점을 인수해서 23년째 운영하고 있다. 개설 당시 매교시장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수원 사람인 그는 번화했던 매교시장을 직접 보며 자랐다. 엄순용의 할머니는 밭에서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갖고 나와서 매교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엄순용은 매교시장의 이전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엄순용 나드리유통이라고 그 회사가 시장을 없애면서 시장을 새로 만든다고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도가 나서, 결국은 다 못 들어가고 일부만 여기 이제 이게 상권을 몇 개를 만들어서 매교시장이 형성이 된 거지. 현대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결국은 시장 상인들이 돈을 많이 묻기고 뿔뿔이 흩어진 거지. 일부 몇 명만 이쪽에 따로 만든 거지.

나드리유통에 매교시장 부지가 매각되고 개별 점포들이 이전하고 상가가 철거된 뒤에도 오랜 기간 아파트와 종합상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 연향에스빌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오랜 기간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나드리유통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1991년 10월 부도(「나드리유통 5억 부도」, 『매일경제』 1991년 10월 11일) 처리되면서 종합상가 개발이 무기한 연기되며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윤우 대표가 매교시장 부지를 나드리유통에 언제 매각했는지, 상인들의 이주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상가건물이 나드리유통에 매각된 뒤 상인들은 1990~1991년 새마을교 건너편 매교동 136번지 주변으로 점포를 이전하였다. 이곳은 판자촌이었으나 하천을 따라 도로를 정비하면서 빈 땅으로 남아 있었던 곳이었다. 매교시장 상가에 있던 모든 점포가 이전하지 못하였다. 이주 과정에서 원래 있던 점포의 3분의 1로 줄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무리한 사업확장이 禍根

「나드리유통」 不渡배경과 波長

수퍼체인업계에서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던 나드리유통(대표 尹英澤·37)이 주저앉고 말았다.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계획했던 상가분양이 차질을 빚어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를 낸 것이다.

지난 4일 상업은행 원효로지점에 돌아온 2억8천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낸 이후 10일까지 5억6천만원의 부도를 냈다.

회사측은 부채가 은행부채 75억원을 포함해 3백억~4백억원인데 비해 자산

焦点

양·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급속히 확장해 왔다.

88년 6월 나드리유통을 설립, 11월 구로동 나드리쇼핑을 전면 개관한 후 부천 나드리월드쇼핑, 올들어 5월에 인천 나드리프라자쇼핑 등 대형상가를 잇달아 개관하고 슈퍼마킷체인도 급속히 확대시켜 왔다.

이로써 매출액이 90년 2백억원에서 올해는 1천2백

분양한 상봉동·전농동 쇼핑센터분양도 절반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지난달말 발표된 청와대 직원 사칭 사기꾼에게 속아 대출을 받으려다 막대한 자금을 떼이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길이 막히고 사채조달조차 어려워지면서 부도를 맞고 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측은 부도발생에 따라 최근 인천의 나드리프라자 점포를 폐쇄하고 신

不動産경기위축영향 상봉동등 商街분양 차질

대출·私債조달길마저 막혀 사태수습 어려울듯

은 1천억~1천2백억원에 달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면서 어음결제요구를 당분간만 유보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기업등 채권자들은 나드리유통의 부채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사태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75년 여수수산대학을 졸업한 尹英澤사장은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어 유통에 뛰어들어 거의 폐허로 방치된 수도권 외곽지역시장을 현대식 상가로 재개발, 분

억원을 내다보게 됐다.

나드리는 이러한 속도로 계속 출점, 93년까지 상봉동 전농동 등 외곽지역과 수원 안산 성남 등 서울 위성도시에 대형쇼핑센터를 7개로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부동산을 야심적으로 확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건설붐과 함께 신도시 商街분양이 폭주하고 超土稅부과를 피하기 위한 빌딩건축붐에 따른 상가분양이 늘면서 상가가 나드리측의 계획대로 분양되지 않았다.

92년 개관 목표로 최근

축중인 부천 수원 등의 공사도 전면 중단했다.

이로써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세실적 98위(신고소득 6억7천1백만원, 납세액 3억2천5백만원)에 랭크되면서 급부상하던 나드리유통의 尹사장 신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부동산을 매개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온 여타 기업들의 시련을 예고해 주는 것으로도 보인다.

<金石源기자>

수원 등에 대형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던 나드리유통의 부도(『매일경제』 1991년 10월 11일)

이주 당시 매교시장에 있던 점포 전체가 이전할 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초에도 수원천 주변에 무허가 판잣집이 많다 보니 매교시장에 있던 모든 점포가 이전할 장소가 매교동에는 마땅치 않았다. 기존의 매교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야 하니 더 어려웠다. 일부 상인만 원래 있던 시장 자리에서 새마을교 건너편 매교동 136번지 일대로 이주하였다. 매교시장 상가 주인의 자손이 소유했던 부지에



1991년 매교시장 화재(『한겨레』 1991년 9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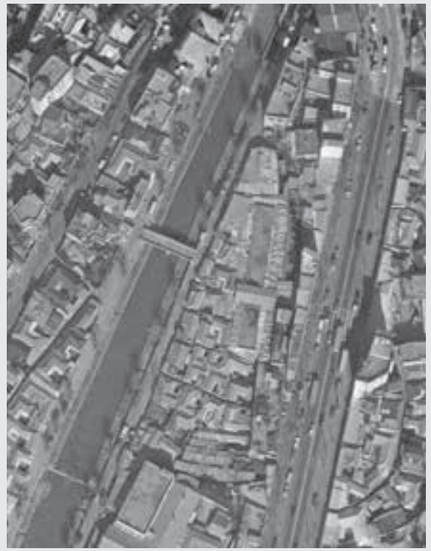
가건물을 세워서 상인들에게 임대하기도 했지만, 60여 점포 전체를 다 흡수할 수는 없었다.

성홍구 그만둔 사람도 있고. 딴 데로 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거진 1/3 정도는 일루 왔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하다가 발전이 없으니까 다 그만들 두고. 말이 근데 매교시장 형성이, 그쪽 사람들이 매교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매교시장, 매교시장 하는 거지. 지금 보다시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다 없어졌어.

박석준 이 사람아 장사라는 게 가게가 있어야지 장사를 하지. 가게가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해? (중략) 점포가 좁아서, 이것도 간신히 가건물 아니야. 가건물 짓고 있고 간신히 들어온 건데 장사가 자기 점포가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건데 점포가 없이 무슨 장사를 해. 그러니까 점포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졌지.

박석준은 상인들이 이전할 수 있는 마땅한 점포가 시장 인근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계기로 매교시장 상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물론 가게를 옮긴다는 일도 상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방앗간 이사를 예로 들며 "이사하는 게 만만치 않아. 기계 설비를 봐. 몇 천 만 원짜리 해 놓고 어디 맘대로 이사를 가."라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0년 매교시장



1993년 사라진 매교시장
새마을교 너머로 점포를 이전한 모습이 보인다.



2002년 폐허로 방치된 매교시장 터



2003년 매교시장 자리에 세워진 연향아파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상인에게 점포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방앗간의 경우 점포에 설치해 둔 방아기계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끌어오는 데도 몇 백만 원 씩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게 이전 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남창방앗간은 당시 매교시장 상가가 매각되자 지금의 자리(정조로 709번길 35)에 가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 올 수 있었지만, 모든 상인에게 점포 이전 문제는 쉽지 않은 큰일이었다.

매교시장 각 가게의 매출은 이주한 뒤에 상가건물에 모여 있을 때보다 크게 줄었다. 60여 개의 점포가 3분의 1 규모로 줄어서 전체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서부터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전 장소의 상권 자체가 과거와 달랐다.

성홍구 저쪽은 시장 고객이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이리 오지만 여기는 교통이 불편하잖아. 거기에 비하면……

개설 당시 매교시장 상가가 있던 장소는 버스정류장에서도 가깝고 대로변에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상권이 좋았던 반면, 지금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입지도 좋지 않았다. 게다가 가까운 남문시장의 상권이 발전하면서 매교시장을 찾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곳의 상인들은 매교시장을 찾던 사람들이 영동시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매교시장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수원천 복개사업 및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일부 점포가 문을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서 이전 당시 새마을교 인근으로 이전한 일부 점포 8~9곳이 또 문을 닫았다.

엄순용 여기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그거는 도로가,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 옆으로 가게들이 쭉 있었어. 그거 다 허물어 버린 거지. 그 옆에 보면, 그 옆에 보면 기름집 있지. 기름집에서 저 밑으로가 도로 쪽에 시장이 쭉 있었어. 그게 이제 없어진 거야. 도로가 나면서. 그래서 이쪽에 몇 개를 져서 이쪽으로 난 내려온 거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 도로가 미를 들어 3미터 도로였다. 그러면 이게 9미터 도로가 되니까 이쪽으로 한쪽으로는 싹 없어진 거지. 그 옆에 담벼락으로 해 갖고 집, 하나 지은 거 있잖아. 그쪽이 어떻게 보면 상가가 8개, 9개가 있었던 건데 싹 없어진 거지.

엄순용에 따르면, 옛날 가게들 중에서는 가게 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된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경우 수원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영업을 지속할 수도 있지만, 매교시장의 사례



새마을교 너머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포(김승일 제공)

처럼 도로 개발로 점포에 포함된 시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매입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 및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 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되면서 점포가 철거되자 상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가 없었다. 당시 새마을교 인근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이전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매교시장 개설 당시부터 영업해 온 상인들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은퇴를 고려할 나이가 되어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상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현업에서 은퇴하게 되면서 상가 규모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 결국 매교시장은 점점 더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처음 복합 상가건물에서 이주한 열댓 집 있던 장소에서 8~9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매교시장이 소멸된 것이다.

엄순용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연로하셨어. 연로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야채가게나 기름집 이런 집들은 최하 40년 이상 된 집들이야. 뒤에 고추방앗간 있지? 거기도 한 50년 됐고. 다 그렇게 됐어 오래된 집들이. 그 다음에 여기 공구상이 쫙 있잖아. 여기도 다 오래된 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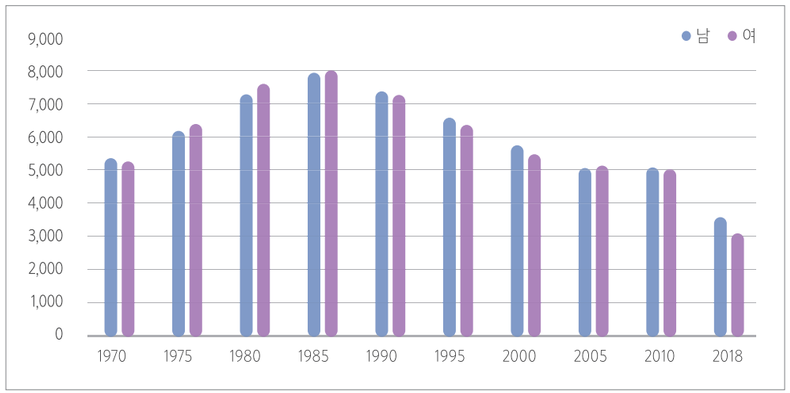
성홍구는 매교시장 상가건물에서 장사할 때보다 점포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이전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괜찮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뭐야. 사람들이 점포가 많았을때는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점포가 하나, 둘 줄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없고. 여기 사람 없어."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한다고 인근 주택이 철거되고 주민이 이전하면서 인구수마저 줄었다.

표 1 1970~2018년 매교동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남	여	계
1970	5,390	5,300	10,690
1975	6,200	6,392	12,592
1980	7,326	7,626	14,952
1985	7,980	8,059	16,039
1990	7,408	7,318	14,716
1995	6,599	6,397	12,966
2000	5,761	5,523	11,284
2005	5,080	5,166	10,246
2010	5,059	5,039	10,098
2018	3,571	3,139	6,710

출처 : 통계청(1971~1985, 2005~2010),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71~2019; 2018년 자료는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1970~2018년 매교동 인구 변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 **2018년 월별 매교동의 인구수 변화**

(단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1,395	11,194	10,715	8,904	9,538	9,15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820	8,567	7,401	7,125	6,928	6,710

출처 :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표 1〉과 〈표 2〉를 보면 매교동 인구수는 매교시장이 번성했던 시기에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8년에 급격하게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매교동 인구수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에 '수원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26일 수원시 고시 제2010-189호로 정해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매교동 209-14번지 일대를 재개발하여 16만 3,781㎡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603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원아파트에서 수원중고등학교까지, 매교시장과 매교동사무소 뒤편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2018년부터 이주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성홍구 즉, 말하자면 여기는 서울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니. 여의도, 여의도. 뺑 둘러서 철거 다 되고. 뺑 둘러서 철거 다 되고. 요 아래 다리 문화맨션 다리 알아? 저 다리. 절루 뺑- 돌아서 이촌택병원 알지? 그 뺑- 돌아서 그러니까 저 연향아파트. 우리가 뺑 돌아가면 섬으로만 남아 있다고 보면 돼. 섬.

성홍구는 현재 광성상회 인근 지역을 섬에 비유하였다. 현지조사 당시 가게 주위 경관이 다른 상가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여러 점포가 집중되어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포 일부가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매교시장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졌다는 것을 오늘날 지역 경관이 보여 주고 있었다.

엄순용에 따르면 지금 가게가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라 재개발공사를 하려면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주거지역은 70%만 동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상업지역은 건물을 짓게 되면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100채 중 99채를 매수해도 1채를 매수하지 못하면 개발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상업지역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엄순용이 경영하는 형제정육점 주변 지역도 개발을 시도하고자 했던 두 팀 정도가 있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하였다.



빌라로 둘러싸인 광성상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엄순용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안 돼. 상업지역을 공사를 하려면 100프로 동의를 해야 돼. 그런데 주거지역은 내가 70%만 도장을 받으면 30%는 그냥 법적으로 밀어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은 용적률. 건물을 짓게 되면 용적률이 100% 올라가는 데야.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은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이 백 평이면 70평밖에 못 져. 여기는 백 평이면 백 평 모두 올라갈 수가 있어. 이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려다가 홀딱 망하고 가는 게 뭐냐면 이쪽에 내가 백 집을 했어. 백 집이 아니라 99집을 했어. 그런데 한 집은 안 해. 그런데 한 집을 안 하려면 돈 이 빠이 줘야 할 거 아냐. 그러면 그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뽀족이 나.

매교동 인구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인 '수원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2016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면서 매교동에 전출자가 증가하며, 전체 인구수가 감소되자 가게 매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형제정육점과 현우상회

엄순용 그전에는 여기가 어르신들이 살았던 동네라 장사는 괜찮았지. 어르신들은 백화점 같은 데 안 가고 시장을 찾아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래, 아파트로 다 때려 부수는 바람에 윈님층이 다 없어졌지. 이제 3년이 지나야만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를 해야만 좀 괜찮아지는데 지금은 뭐가 없잖아. 여기만 빼놓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 아무래도 이제 뺑 둘러 가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게 1만 세대가 넘게 들어서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 길 건너 향원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향원아파트서부터 수원중고등학교 뒤까지가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쪽에 7천 몇 백 세대가 들어서는 거고 여기 삼천 세대가 들어서면 한 만삼백 세대가 동시에 들어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공정률이 90% 정도는 때려 부웠잖아.

엄순용은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가 완공되어 신축 아파트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그가 경영하고 있는 형제정육점뿐만 아니라 매교동 상권이 예전처럼 다시 활력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함께 생기는 상업시설을 고려하고, 아파트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부담을 고려한다면, 그 옛날 번성했던 매교시장의 모습을 과연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이곳의 상인들은 지역 원룸의 주요 거주민인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새로 찾는 손님도 있지만, 단골손님들 위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매교시장 초기 시절부터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는 상인들은, 당시 거래하기 시작한 손님들이 여전히 계속 오기도 한다고 하였다. 매교동 인구수가 감소했어도 가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단골거래 덕분이었다.



남창떡방앗간

오늘날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을 통한 거래는 접근성 및 브랜드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반면, 전통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물론 이 두 사례 모두 점포가 집중되어 있고 및 거주 및 유동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일정 규모의 상권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만족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즉, 오늘날 매교시장은 상가가 축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기보다 과거에 형성된 단골관계 및 상인의 사회관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엄순용 나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만약에 내가 뭐 나이를 많이 더 먹었거나 아니면 여기만 바라보고 이 매교동만 바라보고 장사했으면 벌써 문 닫았지. 그런 게 있어.

엄순용은 외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가게를 찾기도 한다고 하였다. 남창방앗간을 찾는 단골손님 중에는 개업 때부터 지금까지 남창방앗간을 이용하는 손님도 있다. 매교동에서 이사 가서 거리가 먼 이목동에서 차를 타고 일부러 오는 손님도 있다. 세월이 흘러 연로해진 손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는 바람에, 자녀의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박석준의 부인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기름을 짜거나 고추를 빻는 것은 '신뢰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집과 단골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거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성상회 역시 단골손님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한다. 광성상회의 단골손님들도 가게 근처 건영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 이사 간 사람까지 다양하였다. 아마도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가게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하다. 정남쌀상회는 단골손님들이 주인 대신 가게를 봐줄 정도로 관계가 돈독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조창인 여기 와서 사장님 없으실 때는 가게도 봐주시고 그러세요?

이성순 지금 봐주잖아.

조창인 손님 오실 때는 대신 팔아도 주시고?

이성순 못 팔지. 모르는 거은 못 팔고. 파는 건, 아는 건 팔고 그러지.

23세에 매교동으로 시집 와서 90세가 될 때까지 매교동에서 살고 있는 이성순은 주인 없는 정남쌀상회에서 다른 두 어르신들과 담소 중이었다. 이성순은 정남쌀상회 근처에서 살았고, 다른 여성들은 가게에서 떨어진 곳에서 산다. 그녀들은 이곳을 매일 찾는다고 하였다. 주인장 없는 정남쌀상회에 모여 있던 이들은 "말 되는(소문 만드는) 말은 절대 안 한다."고 웃으며 노인정보다 이곳에서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하였다. 24년 전 정남쌀상회 주변에 도로 공사로 인근의 주택들이 철거되면서 지역민들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 정남쌀상회는 여전히 동네사람들이 찾는 소중한 마실 장소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매교시장의 현재

이제 더 이상 매교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홍구는 매교시장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기 때문에 매교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매교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석준도 오늘날 이곳을 두고 매교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박석준 아니 지금 매교시장이라는 데는 다 없어졌어. 거의 없어지다 시피 한 거야. 가게 전체 열두세 개였는데 지금은 세 개뿐이 안 남았잖아. 나도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 중의 하나고, 여기 야채가게 하나하고, 그 뒤에 그 사람도 원래, 그 사람도 매교시장 사람이 아니야.

매교시장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었던 가게 중 오늘날까지 남아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는 광성상회, 남창방앗간, 정남쌀상회 세 곳이다. 상가가 이전해 오면서 상인들끼리의 관계도 변하였다. 과거에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상인들끼리 봄가을로 1년에 두 번씩 관광을 가기도 하였다. 관광버스를 두 대나 부를 정도로 대규모 여행단이었다. 마음 맞는 상인들끼리 친목회도 있었다. 성홍구도 친한 상인들과 친목회를 하였다. 15명 정도 회원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댓 명 살아있다고 아쉬워하였다. 그들 중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성홍구가 유일하다. 매교시장 상인들은 가게를 이전한 뒤에도 한동안 상인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인이 줄고 시장이 사라지다시피 한 뒤로 이런 모임도 사라졌다.

성홍구 이제 하나 둘 떠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

박석준 매교시장만 할 적에는 상인회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몇 년 안 하고서 다들 나가니까. 다 이사들 가고 각자 떠어져 버렸어. 연세 들어서 안 하고 보니까.



광성상회와 병점기름집

매교시장이 겪어 온 변화만큼이나 사회도 많이 바뀌었다. 남창방앗간을 운영하는 박석준의 부인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떡을 많이 맞췄다고 하였다. 집에서 잔치하는 경우가 많아 떡을 찾는 손님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잔치도 줄었고 뷔페식당에서 하다 보니 가정에서 떡을 맞추는 일이 줄었다. 뷔페식당은 공장에서 떡을 맞추니 떡을 찾는 손님은 점차 줄었다.

매교시장은 여러 부침을 겪어 왔지만 개별 상인들은 변함없이 한결 같다. 지난 여름부터 공구시장과 함께 매교동상가연합회로 흡수되어서 상인들은 다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석준은 매교동상가연합회가 "우리를 끼어 준 거"라고 하였다. 엄순용은 "여기가 결국은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사실은 이쪽하고 같이 뭐 엮어서 상인회를 만든 거지."라고 하며, 최근에는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광성상회의 성홍구는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만 쉬고 1년 내내 광성상회의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수원시 권선동에 위치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직접 야채를 사온다. 6시 30분 정도에 가게에 와서 야채를 손질하고 저녁 7시 정도까지 영업을 한다. 단골손님만으로 운영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홍구 여기 나오면 편하지. 몸은 조금 고되지만은 마음은 편해. 집에서 바깥에 잘깐 바람 쐬졌다가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 보고 누워 있고. 그것밖에 더해? 사람이 게을러지고.

계속 이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냐고 묻자, 그는 "몸 닿는 데까지는" 이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였다. 장사를 그만둔 또래 친구들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일을 놓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남창방앗간은 최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름짜는 일은 박석준 부부가 주로 맡고 이들의 작은아들이 떡을 맡았다. 기특하게도 작은아들이 떡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대를 이어 남창방앗간을 잇고자 하고 있다. 남창방앗간의 하루는 박석준의 작은아들은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해서 떡을 만들고 박석준 부부는 8시 30분쯤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함께한다. 이들은 남창방앗간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려고 시도 중이다. 매교동에 아파트단지가 완공된 뒤 매교시장의 제2의 번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0년대에 이르면 주요 산업체들이 수원 일대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에는 경기도청 이전과 함께 행정기능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시설들과 다량의 도시시설이 입지하게 되었다.

정민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
이경묵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전문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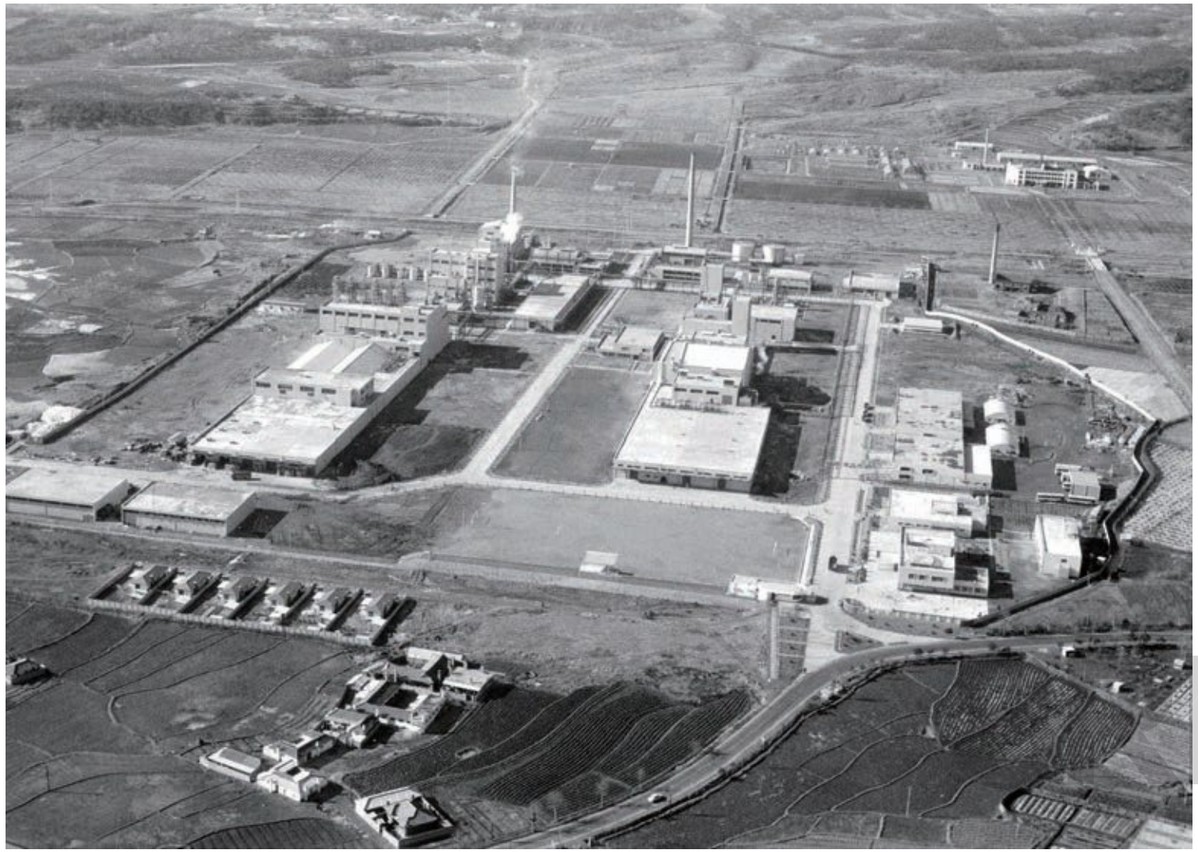
2장 엔지니어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 매교동 공구상가

1. 산업화 시대의 수원

공구는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는 기구(器具)나 연장을 의미하는 말이다. 망치, 펜치, 드라이버, 스패너 등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구 중 하나이다. 매교동에 위치한 공구상가는 전문 공구들을 취급하고, 제작하고, 판매 및 AS까지 이루어지는 멀티 공구 거래소이다. 지금은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구천동 공구상가와 더불어 경기 남부 지역 곳곳에서 손님들이 찾아 올 만큼 큰 거래처였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매교동 공구상가가 형성된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날 매교동 공구상가의 모습까지 기술한다.

1960년대 이전에 수원시 산업의 중심은 농업이었다. 수원화성과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토지는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1937년 수원시 전체 인구 중 농업 종사자수가 67.5%였으며, 1940년대에도 68.5%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도 1949년에 이르러 간신히 인구 5만 명을 넘겼다. 이처럼 1950년대 이전까지 수원은 전형적인 농촌형 소도읍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면 주요 산업체들이 수원 일대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에는 경기도청 이전과 함께 행정기능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시설들과 다량의 도시시설이 입지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직물업 등의 제조업이 점차 수원시의 주



1972년 이목동 선경합섬(국가기록원 제공)



1976년 삼성전자 진입로(수원박물관 제공)

요 산업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섬유산업은 1960년대 이후 수원시 제조업의 중심축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SK그룹의 모태 기업인 선경직물이 크게 성장하여 제품을 해외까지 수출하면서 수원시는 섬유산업 중심 지역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975년에는 한일합섬이 수원공장을 가동하였으며, 1978년 공장 옆에 '수원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를 세웠다.

1960년대 후반에 와서는 수원시가 전기·전자 제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사건이 일어난다. 1968년, 박정희 정부와 삼성전자가 이해관계 속에서 전자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꾀하였다. 그해 2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삼성물산에 개발부를 설치하고 신사업 분야로 전자산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6월 박정희 정부는 전자부품을 수출전략산업으로 개발한다는 요지의 '전자공업진흥 8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1968년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전자산업이 본격적으로 국가경제진흥을 위한 산업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의 해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수원시는 또 한 번 산업적 격변을 겪게 된다. 바로 1974년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입지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전자산업 공장들은 몇 만 평 정도의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삼성은 보다 대규모의 부지를 원하였다. 부지 안에서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이르는 모든 공정을 수직계열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

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 부지를 물색했고, 수원과 더불어 부산, 울주, 양산이 그 후보지로 올랐다. 그 중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를 기반으로 한 타 지역과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 그리고 수도권 남부의 소비시장에 대한 기대로 수원 매탄동 일대의 토지(약 45만 평)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공장부지로 결정되었다. 공장 설립 전 광활한 논이 펼쳐졌던 매탄리(매탄동 일대)는 삼성이 꿈꾸었던 기술 개발, 시제품 생산,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완제품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삼성전자 생활가전 생산의 산실이 되었다.

1969년 삼성은 일본의 산요전기(三洋電機)와 합작하여 삼성산요전기라는 이름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원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1970년에 완공되었다. 완공 당시에는 36명의 종업원이 근무했으며, 가전제품의 생산 기지로 출발하였다. 3월 말에는 라디오, 전해 콘덴서,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었으며 본격적으로 시생산에 돌입하였다. 1973년 8월에는 서울 중구에 있던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74년부터는 경영 및 생산에서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삼성전자의 공장들을 수원 매탄동으로 집결시키기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는 '삼성디지털시티'로 불리며 오늘날까지 전자 관련 연구개발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1973년 이전까지는 수원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지 않았다. 오늘날의 사통팔달 대도시의 모습보다는 농업과 경공업을 중심의 평안한 전원도시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러나 1974년 이후부터 수원은 삼성전자와 선경직물의 생산지로 거듭나면서 전자 및 산업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수원시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에는 인구가 30만 명(31만 757명)이 넘게 되었다.

인구수가 증가한 배경 중 하나로 전자·전기 분야 종사자의 유입을 꼽을 수 있다. 수원시내 전자·전기 분야 종사자수의 경우 1975년에는 4,565명에 불과했으나, 1979년에는 무려 1만 7,553명으로 불과 4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원시에 삼성이 입지함에 따라 수원시 전자산업의 발전에 기대감을 품은 각종 전자·전기 분야 종사자들이 수원에 몰려들었고, 매교동 공구상가도 수원시의 전기·전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매교동 공구상가 형성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알고 있는 차철환 사장, 정인상사 백낙선 사장, 그리고 매교동공구상가연합회 회장인 문제운 회장을 인터뷰하였다. 차철환 사장은 1970년대 매교동 공구상가 초창기 모습을, 문제운 회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매교동 공구상가의 번영의 모습을, 그리고 백낙선 사장은 매교동 공구상가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구술해 주었다.



1973년 매교다리 부근 구천동 공구상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1970년대 매교동 공구상가의 탄생

매교동 공구상가는 수원의 다른 유명한 공구상가인 구천동 공구상가 길 건너편에 형성되어 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격변기에 있었고 공구시장도 함께 큰 성장을 이루었다. 수원시 내에는 구천동, 매교동, 교동, 중동 일대에 공구시장이 형성되었다. 바로 이 1980년대 초부터 전국 각지의 공구 전문가들이 매교동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주로 외지 사람들이 현재 매교동 공구상가에 자리를 잡고 공구상가의 확산과 성장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 청계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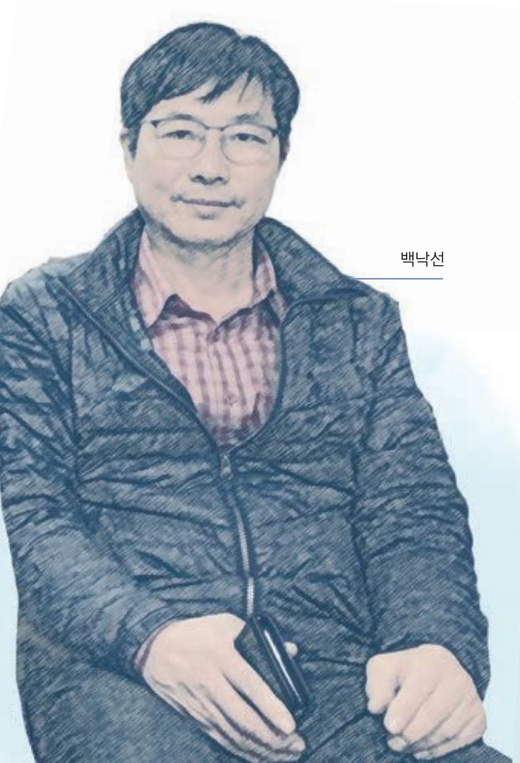
매교동 공구상가의 시작을 함께한 차철환 사장은 경상남도 진주시 출신이다. 1970년에 수원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1970년대 초, 차철환 사장이 가계를 차렸을 때는 매교동 공구상가 초입에 수원 원주민을 중심으로 공구가게가 서너 개만 위치해 있었다. 오히려 공구가게들보다는 선술집들이 더 많은 유흥거리였다. 수원천 주변에는 가건물로 만들어진 빈민가와 여성접대부가 있는 유흥가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공구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유흥가들은 밀려 나가고, 지금의 공구상가 거리가 형성되었다.

백낙선 여기가 처음에 저쪽에 개천길이 있었을 때는 순전히 음악, 술집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공구가게 생기면서 주변에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진짜 여기 지하는 다 술집이었어요. 지하에 술집 다방 이런 게 많았는데, 공구가게가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외지인을 향한 원주민의 텃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외지인의 유입이 늘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사이에 폭발적으로 공구가게들이 들어서자 그런 텃세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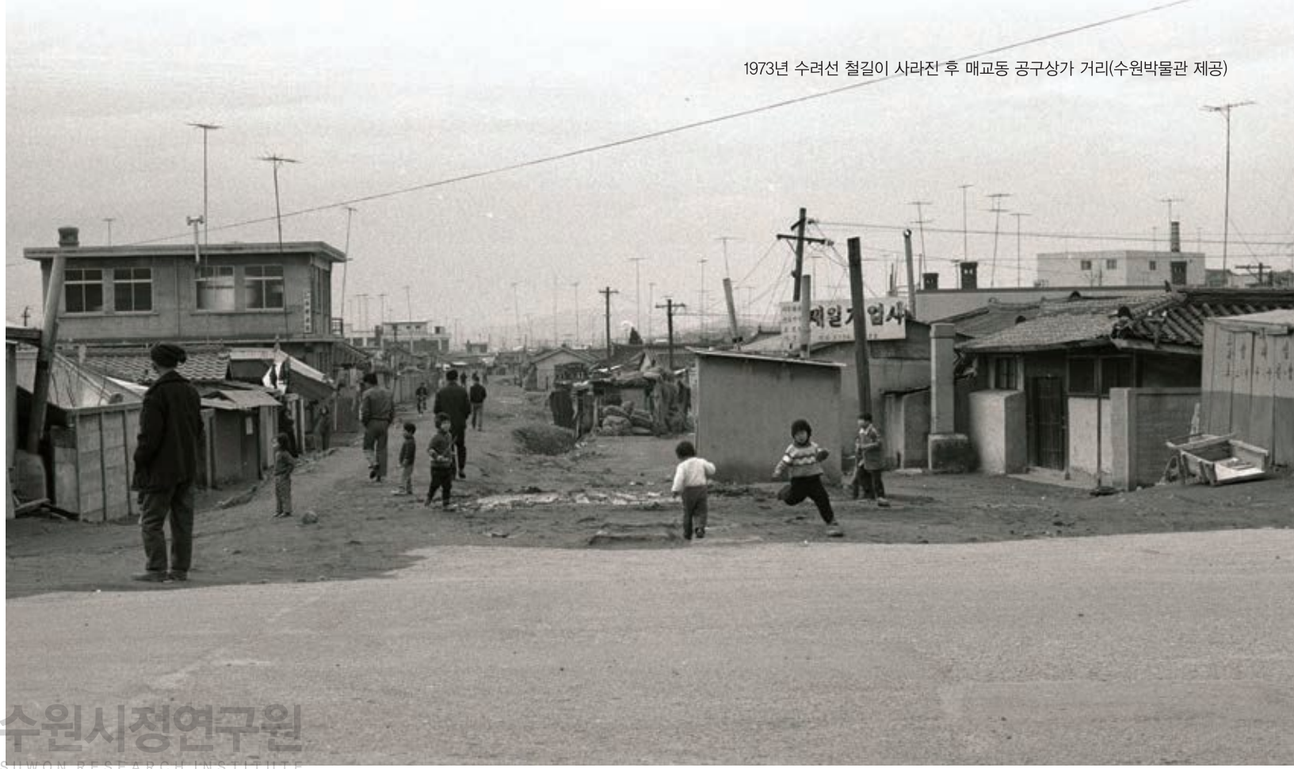
백낙선 청계천에서 내려온 사람이 거의 주였어요. 왜냐면 상가가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지 그쪽에서 배워서, 이 쪽 지역에 나와 보니까 시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다들 이쪽에 대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내려오게 된 거예요 다.

문제운 1980년대 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지인들이 전부 모여서 구천동 공구상가처럼 서울서도 많이 내려왔었고 관련 업종들이. 서울서도, 각처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많이 내려오신 분들이 청계천에서 기술을 배우고 아니면 또 기계 관련된 장사 부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골목에 많이 그때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공구상가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80년대 초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저 위 구천동에 많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잘 됐었죠 그 때 80년대 초중반. 그래서 이쪽에도 번창을 해서 자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쪽에 공구상가가 형성이 됐던 거고. 한 40년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낙선

차철환 사장은 수려선이 걷힌 것도 매교동 공구상가가 형성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협궤철도 수려선의 열차길이 걷히고, 기차의 소음이 사라지자 빈 땅에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매교동 공구 상가 골목은 여주와 수원을 잇는 수려선 철길이 지나던 곳이었다. 매교동 135번지 일대를 말한다. 지금의 뉴코아백화점 근처가 수려선 역 중의 하나인 화성역이어서 지금도 그곳을 화성역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수려선 철길은 1973년도까지 사용되다가 철거되었다.



1973년 수려선 철길이 사라진 후 매교동 공구상가 거리(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에 갓 올라온 차철환 사장은 처음엔 대동공업사 수원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그 때는 화성, 용인, 평택 등 수원 근방에 있는 시골에서 농기계 수리 요청이 많았다. 구천동 공구상가가 초기에 농기계부터 판매했던 것처럼, 매교동 공구상가도 1970년대에는 농기계가 주요 품목이었던 것이다. 아직까지 삼성, 한일합섬, SK 등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는 본격적인 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구 가게들은 관련 부품 판매와 농촌 사람들이 고치기 어려운 농기계 수리까지 도맡아서 하였다.

1970년대 고객들은 주로 차철환 사장이 근무하는 가게에 경운기를 고치러 왔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예 그 지역으로 직접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모든 일을 대리점에서 혼자 다 처리한 것은 아니고 수원에 위치한 보링공장에 일을 맡기고, 가져와서 조립하는 식으로 일했다고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언가 고장 나면 제품 자체를 통째로 바꿔 버리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작업방식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차철환 수원에도 보링공장이 삼강 보링공장, 한 두세 개 있었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데서 일을 맡겨가지고 해서 우리가 조립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냐. (…) 우리가 공장에 의뢰해서 갖다가 다시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이제 많이 좋아졌지. 옛날에는 기술자들이 다 수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다가 고장 나면 부품을 통째로 교환을 해 버리잖아. 옛날에는 그거 하나하나 뜯어서 고쳐서 맞춰가지고 수리를 해서 썼지만 지금은 다 컴퓨터기 때문에 들어내고 새 거를 갖다 끼워 버리면 끝나 버리잖아.

그렇게 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1976년도 1월에 결혼하고, 5월에 가게를 차렸다. 가게 이름을 '털보기계'라 짓고, 현재 교동에 있는 수원농협 자리에 개업하였다. 농기계에 대한 고객 수요가 풍부해서 1977년부터는 직원을 서너 명 두고 일을 했으나, 다 가르쳐 놓으면 경쟁업체에서 직원을 뺏어 가는 것이 반복되자 1980년부터는 다시 혼자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일이 많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출장을 다녀가며 기계를 수리하고 제품을 팔았다.

3. 1980년대 매교동 공구상가의 번영


차철환

매교동공구상가연합회 문제운 회장은 1989년에 수원에 내려왔다. 문제운 회장이 창업하고 자리를 잡은 1980년대 후반에는 수원시에 삼성을 비롯해서 한일합섬, 코오롱, 선경직물, 해태유업 등 대기업들이 많아서 관련 부품과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수원으로 모였다고 하였다. 이때 본격적으로 매교동 공구상가가 형성되었으며, 농업이 쇠퇴함에 따라 취급 품목이 산업기자재로 변화하게 되어 산업용 철 구조물이나 산업용 유압호스 등이 유통되었다. 이 때문에 문제운 회장은 차철환 사장과 달리 창업부터 지금까지 산업기자재를 주로 제작·판매하고 있다. 원래는 제관, 물탱크 같은 철 구조물을 제작하다가 현재는 기계를 정밀 가공하는 분야까지 업종을 확대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제운 회장은 1977년 배재고등학교에 위치한 현대건설 직업훈련소 1기 출신이다. 당시에는 산업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라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마다 직업훈련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등 대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소를 설치했고, 기능 인력들을 양성시켰다. 용접, 기계 정밀 가공 등 전문 인력들을 양성시켜 사회 전반에 배치시켰다. 문제운 회장은 당시 신문광고를 보고 특수용접 분과 전기용접으로 원서를 냈다. 시험을 보고 합격생들은 6개월 과정을 수료한 후 현대건설 계열사로 파견되었는데, 문제운 회장의 경우 1차로 발령받은 곳이 현대조선이었다.

문제운 산업화가 그때만 해도, 옛날 5공 시절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산업 인력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는 각 대기업에서 뭐가 있자냐면, 직업훈련소를 설립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해서 대기업에는 직업훈련소를 설치를 해라. 그 옛날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이러한 대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소를 사내 직업훈련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능 인력을 양성을 시켰다고. 용접하는 사람, 기계 정밀 가공하는 사람. 거기서 배출시켜서 사회 전 분야에 흩어져 가지고 직장을 갖게 되는 거고. 산업 전반에 이바지하게 된 거죠. 나도 현대건설 직업훈련소 1기예요. 1기로 그때 들어가 가지고 졸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라고 그때 우리 개소식할 때 그분이 오셔서 직접 축하연설도 해 주고 그랬거든. 정주영 회장이. 대명고등학교 아닌가, 그 학교를 전부 사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정주영 회장님이 거기다가 사내 직업훈련소를 설립을 했던 거라. 우리가 거기서 배웠어요. 1기로.

울산에 위치한 현대조선에서 근무하는데, 실무에서는 미국승급협회에서 발급하는 X-ray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자격증 없이 배에 용접을 한 것을 QC(Quality Control : 품질관리자)에게 지적받으면, 그 작업자가 작업했던 구역은 모조리 뜯어서 재작업해야 하였다. 그래서 문제운 회장을 비롯한 수료생들은 모두 먹는 시간까지 아껴 가며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였다. 특히 현대조선은 구역이 넓어 식당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걸어가는 것만 해도 30분이 걸렸다. 그래서 문제운 회장은 중고 자전거를 하나 구입해서 식당까지 달렸다. 전광석화처럼 밥을 먹은 후 작업장에 돌아와 폐고철로 X-ray 용접을 연습한 지 3달,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했고 다행히 한 번에 합격하였다. 다만 합격했다고 자격증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어 달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료 몇 명과 함께 1978년 군포에 있는 현대양행에 응시를 하였다. 자격증이 있어서 서류는 쉽게 통과되었고, 실기 테스트를 거쳐 이직이 결정되었다.

1980년에는 수원에 있는 두산기계에 응시를 해서 또 이직을 하였다. 1981년에는 대우건설에서 해외 전기용접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해서 4년 6개월 동안 해외 생활을 하였다. 처음에는 이란, 그다음에는 리비아,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건너갔다. 1987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서울 청계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후 1989년에 수원 매교동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가게 간판을 걸고 사업자를 낸 것은 1991년이다.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 왔다. 처음에는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아내와 둘이서 운영했으나, 지금은 가게를 이전하여 28평 정도의 규모에 종업원 8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매교동은 자리 경쟁이 아주 치열하였다. 일단 부동산에 가게 매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빈 가게 자리가 생기면 그것은 부동산에 내놓기도 전에 알음알음 친한 사람들 위주로 먼저 팔려 나갔다. 어렵사리 가게를 얻어도 간판 걸 자리를 마련하기 힘들 만큼 자리 경쟁이 아주 치열하였다. 백낙선 사장의 정인상사가 자리 잡은 8평짜리 건물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다. 당시 물가에 비해서 비쌌지만, 다행히 집주인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가격의 월세를 받고 있어 현재는 부담이 없다.

그때는 한 건물에 세입자를 많이 받으려고 건물주들이 보통 8평에서 커 봐야 10평 내지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옛날 청계천의 공구시장 공간들을 보고 그렇게 만든 모양인데, 그때나 그런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했지 지금은 택도 없다. 문제운 회장의 경우 처음엔 15평 공간에 세를 얻었는데, 월세 70만 원을 냈었다. 자리 경쟁이 치열한 만큼 월세 가격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운

문제운 부동산에 점포가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점포가 만약에 나온다 이게. 친구들, 아니면 제일 친한 사람들 연결 되서, 알음알음 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지역이. 그만큼 영업이 잘 됐던 데라. 나도 일을 봐주러 내려왔다가 주저앉게 됐는데. 그 때 내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간판을 붙일 데가 없었어요. 간판을 붙일 데가 없었다니까. 그 정도로 아주 치열했어요. 상권 다툼이. 장사가 잘 되니까. 간판 하나 붙일 수 없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살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인기가 좋았었어요 이 동네가. 영업이 잘 되고.

이처럼 매교동 공구상가는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IMF 전까지 한창 번성하였다. 문제운 회장은 한창 바쁠 때는 사무실 계단 밑에 허리 받침 없는 원반형 스툴 같은 작은 의자 3개를 붙여 놓고 거기서 잠을 잘 정도로 시간이 없었다고 하였다. 아침 6시 30분이나 7시에 문을 열어 아내와 함께 둘이서 하루 종일 작업하는데도 별을 보고 퇴근하였다. 마스크도 없어 쇠가 갈려 나오는 먼지를 마시며 외주 일정을 맞추려고 열심히 작업했다고 한다. 하루에 12시간은 기본, 길 때는 16시간 이상씩 일하였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수작업이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자동화되어 기계가 알아서 작업을 해 주지만, 그 때만 해도 철판 하나를 자르려고 해도 사람이 산소토치를 들고 일일이 모양을 따야 했다. 도끼 같은 걸 만들어도 사람이 일일이 대장간의 대장장이처럼 철을 발갛게 달궈서 두드리고,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하였다. 만약 동그란 원판을 따야 한다고 하면 산소토치를 들고 먼저 동그라미를 따고, 이후 동그라미의 울퉁불퉁한 면을 그라인더로 손수 갈아 매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는 두들기는 망치, 그라인더, 절단기 역할을 하는 산소토치 없이는 작업할 수 없었다.

문제운 나는 그때 서울에서 출퇴근했었는데, 요 위에 건물이지만, 거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요 밑에 삼각 공간이 남잖아요. 삼각 공간이 밑에 이렇게 남으면 거기에 조그마한 철책상 하나 집어다 놓고 거기가 내 사무실이야. 그리고 딱 요런 의자 3개를 딱 놔요. 놓으면 누울 수 있어. 근데 밤에 이제, 11시고 2시고 올리면, 그때 석유난로를 썼어. 동그란, 심지 올려서 불 붙여서 하는 거거든. 그걸 켜놓고 자는 거야. 문을 조금 붙여야 되니까. 그걸 붙이다 보면 머리가 깨지는 거야 이거 가스 땜에. 그래도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일은 또 해 줘야 되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계단 밑에서 먹이 찼어요. 처음에 와 가지고 계단 밑에서 먹이 찼어 겨울에 그것도. 그러니 그런 시절을 겪고서 지금까지 점점 기계화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전부 자동화가 되잖아. 저런 삼각형 같은 거 지금은 레이저로, 철판이 딱 들어가게 되면 레이저로 쏴서 프로그램 딱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로보트가 자기가 혼자서 다 따다가 저절게 떼쁘게. 옛날에는 저거 하나 따려면, 저절게 만들려면 하여튼 뭐 홀 뚫는 것도 돌아가는 거 눌러 가지고 몇 번 뚫어가지고 동그랗게 구멍을 뚫게 되고 큰 거는 아예 아까 얘기한 산소토치, 그걸로 따는 거야. 다 따가지고 울퉁불퉁하지, 그라인더로 막 갈은 거야. 갈아 가지고 제품화를 해서 기계 부품을 만들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래도 그때는 매교동 공구상가에 자리 잡은 업체가 50개에서 순식간에 200개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공급보단 수요가 많은 호황기였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천동 공구상가와도 경쟁이랄 것도 없었고, 부르는 가격에 그대로 제품이 나가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렇게 호황을 누리던 매교동 공구상가도 IMF의 위기는 피해 갈 수 없었다.

4. IMF 이후 매교동 공구상가의 변화

IMF 이후에는 경기가 급격하게 어려워졌다. 고객들이 주로 가계수표 아니면 어음으로 결제를 했는데 석 달짜리 어음을 들고 와서 2% 정도 할인하는 이른바 '어음깡'을 해주고 나면 100만 원 어치 제품을 팔았을 때 석 달 동안 6만 원이 날아갔다. 그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이 워낙 난립하다 보니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가격 경쟁이 너무 심했을 때는 마진을 5%도 붙이지 못하고 원가에 판매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문제운 IMF 때 내가 신용불량이 돼서, 그때는 워낙 뭐 밑천이 없었고, 그때 신용불량자가 됐던 거야 내가. 그때 내가 어음 받아서 부도 나가지고 그런 거도 있었지만은. 그때 부도 한 번 맞으면 할인해서 쓰는 거까지 다 날라 가서 다 갚아 줘야 되니까. 그 어음도 그때 얼마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닳아빠진 거. 그거 당시에 970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그걸 내가 닳아빠질 때까지, 하얗게 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부도 맞았지, IMF 때.

당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매교동 공구상가의 상인들은 매교동공구상가연합회를 발족하게 됐다. 1994년 초대회장으로 차철환 사장을 모시고 시작한 연합회는 발족 당시 약 200개의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 IMF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잠시 와해되었다가 뜻 맞는 가게들끼리 합심하여 2012년에 재결성되었다. 다시 조직을 만들어 함께 상업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권익 주장이나 공생공존 등 여러모로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다. 매교동공구상가연합회는 현재 100여 개의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과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와, 봄가을 야유회를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주로 농촌진흥청 앞 운동장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1998년 매교동 공구상가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러나 2000년대에 삼성전자 공장이 백색가전 생산라인을 광주로 이전하면서 매교동 공구상가는 또다시 시련을 겪었다. 삼성전자가 이전함에 따라 수원시의 각종 하청 기업들까지 동반 이전하면서 공구상가를 지탱하는 경제 전반이 흔들린 것이다. 이처럼 수원시는 점차 기업도시가 아닌 주거도시로 점차 변모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1996년 복개했던 수원천이 2012년 복원된 것도 공구상가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수원천 복개 후 조성되었던 주차공간이 사라져 업계 관련자나 구매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진 것이다. 시와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공영주차장도 만들긴 했는데 복원공사 전에 비하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인도나 여기저기 골목에 주차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

공구상가의 영업 형태도 변모하였다. 예전에는 개인들이 각자 가게를 차려서 상가거리를 형성했다면, 현재는 교외 쪽에 대규모 공구타운을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종합공구단지는 수원역에서 불과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공구 만물상 단지이다. 수원종합공구단지는 전통시장 형태로 수원 구천동, 매교동, 교동, 중동 일대에 산재되어 있던 기존의 공구상가들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 공구쇼핑단지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7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18번지 일대에 문을 열었다. 지금은 600개가 넘는 공구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경기



2000년 수원천에서 바라본 매교동 공구상가(수원박물관 제공)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남부 최대 종합 공구상가로 불리고 있다. 각종 공구, 철물, 부자재, 부품, 앵글 전기·전자 용품, 산업용품 등 다양한 공구 관련 전문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대상 또한 일반 고객부터 수원 관내 기업, 안산, 화성, 의왕, 오산 등 주변 도시에 있는 공장 및 기업까지 폭넓다.

문제운 요즘 여기가 상권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원인이 뭐냐면 지금 외지로 공구상가들이 전부 대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예를 들면 수원공구상가 해서 저쪽에 권선구 저쪽에 크게 타운을 만들어서 지금. 와우리 공구상가 해서 크게 집합단지로 해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눔이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한 군데 업체가 10개를 가지고 있던 걸을 자꾸 단지들이 크게 생겨 버리니까 다 뺏기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굉장히 상권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죠.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뭐 혼자 먹던 걸을 세 군데 네 군데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다들 뭐 어렵죠. 수요가 그만큼 많아져야 하는데 수요가 많아지진 않고 한정되어 있는 수요에서 몇 군데서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전에는 좋았죠. 80년대 초중반 90년도 초까지는 좋았죠. 괜찮았죠. 전부 이쪽으로 모여들었으니까. 구매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구천동 내지는 여기로 다 모여 들었으니까. 반안이라든가 남양, 비봉이라든가 주위에 조그마한 소도시들, 농촌 이런 데서 전부 구천동 아니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전부 대형으로 공구타운이 들어섰기 때문에 다 나눠먹는 거죠.

이 때문에 예전에는 외곽에서부터 들어왔던 구매자들이 현재는 모두 교외 외곽에 자리한 공구타운들로 발길을 돌렸고, 수원 관내의 구매자들만 매교동 공구상가를 찾고 있다. 이제 예전처럼 화성이나 이천까지 납품해 주는 일은 없다. 매교동 공구상가에 자리잡고 있던 상인들도 수요를 따라 많이 외지로 떠났다.

문제운 여기 영업하는 사장들이 보면 거의 30년 된 사람들이 다 여기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 있는 사장들은 그냥 정말로 엔지니어. 아주 그냥 유능한 엔지니어가 모여 있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맡은 분야는 보통 30년 이상씩 다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마디로 뭐라 그럴까 도가 텄다고 해야 되나 그 분야에서는. 그런 수준까지 와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5. 매교동 공구상가의 현재와 내일로의 모색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교동 공구상가의 상인들은 계속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문제운 회장은 자체 연구를 통해 철 구조물에서 기계 정밀 가공까지 업종을 확장하였다.

문제운 IMF 끝나고 살아야 되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 붙어서 사업을 지킬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얻은 것을 전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서 나름대로 제가 밤잠 안 자가면서 개발을 해서 실패도 보고. 붙이 날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개발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완성이 되서 특허도 내고. 좋아지면서 점차 물량 확장이 된 거지. 개발을 하나까 다른 거도 해 달라 이거도 해달라 그렇게 되니까 조금 확장이 된 거라고.

다만 인력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주로 수원시 내 공업고등학교에서 인력을 채용하던 매교동 공구상가는 2000년대부터 이주노동자 중심의 채용으로 전환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공구상가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갓 사회로 나온 아이들은 금세 실망하고 새 직업을 찾아 떠났고, 그 빈자리를 중국과 동남아 노동자들이 채웠다.

문제운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선호하는 직업이 안 돼서 지금 대를 이어 오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계통의 정밀 가공 이런 걸 하고 기계를 만드는 덴데, 우리가 지금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 60대 넘어 가지고 60대 중반쯤 넘은 사람들이어야 이 직업을 구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옷도 작업복 입고서 기름 때 묻은 장갑도 써야 되고 현장 일 쫓아다녀야 되니까 젊은 층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인력난에 허덕거리는 거지.

이 때문에 현재 매교동 공구상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문제운 회장은 1951년생, 백낙선 사장도 1958년생으로 두 분 다 예순을 훌쩍 넘겼다. 백낙선 사장은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 매교동 공구상가도 없어지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하였다. 기술을 대물림해줄 젊은이들을 바라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일하는 기업 엔지니어를 선호하는 요즘에는 더 이상 젊은 층들이 이런 곳에 눈길을 두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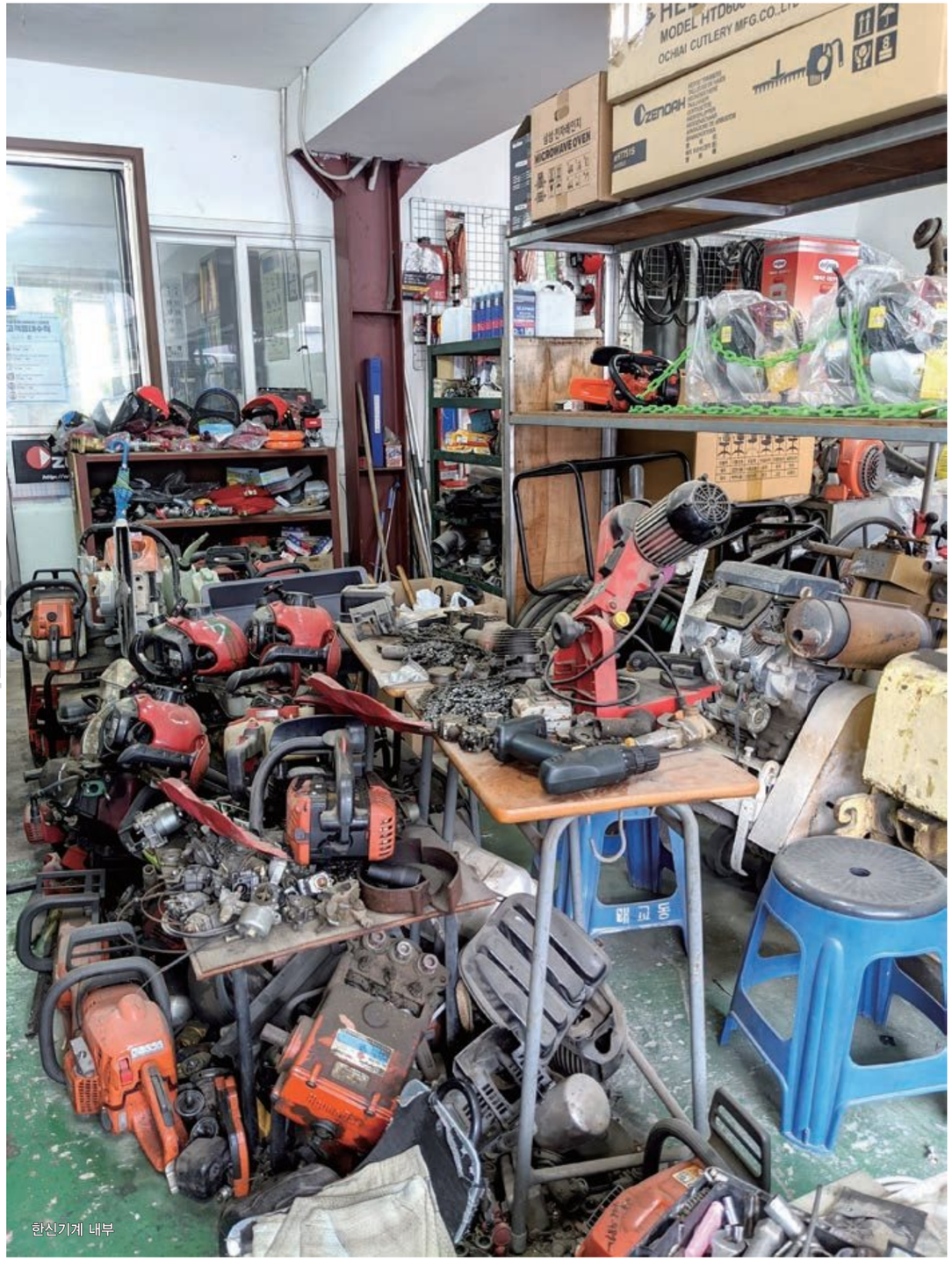
매교동 공구상가 거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0년 매교동 공구상가



한신기계 내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
산업기자재상가
매교동상가연합회



털보기계와 효성모터펌프, 명성전기

비쳤다.

그러나 최소 30년 이상 한 우물만 판 전문 엔지니어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발길이 닿고 있다. 시대는 변화하였지만 이곳 엔지니어들의 기술은 어제보다 오늘 더 연마되어 빛을 발한다. 1980년대부터 수원시 전기·전자 제조업의 든든한 토대였던 매교동 공구상가의 내일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백민정, 「담금질과 두드림, 제일대장간」, 『사라지는 직업과 생업공간』, 수원문화원, 2019.
송지영, 「구천동 공구시장의 어제와 오늘」, 『문밖 마을』, 수원박물관, 2014.
수원시, 『100만 도시 성장기 :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2019.
박예진, 『수원시의 도시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이하나, 「공구 복합센터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구천동 전통 공구시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매교동 공구상가(김승일 제공)

매교상가는 1989년 매교동 161번지 등에 상업시설로
개발된 2동의 3층 건물이다.
매교상가의 양옆으로는 매교동을 가로지는
수원천과 정조로가 있고 매교상가 위쪽으로는 문화맨션과 접하며,
아래로는 2013년 개통한 분당선 매교역이 위치하여 있다.

이정수 수원시의회 전문위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장 매교상가의 설립과 변천

1. 상가의 정의

상가의 사전적 정의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이다. 하지만 상점 거리만을 뜻하기에는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다양한 것을 상가라 부르고 있다. 상가의 법적 정의도 다양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정의하여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상점가’를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고 정의하며,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제도 및 정책의 대상을 명료하게 설정하기 위한 정의로 통상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례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각각의 다른 특성을 띠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수많은 상가를 만난다. 어떤 상가에는 할인매장이 모여 있기도 하고 특정 상품군이 모여 있는 상가도 있다. 쇼핑센터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고 쇼핑몰이라고 부르는 상가도 있다. 심지어 매산동 수원역전시장처럼 상가건물인 것 같지만 ‘시장’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이러한 상가의 다종다양함을 제쳐 두고 매교동과 관련 있는 상가 개념들을 추려, 이재우·



매교상가(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창무[1]가 업종 및 업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일반상가와 테마상가의 정의, 상가의 입지 유형에 따라 분류한 근린상가와 단지 내 상가, 지하상가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상가'는 "도심 및 부도심에 위치한 상가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아닌 것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위락시설 등이 입지한 빌딩"을 의미한다. 규모에서는 "지하주차장이 구비되거나 언급된 업종이 지하 1~2층에서 지상 5층 이상까지 개발"한 것을 의미하는데, 교동사거리 매산로 대로변에서 이러한 빌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테마상가'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된 테마업종으로 구성"된 상가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1967년 서울 종묘 앞에서부터 퇴계로까지 약 1㎞의 거대한 규모로 개발되어 각종 전자제품과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등을 취급하던 세운상가, 1970년 완공되어 1980년대에 각종 악기 상점이 밀집한 종로2가 낙원상가를 들 수 있다. 수원천을 중심으로 구천동에서 매교동 북부에 걸쳐 공구상과 철공소, 공업사가 밀집하여 일종의 테마상가와 같은 경관을 이루고 있다.

입지 유형에 따라, '단지 내 상가'는 "주택법,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는 상가"로 주로 아파트 내 상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매교동에도 1979년 준공하여 12층 2개 동 175세대가 거주하는 문화맨션에 단지 내 상가가 있다. 매교상가와 근거리에 위치한 이 상가에는 세탁소, 분식집, 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영업하고 있다. '지하상가'는 "도심 또는 부도심권의 주요 상업지역의 지하 연결로, 지하철·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가를 지칭하는데, 인근 수원역 지하에는 지하 대피로에서 시작되어 상가로 변화한 수원역지하도상가가 있다. '근린상가'는 "근린생활권에 입지한 지하 1층~지상 5층 내외 건물로 근린생활시설 등 일상적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업종"으로 구성된 상가를 의미한다. 매교상가는 일반적인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근린상가로 분류할 수 있다.

매교상가는 1989년 매교동 161번지 등에 상업시설로 개발된 두 동의 3층 건물이다. 매교상가의 양옆으로는 매교동을 가로지는 수원천과 정조로가 있고 매교상가 위쪽으로는 문화맨션과 접하며, 아래로는 2013년 개통한 분당선 매교역이 위치하여 있다. 매교상가에서 정조로 건너편으로 1909년 수원상공회의소 부속 수원상업강습소로 시작한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수원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1943년 수원상업전수학교 시기에 남수동 교사에서 현재의 매교동 부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조로와 수원천, 수원중·고등학교, 매교상가에서 효원로 건너편 주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이다.[2]



매교상가 A동



매교상가 B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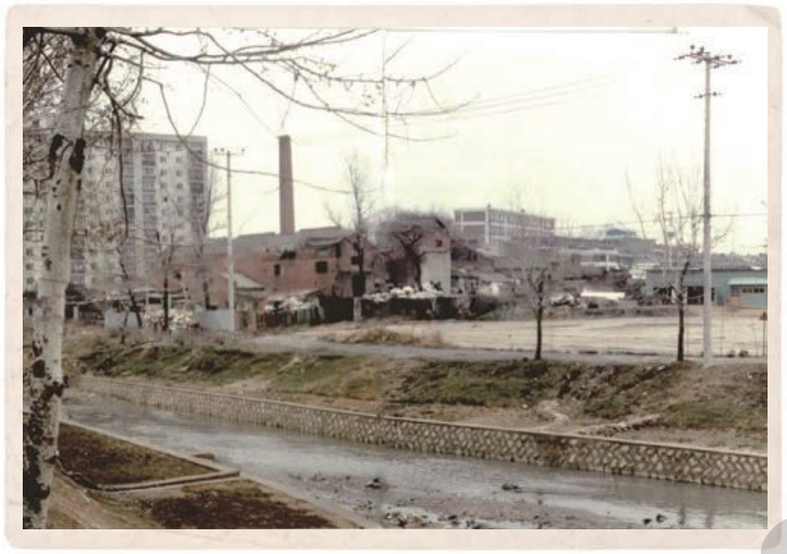
2. 매교동의 새로운 소비공간, 매교상가의 설립

매교상가의 개발은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85년 '신매교시장' 건립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수원시 인구가 50만 명(1987년)에서 60만 명(1989년)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동수원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였다. 수원의 도시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 개발 및 외연 확장의 연속이었다. 1980년대에는 매탄동·우만동·인계동·권선동 등 동수원 개발과 수원화성 북쪽인 정자동·천천동 등 북수원 지역의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3] 1905년 경부선 수원역 개통 이후 수원역 앞 매산로 일대에서 수원화성 구역에 형성된 수원의 도시 중심성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인계동 등 동수원 지역으로 옮겨 가는 시기에 매교상가가 개발된 것이다. 매교상가가 위치한 매교동은 수원역 앞 일대와 인계동, 행궁동과 인계동 사이에 놓인 지역이다. 당시 개발 사업계획서에서는 지역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본 지역은 수원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기히 확장된 정조로인 대로 3류 8호선변에 위치하고 문화맨숀 아파트와 수원천변에 위치한 수십 년 전인 45년경부터 대동제지주식회사에서 지류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으나, 노후된 건물로서 철거하였으며, 주위에 산재된 무허가 건물들로서 도시 경관을 해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원천변 및 전면도로에서 미치는 환경이 매우 불량한 형편으로서, 권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신시가지가 인근에 조성되어 더욱더 볼품없는 현존 건물로서 이용의 가치가 없어 본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세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가를 임대 및 분양하여 분위기 있는 상가의 분위기를 구성하고 이용객의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고 유가증권도 수원의 금융기관에 유치하여 상거래 행위 질서함양 및 시민의식의 수준 향상 및 질서 의식 고취로 정화적인 차원에서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한 선진국민의 긍지를 갖고, 노후된 건물철거 후 도시 미관을 감안한 수원 도심권의 각종 써비스 시설의 복합체를 형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저 하며, 제반시설(유통구조, 교통, 주차장, 관리사무실, 방화시설 등)이 수요 면에 비하여 공급 면에서 극도로 낙후되어 있음을 감안 정비코져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시장을 건립코저 함에 정조로 개설로 인한 본 시장 내의 차량의 진입은 8미터 계획도로를 축조 이용할 계획임.

매교상가 개발 이전인 1980년대 중반에 이 일대에는 가옥 몇 채와 무허가 건물이 전부였고 현 매교상가 부지 인근에는 벽돌 제조공장, 자동차운전학원, 제지공장이 있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0년대 중반 매교상가 자리에 있었던 대동제지주식회사(수원시청 제공)

고 한다. 매교상가 부지 일부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고 대부분 공터였는데, 벽돌과 같은 공장 물건들을 쌓아 놓는 창고부지로 이용했다고 한다.

수원시 기록에 따르면 1985년 제출된 '신매교시장 건립계획'은 매교동 161-11번지에 신매교시장을 세우고자 개인 명의로 개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신매교시장은 약 6,383㎡의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총 3개 동으로 구성된 대형 쇼핑센터였다. 이 사업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를 거쳤다. 1차로 소매시장을 신청했지만 주차장 부지가 불합리하다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미관을 고려하여 단층건물을 지향할 것을 권고받았다. 2차로 신청한 공구상가는 건물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되었다. 당시 개발 부지는 건립계획을 신청한 두 사람 소유의 토지가 5,348㎡로 전체의 90%에 달했지만, 2.9%의 사유지, 국공유지 3.9%, 미등기 토지 3.2%로 구성되어 있었다.[4]

매교상가는 1987년 11월 21일 경기도 고시 제310호로 결정 및 지적 고시되어 개발사업이 승인되었다. 당시 수원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서에는 매교상가의 명칭이 '신매교



1974년 대동제지



1987년 철거된 대동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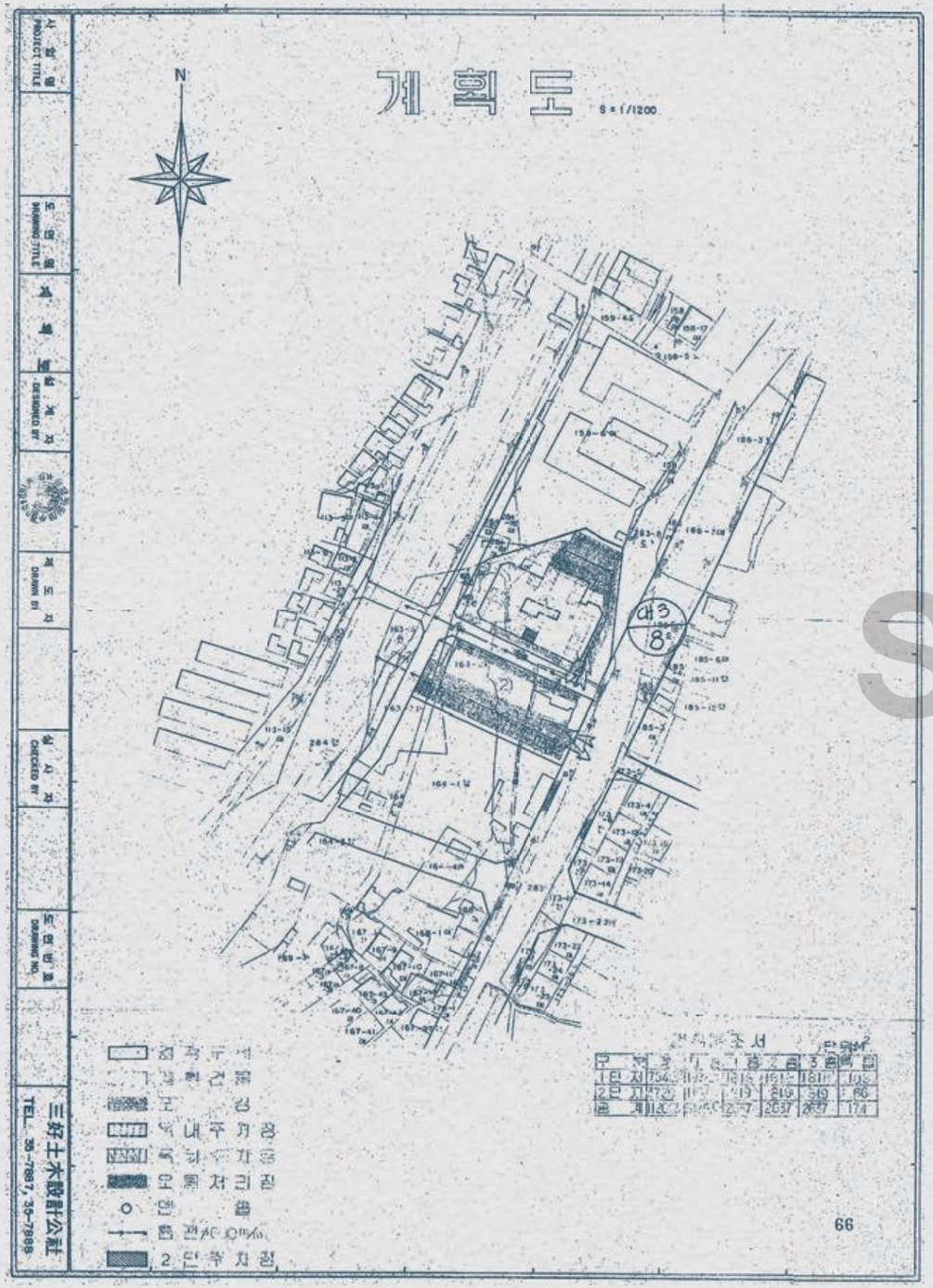


1990년 신축된 매교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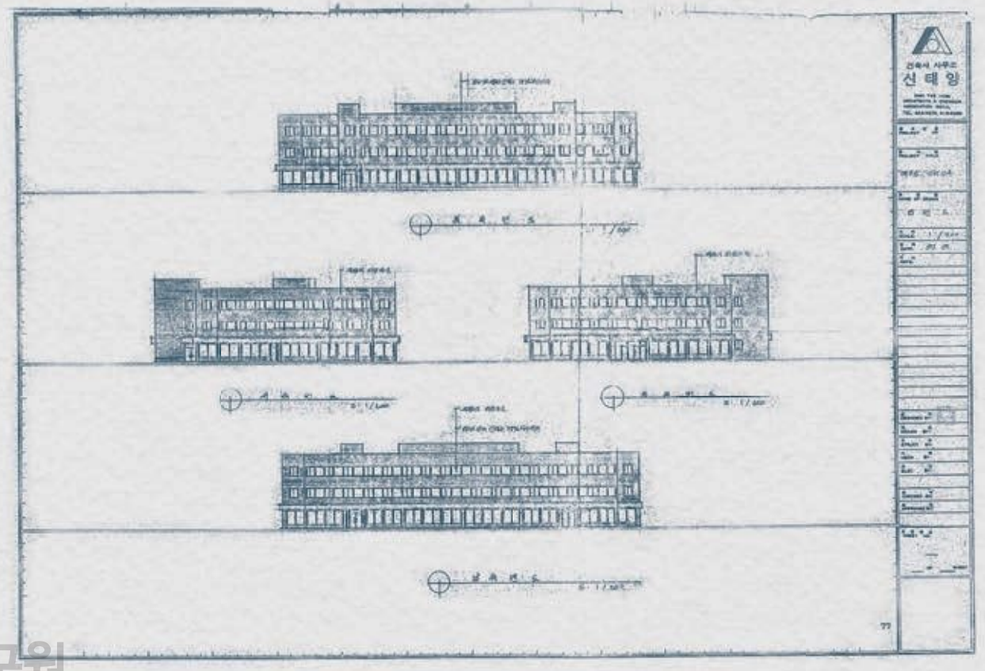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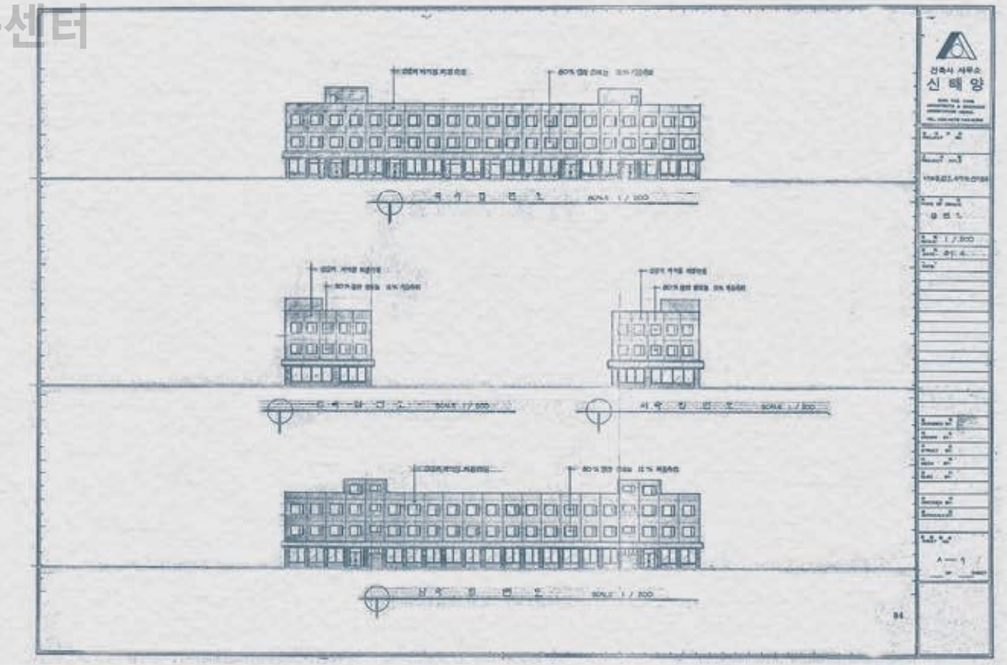
2009년 매교상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교상가 계획도(수원시청 제공)





매교상가 계획도(수원시청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시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가 A동과 B동을 합하여 건축 부지 2,971㎡, 주차장 부지 728.75㎡, 도로 및 공지 1,598㎡, 녹지 부지 1,032.25㎡, 오물 처리장 22㎡ 등 총 6,391㎡의 토지가 매교상가로 개발되었다. A동에는 옥내 지하주차장에 35대, 옥외에 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B동에는 옥외에 36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총 88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매교상가는 대지면적 6,391㎡, 건축면적 2,638㎡, 점포수 390개소로, 매교시장의 경우 대지면적 574㎡, 건축면적 216㎡, 점포수 46개소인 것에 비교하면 당시로서는 매교동에 매우 규모가 큰 상업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매교상가 개발사업에는 건축비 약 20억 원, 부지매입비 약 19억 원 등 39억 원가량이 소요되었다. 1987년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에 초임 기본급이 31만 5,000원, 시내버스 요금이 성인 기준 120원, 짜장면 1그릇에 600원이었던 물가를 고려하면 규모가 큰 사업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당시 개발 승인 과정에서 시장 수요 예측을 하였는데, 인근 매교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인계동, 권선동에서 2만 3,000여 명, 수원시 내 타동에서 4만 4,000여 명, 수원 외 지역에서 약 5,000명 등 총 7만 2,000명이 매교상가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현재 시점에서 매교상가의 상권 가치를 과대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발 시점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드문, 큰 규모의 상가였지만 수원의 도시 개발이 활발했던 1990년대에 매교상가보다 큰 규모의 상가가 무수히 늘어나리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당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96.5%를 소유하고 있어 개발 결정 과정은 순탄했다고 한다. 또 당시 매교상가 인근에 인구가 많지 않아 개발을 반대할 집단 자체가 없었을 수 있다. 수원시의 매교상가 개발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다.

> 상가입주상인 B 이 땅 주인이 1명이었기 때문에, 저기 천궁빌딩부터 이 매교상가까지 전부 Y사장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자기가 건물 짓고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누가 반발하고 하는 게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1987년 10월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개발사업 결정 의견서에서는 "현대식 규모의 소매시장을 건립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상거래 행위 질서 함양과 88올림픽을 대비한 도시미관 정화를 위하여" 본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코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매교상가에 대한 수원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에는 개발 결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89년 A동 상가(수원시청 제공)

>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증대와 소득수준의 향상 및 구매력 증가에 따라 고급상품 및 이용의 편의가 양호한 것이 유통구조상 그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생활양식의 서구화와 자가용의 보급에 따른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도심지 내의 구매 불편으로 주차난이 관대한 무료주차설비가 요구되며, 간략하고 편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관습의 변화 등이 요구한 장소에서 질이 양호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매시장을 건립함에 있어, 현대인의 비즈니스 장소인 위락적인 성격을 띤 각종 써비스 시설의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해 기존 노후된 건물과 도시경관을 해하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권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와 연결되고 확장된 정조로 변에 위치하여,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도시미관적 측면에서도 또한 녹지 공간의 이용 측면에서도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서, 더욱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의 밀집으로 화재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정비의 시급을 요하는 지역으로서, 시의 발전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현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현대의 규모를 구비한 공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다목적이고 집단화를 조성하는 소매시장을 건립함으로서, 상거래액을 증가시키며 상가의 개선도 집단화, 집약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생산재 공급 중심의 상업화와 신도시 개발과 주변의 경이적인 발전 추세와 더불어 신 도심지 개발로 인한 상업의 진흥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 (하략).

현재 시점에서는 상가건물을 2동 짓는데,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증대와 소득수준의 향상 및 구매력 증가", "현대인의 비즈니스 장소인 위락적인 성격을 띤 각종 써비스 시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9년 B동 상가(수원시청 제공)

의 복합체", '도시미관적 측면'까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이후 매교상가에 처음부터 입주하여 지역에 반향을 일으킨 슈퍼마켓(마트)과 볼링장, 당구장, 패션 잡화점 등의 '고급상품' 매장의 출현과 이러한 소비매장이 밀집되어 '이용의 편의가 양호한' 건물의 출현을 통해 매교동과 인근 지역에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여가문화, 대량 소비가 확산되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신매교시장'은 인근 매교시장과 함께, 당시에 주된 소비공간으로 기능한 재래시장과 대비되어 출현 초기에는 지역에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다.

매교상가 개발사업은 1987년 11월 시행허가를 받았고, 1988년 3월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1988년 11월에 준공일이 당초 1988년 12월 31일에서 1989년 6월 30일으로 계획이 늦춰졌으며, 주차장 부지가 줄어들고 녹지 부지가 늘어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업 변경시행허가를 받기 위해 근거 자료로 제출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요약보고서』에는 '신매교시장'이 '수원시 매교동 산업용품 Shopping Center'로 바뀌었고 상가의 주용도가 '산업용품 상가, 판매시설 및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매교상가에 오랜 기간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 G의 구술에 따르면, 구천동 및 매교동 공구상가에서 영업하는 공구상과 산업용품 업체들을 매교상가에 유치하고자 했고 업체들이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개발 과정에서 매교상가의 정체성을 공구테마상가로 바꾸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천동 공구상들은 분양가 등의 문제로 매교상가에 이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든 매교상가는 1987년부터 1989년 초반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89년 3월 15일 준공이 완료되었고 당해 4월부터 상가 운영이 시작되었다. 입주상인 A와 같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매교상가의 시작을 오매불망 기다려 온 사람들과 함께.

상가입주상인 A 준공 이전에 상가 외곽으로 펜스를 쳐 놨었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남문에서 장사할 때 50~60번은 여기를 계속 왔어. 남문에서는 내가 세입자로 설움을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닫장 쳐놓은 사이로 이렇게 들여보고 "아 저거 언제 다 짓나, 언제 다 짓나." 출근하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나이, 내가 28살이었어요. 27살에 결혼을 해서 28살에 이거를 산 거야. 그전에는 내가 총각 때부터 이런 일을 했었으니까. 그때 고생해 가지고 한 거야.

3. 설립 초기 매교상가 활성화를 이끈 업체

상가입주상인 A 당시에는 지금 매교상가 크기만큼의 쇼핑매장이 밀집한 그런 게 없었어요. 상가 오픈 초기에는 건물 외부로 노출된 매장뿐 아니라 건물 안쪽 매장까지도 매장이 꽉꽉 들어차 있었어요. A동 3층 전체에 볼링장이 크게 있고, 2층에 당구장이 있었어. 각종 옷, 액세서리, 유아용품, 화장품 가게들이 백화점, 쇼핑센터처럼 빼곡히 차 있었어요.

매교상가의 최초 분양가는 점포 위치에 따라 3,000만 원 후반에서 5,000만 원 후반대였고 이 가격은 당시로서는 비싼 편이었다고 한다. 분양 당시에는 매교상가 규모만큼의 쇼핑매장이 밀집한 신식 상업시설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싼 분양가 탓에 점포 분양률은 40% 초반에 그쳤다. 하지만 점포를 임대하여 입점한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로 상가는 가득 들어찼다.

매교상가 설립 초창기에 입점한 업체 중 상가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대형 슈퍼마켓인 나드리마트와 B동 1층에 넓게 자리한 국민은행 수원지점 매교출장소, A동 3층 전체에 들어선 볼링장이었다. 특히 A동 지하 전체를 사용하여, 전용면적 220여 평가량의 대형 슈퍼마켓인 나드리마트의 흥행은 선풍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식료품, 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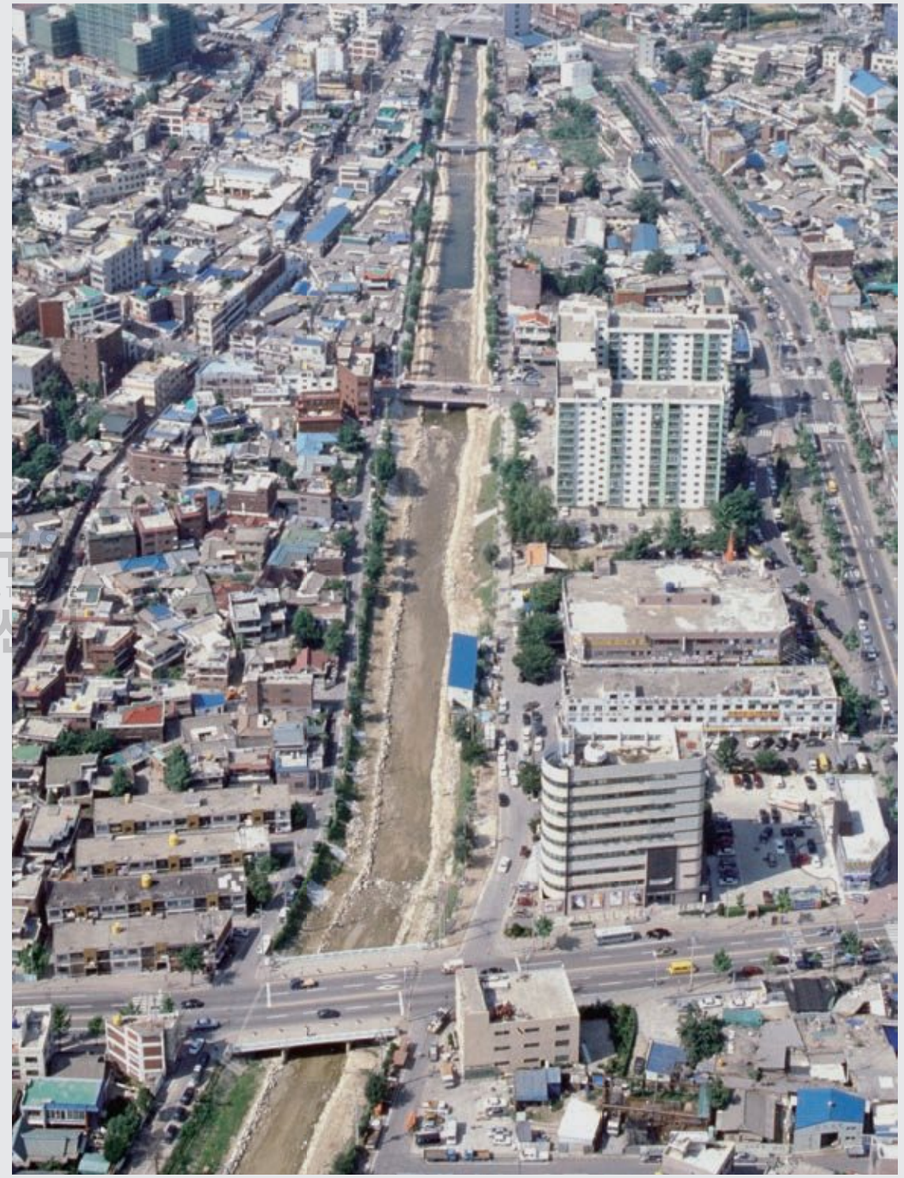


1990년대 매교상가(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천 복개공사 현장 뒤로 신축된 매교상가가 보인다.

용 잡화 등 일상적인 구매행위는 주로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재래시장보다 쾌적하고 깨끗하며, 다양한 물품을 고를 수 있는 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세련된 소비공간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나드리마트의 흥행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셔틀버스 운영이었다. 이전까지 재래시장과 같은 곳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모객 방식으로 소비자의 접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었다. 당시 나드리마트는 자체 셔틀버스를 10여 대나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는데, 이 셔틀버스는 수원 남부 세류동 방면으로는 세류3동 장미아파트, 세류2동 미영아파트, 공군관사까지도 운영되었다고 한다.

상가입주상인 B 당시에는 일상에서 장보는 게 다 재래시장이었지. 이 동네에도 연향아파트 건너편 쪽에 매교시장에 골목골목 정육점이니 순댁국집이니 들어차있고 좌판 노점들이 있었지. 또, 지동시장이 가까우니까. 그러다가 슈퍼마켓이 생긴 거야.

상가입주상인 C 지하에는 나드리마트라고 200평이 넘는 마트가 있었어요. 장미아파트, 미영아파트, 공군관사까지도 마트 자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사람을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그랬다고. 주부들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나드리마트가 유명했어요.



2000년 매교상가와 문화맨션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
SUWON RESEARCH INS
수원학연구

상가입주상인 B 25인승 승합차로 10대 이상 셔틀버스를 운영했어. 그걸로 수원 각 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여기로 실어 나른 거야. 그렇게 와서 쇼핑하고 다시 셔틀버스 타고 가고 그랬어. 나드리 유통 이전에는 여기 근처 동네도 그렇고 수원에는 대형마트 건물이 없었어. 역전시장도 조금만했지.

2000년대 대기업이 유통하는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주된 소비경관이었던 '마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띤 나드리마트는 1989년과 1990년대 초반 매교동과 그 인근 동네까지 넓은 지역에 새로운 소비 경험을 파급한 것이다. 특히, 매교상가와 접해 있는 문화맨션(1979년 준공)과 정조로를 따라 세류동으로 내려가는 경로에 있는 장미아파트(1983년 준공), 미영아파트(1988년 준공), 인계동 신반포(한신)아파트(1983년 준공) 등 인근에 새로 개발된 아파트단지 거주민을 중심으로 마트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드리마트의 흥행에 힘입어 초창기에 매교상가 입주 점포들은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업종 구성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당과 술집, 패션 잡화, 화장품 매장, 소가구 매장, 볼링장, 당구장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신식 근린상가 기능을 톡톡히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매교상가의 초기 활황에 힘입어 상인들 간에도 친목 활동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상가입주상인 A 90년대 초중반, 상가가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에는 상가 앞에서 상인들끼리 윷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분위기 좋았어요. 관광차 빌려서 서해안 쪽에 놀러 가기도 하고. 상가 개점 초기부터 한동안은 상가번영회가 활동하다가 한 5년 정도 하고 사라졌어요.

4. 위축되어 가는 매교상가 상권

매교동 일대에서 이름을 떨치며, 매교상가의 활성화를 이끌었던 나드리마트의 운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나드리마트는 경영자들의 내부 마찰로 개업 3년여 만에 허무하게 폐점하였다. 이후 나드리마트 자리에는 대중목욕탕이 들어섰다. 1993년에 전용면적 220평 가량 규모의 대중목욕탕이 개점한 것이다. 당시 인근 매교동에 한일목욕탕(현 재개발구역 내), 세류동에 세류목욕탕, 매산시장 앞 은하탕 등이 있었는데, 매교상가에 개점한 태영목욕탕이 규모에서 손꼽히는 목욕탕이었다고 한다. 목욕탕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주말



매교상가에 입점한 태영목욕탕(200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에 대략 1,500여 명이 목욕탕을 찾았고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돌아가는 손님들도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기에는 목욕탕 사장님의 운영 노하우도 한몫을 한 듯하다.

상가입주업체 대표 G 태영목욕탕 사장이 머리를 잘 썼어. 한 달에 한 번은 남탕, 여탕에 성별을 바꿔 손님을 받았어. 남탕에는 여자, 여탕에는 남자를 입장시켰어.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초기심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

하지만 태영목욕탕의 성업과는 무관하게 매교상가의 상권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태영목욕탕은 개점 이후 7년 정도, 그러니까 매교상가가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가량이 지난 시점까지는 영업이 잘되었지만 매교상가의 전체적인 매출과 활성도는 운영 초기 5년 정도 지난 1994년부터 침체 일로를 걷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매장이 크게 바뀌지 않다가 새로운 매장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도 짧아지고 상가 점포의 업종 구성도 변화하였다. 상가의 성격이 변하게 된 것이다.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생활소비·여가문화·서비스업으로 구성된 근린상가에서 창고가 필요한 도매 납품업체, 소규모 기업 사무실, 협회나 친목 단체 등의 사무실 등이 우세한 오피스 상가로 바뀌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0년에 천궁빌딩(결혼회관)으로 이전한 국민은행

매교상가 초기에 지역의 관심을 끌었던 대형 슈퍼마켓이나 볼링장 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생겨났고 신식 쇼핑상가의 세련됨은 이내 매교상가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다른 상가들이 점하였다. 매탄·영통지구 등 동수원 개발, 천천·정자지구 등 북수원 개발 등 급속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던 1980~1990년대 수원에 3층 건물 2동으로 구성된 매교상가를 대체할 만한 근린 소비공간들은 금세 차고 넘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립 후 5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매교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또 많은 상점들이 영업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상점이 개업하고 또 폐점하는 순환이 일어났다. 30년의 세월 동안 매교상가를 지켜 온 소수의 상인과 업체 대표, 관계자들에게서 매교상가를 거쳐 간 다양한 업소들의 순환을 들을 수 있었다.[5] 요식업종만 해도 분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레스토랑 등 그 메뉴가 다양하였다. 현재 매교상가에서 운영 중인 식당은 전골을 파는 식당과 돼지고기구이와 찌개류를 파는 식당 두 군데뿐이다. 매교상가 오픈 시점부터 B동 1층에 자리했던 국민은행 수원지점 매교출장소는 2010년에 인근 천궁빌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 인해 매교상가로 유입되는 인구는 더욱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은행이 있던 자리는 상가의 중심적 위치라고 할 수 있는 B동 1층 120평가량 되는 공간이었는데, 이곳이 2년간 공실로 남아 있었다. 나드리마트 폐점 이후 입점한 태영목욕탕은 개점 이후 7년 정도 성업하다가 그 이후부터 영업이 어려워져, 2012년에는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소유자가 두 번 바뀌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리하자면, 근린상가의 상권을 이끄는 대표적인 여가소비 공간은 사라진 대신에 주변 사무실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매교상가의 점포 임대료의 영향으로 창고가 필요한 소규모 업체와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들의 입주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의 매장은 줄어들어 소소하게 몇 군데만 남아 개점과 폐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2020년 현재 매교상가에서 영업 중인 업체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과 〈표 2〉는 2020년 현재 매교상가의 업종 및 업체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A동과 B동의 1층에는 일반 소비자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카페, 세탁소, 안경점 등의 업소가 소수 남아 있지만 그 외에는 근린소비상가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업종 및 업체의 매장이 매교상가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대로변과 접하지 않는 매장과 2층 이상에 위치한 매장에는 사무실과 소기업의 창고로 활용되는 공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1 2020년 매교상가 A동 업종 및 업체 현황

3층	교회	
2층	소기업 사무실(10)	
	협회 등 단체 사무실(2)	
	소개업	인력사무소(3)
	점술업	철학관
	출장·배달	퀵서비스
	생활	당구장, 피부관리실
1층	소개업	부동산 중개업소(4), 인력사무소(2)
	생활	세탁소, 안경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한복점
	출장·배달	퀵서비스, 이삿짐, 출장청소
	시공	유리·거울 시공 및 판매, 간판(2), 샤시 및 창호, 페인트
	도매	청소용품, 통신부품, 에어컨 및 냉동기계 부품(6)
지하	목욕탕	

표 2 2020년 매교상가 B동 업종 및 업체 현황

3층	협회 등 단체 사무실(4)
	소기업 사무실(2)
	교회
	화실
2층	소기업 사무실(4)
	화장품 방문판매 사무실
	음향 가전 수리점
1층	카페, 식당(2)
지하	노래방







매교상가 A동 전경



매교상가 A동 업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교상가 A동 지하주차장 입구



업체 창고로 활용되는 A동 점포



A동 1층 복도에 쌓여 있는 자재



A동 1층 우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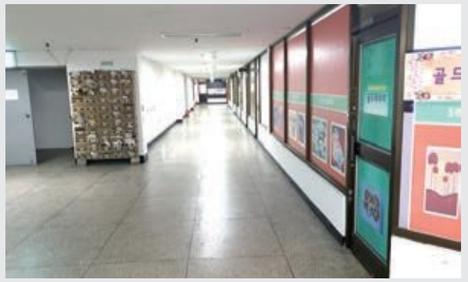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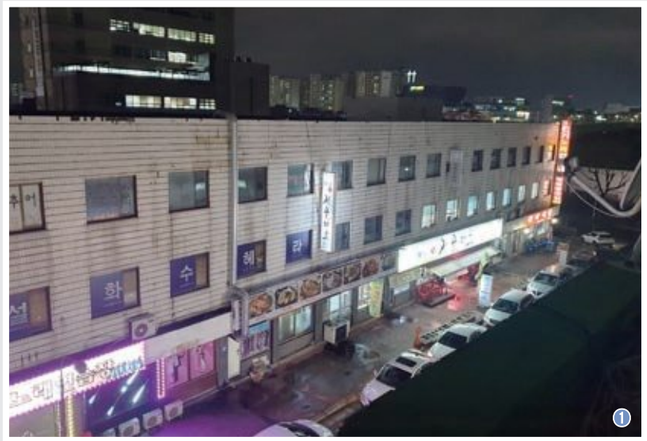
A동 1층과 2층 복도 풍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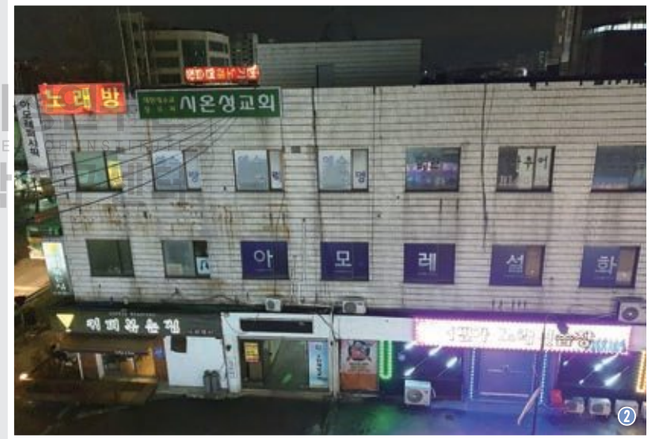




매교상가 B동 전경



❶



❷



❸



❹



❺



❻

❶❷ 매교상가 B동 야경
❸ B동 1층 우편함
❹ B동 2층 복도
❺ B동 3층 복도
❻ B동 2층과 3층 사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5. 매교상가에서 오랫동안 성업했던 업체의 특성

매교상가는 처음 5년 이후 매교상가의 상권 가치와 유동인구는 줄어들었고 상가건물은 점차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20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 너무 일찍 전성기가 끝나 버린 것 같은 매교상가가 점점 노후화해 가는 와중에도 영업이 잘됐던 업소들이 있었다. '만물상회'라는 업체는 다양한 품목을 소매점으로 유통하는 도매업체인데, 당시 충전식 배터리를 일주일에 2~3차례, 3톤 트럭 혹은 5톤 트럭으로 소매점에 유통시킬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둔동에 300여 평의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횟집을 차려 매교상가를 떠났다고 한다. 매교상가를 나간 이후에도 상가에서 친했던 지인에게 10년 동안 술을 사줄 정도로 수입을 올렸다. '윤창상회'라는 볼트·너트 등 기계부품 도매업체도 유통을 통해 수입을 올렸다. 매교상가 운영 시작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수유리'는 매장 판매보다는 현장으로 출장 다니면서 유리를 맞춤 제작하고 설치·시공하는 공사 수입으로 매상을 올리며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개나리식당'은 24시간 배달 전문식당이었는데, 하루 매출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이 나올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개나리식당'은 7~8년을 성공적으로 영업하다 매교상가를 떠났다. 이렇게 매교상가에서 높은 매상을 올렸던 매장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매교상가로 찾아오지 않고 공급자가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유통·출장·배달 서비스업체인 것이다. 이는 매교상가의 고객 유인 효과가 미미하고 유동인구가 적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통·출장·배달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소들은 경영자의 인맥이나 오랜 운영으로 쌓아 온 충성 고객, 즉 단골손님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7년째 운영 중인 '진성생고기식당'은 재개발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식사하러 오는 경우도 많지만 사장님이 수원에서 맺어 온 인간관계로 인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고 한다. 매교상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온 '프랑스안경점'은 오랜 기간 반복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중심이다. 매교동에 살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계속 이 안경점을 찾는 고객들이 많은데, 수원 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이천과 여주에서도 올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 매교동 재개발로 인근 지역 인구가 유출되어 고객 감소를 피할 수는 없었다. 피부관리실도 확보한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

6. 매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매교상가

2020년 현재 매교상가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매장은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 있다. 현재 매교상가에서 가장 활발한 분위기를 띠는 매장은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카페이다. 매교동·인계동 일원에 1만 2천여 세대를 짓는 팔달 6·8·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6년에서 2007년 각 구역 별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2009년에서 2010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2015년에서 2016년 사업 시행인가가 이루어져 2020년 현재에는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주택 철거가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다. 2022년 완공 예정이다.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로 부동산 투자자와 공인중개업자들이 재개발구역이 아닌 매교상가를 비롯한 정조로 주변 상가에 몰리고 있다. 매교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매교상가 A동 1층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4곳이나 영업 중에 있다. 또, B동 1층에 있는 카페에는 재개발구역 지도와 아파트 홍보 책자를 펴 놓은 사람들, 투자에 대해 대화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의 매교상가는 아파트 투자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

상가입주상인 A 매교동 재개발 시작되고 이 점포 자리를 팔라고 부동산 업자들이 문의가 엄청 많이 와. 지금도 그래. 이 상가들도 부동산 쫙 돌어봐 있지. 문화맨션 상가들도 그렇지. 성원아파트 있는데도 그렇지. 이 블록 뒤까지 대로변에 부동산 천지야. 지금 아주 부동산이 대단해.

팔달6·8·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최근 매교상가의 유동인구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매교상가의 점포 매매가를 급등시켰다. 매교상가는 현재로서는 상권의 가치가 높지 않고 노후하여 점포 임대료는 주위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나 점포 매매가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2013년 분당선 매교역 개통으로 매교상가의 매매가가 많이 올랐고 또, 매교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매교상가에 대한 재개발 기대효과가 반영되어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였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상가 내 접근성 좋은 위치인 대로변 1층 매장에 긴급히 입점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경쟁적으로 입점하여 상가 매매가를 많이 상승시켰다고 한다. 과거의 매매가에 3~4배씩 올랐고 이러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점포를 팔고 나간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매교상가는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지 않지만, 재개발 열풍의 자장 안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매교동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들어맞는 급격한 변화 과정에 있다. 매교상가 역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매교상가 일대(김승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하연구센터

마찬가지로 재개발 열풍의 일원이 되는 커다란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움직임도 없다. 이는 매교상가가 소유자 1인이 7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유물이기에 소유자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전적으로 그 미래가 결정되는데, 매교상가 소유자는 아직까지 상가 재개발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매교상가 분양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가 개발 초창기에 사업 시행자가 많은 고생을 하여 다시는 상가 재건축사업을 하지 않기로 못박았다고 한다. 반면에, 매교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은 75명 중 거의 전부가 상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한 상가 입주자의 견해에 따르면, 매교상가를 소유한 사장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는 매교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매교상가의 부동산 가치가 더욱 상승하기를 기다린 후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가 재개발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입주자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였다.

상가입주상인 A 상가 재개발은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이 끝나는 한 5년 후에는 상가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현재로서는 매교상가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현재의 매교상가의 경관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거대한 변화에 따라 매교상가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매교상가는 택지 재개발로 매교동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이 시간에도 지난 30년 세월의 변화를 그대로 받고 있다. 매교상가 개발 이후 수원에는 매교상가만한 상가는 물론이고 매교상가보다 규모가 큰 상가들도 무수히 많아졌다. 매교상가는 소비와 개발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는 나름의 방식으로 오래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쓸쓸함을 어쩔 수는 없다.

상가입주상인 B 지금은 워낙 좋은 데가 많으니까 옛날부터 다니던 사람들만 다니지, 손님이 몇 명 없어.

상가입주상인 C 다들 이사를 가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상가입주상인 A 내가 이 상가에 들어온 30년 세월 동안 가게도 계속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내가 친했던 사람들 몇 명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 여기 같이 오래 있던 사람들 중에 나하고 친구했던 사람들 둘이 세상을 떠났어.

지금의 매교상가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고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소비경관과는 단절된 형태의 상가로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소유의 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가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위한 '경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매교상가의 경관을 살리면서 공간을 경험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재생'[6]을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공간 소비'는 특히 특정한 공간을 경험함으로써 그 공간이 지닌 상징과 문화적 코드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위 '핫 플레이스(Hot Place)'를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디지털 공간에 게시하여 타인에게 인증하고 전시하는 방식의 여가소비활동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권을 조성할 때 새로운 문화 코드로 소비경관을 기획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레트로' 코드에 따라 그 나름의 경관 특색을 소비하는 을지로나 익선동 상권이 그러한 예이다. 수원에서도 화성 내 행궁동 일대에 새로 등장한 카페와 식당들이 이러한 '공간 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화하고 있는 매교동 재개발구역 한가운데 위치한 매교상가 부지는 최근 '단지 내 상가'에서의 세련되고 트렌디한 '공간 소비'를 보여 주는 광교신도시의 '아브뉴프랑'이나 '앨리웨이 광교'의 경관과 유사하게 조성될지도 모르겠다. 그때에는 매교동의 지역성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이재우·이창무, 2006, 「서울 상가시장 임대료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1), 75~90쪽.
2 2020년 현재 이 주거지역의 상당 부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 주택들은 철거되었다.
3 김경완, 2019, 「제4부 도시공간과 건축-제1장 도시공간의 역사」, 『70, 수원시 도시공간의 역사』, 수원시.
4 1986년 6월 2일, 「수원도시계획 시설(시장)결정 신청검토 보고」.
5 매교상가의 업종 분포 내역과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지만 5년이 지난 계약서 등의 문서는 파기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매교상가에 오래 입주해 있는 상인이나 업체 대표 등의 구술에 의존하였다.
6 이러한 사례로 2016년 서울시가 세운상가 재생사업으로 실시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있다. 스타트업의 입주를 유도하여 기존 세운상가 기술 장인들과의 협업체제를 만들고 상가 공간을 재조정하여 입체보행네트워크를 만드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5부

梅校洞 사람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 매교동 가족의 삶 : 김수환과 이학분의 생애담

제2장 | 소설가 홍성원의 문학적 고향, 매교동

제3장 | '매교다리 쥔네' 오수복의 무계와 삶

제4장 | 대구 처녀 최영순의 교동 정착기

이학분은 수원시 인계동이 고향으로
11남매의 둘째이다.
열아홉 살에 결혼하면서 김수환이 사는
매교동으로 오게 되어 66년 동안
매교동에서 살았다.

유선영 이천문화원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장 매교동 가족의 삶 : 김수환과 이학분의 생애담

1. 매교동 주민, 김수환과 이학분 부부

김수환은 1932년 용인시 기흥구 고매리에서 8남매의 맏이로 태어나, 두 명의 남동생과 다섯 명의 여동생이 있다. 1948년에 수원농림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수원에 거주해 71년 동안 매교동에서 지내 왔다. 17살에 인계동 삼촌 댁에서 지내며 1년간 학교를 다니다가 매교동에 집을 얻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냈다. 결혼하고 매교동 본집으로 와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1957년에 신갈저수지가 조성되면서 용인에 계시던 아버지, 어머니도 매교동으로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다.

김수환은 열아홉 살에 한국전쟁이 발발해 다니던 중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군대를 갔다.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군대를 다녀온 후 다시 학업을 잇지 못해 중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다가 전쟁 중 입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7년 수원북중학교(수원농림중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김수환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 몇 달 뒤 제대하고 매교동으로 와 지금까지 매교동에서 살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철도가 있었고 그 철도 근처에서 부인 이학분과 잡화점을 잠깐 운영하기도 하였다. 1954년 수원교도소가 처음 세워진 해에 교도관으로 1년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삼촌이 운영하시는 소주장사 일을 돕다가 복덕방과 목공소 등을 운영하였다. 김수환은 작년 8월까지 8년 동안 매교경로당 회장직을 맡아 일

해 왔고, 지금도 노인회 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학분은 수원시 인계동이 고향으로 11남매의 둘째이다. 열아홉 살에 결혼하면서 김수환이 사는 매교동으로 오게 되어 66년 동안 매교동에서 살았다. 슬하에 아들 둘, 딸 셋 5남매를 두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각 수원, 화성, 용인 등지에서 살고 있으며 부부는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다. 출가한 다른 자녀들도 대부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왕래가 잦은 편이다. 5남매가 모두 결혼하여 자녀를 2~3명씩 두어 명절이나 부부의 생일 날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스무 명이 족히 넘는다. 이학분은 동생들과도 자주 모임을 가지고 있다. 동생들도 대부분 수원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모이는데 11남매이다 보니 한 번 모이면 20~30명 정도가 모인다.

2. 수원농림중학교 입학을 위해 매교동에 들어오다

용인시 고매리가 고향인 김수환은 1947년에 신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후인 1948년에 수원농림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 수원으로 오게 되었다. 김수환이 처음 수원에 왔을 때는 열일곱 살이었다. 당시 부모님은 용인 시골집에 계시고 삼촌이 결혼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인계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수환만 삼촌 댁에 와 지내며 학교를 다녔다. 당시 삼촌댁 바로 앞에 화성역(수려선 운영 당시 있었던 역)이 있었다.

김수환 용인 저 고매리저수지 있죠? 거기가 고향이에요. 기흥면 고매리.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고향이 거긴데 지금 아는 사람도 없어. 전부 깜깜이 들어와서. 소학교 졸업 맞고 바로. 소학교 졸업이 언젠가 하니 6·25 나기 전이니까, 45년에 내가 5학년이니까 46, 47년에 47년에 졸업하고 48년에 들어왔어. 글서 수원고등학교 들어간 거지. 중학교. 수원농림중학교. 그거 졸업장도 금년에 받았어.

삼촌 댁에는 김수환과 비슷한 또래의 사돈총각이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내외, 사돈총각, 김수환이 함께 살았다. 지금은 8촌 이상만 되도 서로 친인척인 줄도 모를 정도로 친인척 간의 왕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가까운 촌수라 하더라도 가까이 살지 않으면 명절이나 가족의 대소사가 있을 때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로 소원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에는 혈연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었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기 때



1940년대 신갈초등학교(김수환 제공)



1947년 제34회 신갈초등학교 졸업사진(김수환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에 어린 자녀들의 교육이나 직장 생활 등을 위해 친인척 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일이 흔하였다. 게다가 삼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김수환은 자연스럽게 삼촌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김수환은 처음 수원에 와서 1년을 삼촌댁에서 살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삼촌 내외가 각각 동생과 조카를 챙겼다. 삼촌 내외는 각각 자기 친동생들을 데리고 생활하다 보니 입장이 다른 경우가 생겼다. 사돈총각과의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작은어머니는 사돈총각 편을 들고, 삼촌은 김수환 편을 들었다. 어린 마음에 작은어머니가 심부름을 모두 자기에게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열일곱 살, 어린 나이고 한참 예민할 시기였다. 그러던 중 그 해 겨울 작은어머니가 김수환에게 군불 지피는 일을 시키셨다. 일이 안 되려고 했는지 김수환은 군불을 지피다가 그만 얼굴에 화상을 입어 얼굴 전체를 칭칭 싸매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김수환은 얼굴이 다 낫자마자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 "집을 사 달라."고 하였고, 어른들은 어린 자식이 집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을 헤아려 매교동에 집을 마련해 주셨다. 이때부터 김수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매교동에서 살게 되었다.

김수환 저 위에 삼촌네가 인계동에 있었어. 거기가 화성역 바로 앞이야. 거기서 내가 1년 댕기고 불편해서 내가 혼에 가서 아버지 보고 "집 사 주소." 그랬지. 이걸 내 세 치 혀를 보고 사 주신 거야. 내가 사 달라고 해서. 우리 사돈하고 같이 댕기는데 뭔 쓰면 불편하잖아. 둘이 쓰니까. 그걸 이제 내가 느꼈지. 작은어머니는 자기 동생 편이지 내 편은 아니여. 삼촌은 내 편이고. 뭔 시키는 걸 꼭 날 시킨다고 작은어머니가. 옛날에는 군불을 때면 요 밑에 파고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때는 게 있어. 그거 때다가 홀랑 데었다고. 그래서 눈만 내 놓고 싸매고 다녔어, 학교를. 근데 그러고 나서는 얼굴이 나니까 뛰어 나가서 집 사달라고 그랬지. 그래도 딴 집 같으면 못 있지. 삼촌네니까 가 있었지.

1949년 김수환은 집을 보러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다. 지금의 매교동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당시에는 집이 많지가 않았다. 그 당시 김수환 집 근처에는 수원천이 흐르고, 수려선 철도가 지났다. 인근에는 살림집이 많지 않아 지금 현재 김수환이 살고 있는 집과 윗집만 있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다. 김수환이 고른 집은 단층으로 된 조선집, 즉 한옥이었다. 넓고 튼튼하게 잘 지어서 김수환은 그 집이 마음에 꼭 들었다.

김수환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라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지. 내가 며칠을 몇 달을 댕겼어, 집 보러. 그때는 여기 집이 없었어. 딱 두 채 있었어. 우리 집하고 요 윗집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골랐지. 그때는 넓직했고 조선집인데 잘 지었어.

김수환이 다니던 수원농림중학교는 영화동에 있어서 매교동에서는 4㎞가 조금 못 되는 거리에 있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0리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걸어서 40분 정도가 걸렸다. 당시 학교가 있는 영화동은 문 안이어서 집값이 비쌌고 비교적 매교동은 집값이 저렴한 편이었다. 20~30년 전만 해도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그 정도 걸어 다니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심지어 김수환이 학교를 다닌 시절은 해방 직후니 한두 시간 걸어 다니는 일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던 시절이었다.

김수환은 10리 가까이 되는 통학 길을 개천가를 따라 다녔다. 집 앞에서 개천가로 내려가 걷다 보면 용두각(방화수류정)이 나온다. 이 용두각에서 큰길가로 올라가 학교에 가기도 하고 계속 개천가를 따라 학교에 가기도 하였다.



1940년대 영화동 수원농림중학교 전경(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수환 여기서 학교까지 걸어 다녔지. 여기서 걸으면 30분 내지 40분 걸어요. 얼추 10리 가까이 되는데 뭐. 이 개천 길로 쭉 올라가면 돼. 학교 문 앞에 까지 개천 따라 쭉 올라가면 돼. 학교 얼추 다 가면 저 용두각 있죠? 개천길로 쭉 올라가면 집 지어놓은 게 있어요. 정자처럼. 거기서부터는 개천 따라 올라가도 되는데 옆으로 가지.

수원은 도심 한가운데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장소가 많다. 시내 곳곳에 있는 화성의 사대문과 그 외의 각루, 옹성 등의 구조물은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놀기 좋은 쉼터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김수환 학교 가기 싫으면 북문 있지 북문에 올라가서 놀고, 서문에 올라가서 놀고. 그 문에 올라가면 놀기 좋아요. 지금은 못 올라가게 해서 안 올라가나 봐. 문에 올라가 앉아서 노는 거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에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였다. 할머니께서 싸 주신 도시락을 가져가서 난로에 얹어 두었다가 먹었다.

김수환 그때는 밥 싸 가지고 대녔어요. 우리 할머니가 벤또에 밥을 싸 주시지. 이절게 노란 할석으로 된 거 있잖아. 옛날 벤또. 그런 거지 뭐. 그거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난로에 얹어 놨다가 먹는 거야.

김수환이 다닌 중학교는 농림중학교여서 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고 농토가 많았다. 지금의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와 수원북중학교가 예전에는 모두 수원농림중학교 부지였다. 1940년대 후반 수원농림중학교 건물은 목조기와 형태였고, 한 학년당 2~3개의 반으로 구성되었다.

김수환 수원농림중학교 위치? 그 자리지 뭐. 북중학교, 수원농고 있는 자리. 농토가 많았어. 농업 책관데 농사짓는 학교라서 부지가 넓었어. 농사지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건물은 나무로 된 기와집이었지. 교실 많았어. 한 학년에 둘인가 셋인가 있었고.

3. 군 입대와 결혼

김수환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한국전쟁을 겪게 되었다. 전쟁이 나고 많은 피란민들이 몰려왔다. 피란민들이 묵을 숙소와 식사가 모두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더 만들어서 판매하였다.

김수환 6·25 나서 여기 바로 밑창이 방이었는데, 저 문간이. 인천서 내려온 학생들하고 군인 가는 이들이 모여서 그이들. 그 뭐여 공민병. 그 사람들 밥을 해 주고 나서 바로 내가 군인을 갔어. 12월에 군대에 지원해서 인천으로 해서 제주도로 건너갔다고. 군인을 일찍 갔어.
그때는 식당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해 준 거야. 재우고 그런 건 없이 우리는 밥만 해 줬어. 그 당신엔 개인 집에서는 어디 들어가 잘 데도 없어. 학교 교실 같은 데서 자야지.

김수환 댁도 인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밥을 해 주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학교는 모두 휴교한 상태였으므로 김수환도 집안일을 도왔다. 그러다가 12월에 군대에 지원을 하여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김수환이 군대에 있는 동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교동에서 생활하였고 잠시 함께 살던 삼촌은 폭격 맞은 집을 수리해 놓고 분가를 한 상태였다. 시절이 소란스러운 때이고 집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계셔서 삼촌이 계속 드나들며 어른들을 챙겼다.

그 와중에 삼촌은 인계동에서 봐 온 참한 이웃집 아가씨를 할머니에게 소개했고, 할머니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였다. 그 후 할머니는 참한 색시를 놓칠세라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사진을 보내며, 선을 보게 휴가를 나오라고 재촉하였다.

김수환 할머니는 여기(매교동) 살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 살아도 삼촌이 왔다갔다하니까. 우리 안사람은 고향이 인계동. 맨날 만나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고 나한테 사진을 보내고 빨리 휴가 나오라고 그러더라구. 할머니하고 삼촌이 놓치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붙든 거야.

김수환은 10월에 휴가 나와서 선을 보았다. 잠깐 얼굴 한 번 보고 복귀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에서 결혼식 날을 잡았다고 결혼식 하러 집에 오라고 하였다. 선을 본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전쟁 중인데도 군대에서는 결혼한다고 하니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려선 철로 위(오른쪽 김수환)에서(김수환 제공)

한 달의 휴가를 주었다. 1953년 11월 11일, 김수환이 스물두 살, 이학분이 열아홉 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

김수환 휴가 나와서 선보고 들어갔다가. 결혼 날짜를 잡아서 보냈더라구. 결혼하러 나오라고 해서 나왔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휴가 간다고 했더니 그냥 얻은 한 달을 내주더라구. 결혼식 하고 한 달 후 다시 들어갔는데 불편하지. 바깥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고 싶고 불편하지.

이학분 열아홉 살, 열아홉 살에 시집왔어. 내가 지금 여든 다섯 살인데, 시집와서 여기서 66년을 살았어. 그걸 66을 빼 봐. 1953년이지. 결혼식은 바로 한 달 만에 했어. 선보고 나서 한 달 만에. 10월에 선 봐서 11월에 결혼했어요. 11월 11일 날.

결혼식은 전통혼례였으므로 아내가 살던 인계동에서 치렀다. 김수환은 예식에 맞게 예복을 갖추고 함진아비들과 일행을 대동하고 인계동까지 걸어가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학분은 1953년 매교동으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66년을 매교동에서 살고 있다. 시댁이 워낙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당일 친정집에서 묵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시댁으로 왔다. 따로 신혼여행을 가지는 않았고, 결혼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수원역을 한 바퀴 돌아 시댁에 갔다.

김수환 나 구식. 전통혼례. 집에서 했지. 처가. 인계동에서 했어. 여자는 족두리 쓰고 남자는 옛날 그 갓 같은 거 쓰고 옷 입고 서로 술 놓고 절하고. 절했잖아요. 그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때 요기 길도 없었어.

이학분 택시 타고 한 바퀴 떡전으로 돌아서 인루 든 거야. 인계동에서 결혼식 하고 택시 타고 한 바퀴 돌고 여기로 든 거지.

3. 열여섯 명 대식구와 함께한 신혼생활

이학분이 시집 왔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용인에 계셨고 김수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 지낸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한 이듬해 김수환의 작은아버지께서 하시던 쌀장사가 어려워져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도 잠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시부모님이 계시던 마을에 신갈저수지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수몰되어 시부모님도 매교동으로 오셨다. 그야말로 대가족이었다.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 시부모님과 다섯 명의 시동생과 시누이들, 작은아버지 내외분과 조카 둘, 김수환 내외까지 열다섯 명이 한 집에서 살았다. 이후 시어머님이 애기가 생겨 시누 둘이 더 태어났으니 갓 시집온 시댁에서 열여섯 명의 시댁식구와 함께 산 것이다.

이학분 나 처음 시집왔을 때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삼촌 내외, 우리 두 내외 있었지. 삼촌 내외는 내가 시집오고 나서 그 이듬해 들어오셨나 봐. 그때 시절에 어려웠어. 그래서 저 아랫방이 비어서 와서 살았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저 시골서 사셨는데 내가 시집오고 그 이듬해 바로 들어오셨어요. 시댁 작은어머니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어. 대식구였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삼촌내외.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내외에 시동생, 시누가 넷. 대식구지. 그리고 작은집이 애들이 둘이었어. 애기를 조그만 걸들 둘이었어. 우리 시어머님이 8남매를 낳으셨어. 6남매를 낳고 나 시집오고 나서. 6남매를 낳는데 나 시집오고 우리 시어머니가 애기가 있어서 둘을 더 낳았어요. 시누들 둘이 더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6남매의 맏이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8남매의 맏이가 된 거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교동 집 앞에서(김수환 제공)

김수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신갈저수지 막으면서 들어오셨어. 저수지 막으니까 물이 들어차잖아. 땅 다 놔두고 그냥 와서, 낭중에 팔았어. 그 때 동생들 둘인가 있나?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다 낳았어.

현재 김수환과 이학분이 살고 있는 집은 김수환이 중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집을 구해 달라고 해서 산 집이다. 처음 집을 샀을 때는 단층의 한옥으로 꽤 잘 지어진 집이었다. 당시 방은 4개였다. 방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고 건넌방은 김수환 내외, 사랑방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랫방은 삼촌 내외가 쓰시다가 아이들이 사용하였다. 식구는 많은데 방이 적어서 부부 중심으로 방을 나눠 쓰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방을 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화장실이나 부엌, 마루, 마당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요즘에 비해 개인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김수환 방이 세 개밖에 없네. 아래층만 있었으니까. 아래층 안채에 하나, 바깥에 둘. 아. 건넌방이 있었구나. 그럼 방이 4개네. 방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건너방은 내가 쓰고, 사랑방은 할아버지가 하나 쓰시고. 하나는 아이들이 쓰고.

현재 김수환과 이학분은 아들 내외,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 1층의 안채는 아들 내외가 사용하고 바깥채는 김수환 내외가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손녀가 사용하고 있어 각자의 공간이 구별되어 있다. 안채와 바깥채에도 방과 거실, 주방 등이 있어 서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된 2층에는 김수환의 사무실이 있어서 김수환은 주로 낮 동안에는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다. 한 건물에 주거와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각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공간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개인 공간이 명확히 구분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 가족 전체가 모이기도 하지만 모두 출퇴근하고 각자 바깥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식구 전체가 모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과거에는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집에서 치렀다. 생일이나 돌잔치 등은 말할 것도 없이 결혼, 환갑, 장례 등의 큰 행사도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도와 집에서 치렀다. 이학분도 인계동 친정집 마당에서 전통방식으로 혼례를 치렀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의 장례도 전통방식으로 집에서 지내고, 음식을 장만해 손님들을 대접하였다.

이학분 애들 생일 때는 팥떡, 수수로 하는 거. 이런 거 말고(팥시루떡) 동그랗게 하는 거. 경단. 그거하고 백설기. 돌 때만 해 줬지. 근데 생일 때도 다섯 살까지는 그걸 해 줘요. 팥떡 요렇게 동그란 거 삶은 거. 그렇게 해서 애들 해 줬어요. 애들 생일 때마다 미역국 끓여 주고, 자라면서는 팥떡은 안 하고 미역국 끓여 주고,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도라지무침, 잡채, 전, 돼지고기 갈아다가 계란에, 두부 넣고 이렇게 동그랑땡 그거 해요.

이학분 할아버지가 나 시집오고 그 이듬해 돌아가시더라구. 나 스무살 때. 할머니는 일흔한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애를 셋을 낳으니까, 내가 스물일곱 살이니까 1962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집에서 했지. 상여메고 용인 산으로 갔어. 차로 다 싣고 용인까지 가서 거기서 산에 올라갈 때는 다시 상여 꾸며서 올라갔지.

이학분의 어머님 세대까지는 환갑잔치도 집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시아버지께서 환갑이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잔치를 하지 않으셨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 하는 것을 꺼려하셔서 환갑과 칠순, 팔순 모두 잔치를 하지 않으셨다.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서 절을 올리는 등의 큰 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모여 축하하며 식사를 하였다.

시대가 변해 요즘은 결혼, 환갑, 장례 등을 예식장, 장례식장, 호텔 등에서 한다. 김수환과 이학분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구천동에 있는 예식장에서 손님들을 초청하여 환갑잔치를 하였다.

이학분 시아버지가 쉰아홉에 돌아가셔서 환갑도 못 잡숫고. 우리 시어머니는 여든한 살에 돌아가시고. 근데 시어머니도 환갑잔치 안 해 드렸나 봐. 우리 시아버지가 쉰아홉이고 시어머니가 떼쉰이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환갑을 안 해 잡수면 시어머니도 안 해 잡숫는 거래요. 그래서 안 했어. 나중에 칠순 때도 안 하고 그냥 밥 해 먹었어요, 식구들이 모여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사라진 풍경

김수환은 수원천이 그리 깨끗한 하천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원천은 다른 지방하천에 비해 지류가 좁고 흐르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았다. 경안천이나 안양천 등의 지방하천과는 달리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아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지 않아 동네의 조그만 도랑과 비슷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수원에는 피난민이 많이 몰려 인구가 급증했고 많은 피란민이 수원천에 정착하여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오수의 유입이 많았다. 게다가 수원은 철도와 도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어 1950년대부터 수원천의 오염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김수환은 수원천이 그리 깨끗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수원천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수환 개천은 더러운데, 그 옛날에 그렇게 더럽진 않아도 그래도 촌 개울 같지가 않거든, 여기가. 어. 거기 샘물 나와. 샘물. 요기도 샘물 나오는 데 따로 있어. 요 다리 밑에. 그 당시엔 그래도 물이 아주 더럽지는 않았어도 난 개울에 안 들어갔어. 다른 친구들도 안 들어가더라구. 더러우니까 고기도 안 잡아먹고. 지금은 고기가 많지. 그때는 고기도 없었어. (…) 거기 샘물 나와. 샘물. 요기도 샘물 나오는 데 따로 있어. 요 다리 밑에. 그 당시엔 그래도 물이 아주 더럽지는 않았어. 난 개울에 안 들어갔어. 다른 친구들도 안 들어가더라구. 더러우니까 고기도 안 잡아먹고. 지금은 고기가 많지. 그때는 고기도 없었어.

김수환은 수원천이 더러워 물고기를 잡거나 물놀이를 하지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김수환과 이학분의 기억에도 동네 사람들이 천변가에서 빨래를 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집 앞에서 수원천으로 내려가면 맑은 물이 솟는 샘물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50년대 수원천이 심각한 정도로 오염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학분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할머니나 동네 사람들이 개울에 가서 빨래하던 것을 보았다. 당시 대부분 흰 광목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때가 잘 타고 잘 지워지지도 않았다. 애벌빨래를 해서 잿물에 넣고 삶아야 했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학분 집에는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식수와 생활용수 모두를 우물에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동네에 우물이 없는 집들은 다른 집에서 우물을 길어다 먹는 처지이다 보니 빨래는 개울에서 했다.



1950년대 수원천(수원박물관 제공)



1950년대 집 앞 수려선 철로(김수환 제공)

이학분 시찰아버지가 종풍이 와서 누워 계시더라고 시집오니까. 그래서 우리 시찰머니가 그 시중을 다 하고 나는 안 했어. 노인네가 그 전에 그 지금 물 내려가는 개울. 거기 가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울라 다녔어. 얕아서. 지금은 돌워서 저절게 됐지만. 그리 맨날 기저귀 빨러 가였어. 그 샘물 나오는 데서. 거기 샘물이 나왔어. 졸졸졸 맑아. (…) 나는 개울에는 안 갔어요. 그냥 비벼서 빨았어요. 세탁기가 없었어요. 물은 우물물. 두레박질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노인네들이 하얗게 광목 바지저고리를 입어서 맨날 손으로 비벼 빨아 가지고 큰 솥에다 잿물 넣고 삶아서 이절게 하얗게 해서 널었어요. 옛날에는 그절게 어렵게 살았어요. 손이 여가 제 갈라지고 피가 줄줄 나고 그랬어요. 겨울게는.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추워 가지고. 옛날에는 고무장갑도 없어 가지고.

김수환 우물물. 우물물이 있어요. 마당에. 우리 집 마당에. 지금은 미었지(메웠지). 중간에 철망 해 놓고 흙으로 메웠어. 돌 넣고. 우물 있는 집 있고 없는 집 있고. 우물 없는 집은 딴 집에서 길어다 먹고.

김수환은 군대 제대 후 1954년 수원형무소에서 교도관으로 1년 동안 근무하였다. 수원교도소는 1954년부터 2001년까지 있던 교도소였다. 교도소가 처음 생길 때 명칭은 수원형무소였다. 1961년 전국의 형무소가 교도소로 개칭되면서 수원형무소도 수원교도소로 개칭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교도소가 위치한 우만동에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이 생기고 인구가 많아져 도심에 교도소가 위치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2001년에 수원교도소는 문을 닫고 여주로 옮기게 되었다.

김수환이 처음 매교동에 왔을 당시 집 앞으로 수려선 철도가 지나고 있었다. 수려선 철도는 집 앞으로 흐르는 수원천 옆으로 나란히 지났다. 1972년 수려선이 폐선되었고 지금은 철로가 있었는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김수환과 이학분은 결혼 후 얼마간 잡화점을 운영하였다. 현재 김수환 댁에서 큰 길 쪽으로 나가면 수원천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고 그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바로 그 옆이 김수환과 이학분이 잡화점을 운영하던 곳이다. 김수환과 이학분이 잡화점을 운영하던 1950년대에는 수려선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가게 앞으로 철로가 놓여 있고 일정 시간이 되면 수려선이 지나가곤 하였다.

이학분 우리 진짜 가게 쪼그만 거 했었다. 이름도 잊어버렸다. 매교상이라고 지었던가? 옛날에 요 앞에 철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땡땡땡땡. 신작로가 있어서 열차가 지나갈래면 그게(차단기)가 이절게 내려오구, 땡땡땡땡 울리는 게 있었어요. 그 옆에 집이 또 하나, 하꼬방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옆에서 울리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서 우리가 장사, 잡화 가게를 했어요. 요기 바깥에. 바로 요기 있었어요. 요기 대문에서 신작로 쪽으로 나가서 바로. 슈퍼 이쪽으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들이랑 같이 여기서 밥 해 먹고, 우리는 그리 나가서 우리 애들이 그때 둘이 있었는데 걔들을 데리고 장사했지.

이후 김수환은 영동시장에서 소주장사를 하였다. 주로 도매로 판매했는데 지금처럼 병에 담아 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큰 항아리에 든 술을 받아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김수환이 소주장사를 할 때만 해도 360㎖(2홉, 현재 일반적인 소주병 크기)짜리는 그리 많지 않았고, 1,800㎖짜리 댓병이 많이 팔렸다. 김수환은 샛별소주를 판매하였다고 한다. 샛별소주는 수원 지역 소주로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수원주조주식회사에서 생산, 판매한 소주이다.



1950년대 수원주조주식회사 샛별소주 상표

김수환 소주장사는 영동시장에서 했지. 시장은 5인장인데 장은 맨날 서잖아. 나는 맨날 소주장사 가게 열어 놓고 있는 거지. 뜨내기랑 다르게. 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화 채른 차로 실어 오잖아. 한두 짝 사는 게 아니고 광에 가득 채워 놓는 거니까 짝으로. 가득 채워 두는 거니까 실어 오지. 짝으로 팔아. 그때는 적은 게 2홉짜리가 별로 없었어. 댓병, 큰 거. 그거 25병씩 들어 있어. 그때는 이만한 고리가 있어. 고리가 뭐냐면 항아리. 그 항아리 위에는 구멍이 요만해. 거기에 샛별소주 각는 게 가득 들어 있는 거야. 병에 들어서 짝으로 오는 게 있고 큰 항아리에 담겨서 오는 게 있고 그래. 항아리에는 몇 말 들어가지. 우리는 소매는 안 하고 도매로 하는 거야. 한 2년 했나 봐. 쌀장사, 잡화가게 뭐 별 거 다 했어.

5. 여든여섯에 받은 중학교 졸업장

이미 휴전협정이 맺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끝난 후 얼마 안 있어 김수환은 제대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전쟁 중에 군대에 지원해 군생활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6·25참전용사로 국가보훈처에서 서훈을 받았다. 수원교육지원청 앞에 6·25참전용사를 기리는 비석에 김수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김수환 6·25 때 갔다 온 사람들 참전 용사 그 비석도 했어요. 시방 교육청 앞에 가면 요만한 터에다가 비해서 세운 거 있어요. 돌에다 이름 죄 새겨놨어요. 누구누구.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채 마지지 못하고 군대를 갔고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학업을 계속 이어 갈 수 없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오니 22살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 들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김수환에게 배움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김수환 졸업장 재작년에 받았어. 6·25 나고 난리가 나서 졸업도 못 하고. 학교서 군인 간 거를 아니까 부르더라고. 갔더니 어제 제대했냐고 물어보더라구. 그 당시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 석 달 다녔다는데 노창호라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창이라고 쫓아 왔던데. 그 사람 하나, 어정교에서 살던 사람 하나, 또 변전소에서 살던 사람 하나, 이렇게 넷이 했어요. 이렇게 넷이 명예졸업장 받았어요. 3학년 댕기다가 6·25가 났어요. 6·25 나서 여기 집이서 있다가 여기서 인천서 오는 사람들 밥 해 주고 그러고 있다가 나도 인천으로 갔어요. 인천서 배 타고 건너가서 제주도 갔어요. 말하자면 피신이지. 지원해 버렸어.



2017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명예졸업장을 받은 김수환(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으나 중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해 아쉬웠는데 2017년 9월 26일 명예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졸업장은 김수환을 포함해 4명이 받았다. 함께 중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명예졸업장을 받는 자리에 가족들이 참여해 축하해 주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 매교동 136번지가 수원에서의 나의 주소였다.
이 집에서 나는 6·25를 경험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도 입학했다. 수원성의 주산인 팔달산의 끝부리가
이 집에서는 정면으로 보였다.
집 뒤로는 광교산에서 발원한 수원천이 흘렀고,
집 앞으로는 협궤철도로 유명한 수려선(수원–여주 간)이 지나갔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장 소설가 홍성원의 문학적 고향, 매교동

1. 소년 홍성원, 매교동과 인연을 맺다

소설가 홍성원(洪盛原, 1937~2008)은 일제강점기 수원과 남양을 무대로 한 대하소설 『먼동』의 작가이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학교 3」 등의 시나리오를 쓴 홍자매가 홍성원의 딸들이다. 이들 홍진아·홍자람 자매는 아버지 홍성원의 문학적 재능을 물려받은 셈이다.

홍성원은 남양 홍씨 홍차석(洪次錫)과 인동 장씨 장우순(張又順) 사이 8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합천 외가였지만 친가는 경남 사천이었다. 공의(公醫)로 수의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1940년 4살 때 강원도 김화로 이주하여 해방 전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자랐다.

1945년 국민학교 2학년인 9살 때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사라진 아름다운 소도시에 로스케로 불리던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1946년 새해를 맞이하고 추위가 채 끝나기 전 눈발 날리는 한 밤중에 소달구지 뒤를 따라 38선을 넘어 가족과 함께 월남하였다. 서울에서 6개월간 학교를 쉬면서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배웠고, 동네 천막극장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연극을 보면서 조선군이 일본군을 무찌르는 장면은 일본군국주의 교육에 철저히 세뇌되었던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

1946년 후반 아버지가 시흥군청에 취직하면서 안양에 정착한 홍성원은 초등학교 3학



홍성원의 부모와 7남매(수원박물관 제공)

년으로 복학하였다. 5학년까지 산과 강으로 뛰어다니며 놀았다. 6학년 되면서 아버지가 수원시청으로 전근하면서 온 가족이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 수원은 내게 첫인상부터가 숨막히게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안양에서 수원으로 옛날 구도로를 따라가자면 양쪽 도로변에 노송(老松)들이 총총히 박힌 지지대고개라는 운치 있는 고갯길을 만난다. 이삿짐을 가득 실은 목탄차(木炭車) 트럭 위에서 나는 이 고갯길을 내려오다가 눈앞에 우뚝 막아선 거대한 성루와 성곽을 보게 된 것이다. 성과 성루를 처음 본 나는 첫눈에 수원이라는 도시에 숨이 막히는 감동과 흥분을 느꼈다. 동화 속에나 있음직한 그 환상적인 우람한 성곽이 내가 앞으로 살게 될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1]

서울과 안양 등지를 전전하며 혼란과 충격 속에 유년시절을 보낸 홍성원은 1949년 초 수원 매교동 136번지에 정착함으로써 비로소 안정을 찾으며 수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원 화성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홍성원의 수원 생활은 힘겨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매산국민학교 6학년 1반에 전학한 홍성원은 처음 치른 주말 종합고사에서 반 전체 73명 가운데 꼴찌를 간신히 모면한 72등이었다. 이 치욕적인 성적표는 안양국민학교에서 내내 반에서 4~6등의 상위권 성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다. 매산국민학교는 중학교 입시 성적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학교였다. 1학기 중간쯤 이미 6학년 전 과정을 한 차례 마스터한 상황이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아무리 경청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매주 종합고사 성적순으로 1조 앞에서 5조 뒤까지 늘어앉는데, 5조 마지막 끝자리에 앉는 수모가 1학기 내내 이어졌다. 만년 꼴찌였던 친구 한 명이 그가 성적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학우였다. 1학기 내내 그의 자리는 변동이 없었다. 그때쯤 완전히 절망하여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오갔지만 하루 종일 말없는 벙어리 신세가 되었다.

1학기 끝나 갈 무렵 담임선생은 학부형을 학교로 모셔 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다음 날 점심시간 무렵 나타난 아버지는 교무실에 들러 담임선생님을 뵙고 그를 불러냈다. 기초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학우들을 따라갈 수 없으니 중학교 진학할 생각이 있으면 2학



1940년대 매산국민학교(매산초등학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기에 학년을 내려 5학년으로 다시 다니라는 것이었다. 즉 낙제였다. 이에 홍성원은 울면서 낙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학기 때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그때 낙제해도 된다며 하소연하였다. 아버지는 다시 담임선생님을 만나 홍성원의 의견을 전달하여 낙제를 1학기 유예할 수 있었다.

홍성원은 이날 이후부터 공부를 위한 치열한 분투를 시작하였다. 1949년 당시 남한은 전력난이 심각하였다. 남북 분단으로 압록강 수풍댐에서 오던 전기를 북한에서 단전하면서 남한은 밤 9시부터 전기 공급이 제한되었다. 그래서 밤 9시가 넘으면 석유 남폿불을 켜고 공부를 해야 했다. 희뿌연 남폿불 밑에서 걸핏하면 밤을 새웠다. 이에 두 번씩이나 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남폿불을 켜놓은 채 공부하다 그대로 잠이 들어 석유등 가스에 질식하는 소동을 빚은 것이다. 성적은 별 진전이 없더니 2학기 중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여 단숨에 1조까지 뛰어올라 담임선생님과 급우들을 놀라게 했는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이 경우라 하겠다. 결국 졸업을 코앞에 둔 무렵에는 5등 안에 들어 졸업식에서 규정에도 없던 '진보상'이라는 특별상을 받았다.

수원 매산국민학교 6학년에 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홍성원은 당시 실업학교 계열의 명문이었던 6년제 수원농림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950년 대망의 중학생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학생이 된 지 석 달도 채 못 되어 복막염으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하기로 날짜를 잡고 휴학을 한 채 수술대기 중에 황망한 한국전쟁을 만났다.

> 수원시 매교동 136번지가 수원에서의 나의 주소였다. 이 집에서 나는 6·25를 경험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도 입학했다. 수원성의 주산인 팔달산의 끝부리가 이 집에서는 정면으로 보였다. 집 뒤로는 광교산에서 발원한 수원천이 흘렀고, 집 앞으로는 협궤철도로 유명한 수려선(수원–여주 간)이 지나갔다.
>
> 그즈음 나와 이웃해 살던 아이들의 이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 바로 뒷집에 살던 진영이, 그 다음 다음 집에 살던 응식이, 한 집 건너 우리 앞집에 살던 세웅이, 도랑 건너 철길 옆에 살던 태춘이, 철길 너머 큰길가에 살던 광식이 …… 그리고 매교다리 쪽에 있던 두부집, 낫공장, 방앗간 ……[2]

그렇게 매교동 136번지에서 홍성원은 담금질되어 갔다.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으며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와중인 1952년 학제 변경으로 수원농림중학교는 북중학교와 수원농고로 분리되었다. 즉 6년제였던 중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어 각각 3년제로 운영되었다. 이에 홍성원은 1953년 수원북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곧바로 수원농고 축산과에 입학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수의사였던 탓에 어릴 때부터 돼지와 소 등 동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1956년 수원농고 축산과를 졸업하면서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였다.

홍성원과 수원의 인연

시기	내용
1949년(13세)	6학년 초, 수원시 매교동 136번지로 이주(수원시청 발령)
1950년(14세)	매산국민학교 졸업, 수원농림중학교 입학, 한국전쟁 발발
1952년(16세)	피난, 수원으로 돌아와 복학
1953년(17세)	수원북중 졸업, 수원농고 축산과 입학
1956년(20세)	수농 졸업, 고대 영문과 입학, 여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

그러나 1956년 중반 부친이 공금횡령죄로 구속되면서 가세가 몰락하면서 매교동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하였다. 따라서 홍성원이 수원에서 살았던 것은 7년에 불과하지만, 홍성원은 초중고를 나온 수원을 고향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 나에게 고향이라는 느낌이 드는 곳은 출생지인 합천이 아니고 성장지인 수원이다.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유년기와 소년기를 나는 바로 수원서 보냈다. 중고등학교생으로 지냈기 때문이다.[3]

홍성원은 "고향은 한 개인이 지닌 모든 정서의 근원이고 진원지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고향을 향해 짝사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사는 곳이 싫증이 나면 사람들은 그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겨 갈 수 있다. 그러나 고향이 불편하다고 해서 고향을 내버리는 재주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그만큼 고향과 우리는 질긴 끈으로 함께 동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라는 점에서 수원은 홍성원에게 각별하다. 동시에 홍성원에게 수원은 문학적 상상과 감수성의 원천이었고, 결과적으로 창작의 산실이자 고향이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학창시절 홍성원(수원박물관 제공)

고정된 이미지를 지니지 않은 햇빛이나 바람, 추위 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연상의 근원은 수원에 있었는지 모른다. 작은 동산을 작품 속에 그리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이 수원의 팔달산이었다. …… 그 외의 무수한 작품 속의 소도구들 역시 대부분은 수원에서의 삶이 늘 일차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다.[4]

고향이 늘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것은 흐르지 않는 아득한 시간 속에 고향의 여러 사물들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홍성원의 뒷집에 살던 진영이는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는 11살 소년으로 머물러 있고, 도랑 건너 태춘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는 아브라함 링컨을 닮은 근엄한 40대의 아저씨이다. 함께 겪은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한층 더 뚜렷한 표정으로 살아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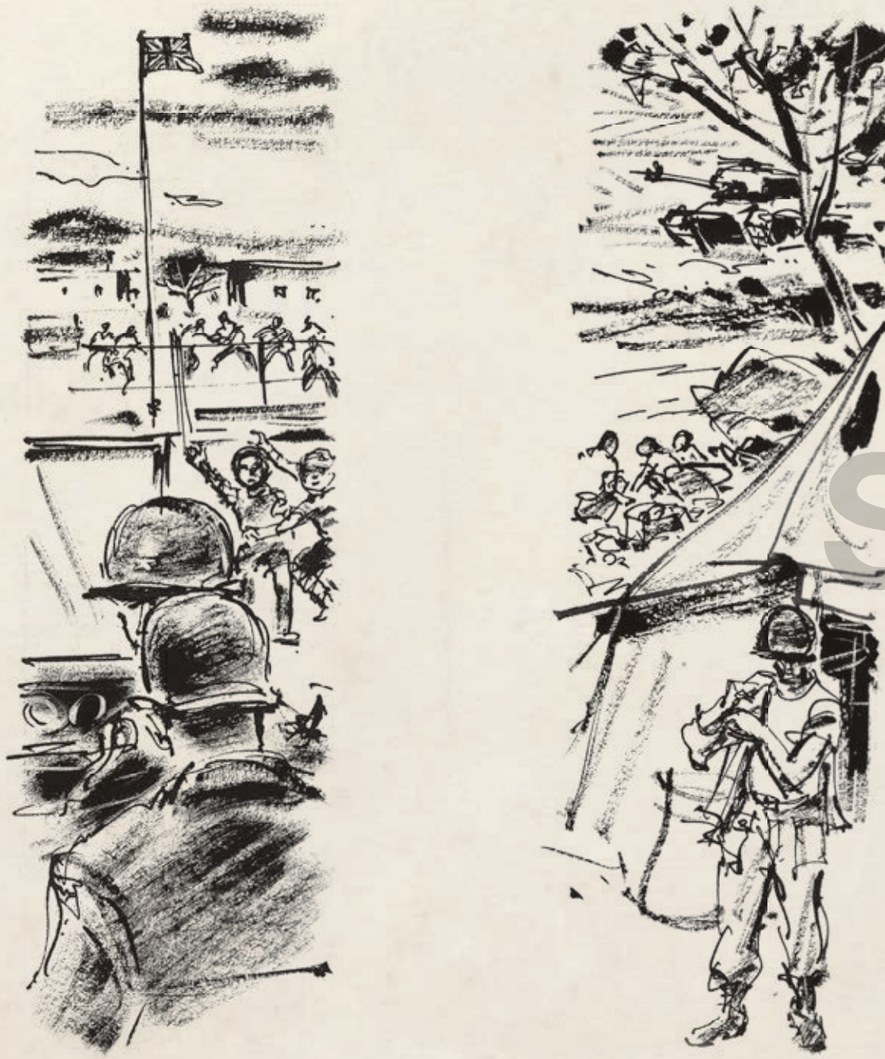
2. 매교동에서 겪은 한국전쟁 경험

당시 5년제 수원농림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맞이한 한국전쟁은 소년 홍성원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았다. 당시 전쟁을 경험한 이들에게 마찬가지였겠지만, 사춘기 소년들에게 전쟁으로 일상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죽박죽이 되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시장이 철시를 했으며 신작로에는 군인들을 태운 차들이 질주하는 모습은 낯설지만 강렬한 것이었다. 시골로 가는 들길에는 피난민들이 줄지어 남으로 내려갔고, 홍성원이 살던 매교동은 수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었기 그 기억은 더욱 생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표현대로, '괴롭고 참담하며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강렬한 체험공간은 1번국도 옆 그가 살던 매교동이었다. 당시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탱크와 전투비행기 등 처음 보는 새로운 무기들의 등장으로 더욱 선명할 수밖에 없었다.

홍성원에게 전쟁의 첫 기억은 매교동에서 올려다보이는 팔달산 능선 위로 나타난 프로펠러 비행기 2대였다. 뒤에 안 사실이지만 프로펠러 비행기는 북한군 야크기였는데, 구천동 쪽으로 저공으로 날면서 수원의 종로거리에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그들이 다시 하늘로 상승하자 어디선가 날쌘 전투기가 나타나 그들 꽁무니를 쫓기 시작하였다. 미군 전투기였다. 여러 대의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쫓고 쫓기는 보기 드문 곡예가 펼쳐졌고, 쫓기던 북한군 야크기들이 꼬리에 연기를 뿜으며 팔달산 너머로 곤두박하듯 사라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미군 전투기가 공중전에 참여한 최초의 전투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비행기 전투 장면은 당시 어린 소년들에게는 폭발적 열광을 동반한 장면으로 각인됨으로써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적 풍경들이 소년들의 눈앞에 일상적으로 펼쳐졌고, 이는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기억이 되었다.

수원중학교 맞은편 공터에서 수십 구나 널브러져 있던 퉁퉁 불어터진 악취의 시체 더미, 대동제지 옆 너른 콩밭에서 악을 쓰며 불을 토하던 인민군의 고사포 포대, 한밤에 홀연히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자던 아버지를 연행해 간 당꼬바지의 내무서원, 한 집 건너 이웃집에 살던 수다쟁이 마나님의 키가 멀쑥한 의용군 사위, 광석이네 집 툇마루에 틀어박힌 댓가지를 쪼개는 듯한 쌕쌕이의 기총소사, 주인 없는 닭 한 마리를 잡아먹은 죄로 반송장이 되어 업혀 나온 아브라함 링컨을 닮은 키떡다리 태춘 아버지, 우리 집 뒷개울 도랑창에서 응식이 형이 몽둥이로 때려잡은 한복 차림의 나이 어린 인민군 소년 패잔병, 추석을 하루 앞둔 어느 석양녘에 돌연히 큰길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홍성원 소설 『남과 북』에 실린 삽화
그림에서처럼 수원고등학교에는 영국군이 주둔하여 영국국기인 유니언잭이 나부꼈다.

나타난 유엔군 선발대 탱크, 그날 밤 수원 시내에서 벌어진 폭죽놀이 같던 시가전의 현란한 탄환들, 매교다리 방앗간 집 맞은편 골목에 탱크와 함께 꺼멓게 타죽은 인민군 전차병의 머리 없는 시체, 호박푸레기가 늘어붙은 양재기 바닥을 열심히 혀로 핥아대던 어린 아우들의 절망적인 굶주림 ……5

태장면으로 가던 논길 복판에서 갑자기 만난 쌕쌕이(제트 전투기)의 기총소사, 수원중학교 아래 밋밋한 버텅에 퉁퉁 부은 채 썩고 있던 무수한 민간인 시체들, 대동제지 옆 콩밭 고랑에서 일제히 불을 뿜던 인민군 고사포들, 민간인 옷을 갈아입으며 개천을 건너가던 까까머리 인민군 소년병, 철길 옆 개굴창에 박힌 새우젓 독 크기의 무시무시한 불발 폭탄 등 한국전쟁 동안 겪은 경험은 홍성원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이에 홍성원은 한국전쟁을 정면으로 다룬 대하소설 『남과 북』을 집필하였고, 이 소설은 고난의 한국 현대사를 추적한 거대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매교동의 랜드마크였던 매교조차 한국전쟁을 비켜 나가지 못하였는데, 매교는 1·4후퇴를 앞둔 시점에 폭파되었다. 1951년 2월 15일 파괴된 매교 옆 임시 가교를 통해 북진하는 미군 트럭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통해 매교의 파괴와 복원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검은색 표지판에는 미 65전투공병대대가 1951년 1월 6일 매교를 파괴하였다가 다시 북진하면서 1월 30일 임시로 나무다리로 재건하였다고 쓰여 있다. 아래 흰색 표지판은 미 35연대급 전투팀 제1중대가 수원에 주둔하면서 붙인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그렇게 폭파된 매교다리 옆으로 수원천을 지나가도록 나무 재료로 임시 가교가 가설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휴전 이후 대형 크레인이 와서 I 형 철재 빔(Beam)을 교각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통해 매교는 예전 위치에 시멘트 철근 다리로 재건되었다.

홍성원은 1·4후퇴 때 경남 밀양으로 내려가 영남루 뒤편의 산비탈에서 피난살이를 하였다. 이때 피난열차에서 겪은 일은 성장소설의 성격을 지닌 단편소설 「기찻길」의 모티브가 되었다. 전쟁으로 홍성원은 동생과 함께 엿목판을 메고 생존의 대열에 처음 나서 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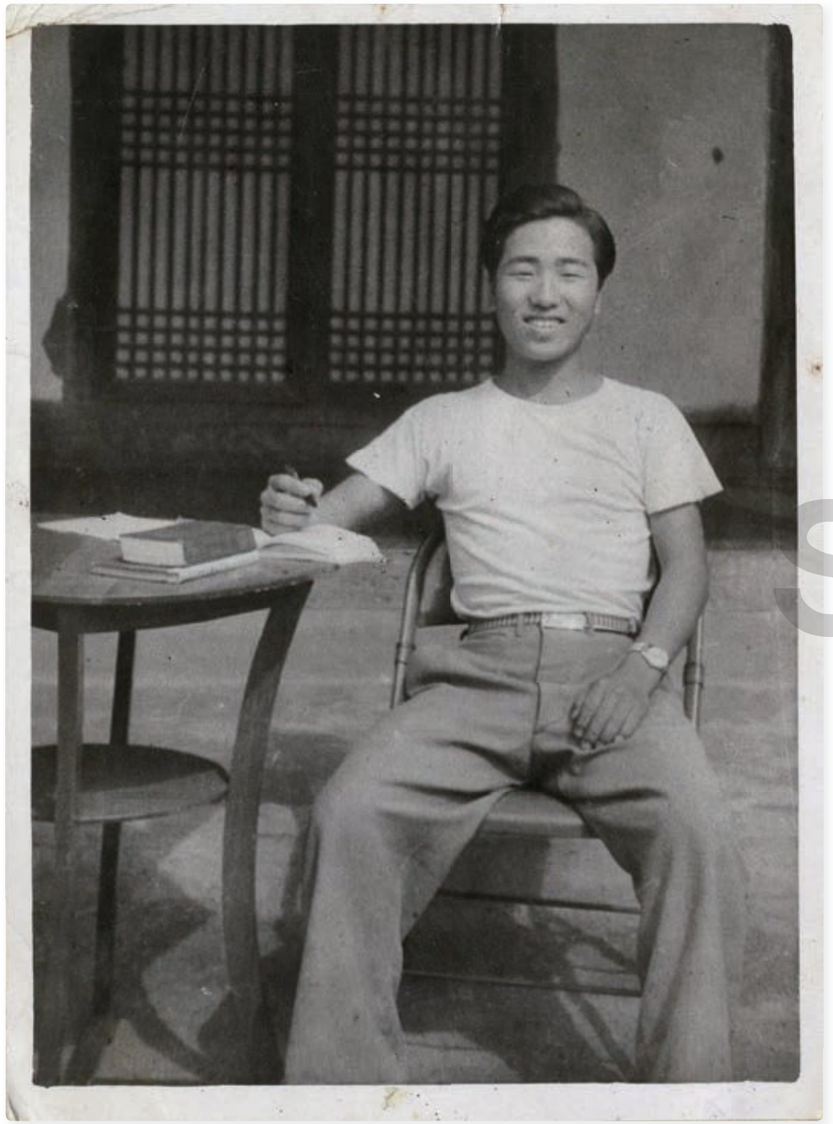
홍성원은 1952년 초 수원으로 돌아와 중학교에 복학하였고, 이듬해인 1953년 수원북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수원농림고등학교 축산과로 진학하였다. 커다란 동물들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아버지 전공이 수의였던 탓에 축산과를 지망하였던 것이다. 축산과에 들어가자 학업보다 넓은 집 뒤의 공터를 활용하여 닭과 돼지를 키우는 일에 열중하며 세월을 보냈다. 1955년 12월 초 영어 수업시간에 'Arch'를 제대로 읽지 못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국전쟁 당시 임시로 가설된 매교다리(수원박물관 제공)
사진 우측 영문 표지판에는 1951년 1월 6일 파괴되었던 다리를 1월 30일 재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RESEARCH INSTITUTE



1956년 대학 입학 후 매교동 집에서(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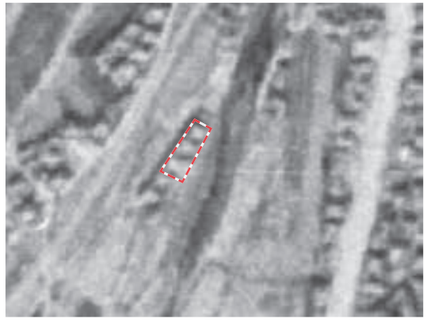


소설가 홍성원(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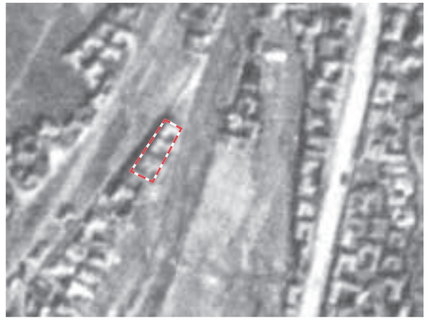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하는 수모를 당하고 두문불출하며 영어공부에 몰두하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악착같은 노력으로 1956년 수원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을 입학한 그해 부친이 공금횡령죄로 구속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다. 1956년 10월 아버지 홍차석(48세)은 수원시청 축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이상규·이원식·이종호·김원봉·이귀선 등 6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1955년 7월 16일~1956년 10월 16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도살장에서 돼지 3,230두가 도살되었으나 1,355두만 도살된



19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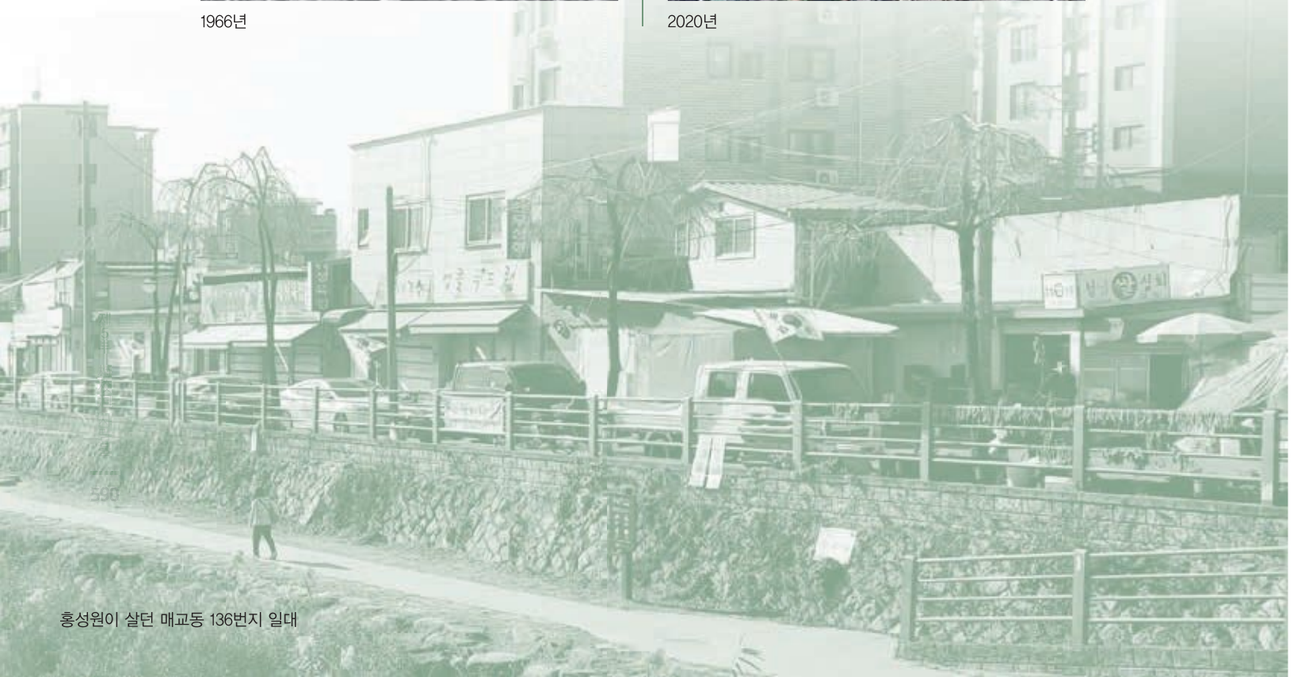
1954년



1966년



2020년



홍성원이 살던 매교동 136번지 일대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모두 1,875두 징수액(1두당 4,000환) 750만 환을 축정계 직원들이 서로 분배하여 횡령하였다는 죄목이었다.[6] 실상 아버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계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큰아들 홍성원이 서울의 유수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쁨으로 1956년을 맞이했던 가족들은 졸지에 가장의 구속과 부정한 공무원 집안이라는 눈총을 받아야 했다. 이에 가족들은 매교동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홍성원은 수원을 떠나 이후 서울에서 살았으나 그에게 수원 매교동은 고향으로써 각별한 기억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문학적 자양분으로 기능하였다.

> 뒤쪽으로 수원천을 끼고 있는 매교동의 우리 집은 하천 부지로, 버려진 유휴지를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 공터가 넓고 사료 공급이 이럭저럭 가능해서 우리의 양계와 양돈은 처음부터 부업치고 제법 큰 규모였다. 닭이 약 5백 수나 되었고 돼지는 무려 20여 두쯤 되었던 것이다.

홍성원이 살던 매교동 136번지는 상당히 부지가 넓은 집이었다. 하천 부지를 활용하여 닭과 돼지를 길렀는데, 부업으로는 제법 규모가 있는 형태였다. 닭 500마리, 돼지 20마리는 단순한 부업수준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홍성원의 매교동 136번지는 현재 매교동 136-3번지, 136-5번지, 136-7번지, 136-13~18번지, 136-21~26번지, 136-29번지 등으로 분할 등기되어 있다. 매교동 136번지는 뽕뽕다리로 불렸던 새마을교 앞쪽으로 수원천변 남쪽을 따라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 형제정육점 위쪽의 장수국수와 엉클푸드, 현우상회 등이 홍성원 생가 터이다.

3. 수원 친구들과의 교류

수원농림고등학교 총동창회와 수원북중학교 총동창회 공동으로 주관한 '작가 홍성원 초청 문학의 밤' 행사가 1986년 7월 2일 저녁 7시 동수원관광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홍성원의 북중학교 동창이었던 유동준은 북중학교 총동창회장이자 수원농림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자격으로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들은 모두 북중학교와 수원농고 동창들이다. 수원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때 홍성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남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6년 작가 홍성원 초청 문학의 밤(유동준 제공)



1991년 수원 친구들의 홍성원 집 방문

있다.

이들 유동준, 김찬기, 임상재, 김경배, 문재복, 고석화 등은 수원북중과 수원농고를 나오고 이후 서울농대, 고려대, 중앙대 등 대학을 나온 홍성원의 벗들로 수원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약국, 전문사진점 및 남문의 대형 르카프 신발가게와 국정교과서를 파는 전문서점 등을 운영하며 고향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한편 수원의 친구들은 1991년 서울 화곡동에 거주하던 홍성원 작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홍성원 집들이에 참석한 수원의 친구들은 고석화, 유동준, 김찬기, 홍성원, 이은상 등이었다. 살아 있는 벗들은 여전히 홍성원을 그리워하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홍성원, 「소리 내지 않고 울기」,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7, 254쪽.
2 홍성원, 「쌕쌕이의 기억 담긴 팔달산」,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7, 271쪽.
3 홍성원, 「쌕쌕이의 기억 담긴 팔달산」,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7, 269쪽.
4 홍성원, 「쌕쌕이의 기억 담긴 팔달산」,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7, 1997, 273쪽.
5 홍성원, 「소리 내지 않고 울기」,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7, 257~258쪽.
6 「750만환 분배횡령」, 『동아일보』 1956년 10월 2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의 보유자였던 오수복은
경기 지역 세습무계 중 하나인 해주 오씨(海州 吳氏) 출신으로 20세기의
극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경기도당굿을 전승하였다.
무당이라는 천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경기도의 굿이 갖고 있는 소중함과 문화적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온 것이다.
50년 가까이 매교동에 살며 남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했던 오수복,
그녀의 삶을 들여다본다.

이효녕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장 '매교다리 쥔네' 오수복의 무계와 삶

경기도에는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도당굿이 존재해 왔으며, 세습무계(世襲巫系) 출신의 무당이 이를 담당하였다. 경기 지역 세습무들은 1784년부터 1920년까지 경기재인청(京畿才人廳)을 조직하여 굿판은 물론, 소리판·춤판·어름판(줄타기) 등 곳곳에서 활약하였다. 지금으로 보면 뼈대 있는 예술가 집안의 연합체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의 보유자였던 오수복은 경기 지역 세습무계 중 하나인 해주 오씨(海州 吳氏) 출신으로 20세기의 극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경기도당굿을 전승하였다. 무당이라는 천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경기도의 굿이 갖고 있는 소중함과 문화적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온 것이다. 50년 가까이 매교동에 살며 남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했던 오수복, 그녀의 삶을 들여다본다.

1. '갑오 만신'의 신딸이 되다

오수복은 1924년 8월 9일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역북리에서 부친 오찬용과 모친 한언년의 장녀로 태어났다. 오찬용은 두레패에서 신명 가득한 농악놀이를 했으며, 호적도 잘 불었고 투전이나 씨름에도 능하였다. 또한 침도 잘 놓고 맥도 잘 짚던 다재다능한 인



경기도도당굿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오수복과 매교동 굿당
(최재만 제공)

물이었다. 오수복이 탁월한 총기와 무당의 자질로 경기도당굿 전승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부친의 집안내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장녀인 오수복 밑에는 오완근·오이복·오만복 등의 동생이 있었지만, 이들은 굿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수복은 "일제에게 위안부로 딸을 뺏기느니 시집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18세 무렵, 용인군 기흥면 용수골에 살던 경주 김씨 집안의 김정문에게 출가를 하였다. 그러나 노역에 끌려간 남편과 시동생이 비명횡사하자 졸지에 시어머니와 시

동생의 식구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가 그녀 나이 27세로, 과부가 된 것도 힘겨울 상황에 시댁 식구의 살림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오수복은 해수병을 앓던 시어머니와 2남 2녀나 되는 시댁 식구를 위해 떡장사, 옷장사, 기름장사와 삯바느질, 미군 기지의 빨래일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하던 어느 날, 오수복은 절구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짓찧어 손을 다치게 됐다.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그녀는 다친 손으로 독한 양잿물 빨래를 하다가 상처부위가 악화되었으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손이 커다랗게 부어오르고 말았다. 7개월이 지났으나 손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마저 손을 절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오수복의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올케가 와서 물참나무 불기운으로 '코코찜질'을 해 주었으며, 그제야 손에서 고름이 빠져나와 증상이 나아지게 됐다. 이 외에도 얼굴에 노란 꽃이 피는 병에 걸려 지네 열 마리를 세 춤씩 먹었으나 잘 낫지 않아 고생을 하였다.

오수복이 수원 매교다리 부근으로 이사를 오던 31세 무렵, 하루는 친정 6촌 언니가 찾아와 "개만도 못한 네 팔자, 왜 그런지 알아보자."고 권유하여 광화문의 이학사 할아버지에게 점을 치러 갔다. 점괘가 "입술 안에 점이 들었으니 입으로 벌어먹을 팔자요, 부채살이 끼었으니 무당이 될 팔자"라고 나왔다. 예나 지금이나 무당이 될 팔자를 쉽게 받아들일 이는 아무도 없으며, 그녀도 무당이 될 팔자라는 말에 몇 날을 울었다.

그럼에도 오수복의 몸은 계속 쇠약해져 갔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간 도립병원에서 결핵 4기의 판정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의 형편으로 약 한 첩 제대로 써 보지 못했던 그녀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극한의 상황에 놓인 오수복은 오장육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오기를 느끼며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 하겠느냐."고 다짐하였다.

그러던 중 이전에 손을 치료해 준 시어머니의 올케가 집에 찾아와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며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쳤고, 오수복의 눈에 신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시어머니 올케의 이름은 이갑오로 경기 수원 일대를 주름잡던 큰무당이었다. 이갑오는 내림굿을 해야 하니 행주치마라도 뜯어서 큰 자루 몇 개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천이 없던 오수복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속바지를 뜯어서 자루를 만들었다.

이튿날 아침 이갑오는 오수복을 찾아와 "날 따라나서면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해진다."고 독려했고, 한 발자국 움직이기 힘든 쇠약한 몸이었지만 병을 극복하기 위해 이갑오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따라나섰다. 그녀는 이갑오를 따라 여러 신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허주굿 쌀을 한 말씩 걷기 시작했고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걷힌 쌀이 모두 일곱 가마였다. 당시에 쌀 한 가마는 2,500환이었는데, 그 중 다섯 가마는 팔고 두 가마는 떡을 해서, 내림굿을 하였다.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보니,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업이었다. 오수복은 신을 받은 직후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 그때는 그저 낫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림굿을 받고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새로 제자가 나왔다고 하니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문으로 나와서 수챗구멍으로 도망을 쳤지. 그 길로 친정으로 가서 숨었어.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머리에 이고 장사를 다녔어요.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병이 나서 먹지를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가서 막걸리 사오고 공양을 새로 짓고 나물을 어떻게 준비하라." 고 했어요. 그 집에서 그것은 치성을 드리는 것인데 누가 치성을 드리냐고 묻길래 그냥 "내가 해 준다."며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모르도록 무슨 말을 중얼중얼하면서 치성을 올리고 풀어 주고 왔지. 그런데 다음 날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을 해 주는데, 내가 풀어 주고 나니까 아이가 푹 쓰러져 하루 종일 잠을 자더니 다음 날 일어나서 밥을 먹더라는 거야.

그렇게 아이 집에서 하루 장사벌이보다 몇 배의 돈을 답례로 받게 되었다. 이후 아이 집의 소개로 또 다른 집에 굿을 해 주고 나니, 수원과 평택 인근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친정집에 그녀를 찾는 발길이 늘어갔다. 오수복은 아픈 사람들을 굿으로 다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야 무당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 내가 무당이 되었구나 하고, 친정을 나서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신어머니를 찾아갔더니, 바보같이 어디 가서 자빠져 있다가 이제야 왔느냐고 아주 벼락같이 야단을 하더라구. 그렇게 야단을 맞고는 제대로 제자로 들어섰지.

결국 그녀는 내림굿만 해 놓고 이튿날로 도망을 친 시댁에 다시 돌아왔고, 자신에게 신을 내려준 이갑오를 찾아가 사죄를 한 후 본격적인 '갑오 만신'의 신딸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동막도당굿에서 본양굿을 하는 오수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경기도당굿을 배우고 계승하다

오수복의 신어머니인 이갑오는 수원 일대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고, 영동 거북산당 도당굿의 주무로서 활동했던 큰무당이었다. 이갑오는 남의 집 어린애 생일과 안방 제삿날은 물론, 환자의 죽는 날까지 꿰맞출 정도로 '용한 만신'이었으며, 당시 수원에서 얼마나 잘 불렸던지 그녀를 두고 "떴다 하면 가보, 돈 잘 번다 가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갑오는 영험하고 잘 불리기로 유명했던 탓에 경기재인청 출입이 잦았는데, 경기도당굿의 대가인 세습무 이용우(李龍雨, 1899~1987)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용우 외에도 장유순, 장희성, 임선문 등 세습무계의 출중한 악사들과도 한패를 이뤄 경기 일대의 굿판을 휩쓸고 다녔다. 오수복은 신어머니 이갑오를 따라다니면서 강신무의 굿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으며, 이 마을 저 마을 굿판을 다닐 때면, 신어머니가 푸른 솔가지를 꺾어 들고 그녀에게 무가를 가르쳐 주었다. 고갯마루를 넘고 쉬어가다, 흥



2000년 수원화성에서 시연된 경기도당굿

겹게 굿을 알려 주던 신어머니의 발림과 목구성을 오수복은 평생 잊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오수복이 43세가 되자 신어머니 이갑오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어머니와 함께 영동 거북신당 도당굿을 주관하던 이용우는 "신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네가 대신 나서라."고 제안을 하였다. 경기도당굿은 여성 무당이 굿을 주도하는 서울굿이나 전라도의 굿과 달리, '산이(또는 화랭이)'라고 불리는 세습남무와 '미지(또는 제미)'라고 불리는 강신무녀가 함께 굿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갑오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와 함께 열 곳이 넘는 경기도당굿을 담당하던 이용우는 이갑오를 대신할 미지로 오수복을 낙점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오수복은 이용우에게 경기도당굿의 절차와 무가, 춤사위, 법도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다. 이용우의 가계는 무려 11대에 걸친 세습무 집안으로 증조부 이광달, 조부 이규인, 부친 이종하까지 3대에 걸쳐 전국 무속집단을 통솔하는 팔도도대방을 맡았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기도당굿의 명가였다. 이용우는 경기도당굿은 물론, 판소리와 대금, 민속춤에 능했으며 한문의 조예도 깊었다.

옛날부터 신명은 신이 내려 줘도 재주는 무당이 익혀야 한다고 했는데, 이용우 선생님이 도당굿 사설이며 장단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 나는 또 하나 하나 익히고.

이용우는 오수복의 두 번째 스승이 되어 그녀에게 경기도당굿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는 무악(巫樂)을 연주할 때 가락을 정확하게 구사했고, 무가의 사설도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다. 무무(巫舞)의 춤사위와 버습새도 명확하였다. 특히 굿의 법도에 있어서는 매우 엄중했는데, 오수복의 증언에 따르면 굿을 보던 청중이 무당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철저히 나무랐다고 한다. 여자 무당의 가슴 쪽에 함부로 돈을 넣어 주거나 춤을 추는 척 껴안으려 하면, 연주하던 장구를 세워 버리고, "신을 모시는 일이 그렇게 함부로 해야 할 일이냐."고 하면서 서슬 퍼렇게 화를 냈다. 그만큼 엄격하게 법도를 지키고 가락에 멋이 있던 산이는 없었다고 한다.



2000년 경기도당굿을 하는 오수복

과거 굿을 하러 마을로 들어가면 짓궂은 청년들이 많아, 얼굴 예쁜 무당을 도중에 업고 도망치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럴 때면 굿패의 일행들이 나서 사라진 무당을 찾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오수복도 그러한 일을 몇 번 당했는데 이용우가 크게 화를 내고 야단을 쳐서 큰 곤욕은 치르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마을에서는 무서운 할아버지가 왔다며 두 번 다시 장난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오수복은 엄격한 스승 이용우 밑에서 굿을 학습하면서, 인천·부천·용인·시흥·화성 등의 경기도 굿판에서 활약하였다. 그녀는 서사무가 제석본풀이·성주풀이 등 장시간 구송해야 하는 무가도 능숙하게 해냈으며, 이용우와 짝을 이뤄 쌍군응을 할 정도로 수준 높은 연행 능력을 보여 주었다. 사람들은 점차 오수복을 경기도당굿을 대표하는 미지로 대우하기 시작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나는 내 이름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까막눈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총기는 타고났나 봐요. 갑오 만신 신어머니와 이용우 선생이 가르쳐 준 걸 문자 하나에서 입모양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① 당주굿
② 거리부정
③ 안반고시레(잔 고시레)
④ 부정굿(앉은부정·초부정)
⑤ 도당 모셔오기
⑥ 돌돌이
⑦ 장문잡기
⑧ 시루말
⑨ 제석(청배 및 제석굿)
⑩ 본양굿(도당할머니굿)
⑪ 터벌림
⑫ 손굿
⑬ 군웅굿
⑭ 도당 모셔다 드리기
⑮ 중굿(신장굿)
⑯ 뒷전

오수복의 경기도당굿 16거리



2004년 오수복의 진적굿

오수복은 놀라운 기억력으로 당주굿부터 시루말, 제석굿, 군웅굿, 뒷전 등 열여섯 거리를 언제든 똑같이 할 수 있었다. 정통성과 실력을 겸비한 그녀는 40대 초반부터 왕초 만신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남 보기 쑥스럽고 부담스러워 늘 눈을 감고 굿을 하였다. 그래서 오수복에게는 '눈 감는 만신'이란 별명이 따라 다녔다. 또한 수원 매교다리(매교동 114-20) 근처에 살아서 '매교다리 쥔네'라는 별호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매교다리 쥔네 사닥다리 올라가듯 한다."는 말로 그녀의 탁월한 총기와 무당의 자질을 칭찬하였다.

현재 정리된 오수복의 무가를 살펴보면 신어머니 이갑오에게 배운 강신무 무가와 11대를 걸쳐 전승된 세습무 이용우 무가가 함께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지향점에 따라 사설이 재창조된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는 오수복이 신어머니와 스승에게 배운 무가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상황과 때에 따른 무가의 작사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여 준다.



2004년 진적굿에서 제석거리를 하는 오수복



2004년 진적굿에서 호구천을 들고 있는 오수복

오수복이 50대 중반이 되던 1980년대에는 전국 각지의 굿이 전통예술로 주목을 받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오수복과 이용우도 경기도당굿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를 찾아 다녔다. 그러나 쉽게 될 것처럼 보이던 일은 좀체 진전이 없었고, 10년이라는 세월만 덧없이 흘러갔다. 경기도당굿이 문화재 지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앞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이나 음악의 예능 종목이 경기도당굿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융통성 없는 관계부처의 답변에 스승 이용우는 문화재 지정을 포기했고, 문화재로 인정받지도 못할 것을 뭣 하러 하냐며 크게 낙담하였다. 그렇게 울분을 달래러 낚시를 나가던 길에 이용우는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당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그로부터 넉 달 뒤였다.

무형문화재가 된 무당이 우리나라에 아홉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요. 그런데 그 지격증을 받아 들고 온 날, 마루에 앉아서 그렇게 울었어. 넉 달만 더 살았으면 선생님이 문화재가 되었을 건데, 또 넉 달만 지정이 빨랐어도 선생님이 이수자들을 좀 가르치고 돌아가셨을 텐데.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어쩌면 좋아. 참, 넉 달이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미 오수복의 나이도 칠순을 바라보고 있던 때였으나, 그녀는 스승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게 됐다는 죄스러움으로 눈가를 붉히며 가슴 아파하였다. 그렇게 1990년 10월, 오수복은 부천 장말도당굿의 세습무 조한춘과 함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의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오수복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되기까지 신어머니 이갑오, 그리고 스승 이용우와의 인연이 그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무당으로서 타고나야 하는 총기, 목구성, 맵시와 굿판 활동에 필요한 인맥 등 그녀가 무계 출신으로서 받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어쩌면 이갑오, 이용우와의 만남까지도 오수복이 세습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일지 모른다.



2004년 부천 장말도당굿에서 시루말을 하는 오수복

3. 해주 오씨 무계의 계보와 전승



2004년 단골들의 명다리를 옮기는 오수복

오수복과 신어머니 이갑오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갑오의 부친은 한말 협률사에서 줄타기로 유명했던 재인 이봉운(李鳳雲)이었다. 이봉운은 『매일신보』에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악기, 줄, 노래, 재담에 능한 인물인데, 현재 이봉운의 손자이자, 이갑오의 조카인 이희완이 경기무속 '노랫가락'과 '창부타령' 등을 전승하고 있다. 결국 이갑오의 집안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먼뜰에 대대로 살아온 세습무계였던 것이다.

시어머니의 올케였던 이갑오가 세습무계 출신이었고, 며느리 오수복도 세습무계였으니, 시댁인 경주 김씨 집안도 무언가 무업과 관계됐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이용우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오정숙(오귀례)도 오수복과 같은 해주 오씨 무계의 무당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오수복이 우연히 이갑오를 만나 내림굿을 받았다기보다 무언가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 일어난 결과로 느껴진다. 세습무계 집안에서 유전되는 무업의 계보성은 놀라울 정도로 얽혀 있고 긴밀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수복의 오씨 무계는 수원과 화성 일대를 중심으로 무업을 계승한 세습무가였다. 오씨 무계는 경기 지역의 다른 무계들과 인척 관계를 맺어 왔으며, 많은 산이와 미지를 배출한 세습무의 명가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오씨 무계의 가장 이른 인물은 오인학이다. 그는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아내 김본심과 함께 무업에 종사하였다. 오인학의 증손자인 현 경기도도당굿 전수조교 오진수에 의하면, 오수복은 자신의 아주머니뻘이었으며 오진수와 같은 항렬인 오마금도 오수복을 아주머니라 칭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오수복의 일가는 오인학 혹은 오상집 세대에서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

행적이 보다 뚜렷하게 확인되는 오씨 무계의 인물들은 화성 버들무지와 신외리의 도당굿을 담당했던 오필순·오용해, 수원 일대에서 만신 자매로 유명했던 오정숙과 오마금, 화성 정남면 보통리 굿당의 오옥희 일가, '매교다리 쥔네'로 불렸던 오수복, 그리고 현재 그녀의 뒤를 이어 경기도당굿의 전수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오진수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산이와 미지가 오씨 무계에서 배출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주 오씨 무계의 계보

오씨 무계의 계보를 살펴보면, 무업의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안의 많은 여성들이 경기 지역의 세습무계로 시집을 갔다. 결혼을 통해 무계 간의 인척관계가 형성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이는 곧 굿판활동과 무업승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협력체를 얻게 되는 것과 다름없었다. 또한 기예가 뛰어난 집안과의 혼인을 통해 자손들이 그 재능을 물려받는다면 세습무계로서는 가장 큰 재산을 얻는 셈이었다.

그렇게 오씨 무계와 혼인으로 맺어진 경기도의 무계 집안은 경기도당굿의 명가 이용우의 무계, 화성에서 활동한 해금의 명수 임선문의 무계, 화성 남양의 피리 명가 장씨 무계, 영종도 세습무인 전씨 무계 등이 있었다. 현재 조사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오씨 무계는 20세기 경기 세습무계 사이에서 인척관계를 가장 활발히 맺은 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오씨 무계는 경기도에서 인정받는 세습무 집안이었던 것이다.

오수복은 신어머니 이갑오, 스승 이용우와 함께 굿을 다니면서도, 친정인 오씨 무계와도 교류를 가졌다. 오수복은 오필순이 보여 줬던 굿을 생생히 증언한 바 있는데, 그가 뒷전(도당굿의 마지막 굿거리)에서 깨끔꾼 역할을 하면 눈을 뒤집어 뜨고, 구르고, 온갖 우스꽝스러운 시늉에 굿판의 모든 사람들이 배꼽을 잡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한다. 오필순은 깨끔꾼 외에도 줄타기와 피리에 능했으며, 동갑내기 조카 오용해와 함께 화성 버들무지, 신외리의 도당굿을 담당하였다.

오수복은 오정숙·오마금 자매와도 관계가 깊다. 이용우가 경기도당굿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기획했던 1986년 우이동 전씨 굿당의 도당굿에서 오수복은 오마금과 함께 굿거리를 맡았으며, 그 이전 1982년 용인 민속촌에서도 오마금과 함께 굿을 하였다. 현재 경기도당굿의 옛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때 촬영된 영상은 1980년대 경기도당굿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오마금은 신을 받지 않은 무당으로 친언니 오정숙에게 굿을 배운 세습무계 출신 학습무(學習巫)였다. 이들 자매는 수원·화성 일대에서 잘 불리는 큰무당이었다. 따라서 영상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이용우의 부인인 오정숙도 오수복과 함께 경기도당굿에서 활약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경기도당굿 전승을 위하여

오랜 세월 각 지역 세습무계들에 의해 전승됐던 경기도당굿은 1990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명맥이 경기도도당굿 보존회를 통해 유지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전승을 기대했던 보존회는 1997년과 2001년, 조한춘과 방돌근이 잇달아 타계하면서 핵심적인 전승동력을 잃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조한춘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했던 아들 조영국마저 보존회 활동을 중단하면서, 경기도당굿 산이의 전승은 심각한 단절을 겪게 됐다. 오수복은 이러한 전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필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9년 함께 굿을 하는 오수복과 오진수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의 아들인 오진수에게 경기도당굿 보존회에서 활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1947년생인 오진수는 오필순의 막내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부친을 따라다니며 굿판을 경험하고 굿을 배웠다. 20세 무렵에는 서울의 황백순으로부터 신을 받고 서울굿 굿판에서도 박수 생활을 하였다. 1970년대에 경기도 성남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후로는 서울·경기 지역을 아우르며 활동하였다. 그 무렵 오진수는 도당굿보다 주로 안택굿에서 활동했으며 오필순·오마금·오수복 등 집안사람들과 함께 굿을 다녔다. 그는 판패계 소리(판소리와 유사한 경기도당굿의 무가)에 능하며, 오필순이 했던 맹인 뒷전을 이어받은 오씨 무계의 마지막 산이다.

오수복은 이미 1990년대부터 "부친이 했던 도당굿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진수에게 보존회 참여를 종용해 온 상황이었다. 친족의 요청에도 좀처럼 나서지 않던 그는 오수복과 당시 보존회 사무국장인 하주성의 거듭된 권유로 2000년부터 보존회에 들어오게 됐다. 이어 오진수는 2006년 2월 경기도당굿 전수조교로 인정되었다. 경기도당굿 보존회가 2000년대의 위기를 넘고 2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진수를 영입한 오수복의 공이 크다. 현재 경기도당굿 보존회는 세습무의 계보를 잇는 오진수, 장영근과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신무, 무악을 학습한 비(非) 세습무 악사들이 모여 도당굿을 전승하고 있다.

오수복은 경기 안택굿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신을 받은 강신무였으므로, 마을을 위해 1년에 한 번 행하는 도당굿보다 집집마다 가정의 안녕과 재복을 빌어 주는 안택굿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또한 경기굿의 큰 스승으로서 김순덕, 김운심, 장유분, 조과연, 소명자, 고성주, 김경진 등 많은 신제자를 두었다. 하지만 이미 환갑이 가깝거나 넘긴 이들이 많아 오수복은 늘 제자들의 입지와 건강을 항상 염려했다고 한다. 현재는 그들도 칠순을 훌쩍 넘기고 있다.

> 신을 모시는 사람이 기자들을 길러야 하는 것이 본분인데, 다 장구를 배우겠다, 피리를 배우겠다, 춤을 배우겠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뿐이야. 아니면 논문을 좀 써야겠다고 찾아오는 학생들이거나. 기자를 길러야 하는데.

경기도당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도당굿을 배우기 위해 새롭게 찾아온 제자도 많았으나, 굿의 제차, 무가, 춤사위 등이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때문에 오수복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전수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대신 매교동 자택 3층에서 전수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을 가르쳤다.

> 아이고, 전수회관을 세운다 만다 한 지도 벌써 수년이오. 경기도에서도 곧 지어 준다고 했다가, 또 뭐가 탈이 났다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시에서 해 준다고 하다가 새로 시작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안 된대고. 남들처럼 굿해서 돈이라도 모아 땅을 사 놓았으면 불쑥 회관 하나 짓는 건데, 돈 모은 것도 하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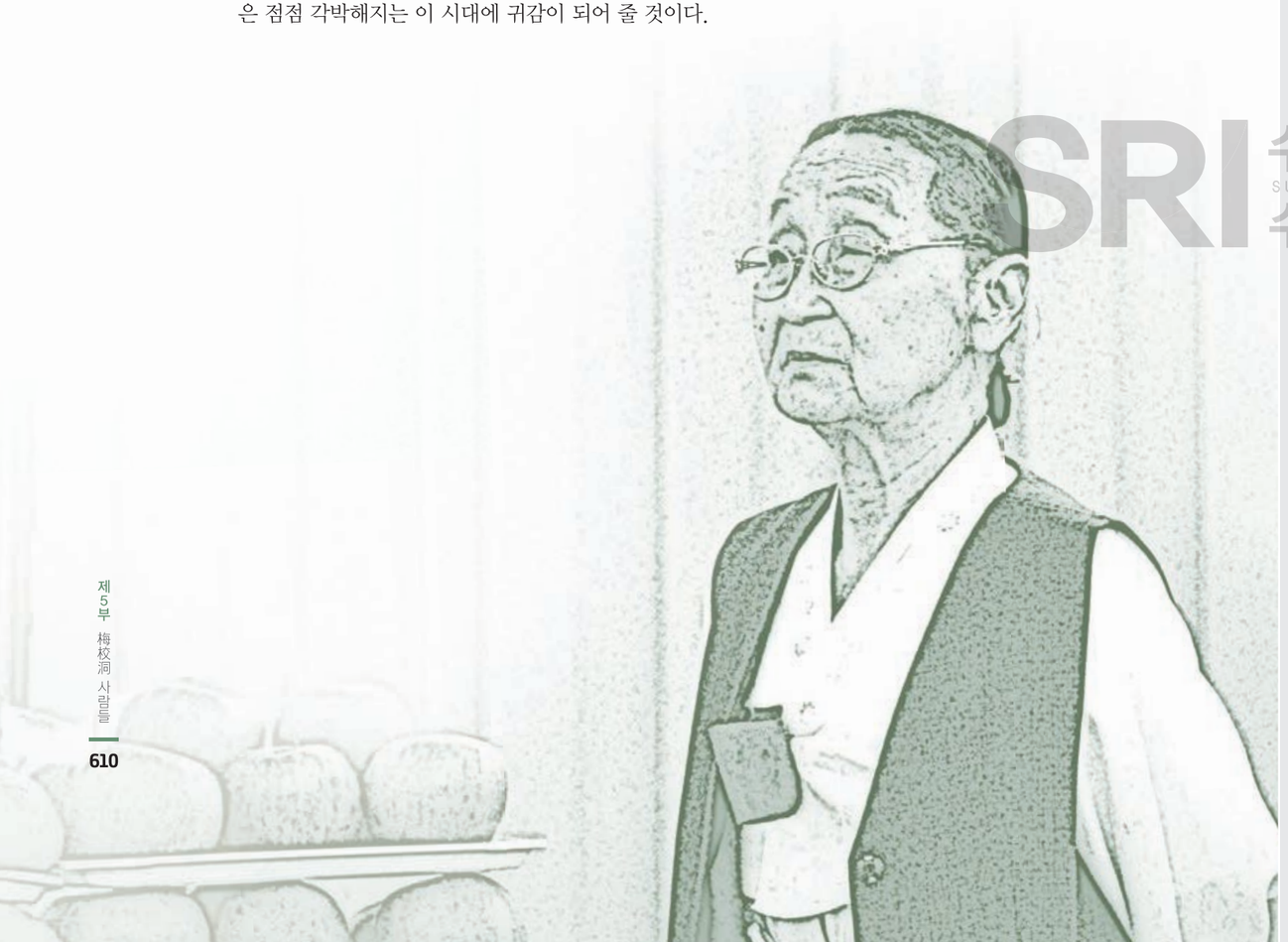
오수복은 50년 넘게 신을 모시면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옥수(玉水)를 떠서 신당에 올리고, 전안을 청소하며, 단골의 축원을 거르지 않았다. 무당으로 살아오면서 신령을 원망하거나 후회해 본 일이 없고, 한결같은 정성으로 신명을 다하였다. 이렇게 안방에 신당을 차려 놓고 지극정성으로 빌어 주는 단골집이 500가구가 넘었다고 한다. 또한 앞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나 뒤에서 동료들의 결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으며, 많으나 적으나 고마운 마음으로 수고비를 받아 제자들과 악사들에게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 일자무식꾼이 '무당질' 하다 인간문화재까지 됐으니 이제는 별 욕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장애자들과 자손 없는 노인들, 그리고 교도소에 가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고 싶어요. 돈은 많다고 잘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디다.

일생 동안 헌신과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경기도당굿의 전승을 위해 한 목숨을 바친 오수복은 2011년 12월 17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우리가 앞으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며, 무당으로서 보여 준 숭고한 희생정신은 점점 각박해지는 이 시대에 귀감이 되어 줄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경기도도당굿』,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수남·이보형·황루시, 1983, 『경기도도당굿』, 열화당.

김은식·최승훈, 2004, 「인생사만큼 긴 아홉가락 경기도 당굿-인간문화재 오수복 만신」, 『초등우리교육』.

김헌선, 1992, 「경기도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헌선, 1998, 「경기도도당굿 화랭이 연행자 연구 : 광주 이충선과 수원 오수복을 예증삼아」, 『구비문학연구』 7, 한국구비문학회.

김헌선, 1995, 『경기도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 집문당.

김헌선, 『한국 화랭이 무속의 역사와 원리1』, 지식산업사.

김헌선·시지은, 2007, 「경기도 남부 도당굿 화랭이 · 미지의 계보와 의미」, 『민속학연구』 21, 국립민속박물관.

김헌선 외, 2008, 『경기도도당굿 전수교재』 기초편·무가편, 경기도도당굿보존회.

목진호, 2006, 「경기도당굿 뒷전의 전통연희적 분석 – 동막도당굿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박양숙, 2010, 「춤사위에 흐르는 굿판의 추억 : 경기도도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오수복 예능보유자 〈인터뷰〉」, 『문화재사랑』 65, 문화재청.

변남섭, 2012, 「경기도 남부 〈제석굿〉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수원시·수원문화원, 2006, 『수원의 마을굿』.

이규원·정범태, 199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 사람』, 현암사.

이자균, 1994, 「유성기음반의 명인명창 열전 2」, 『한국음반학』 4, 한국고음반연구회.

이종숙, 2014, 「경기도도당굿 군웅거리 선굿춤 연구 : 오수복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33, 무용역사기록학회.

이효녕, 2016, 「경기도당굿 오씨 무계의 활동상과 예술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주성, 1999, 『경기도도당굿 무가』, 경기문화재단.

하주성, 1999, 『경기도의 굿』, 경기문화재단.

하주성, 1999, 『화성의 얼Ⅳ (화성군의 무속)』, 화성문화사.

화성시, 2006, 『화성시역사자료총서 3 : 화성의 민속』, 화성시.

교동을 향하는 기차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 한 마디가 유독 뇌리에 박혔다.
“멋 부리는 것을 좋아하니 이를 살려 양품점을 해 보아라.”
최영순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결심하였다.
‘그래, 방에서만 옷을 팔 게 아니라 양품점을 해 보자.’
어머니는 대구에 양품점을 차려 줄 테니 이참에 내려와서 장사를 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교동에 인연이 있는 것 같았다.
세류로 입구 근처 매산로 근처에 자리를 마련했고, 그것이 바로 코코양품점이다.

주애솔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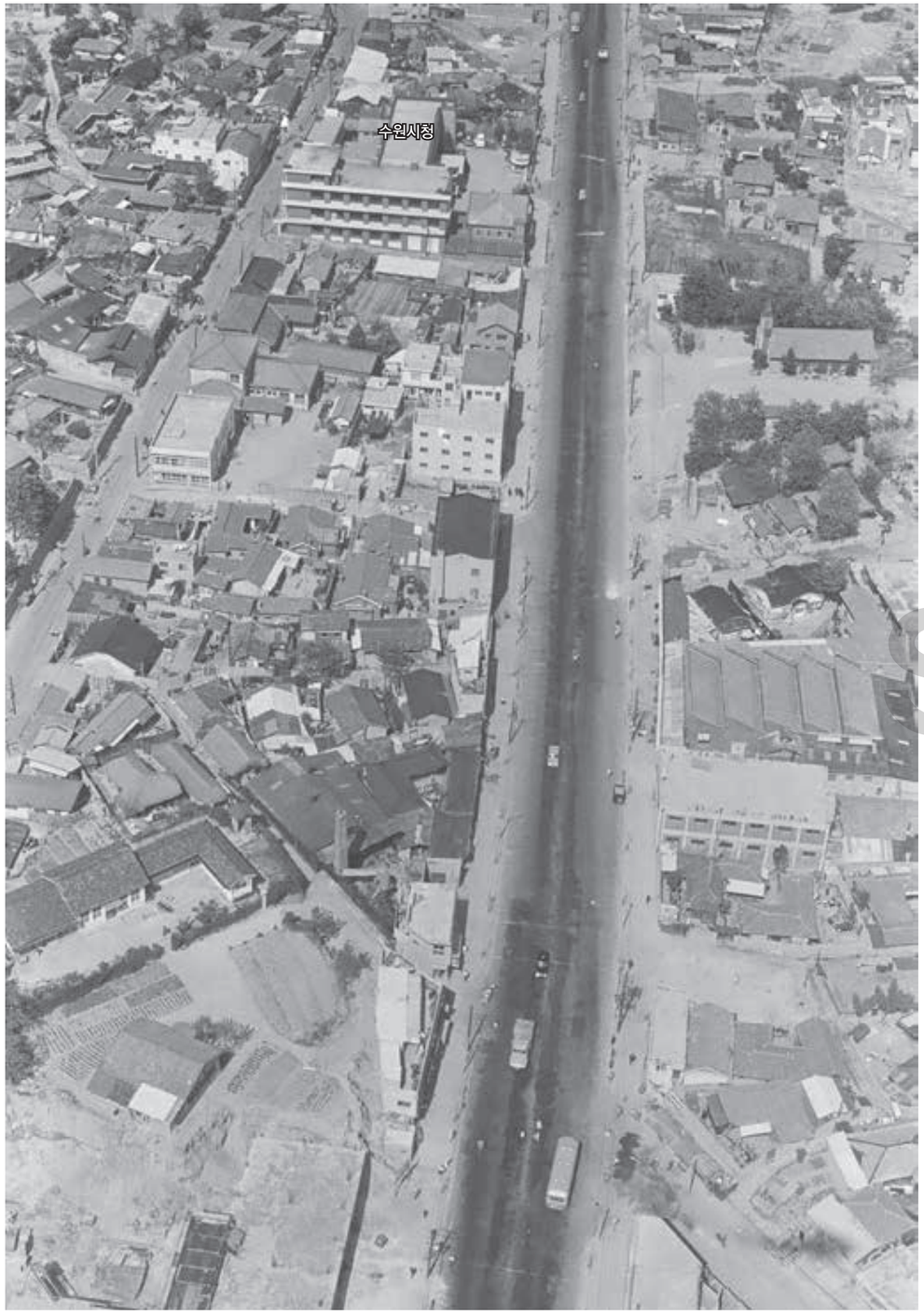
4장 대구 처녀 최영순의 교동 정착기

1. 대구 처녀, 수원 교동으로 오다

최영순은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주 최씨 집안의 딸로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다. 유년 시절 부모님은 ‘씻긴 물도 아깝다.’며 사랑으로 딸을 키웠다. 그러나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줄을 누가 알았을까.

어느 잔칫날이었을 것이다. 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최영순의 올케 되는 사람이 쌍둥이를 배었다고 했다. ‘쌍둥이 큰고모’ 소리가 듣기 싫고 어쩐지 집에 있기가 창피하였다. 어쩌면 출가할 구실이 필요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향하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이 대위라는 사람과 연분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 바가 없는 가족들은 사람을 찾는다며 대한민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최영순을 찾는 소식이 대구 지역신문에도 실렸다고 했다.

1972년 교동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대구에서 가지고 올라온 돈으로 방도 얻었지만 당장 먹고살 게 막막하여 구몬 학습지 교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문득 옷을 팔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부터 멋을 부리거나 예쁜 옷 입기를 좋아한 덕분일 것이다. 새로나 아동복 옷을 떼어다가 방 한구석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출산율이 높아 2부제, 3부제 수업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 수완이



최영순이 수원에 왔을 당시 교동 매산로(1971년, 경기도청 제공)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어느새 교동이 익숙해질 무렵, 문득 본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나왔던 때와 마찬가지로 급작스럽게 대구를 찾았다. 그렇게 방방곡곡 찾아 헤맸던 딸이 돌아오자 집에서는 놀란 기색이 역력하였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부모님은 일단 홀어머니에 외아들인 이 대위와의 결혼을 반대하였고, 차라리 중매를 설 테니 시집을 가라고 했다. 며칠 동안 시집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도로 교동으로 올라왔다. 원래부터 본가로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기에 미련은 없었다.

교동을 향하는 기차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 한 마디가 유독 뇌리에 박혔다. "멋 부리는 것을 좋아하니 이를 살려 양품점을 해 보아라." 최영순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결심하였다. '그래, 방에서만 옷을 팔 게 아니라 양품점을 해 보자.' 어머니는 대구에 양품점을 차려 줄 테니 이참에 내려와서 장사를 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교동에 인연이 있는 것 같았다. 세류로 입구 근처 매산로 근처에 자리를 마련했고, 그것이 바로 코코양품점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코코양품점 주인으로 교동에 정착하기까지

최영순을 아는 이라면 누구나 단번에 그가 "멋 부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한 남자 못지않은 훤칠한 키에, 길쭉길쭉한 손끝에는 꽃분홍색 손톱, 화려한 장신구도 여럿이다. 성향상 양품점 일은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짙게 들었고, 마침 아동복 판매를 했던 경험도 있었다.

양품점 손님은 주로 교동 사람들이었다. 형님뻘 되는 사람, 그들의 며느리 되는 사람들, 친구들 너나 할 것 없이 방문하여 옷을 샀고, 아침에는 주로 근처 한국전력공사나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스타킹을 사러 왔다. 특히 이 스타킹 장사가 참 재미있었다. 여름에도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주변 가게에서는 스타킹을 팔지 않아서인지 수입이 꽤 좋았다. 출근하는 사람들보다 일찍 문을 열어 놓아야 하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단장을 하고 더욱 서둘러 출근을 했다.

한바탕 스타킹 장사를 끝내고 나면 오전 10시 즈음이 되었다. 그러면 가게 문을 얼른 닫고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옷을 사러 갔다. 움직이지 않아도 걸음이 떼어질 정도로 동대문은 늘 문전성시였다. 자주 가니 단골집이 생겼고, 그새 오는 시간을 익혔는지 최



1980년대 수원시청과 한국전력 수원지점(수원박물관 제공)



최영순이 운영하던 코코양품점 자리(1990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영순이 살 만한 옷가지들을 남겨 놓았다. 주로 티셔츠, 바바리코트, 바지 등의 여성복을 취급하였다. 물론 장을 본 것은 전부 혼자 들고 왔다. 시원시원한 골격만큼 힘이 아주 셌고 건강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팔달산이 뻘뻘 기어가도 이긴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수원에 돌아오면 점심을 먹고 오후 장사를 했다. 아무리 바빠도 자장면은 먹지 않았다. 입이 까다로워 밥은 꼭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양품점 한구석에는 몸을 눕힐 수 있는 자그마한 평상이 있었다. 그러나 차가 왕래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청하지는 못하였다. 가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늦어 자고 가는 경우는 더러 있었다.

코코양품점 주변에는 노래방, 중국집, 호프, 제과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중 특히 제과점인 '조박사빵집'과 친하게 지냈다. 사장 이름이 조봉형이라서 조박사빵집으로 이름 지었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최영순의 아들과 조박사빵집의 아들은 함께 매산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조박사빵집은 부지런히 장사하여 빌라도 두 채나 장만하였고, 현재는 금곡동으로 이전하였다.

양품점의 판매원칙은 박리다매로 삼았다. 당시 돈으로 대략 바바리코트는 3,000원,

바지와 치마는 2,000원, 티셔츠는 500원 정도를 남겼다. 직접 떼 오는 옷들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히 티셔츠가 정말 예뻤다. 박리장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러 옷을 사 갔고 외상은 절대 없었다. 외상 장부 자체가 없었을뿐더러, 혹시라도 물건을 먼저 가져간 이들은 꼭 다음 날 찾아와 돈을 주었다. 아무리 박리장사였어도 하루에 3만 원은 벌었다. 가겟세로 한 달에 3만~4만 원 정도를 냈으니, 하루 팔아 남기는 돈이 1달치 월세가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가겟세도 내고, 생활비도 충당하고, 돈놀이도 했다. 장사가 잘되니 건물주가 세를 올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코코양품점 운영을 했던 것은 1980년대로, 주변 사택에서 살던 교장들이 동네를 떠나던 시기이기도 했다. 워낙 30년도 훌쩍 넘은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있다. 한 번은 생면부지의 손님이 와서 옷을 입어 보더니만, 다음에 와서 돈을 줄 테니 그 옷을 입고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차림새를 보아하니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필 고른 옷도 소재가 좋고 값비싼 티셔츠였다. 그냥 입혀 보내어 손해를 볼 생각으로 비교적 저렴한 옷을 권해 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티셔츠를 고집하였다. 그이는 결국 티셔츠를 입고 갔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고장 난 카메라를 맡겨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양품점이 있던 매산로는 당시 수원시의 번화가여서 그런지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고 시끄러운 편이었다. 종종 건달들이 주변 상인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나 양품점 운영은 참 재미있었다. 하지만 최영순에게는 충분치 않았던 것인지 점점 이곳이 나의 종착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기왕 생각했으니 행동으로 옮기자 결심하였고, 그 당시 다니던 고등동성당의 자매님에게 가게를 넘겼다. 주변 사람들이 결혼 적령기라고 떠들어대기도 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도 딱히 없는데다가 그럴 바에는 해외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일본에 가서 살 생각으로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다. 최영순에게 일본어는 비교적 친숙한 언어였다. 어린 시절 최영순의 부모는 종종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자식들 몰래 비밀이야기를 나눌 때나 서로 다툴 때 일본어를 사용하곤 했는데, 이를 계속 듣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씩 알게 된 것이다. 또 교동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던 할머님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 수원여고를 다닌 교양 있는 분으로 아들이 교장을 역임하여 사택에 거주하면서 '난피아노'라는 개인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운이 좋게도 마침 일본어를 할 줄 알았으며 최영순과 대화 나누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다. 댁에 찾아갈 때마다 일본어와 일본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가끔은 어렸을 적 어머니가 했던 일본어의 뜻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일본어까지 배워 가며 새로운 선상에 오르고자 했던 최영순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다음 항해지가 일본인 줄로만 알았을 것이다.

3. 크리스티나와 요셉의 황혼 결혼

최영순은 매교동성당의 지인과 종종 팔달산을 올랐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탁 트여 답답한 마음이 가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지인은 누군가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최영순과 그 사람이 꼭 만나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수원시



최영순이 결혼식을 올린 고등동성당(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부인과 사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게 만나 본 남편은 열 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참 정직했고, 한 마디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유년 시절 최영순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그래서인지 남편에게 아버지 같은 모습이 보일 때면 그 모습이 참 듬직하고 다정해 보여 좋았다. 최영순은 살면서 딱히 외롭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인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을 소개받은 후 오랜 생각이 바뀌었고, 1989년 고등동성당에서 혼례식을 올렸다. 어려서부터 최영순은 성당에 다녔고 세례명은 크리스티나였다. 남편도 천주교 신자였고 세례명은 요셉이었다.

남편은 최영순의 준수한 외모에 끌렸던 듯하다. 하루는 함께 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결혼 전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하며 연락처를 적어 준 쪽지였다. 당시 남편은 안산시 사리 바닷가에 회를 먹으러 가자는 둥 점심을 먹자는 둥 서너 번 쪽지를 주었으나 최영순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면이 남편에게는 호감으로 다가온 듯하다. 남편은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보더니 "이때 당신이 덜컥 수락했더라면 결혼은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최영순이 남편의 쪽지를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것을 보면 둘은 어떻게든 닿을 인연이었던 모양이다. 남편이 최영순을 만난 것은 정년퇴직 직후이다. 당시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외모나 재력 등 남편이 가진 조건이 뛰어났다. 그래서인지 공무원 재직 중일 때 상처한 사실을 알고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도 나름 눈이 높아서 재혼 상대를 면밀하게 고르던 중 최영순을 만난 것이다.

마흔이 넘어서도 독신으로 살던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대구 본가에서는 한 마디로 경사가 났다. 올케는 나이 든 시누이가 결혼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다이아몬드 반지, 가죽 구두, 밍크코트, 악어 가죽가방 등 고가의 결혼선물을 덜컥 건네기도 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앓던 이가 빠진 느낌'이려니 했다.

4. 금옥처럼 낳아 기른 늦둥이 자식

결혼하고 다음 해인 1990년에 아들을 낳았다. 40대에 초산으로 아이를 낳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노산이 주는 행복의 무게인 듯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 아들 사랑이 남달랐다. 그만큼 동네에서도 최영순이 아들을 낳고 키운 이야기는 유명하다.



남편과 늦둥이 아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온종일 앉아 책만 읽을 때면 "책 좀 안 읽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다. 집에도 책이 있었지만, 팔달산의 시립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많이 읽었다. 또 아들은 부모에게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고 꼭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다. 어찌나 예의가 바른지 수원시민회관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으로 수여하는 모범어린이 상도 받았다. 웅변대회에서는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최영순은 아들이 10살이 될 때까지 수수팥떡을 맞추어 뷔페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주었다. 아들 친구들은 물론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까지 족히 50~60명은 초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또 아들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때도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을 냈다. 교장 선생님부터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모두 모셔 대접하는 비용으로 100만 원은 기본이었다. 저녁 식사부터 유흥까지 풀-코스로 대접한 후 택시비까지 챙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최순영의 아들이 다녔던 매산초등학교

정도의 융숭한 접대였다.

아들이 매산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담임선생님은 최영순에게 학부모회 대표를 제의하였다. 최고령이기도 했고 여러 조건이 대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 것이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최영순은 열과 성을 다하여 학부모회 활동을 했다. 학교 행사에 필요한 단체복을 맞추거나 학부모 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판공비를 썼지만, 사비를 쓴 적도 많았다. 하지만 간혹 마음은 고되더라도 돈 걱정만큼은 딱히 하지 않았다. 이는 순전히 남편의 재력 덕분이었다. 남편은 원체 용인에 땅이 많은 부잣집 출신이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산 아래는 양천 허씨(陽川 許氏)의 집성촌으로, 그 일대 땅이 대부분 허씨 집안 소유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또한 무시하지 못하였다. 이런저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 가운데 최영순을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놓고 내색하지는 못하였다. 아무리 보아도 최영순은 대표 자리에 어울렸다. 본인이 사양하더라도 주변에서는 늘 감투를 씌우곤 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하루는 매산초등학교에서 "빨리 학교로 좀 오세요."하며 전화가 왔다. 일제강점기에 매산초등학교를 다녔던 일본 사람들이 학교를 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학교에 와서 그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대접을 좀 하라는 것이다. 다행히 예전에 익혀 두어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았다. 급히 학교에 갔더니 아들이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다. 간단히 아는 체를 하고 학교 건물로 들어서자 학교 선생들과 일본인 부부가 최영순을 반겼다. 예를 갖추어 "하지메마시떼(はじめまして)" 하며 인사를 건네는 최영순을 보더니만 "치-사이요(小さいよ)"라고 했다. 작은아들이 있냐는 말을 건네는 듯하였다. 아마도 운동장에서 아들과 인사한 것을 본 모양이었다.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옛날에 철봉이 놓인 자리가 그대로라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이 지나자 부부는 기부금을 좀 내고 싶다고 하였다. 바로 교무주임님에게 방명록을 가져오시라고 하여 금액을 적었다. 식사도 직접 대접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판공비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부부를 수원역 앞에 바래다주는데, 만 엔짜리 두 장을 호주머니에 넣길래 한사코 거절하며 실랑이를 한참 하였다. 자신의 명함을 주며 일본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했고, 귀국한 후로도 종종 편지나 선물을 보내 왔다.

아들은 삼일중학교에 배정되었다. 매산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삼일중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중학교 가운데 한 곳으로 배정되었는데, 대부분 삼일중학교에 배정되었다. 보통은 도보로 통학을 했고 더러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최영순은 삼일중학교에서도 학부모회 활동을 부지런히 했다. 그러나 사춘기를 맞이한 아들은 이전처럼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더는 어머니의 간섭을 받기 싫은 모양이었다. 게임에 빠져 학교 공부도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한다고 했다. 부모의 바람과 달리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20대가 된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필요한 돈을 직접 벌어 썼고 부모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았다. 집의 도움은 일절 받고 싶지 않은 듯하였다.

아들이 군에 있을 때 부대에서는 '부모 소견서'라고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 년에 몇 번 부대로 보내게끔 했다. 최영순은 소견서에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웅변을 하고 인적자원부에서 장관상 2개를 받아 미국을 다녀왔다는 등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음을 다해 편지를 적어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지 않을 정도로 고생시켜 달라."고 적었다. 고생을 해 봐야 철이 든다고 생각한 것이다. GP가 안 되면 GOP라도 보내 달라고 했더니 정말 GOP를 갔다. 면회를 간 것도 딱 두 번뿐이다. 그 대신 아들은 휴가를 자주 나왔다.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나오나 했더니, 총을 잘 쏴서 포상휴가를 나오는 것이었다. 예전에 가끔 원천유원지를 놀러 가면 총을 쏴서 인형 뽑는 놀이를 하곤 했는데, 아

무도 못 맞추는 인형을 나와 아들은 잘 맞췄다. 어느 날은 겨울에 휴가를 나왔는데, 가만 보니 아들의 코가 아주 빨갰다. "크리스마스라고 코가 빨개져 왔니?"라며 농담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귀까지 꽁꽁 얼어 있었다. 어쩐지 모든 것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최영순은 군에서 제대한 아들에게 다시금 대학을 가보자고 했다. 이전에 웅변했던 것을 살려 대회에 나가면 충분히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을 테니, 수시로 대입에 도전해 보자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대학은 내가 필요할 때 가겠다."며 이야기를 피하였다. 최영순은 반짝이던 아들의 능력이 너무나도 아까웠다.

아들은 평범하지 않은 부모의 결혼생활을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하였다. 어느 날은 왜 인물도 잘생기고 가질 것 다 가진 어머니가 저렇게 나이 먹은 양반과 결혼했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내심 당혹스럽기도 했으나, 최영순은 남편이 웬만한 젊은 아빠들보다 몇 배는 준수하다고 생각하였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와 뜻이 전부 같지는 않았다. 지금도 최영순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고, 어쩌면 아들과 자신은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아들은 올해 서른으로 독립을 한 미혼이다. 혼자 사는 엄마에게 과하게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줄곧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아들이 최근 돌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여 최영순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종종 보석을 사주던 것을 보아서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엄마가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어머니, 어머니" 하던 아들은 어느새 훌쩍 커서 이제 최영순을 '최 여사'라고 부른다.

5. 송두리째 도둑맞은 교동에서의 추억

최영순은 최근에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다. 교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하였다. 그런데 입원한 사이에 도둑이 들어 집안 물건을 몽땅 쓸어 갔다. 이주를 앞두고 짐을 대충 정리해 둔 상태였는데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 짐을 그대로 실어간 듯하다. 몇 군데 나눠서 보관한 패물은 물론이고 아들이 어렸을 때 받은 트로피, 양주, 꿀 같은 것도 가져간데다가 심지어는 3층 창고에 있던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까지 가져갔다. 아무래도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인 듯싶다. 이삿짐이기에 당연히 귀중품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장 입을 옷도 없어서 옷까지 새로 장만해야 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사진앨범 따위에 담긴 소중한 추억마저 송두리째 도둑맞았다는 사실이다.

교동이 팔달6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최영순은 많은 힘을 보탰다.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설립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거의 최영순이 도맡다시피 했다.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물러난 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젊어서부터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 하던 경력이 있어 그런지 새로운 감투 또한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10년 정도 재개발사업 관련 일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다른 사람 얼굴처럼 보일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기도 했다. 최영순은 현재 교동 집을 떠나 세류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재개발조합 이사직을 맡아 일을 하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집필위원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류형원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송민정 화성시문화재단 과장
송지영 강원대학교 강사
유상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유선영 이천문화원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이경묵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이승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수 수원시의회 전문위원
이진희 시인
이효녕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정명림 작가
정민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
정채연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조항인 강원연구원 연구원
주애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기획·편집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16 –

매교동

개발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기억을 모으다

발 행 일 : 2020년 12월 30일
발 행 처 : 휴먼시티수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제작 및 인쇄 : 경인 M&B(전화 031-231-5522~7)
발간등록번호 : 11-B552980-000011-01
ISBN : 979-11-90343-98-5 93910
ISBN : 979-11-90343-99-2 (세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